



한국아동패널 2008~2020 심층분석 연구

조숙인·김지현·이상인·송경희·최효식·송주현·김재철·김희수

한국아동패널 2008~2020 심층분석 연구

저 자

조숙인, 김지현, 이상인, 송경희
최효식, 송주현, 김재철, 김희수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조 숙 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지 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이 상 인 (충남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송 경 희 (우석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최 효 식 (춘천교육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송 주 현 (연세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김 재 철 (한남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김 희 수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2-14

한국아동패널 2008~2020 심층분석 연구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인 박상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주)승림디엔씨 02) 2271-258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6865-031-2 93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리말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도 출생 아동의 성장, 발달,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정책 등 환경의 영향을 조사하는 대규모 종단데이터로 2022년 현재 12차 자료까지 일반에 공개되어 다양한 부문에서 활용되고 있다. 본 심층분석 연구는 2008년(1차)부터 2020년(13차)까지의 자료를 기반으로 한국아동패널 아동의 초등학교 시기까지의 주된 성장발달 주제와 미래세대 생애과제에 대해 살펴보고,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새롭게 시작한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구축과 관리에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심층분석 연구에서는 13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표본이탈 패턴을 아동 연령 시기별로 구분하여 연령별 패널 이탈 방식을 위한 제안을 제시하였다. 패널을 유지 관리하는 일은 한국아동패널 뿐만 아니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관리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관련된 시사점을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또한, 본 연구가 아동, 부모, 가구, 정책으로 구분하여 아동 발달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을 공통적으로 이용하여 종단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아동패널을 활용하는 연구자들에게 대상-중심 접근 방식에 대해 효과적으로 안내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심층분석 연구가 진행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준 공동 연구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특히, 한국아동패널에 애정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아동패널의 미래를 준비하는 뜻깊은 학습의 자리가 마련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본 연구가 한국아동패널의 지속적 발전과 이용 확산을 촉진하고 추후 육아정책 마련에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되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22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 상 희



요약	1
----	---

I.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2. 연구내용	16
3. 연구방법	17
4. 선행연구	22
5. 연구범위	30
II. 한국아동패널 표본이탈 분석	33
1. 표본이탈 패턴	35
2. 표본이탈 패턴 유형별 특성 비교	39
3. 표본이탈 패턴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52
4. 소결	56
III. 미디어와 사회성 발달	59
1. 미디어 이용과 사회성 발달 양상	61
2. 미디어 이용에 따른 집단유형화	65
3. 영유아기 미디어 이용이 아동기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68
4. 소결	75
IV. 부모 양육과 아동 발달	81
1. 아동 발달 시기별 부모 양육과 양육 환경	83
2. 영유아기 부모의 부부갈등에 따른 집단유형화	90
3. 영유아기 부모의 부부갈등이 아동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	98
4. 소결	112

V. 가구 내 위험요인과 신체·정신건강	115
1. 가구 내 위험요인	117
2. 영유아기 어머니 우울에 따른 집단유형화	125
3. 영유아기 어머니 우울이 아동기 신체·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135
4. 소결	142
 VI. 한국아동패널과 육아정책	 149
1. 2008~2020 육아정책 흐름	151
2. 한국아동패널 육아정책 영향 분석	173
3. 소결	198
 VII. 결론 및 시사점	 201
1. 결론	203
2. 시사점	205
 참고문헌	 211
Abstract	231



표 목차

〈표 Ⅰ-3- 1〉 전문가 자문회의 추진	19
〈표 Ⅰ-3- 2〉 지식공유 동료멘토링 추진	19
〈표 Ⅰ-3- 3〉 외부 공동연구진 명단	20
〈표 Ⅰ-3- 4〉 공동연구진 회의 추진	20
〈표 Ⅰ-3- 5〉 연구성과 세미나 개최	21
〈표 Ⅰ-4- 1〉 한국아동패널 심층분석 선행연구 요약	23
〈표 Ⅰ-4- 2〉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논문 변수: 2017~2020년 발간 논문 기준	29
〈표 Ⅱ-1- 1〉 아동패널 각 차수별 응답자수 및 원표본 유지율	36
〈표 Ⅱ-1- 2〉 아동패널 표본이탈 사건계열별 빈도	37
〈표 Ⅱ-2- 1〉 표본이탈 유형 집단별 비교: 아동 특성	40
〈표 Ⅱ-2- 2〉 표본이탈 유형 집단별 비교: 모의 특성	41
〈표 Ⅱ-2- 3〉 표본이탈 유형 집단별 비교: 부의 특성	43
〈표 Ⅱ-2- 4〉 표본이탈 유형 집단별 비교: 가구 특성	44
〈표 Ⅱ-2- 5〉 표본이탈 유형 집단별 비교: 거주지 특성	46
〈표 Ⅱ-2- 6〉 기타 영향 변인: 모의 특성	47
〈표 Ⅱ-2- 7〉 기타 영향 변인: 부의 특성	49
〈표 Ⅱ-2- 8〉 기타 영향 변인: 부부 특성	50
〈표 Ⅱ-2- 9〉 기타 영향 변인: 아동 특성	51
〈표 Ⅱ-3- 1〉 변인별 결측치 개수 및 비율	53
〈표 Ⅱ-3- 2〉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 추정결과	53
〈표 Ⅱ-3- 3〉 포아송 회귀모형 추정결과	55
〈표 Ⅲ-1- 1〉 미디어 이용정도-상세	64
〈표 Ⅲ-2- 1〉 학령기 미디어 이용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수 적합도 및 분류율 비교	67
〈표 Ⅲ-2- 2〉 학령기 미디어 이용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비교	67
〈표 Ⅲ-3- 1〉 학령기 미디어 이용 발달궤적 프로파일의 영향 요인	73
〈표 Ⅲ-3- 2〉 학령기 미디어 잠재집단에 따른 아동 사회성발달 차이	74
〈표 Ⅳ-2- 1〉 모의 부부갈등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비교	92

〈표 IV-2- 2〉 부의 부부갈등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비교	92
〈표 IV-2- 3〉 모가 인식한 부부갈등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수 적합도 및 분류율 비교	93
〈표 IV-2- 4〉 부가 인식한 부부갈등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수 적합도 및 분류율 비교	94
〈표 IV-2- 5〉 모의 잠재집단별 월 평균 가구 소득 차이	96
〈표 IV-2- 6〉 모의 잠재집단별 모 학력 분포 차이	96
〈표 IV-2- 7〉 모의 잠재집단별 거주 지역 분포 차이	96
〈표 IV-2- 8〉 부의 잠재집단별 월 평균 가구 소득 차이	97
〈표 IV-2- 9〉 부의 잠재집단별 부 학력 분포 차이	97
〈표 IV-2-10〉 부의 잠재집단별 거주 지역 분포 차이	98
〈표 IV-3- 1〉 모의 잠재집단에 따른 아동의 학업수행능력 차이	102
〈표 IV-3- 2〉 모의 잠재집단에 따른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 차이	103
〈표 IV-3- 3〉 모의 잠재집단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 차이	104
〈표 IV-3- 4〉 모의 잠재집단에 따른 아동의 삶의 만족도 차이	104
〈표 IV-3- 5〉 모의 잠재집단에 따른 아동의 학교적응 차이	106
〈표 IV-3- 6〉 부의 잠재집단에 따른 아동의 학업수행능력 차이	108
〈표 IV-3- 7〉 부의 잠재집단에 따른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 차이	108
〈표 IV-3- 8〉 부의 잠재집단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 차이	109
〈표 IV-3- 9〉 부의 잠재집단에 따른 아동의 삶의 만족도 차이	110
〈표 IV-3-10〉 부의 잠재집단에 따른 아동의 학교적응 차이	110
〈표 V-1- 1〉 한국아동패널 1~13차 자료의 아동 발달 시기별 위험요인 구분	120
〈표 V-2- 1〉 영아기 모 우울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수 적합도 및 분류율 비교	129
〈표 V-2- 2〉 영아기 모 우울 잠재프로파일별 분류 비율과 모수 추정치	130
〈표 V-2- 3〉 유아기 모 우울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수 적합도 및 분류율 비교	131
〈표 V-2- 4〉 유아기 모 우울 잠재집단 분류 비율과 모수 추정치	132
〈표 V-2- 5〉 영아기 모 우울 잠재집단별 가구 특성	133
〈표 V-2- 6〉 유아기 모 우울 잠재집단별 가구 특성	134
〈표 V-3- 1〉 8차와 13차년도 알레르기 관련 질환 항목별 발병률	137
〈표 V-3- 2〉 알레르기 관련 질환 진단 여부 총점 분포	138

〈표 V-3- 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139
〈표 V-3- 4〉 영아기 모 우울 잠재집단에 따른 아동 신체·정신건강 특성 차이	140
〈표 V-3- 5〉 유아기 모 우울 잠재집단에 따른 아동 신체·정신건강 특성 차이	141
〈표 VI-1- 1〉 정부의 육아정책 관련 주요 기본계획	151
〈표 VI-1- 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153
〈표 VI-1- 3〉 종장기보육 기본계획	155
〈표 VI-1- 4〉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157
〈표 VI-1- 5〉 아동정책 기본계획	158
〈표 VI-1- 6〉 건강가정 기본계획	160
〈표 VI-1- 7〉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162
〈표 VI-1- 8〉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163
〈표 VI-1- 9〉 한국아동패널 2008~2020 시기의 육아정책 흐름	164
〈표 VI-1-10〉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165
〈표 VI-1-11〉 연령별 보육료 지원	166
〈표 VI-1-12〉 차등보육료 외 보육료 지원-1	167
〈표 VI-1-13〉 차등보육료 외 보육료 지원-2	167
〈표 VI-1-14〉 양육수당 지원	168
〈표 VI-1-15〉 아이돌봄사업 추진 경과	169
〈표 VI-1-16〉 초등돌봄교실의 추진 경과	171
〈표 VI-1-17〉 교육비 지원 개요(2021)	171
〈표 VI-1-18〉 초등학생 지원 정책	172
〈표 VI-2- 1〉 무상교육 도입 전후의 어머니 일·가정 양립의 비율 변화	174
〈표 VI-2- 2〉 무상교육 도입 전후의 월 평균 가계 보육비 변화	174
〈표 VI-2- 3〉 가계 보육비의 시기별 차이 검증	174
〈표 VI-2- 4〉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수 추이	175
〈표 VI-2- 5〉 초등돌봄교실 주당 이용일수 추이	176
〈표 VI-2- 6〉 초등돌봄교실 하루 평균 이용시간 추이	176
〈표 VI-2- 7〉 초등돌봄교실 이용자의 이용만족도 추이	177
〈표 VI-2- 8〉 초등1학년 초등돌봄교실 이용 여부 ^a 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	177
〈표 VI-2- 9〉 초등2학년 초등돌봄교실 이용 여부 ^a 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	178
〈표 VI-2-10〉 초등1학년, 초등2학년 초등돌봄교실 이용 여부에 따른	

평균 비교	178
〈표 VI-2-11〉 초등1학년 사교육 이용시간에 대한 초등돌봄교실의 영향	179
〈표 VI-2-12〉 초등1학년 월 평균 사교육 서비스 비용에 대한 초등돌봄교실의 영향	180
〈표 VI-2-13〉 초등2학년 사교육 이용시간에 대한 초등돌봄교실의 영향	180
〈표 VI-2-14〉 초등2학년 월 평균 사교육 서비스 비용에 대한 초등돌봄교실의 영향	180
〈표 VI-2-15〉 초등돌봄교실 이용 ^o 의 개인별 변화 양상과 영향 요인 분석	182
〈표 VI-2-16〉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초등돌봄교실 이용 ^a 의 효과 분석	184
〈표 VI-2-17〉 가족체험학습 이용자 수 추이	185
〈표 VI-2-18〉 초등3학년~초등6학년 시기의 가족체험학습 이용 집단과 미이용 집단 간 차이 분석	186
〈표 VI-2-19〉 초등5학년 학교이용만족도에 대한 가족체험학습의 영향	187
〈표 VI-2-20〉 초등5학년 시간사용만족도에 대한 가족체험학습의 영향	187
〈표 VI-2-21〉 초등5학년 전반적 행복감에 대한 가족체험학습의 영향	188
〈표 VI-2-22〉 가족체험학습 이용의 개인별 변화 양상과 영향 요인 분석	189
〈표 VI-2-23〉 가족체험학습 이용 ^a 의 개인별 변화 양상의 효과 분석 결과	191
〈표 VI-2-24〉 학교폭력예방교육 이수자 수 추이	192
〈표 VI-2-25〉 초등3학년 학교폭력예방교육 이용 여부 ^a 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192
〈표 VI-2-26〉 초등6학년 학교폭력예방교육 이용 여부 ^a 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193
〈표 VI-2-27〉 초등3학년~초등6학년 시기의 학교폭력예방교육 이수 집단과 미이수 집단 간 차이 분석	193
〈표 VI-2-28〉 초등5학년 사이버폭력에 대한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영향	194
〈표 VI-2-29〉 학교폭력예방교육 참여의 개인별 변화 양상과 영향 요인 분석	195
〈표 VI-2-30〉 학교폭력예방교육 참여 ^a 의 개인별 변화 양상의 효과 분석 결과	197
〈표 VII-1- 1〉 각 장별 주요 결과 정리	204



그림 목차

[그림 I-3-1] 제1, 2차 연구성과 세미나	22
[그림 I-4-1] Bronfenbrenner 생태학적 모델에 따른 한국아동패널 조사 영역	31
[그림 I-4-2] 연구 목적과 범위	32
[그림 II-1-1] 각 차수별로 원표본 유지율 시계열 그래프	36
[그림 II-1-2] 표본이탈 패턴 유형	38
[그림 II-1-3] 표본이탈 패턴 유형별 비율	39
[그림 II-2-1] 모의 특성: 학력	42
[그림 II-2-2] 모의 특성: 취업여부	42
[그림 II-2-3] 가구 특성: 가구소득	45
[그림 II-2-4] 가구 특성: 동생 출생 여부	45
[그림 II-2-5] 거주지 특성: 거주 지역	46
[그림 II-2-6] 거주지 특성: 지역규모	47
[그림 II-2-7] 기타 영향변인: 모의 특성-우울, 일상스트레스, 사회적 지원정도	48
[그림 II-2-8] 기타 영향변인: 부부 특성-부가 인식한 부부갈등	50
[그림 II-2-9] 기타 영향변인: 아동 특성-정서성	51
[그림 III-1-1]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이용 논문의 미디어 관련 핵심어	62
[그림 III-2-1] 학령기 미디어 이용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형태	68
[그림 III-3-1] 연구모형	68
[그림 IV-1-1] 발달시기별 부모양육의 영향특성	90
[그림 IV-2-1] 모가 인식한 부부갈등 변화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형태	94
[그림 IV-2-2] 부가 인식한 부부갈등 변화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형태	95
[그림 IV-3-1] 연구 모형	98
[그림 V-1-1] 한국아동패널 가구소득 추이(1~13차)	121
[그림 V-1-2] 한국아동패널 기초생활수급 상태 추이	122
[그림 V-1-3] 한국아동패널 모 결혼 상태 추이	123
[그림 V-1-4] 한국아동패널 모 취업 상태 추이	123
[그림 V-1-5] 한국아동패널 모 종사상 지위	124

[그림 V-1-6] 한국아동패널 부부갈등 추이	125
[그림 V-2-1] 영아기 모 우울 변화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형태	130
[그림 V-2-2] 유아기 모 우울 변화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유형	132
[그림 V-3-1] 영아기 연구모형	136
[그림 V-3-2] 유아기 연구모형	136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08년 시작된 한국아동패널 연구(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는 매해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과 발달,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정책 등 환경의 영향을 구체적인 변인을 통해 측정한 대규모 종단 데이터로서 국가 공공데이터로 선정되어 일반에 공개됨.
- 지난 13년간의 한국아동패널 종단 데이터를 활용하여 심층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영유아,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지원을 위한 과학적·통계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음.
 - 2008년 출생 패널 아동의 13년간 성장발달을 진단
 - 미래세대 생애과제 시사점 도출 및 육아정책의 향후 방향 제안

나. 연구내용

- 표본이탈 패턴 분석 및 패널 이탈에 영향을 주는 관련 요인 분석
- 2008년(1차)부터 2020년(13차)까지 한국아동패널 자료의 대상별/주제별 특성과 종단 추이 점검
- 아동의 성장, 발달과 관련 영향요인 도출을 위해 대상별/주제별 심층분석 실시
- 한국아동패널 아동 관련 육아정책 검토 및 영향 확인
- 심층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시사점 도출, 향후 육아정책 방향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유지 관리 및 추후 정책 효과성 분석을 위한 제안 정리

다. 연구방법

- 문헌자료 분석
-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심층분석

- 전문가 회의 개최
- 외부 전문인력 활용: 외부 공동연구진 5인 구성
- 연구성과 세미나 개최(2회)

라. 선행연구

- 한국아동패널 심층분석 선행연구: 2010년, 2012년, 2014년, 2015년에 한국 아동패널 심층분석 연구가 수행되어왔고 총 30여 개의 연구가 포함됨.
- 한국아동패널 학술논문 활용 변: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학술논문 개수는 2017년 59편, 2018년 76편, 2019년 42편, 2020년 125편으로 조사됨. 사회성발달과 인지언어발달이 종속변수로 활용된 경우가 가장 많고, 독립변수로 부모 양육특성을 활용한 논문이 가장 많음.

마. 연구범위

연구 목적	
• 2008년 출생 패널 아동의 13년간 성장발달 진단 • 미래세대 생애과제 시사점 도출 및 육아정책의 향후 방향 제안	
↓	
연구 범위	
-----시간-----▶	
표본이탈 (2장)	• 한국아동패널 표본이탈 패턴 분석 • 표본이탈 패턴 유형별(영아기 이탈, 유아기 이탈, 아동기 이탈, 미이탈(유지), 재진입) 특성 비교 분석 • 표본이탈 패턴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아동 (3장)	• 패널 아동의 미디어 이용과 사회성 발달(또래관계, 또래 애착, 괴롭힘, 폭력 등) 양상 분석 • 아동기 미디어 이용에 따른 잠재계층 유형 분석 • 아동 미디어 이용 잠재계층 유형이 아동기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부모 (4장)	• 패널 부모의 양육과 양육환경 분석 • 영유아기 부모의 부부갈등에 따른 잠재계층 유형 분석 • 영유아기 부모의 부부갈등 잠재계층 유형이 다양한 아동 발달 측면(학업수행능력, 학업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학교적응, 문제행동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구 (5장)	• 패널 가구 내 위험요인 분석 • 영유아기 어머니 우울에 따른 잠재계층 유형 분석 • 영유아기 어머니 우울 잠재계층 유형이 아동기 신체/정신 건강(알레르기 관련 질환/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책 (6장)	• 2008~2020 육아정책 흐름(기본계획, 중앙정부 정책 정리) •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 초등돌봄교실, 학교지원프로그램 영향 분석

2. 한국아동패널 표본이탈 분석

가. 표본이탈 패턴

□ 각 차수별 응답률 및 원표본 유지율

- 13차년도 아동패널 원표본 유지율은 65.1%, 총 2,150가구 중 1,400가구가 응답 지속
- 초기 5년 표본 탈락 비율이 약 20%로 높고, 6차년도 이후 5년 동안 탈락률은 약 10%로 초기 5년보다 절반으로 감소

□ 아동패널 표본이탈 패턴 및 유형화

- 사전계열분석 결과, 5개 집단으로 구분: A집단(영아기 이탈집단, 11.3%, 243가구), B집단(유아기 이탈집단, 9.3%, 201가구), C집단(아동기 이탈집단, 10.7%, 229가구), D집단(이탈이 전혀 없는 집단, 52.8%, 1,136가구), F집단(재진입 집단, 7.9%, 169가구)

나. 표본이탈 패턴 유형별 특성 비교

□ 일반 개인/가구 특성 비교

- 아동 특성: 집단 간 아동 성별과 출생순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음.
- 어머니 특성: 어머니 학력이 높고 취업/학업 중인 경우 이탈하지 않은 집단에 속하는 비율 높음.
- 아버지 특성: 아버지 특성보다 어머니 특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 미침.
- 가구 특성: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이른 이탈집단에 속함.
- 거주지 특성: 이탈 시기 집단 간 거주지별 유의미한 차이 보임.

□ 집단별 기타 영향변인 특성 비교

- 아버지 우울, 사회적 지원정도, 양육스트레스, 일상스트레스 집단 간 차이 유의하지 않으나, 어머니 우울, 사회적 지원 정도, 일상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 발견됨.
- 아동 정서성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 있으나, 학교적응, 문제행동에서 집단 간 차이 보이지 않음.

다. 표본이탈 패턴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과 포아송 회귀모형 적용 결과

- 표본이탈 시기별 각 집단에 속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머니의 학력, 취업여부, 가구소득, 거주 지역 규모, 어머니 우울정도이며, 응답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유사하게 보고됨.
- 어머니 학력이 높은 경우, 취업/학업을 병행하는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거주 지역이 도시인 경우, 우울 정도 및 사회적 지원 정도가 낮을수록 표본이탈 확률 낮고, 응답 횟수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됨.

라. 한국아동패널 유지 관리 방안 제안

- 영아기 이탈집단 특성: 가구소득 낮고, 어머니 우울감 높고, 고졸 이하 비중 높음. 어머니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적 지원 서비스 제안
- 유아기 이탈집단 특성: 부부갈등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이사 경험이 많음. 부부 상담 지원 및 서비스 연계, 이사에 따른 패널 관리 강화 제안
- 아동기 이탈집단 특성: 양육스트레스 및 일상스트레스 높고, 문제행동 점수가 높음. 아동 특성 파악 및 문제행동 점수 높은 아동 특별 관리 제안

3. 미디어와 사회성 발달

가. 미디어 이용과 사회성 발달 양상

- 선행연구: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로 미디어 관련 분석을 실시한 학술논문에서는 미디어 중독과 부모의 양육행동, 아동의 학교적응, 행복감, 문제행동, 집행기능 곤란 등과의 관계를 살펴봄.
- 패널 아동의 미디어 이용 실태: 13차 아동 미디어 평균시간 2.8시간, 동영상 및 웹툰 이용 정도가 가장 높고, 게임, 정보검색, 학습 순으로 나타남.

나. 미디어 이용에 따른 집단유형화

□ 분석개요

- 연구도구: 아동 미디어 중독(10~13차)

- 분석방법: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 GMM) 이용

□ 학령기 미디어 이용 변화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유형

- ‘고-유지’ 집단: 22.8%,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미디어 이용이 높게 유지되는 집단
- ‘중간-증가’ 집단: 약 78%,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미디어 이용이 점차 증가하는 집단

다. 영유아기 미디어 이용이 아동기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 분석개요

- 미디어 이용 발달궤적을 예측하는 요인과 미디어 이용 양상이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확인
- 연구도구: (예측변인) 부모감독(10차), 하루 중 성인 없이 있는 시간(10차), 지역사회 시설 편의성 및 만족도(10차); (결과변인) 또래애착, 소외(13차), 학교적응: 교우관계 및 교사관계(13차), 공동체의식(13차), 사이버 비행인식(13차), 사이버 피해경험(13차), 비속어 사용(13차), 부모 정서조절 곤란(13차), 부모 미디어 중독(13차)
- 분석방법: 혼합회귀모형 R3steps분석 실시, BCH 접근 적용

□ 미디어 이용 집단 유형 분류의 예측요인

- 여학생일수록, 가정의 지각된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잘 알고 있고, 관련 활동을 명확히 지도하는 부모 감독이 높을수록 ‘고-유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작아짐.
-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고-유지’ 집단에 속할 가능성 증가

□ 미디어 이용 집단 유형에 따른 아동의 정서사회성 차이

- 사회적 관계: 또래소외의 ‘고-유지’ 집단 높으나, 교우관계 및 교사관계, 공동체 의식에서 ‘중간-증가’ 집단이 높음.
- 공격성 발달 및 경험: ‘고-유지’ 집단이 ‘중간-증가’ 집단보다 높은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 비속어 사용 보고함. 사이버 폭력 인식 차이 없음.
- 부모 특성: ‘고-유지’ 집단에서 부모 모두의 미디어 중독이 더 높음.

4. 부모 양육과 아동 발달

가. 아동 발달 시기별 부모 양육과 양육 환경

- 1~11차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이용하여 분석한 학술논문 중 부모의 심리, 행동, 관계 변수 등 부모 양육 관련 변수 중심으로 부모 양육과 아동 발달 관계를 살펴본 논문 약 170편 정리

나. 영유아기 부모의 부부갈등에 따른 집단유형화

□ 분석개요

- 연구도구: 부부갈등(1~5차, 7차)
- 분석방법: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 GMM) 이용

□ 부부갈등의 잠재성장모형 및 잠재프로파일 분석

- 어머니 잠재집단(5집단): ‘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43.3%),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30.9%), ‘상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4.4%), ‘중수준 부부갈등 증가’ 집단(13.8%), ‘중수준 부부갈등 감소’ 집단(7.7%)
- 아버지 잠재집단(3집단): ‘중수준 부부갈등’ 집단(16.2%), ‘최하수준 부부갈등’ 집단(36.3%), ‘하수준 부부갈등’ 집단(47.6%)

□ 부모 부부갈등 잠재집단 유형별 특성

- 어머니 잠재집단 차이: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이 월평균 가구소득과 학력 수준이 가장 높음. 거주지역 분포 차이 없음.
- 아버지 잠재집단 차이: ‘최하수준 부부갈등’ 집단이 월평균 가구소득과 학력 수준이 가장 높음. 거주지역 분포 차이 없음.

다. 영유아기 부모의 부부갈등이 아동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

□ 분석개요

- 부모 각각의 잠재성장 모형 집단에 따라 아동기 후반(4~6학년, 11~13차)의 주요 발달 변인(학업수행능력, 학업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
- 연구도구: 학업수행능력(11~13차), 학업스트레스(11~13차), 자아존중감(11

차, 13차), 삶의 만족도(11~13차), 학교적응(11~13차)

- 분석방법: BCH 보조변수 사용

□ 모의 부부갈등 잠재집단에 따른 아동 발달 특성 차이

- 학업수행능력: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 ‘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이 ‘중수준 부부갈등 증가’ 집단보다 점수가 대체로 높음.
- 학업스트레스: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이 가장 낮음.
- 자아존중감: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 ‘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이 ‘중수준 부부갈등 증가’ 집단보다 높음.
- 삶의 만족도: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 ‘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이 ‘중수준 부부갈등 증가’ 집단, ‘중수준 부부갈등 감소’ 집단보다 높음.
- 학교적응: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 ‘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이 ‘중수준 부부갈등 증가’ 집단보다 대체로 높음.

□ 부의 부부갈등 잠재집단에 따른 아동 발달 특성 차이

- 학업수행능력: ‘최하수준 부부갈등’ 집단이 ‘중수준 부부갈등’ 집단, ‘하수준 부부갈등’ 집단보다 높음.
- 학업스트레스: ‘중수준 부부갈등’ 집단, ‘하수준 부부갈등’ 집단이 ‘최하수준 부부갈등’ 집단보다 높음.
- 자아존중감: ‘최하수준 부부갈등’ 집단이 ‘중수준 부부갈등’ 집단보다 대체로 높음.
- 삶의 만족도: ‘최하수준 부부갈등’ 집단이 ‘중수준 부부갈등’ 집단보다 대체로 높음.
- 학교적응: ‘최하수준 부부갈등’ 집단이 ‘중수준 부부갈등’ 집단, ‘하수준 부부갈등’ 집단보다 대체로 높음.

5. 가구 내 위험요인과 신체·정신건강

가. 가구 내 위험요인

□ 패널 가구 특성과 위험요인 관련 추이

- 패널 가구 소득이 4인가구 중위소득보다 약 100만원 가량 높고, 결혼생활

유지 비율이 90% 이상이며 취업모 비율과 정규직 비율이 높음. 위험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고위험 vs. 저위험 집단을 규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에 걸쳐 지속해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어머니 우울에 초점을 맞추어 위험집단을 구분하는 방향으로 분석 진행함.

나. 영유아기 어머니 우울에 따른 집단유형화

□ 분석개요

- 생애초기, 출산 직후 민감한 시기의 스트레스의 영향(영아기)과 아동의 기억력 증진과 최신성 효과를 고려한 유아기 시기의 스트레스(유아기)의 영향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함. 따라서 영아기(1~3차)의 어머니의 우울 정도에 따른 잠재프로파일과 유아기(4~7차)의 어머니의 우울 정도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을 각기 추출
- 연구도구: 모의 우울(1~3차, 4~7차)
- 분석방법: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 GMM)

□ 모의 우울 수준 변화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유형

- 영아기(4집단): ‘저수준 유지’ 집단(85.1%), ‘고수준 감소’ 집단(3.7%), ‘고수준 유지’ 집단(8.0%), ‘저수준 증가’ 집단(3.2%)
- 유아기(4집단): ‘저수준 유지’ 집단(83.9%), ‘고수준 감소’ 집단(6.2%), ‘고수준 유지’ 집단(5.6%), ‘저수준 증가’ 집단(4.4%)

□ 모의 우울 잠재집단 유형별 특성

- 영아기, 유아기 모두 ‘저수준 유지’ 집단이 고소득이고, 부부갈등이 낮고, 주관적 건강상태를 좋게 보고함.

다. 영유아기 어머니 우울이 아동기 신체·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분석개요

- 영아기 어머니 우울에 따른 잠재집단에 따라 아동기 신체건강(아동 알레르기 증상)과 정신건강(아동 행복감)에 차이가 있는지 탐구
- 연구도구: (신체건강) 알레르기 관련 질환 진단(8차, 13차), (정신건강) 행복감(8차, 13차)

- 분석방법: BCH 방법 적용

□ 영유아기 모의 우울 잠재집단과 아동기 신체·정신건강과의 관계

- 신체건강: 영아기 어머니 우울 ‘고수준 유지’ 집단은 ‘저수준 유지’ 집단이나 ‘고수준 감소’ 집단보다 초등학교 1학년(8차)과 6학년(13차) 시기에 알레르기 발병률이 높음. 어머니의 생애초기 우울이 아동 면역체계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유아기 어머니 우울 잠재집단에 따른 아동기 알레르기 발병률은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음.
- 정신건강: 아동기 행복감은 영아기 어머니 우울 양상에 따른 계층간 차이 없음. 유아기 어머니 우울 ‘저수준 유지’ 집단과 ‘저수준 증가’ 집단이 ‘고수준 유지’ 집단보다 행복감이 더 높음.

6. 한국아동패널과 육아정책

가. 2008~2020 육아정책 흐름

- 한국아동패널 아동의 생애주기에 따른 주요 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1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1~1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6~13차), 아동정책 기본계획(8차~1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1~13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1~1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1~13차)

□ 한국아동패널 아동 관련 정책

- 임신·출산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영유아기: 영유아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누리과정, 아이돌봄서비스
- 학령기: 초등돌봄교실, 교육비 지원,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기타(가족체험학습, 진로탐색교육/진로체험 프로그램, 학교폭력예방정책 교육, 학교급식 및 안전관리 교육, 장애학생 지원제도, 인성, 체육, 예술교육)

나. 한국아동패널 육아정책 영향 분석

-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 영향(5차 vs. 6, 7차): 일가정 양립과 가계 교육비 절감 효과 검토
 - 어머니 취업 비율이 무상보육 시행 전(5차)보다 시행 후(6차)에 증가함.

- 가계 교육비가 무상보육 시행 전(5차)보다 시행 후(6차)에 줄어듦.

□ 초등돌봄교실 영향(8, 9차 중심)

- 초등학교 1학년(202가구, 12.6%), 초등학교 2학년(119가구, 7.8%) 시기에 이용 비율이 집중되어 있음.
- 맞벌이 가구 아동이 초등돌봄교실 더 많이 이용, 초등돌봄교실 이용 경험이 있는 가구가 이용 경험 없는 가구보다 사교육 이용 시간이 짧고 사교육 서비스 비용이 더 낮음.
- 초등돌봄교실 참여가 아동의 학교이용만족도, 전반적 행복감, 시간사용만족도, 친구지지와 즐거운 반 분위기, 교사의 지지와 자유로운 의사소통, 엄격한 규칙과 지시적 분위기의 개인별 성장에 기여하지 못함.

□ 학교지원프로그램의 영향(10~13차)

- 가족체험학습: 초등학교 3학년~5학년 시기 이용률 40%대로 비슷,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족체험학습 이용 경험 패널 가구 비율이 17.1%로 떨어짐.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족체험학습 경험이 있는 집단이 학교이용만족도, 시간사용만족도, 전반적 행복감이 높게 보고됨.
- 학교폭력예방교육: 초등학교 3학년~5학년 시기까지 이수 비율이 60% 전후로 유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수 비율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듦.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시기에 읍면지역이 대도시보다 학교폭력예방교육 참여 비율이 더 높음. 초등학교 4학년 시기 학교폭력예방교육 받지 않은 집단에서 엄격한 규칙과 지시적 분위기 수준 더 높음. 초등학교 5학년 시기 학교폭력예방교육 이수 집단에서 친구지지와 즐거운 반 분위기, 교사의 지지와 자유로운 의사소통 수준이 높고, 사이버폭력 경험이 낮음.

7. 결론 및 시사점

가. 결론

- 1~13차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심층분석을 통해 추후 연구자들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한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음. 초등학교 6년의 시기를 아우르고, 영유아기 누적 경험이 아동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으로 검토함. 대상-중심 접근을 시도하여 종단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함. 육아정책의 효

과성을 검증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영향력을 패널 데이터로 확인하고자 한 점에 본 연구의 강점이 있음.

나. 시사점

□ 패널 관리 및 정책 관련 시사점

- 영아기 어머니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필요: 어머니 우울 높을수록 패널 조기 이탈 확률이 높고, 자녀가 미디어 고위험 집단에 속할수록 어머니 정서 조절이 떨어짐. 영유아기 어머니 우울이 아동기 신체 및 정신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함. 어머니 우울에 조기 개입이 필요
- 부부관계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필요: 유아기 패널 이탈 집단의 부부갈등이 다른 시기 이탈집단이나 유지집단에 비해 높음. 영유아기 부부갈등 수준이 초등학교 시기 학업수행능력, 학업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학교적응에 장기적 영향 미침. 영유아기 부모 부부갈등이 자녀 발달과정으로 전이될 수 있으므로 부부 상담 제공하거나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지원 필요
- 미디어 중독 예방 교육 필요: 미디어 고위험 이용 집단이 학교 내 또래관계 어려움을 겪고,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과 비속어 사용이 높음. 학교폭력예방 교육 이수 집단이 친구지지와 즐거운 반 분위기, 교사 지지와 자유로운 의사소통 수준이 높고, 사이버폭력 위험이 낮음. 종합하여, 미디어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긍정적인 또래관계 구축과 사이버 폭력 위험을 낮출 수 있음. 가족 전체의 미디어 건강하게 이용하기 전략 공유 필요

□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신규패널)을 위한 제안

- 다양한 정책 지원과 정책 성과지표 검토 후 관련 변인을 조사 설문 포함하는 것 제안
- 교육·보육 비용 지원과 더불어 부모 지원 프로그램, 아동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면의 정책적 요소를 종단적으로 연구에 포함하는 것 제안
- 매해 달라진 정책 내용을 보고서에 업데이트하는 것 제안
- 한국아동패널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간 중요 변인 중복 측정 제안
-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조사 시작 시점에 우울이 높은 가구에 대해 선제적 지원 제공, 혹은 과대표집 시도할 수 있음.

I

서론

-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02 연구내용
- 03 연구방법
- 04 선행연구
- 05 연구범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8년에 시작된 한국아동패널 연구(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는 매해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과 발달,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정책 등 환경의 영향을 구체적 변인을 통해 측정한 국내 유일의 대규모 종단 데이터이다. 2008년 4~8월 사이 출생한 약 2,000명의 전국 남녀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2022년 현재까지 매년 아동의 신체, 인지, 정서 등의 발달과 부모의 양육환경, 아동이 이용하는 교육·보육 서비스, 학교 및 지역사회 환경 등 아동을 둘러싼 생태체계 전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는 2018년부터 국가 공공데이터로 선정됨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무상 공개되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 14년 동안 광범위한 아동패널 종단 데이터를 우수하게 관리하고 생산해왔고, 조사 차수가 늘어날수록 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연구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 한국아동패널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42편, 2020년 123편, 2021년 108편의 학술논문이 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분석 연구로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또한 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논문이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경우가 2019년 11편, 2020년 29편, 2021년 20편으로 나타나 2020년, 2021년에 이전에 비해 아동패널을 활용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김지현 외, 2021: 43-44). 하지만, 실제 이들 연구 중 육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아동패널자료를 활용한 사례는 많지 않고 종단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 자료로 정부에 제공하고 대안 수립에 활용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한국아동패널이 최초 구축된 2008년 이래 우리나라 육아정책은 괄목할 만한 변화를 이루었고 저출산 타개를 위한 중요한 국가사업으로 지속해서 추진되어 왔다. 급변하는 육아정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2008년생 패널의 성장, 학교적응과 같은 발달적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점에 한국아동패널의 강점이 있다. 특히 2020

년에 초등학교 6학년으로 성장한 패널 아동의 추적된 데이터를 총괄적으로 재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아동패널이 육아정책 수립에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새로운 패널(‘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조사가 추가된 현시점에 기존 아동패널 연구의 정책적 활용성 강화 방법을 탐색하고 연구 결과를 관련 정부 부처에 공유하여 정책 수립에 실질적 기여가 가능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이 생산해 온 아동 성장, 발달에 관련한 광범위한 13년 종단 데이터를 활용하여 심층 재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영유아,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한 과학적·통계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간의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연구가 데이터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 제시에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별 주요 변인 간 상호연관성 등을 논의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육아정책 분야에서 증거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통계적, 과학적 장기 추적 자료에 근거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아동패널 자료의 다각적 분석을 담은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아동패널의 효과적 유지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13년 동안의 패널 표본이탈 패턴을 분석하고 이탈에 영향을 주는 관련 요인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패널 표본 관리 방향에 대해 제안한다(2장).

둘째, 2008년(1차)부터 2020년(13차)까지 한국아동패널 자료의 대상별/주제별 특성과 종단 추이를 살펴본다. 아동, 부모, 가구 단위로 구분하여 신생아부터 초등학교 시기까지 한국아동패널 주요 관련 변인의 변화와 특성을 확인하고 패널 아동의 성장발달을 점검한다(3장, 4장, 5장).

셋째, 아동의 성장, 발달 및 관련 영향요인 도출을 위해 대상별/주제별 심층분석을 실시한다. 다양한 통계 분석을 적용한 심층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환경요인에 대해 검토한다(3장, 4장, 5장).

넷째, 한국아동패널이 시작된 2008년을 기점으로 보육, 교육, 양육과 관련된 육아정책을 검토한다. 특히 한국아동패널 조사 진행 시기인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아동 성장, 발달과 부모의 자녀 양육에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부의 주요 기본계획과 육아정책을 정리하고 관련 분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책의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6장).

다섯째, 심층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육아정책의 방향을 제안한다. 또한 한국아동패널뿐 아니라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새롭게 시작한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의 유지 관리와 추후 정책 효과성 분석을 위해 필요한 제안들을 정리한다(7장).

3. 연구방법

본 연구내용 수행을 위해 문헌자료 분석,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심층분석, 전문가 회의 개최, 외부 전문인력 활용, 연구성과 세미나 개최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가. 문헌자료 분석

2008년 출생한 한국아동패널 아동과 관련된 지난 13년 동안의 주요 육아정책과 그 성과를 보여주는 문헌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이전에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아동패널 심층연구 등 한국아동패널을 이용한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나.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심층분석

본 연구의 심층분석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2008년(1차)부터 2020년(13차)까지 13년 동안의 패널 아동과 가구가 경험한 다양한 환경을 검토하고 그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 한국아동패널의 성장발달을 점검하여 미래세대의 생애과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본 심층분석 연구는 이론적으로는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을 바

탕으로 하며(top-down), 아동, 교육, 정책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각 체계별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주제들을 연구 주제로 선정하였다(bottom-up). 본 연구는 Bronfenbrenner의 체계 중 아동, 부모, 가정/가구, 기관, 정책과 시간 체계를 중심으로 한다.

가장 먼저 Bronfenbrenner의 체계의 중심에 있는 패널 ‘아동’의 개인 변인을 중심으로 한 연구 문제를 도출하였다. 아동 연령 증가 및 교육방식의 변화로 인하여 증가하는 미디어 이용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발달 문제를 살펴보고자 패널 아동의 미디어 이용과 사회성 발달(또래관계, 또래 애착, 괴롭힘, 폭력 등)을 아동 개인의 하위 주제 단위로 선정하였다(3장).

둘째, 패널 아동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는 ‘부모’와 관련된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패널 부모의 양육과 양육환경, 아동 발달의 흐름을 아동 발달 시기(예: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에 따라 살펴보고, 다양한 아동 발달 부문에 부모 양육과 주변 양육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4장).

셋째, 패널 아동과 부모를 총체적으로 보는 ‘가구’ 단위의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먼저 한국아동패널 아동의 위험요인을 발달 시기별로 살펴보고, 참여 가구의 위험 특성을 살펴보았다. 생애 초기 위험요인의 정도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집단별 특성을 고찰하며, 생애 초기 위험요인이 장기적으로 아동의 신체·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5장).

넷째, 거시 체계와 시간 체계를 고려하여 패널 아동과 가구가 13년간 성장하면서 경험한 다양한 육아정책에 관련된 연구 문제를 도출하였다. 패널 아동이 만 4세 되던 해(2012년)에 시작된 어린이집 무상보육의 영향, 초등돌봄교실, 학교연계프로그램의 영향 등을 하위 주제로 선정하였다(6장).

생태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대상별/주제별 심층분석과 별개로 패널 유지관리를 위한 심층분석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아동패널 1차부터 13차 사이의 표본이탈 패턴을 분석하고, 아동 연령(예: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이탈집단별 특성을 조사한다. 더불어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아동 연령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2장).

각 주제별 상세 연구 방법과 분석에 관하여서는 해당 장에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다. 전문가 회의 개최

연구 문제 설정과 변인 선정을 위해 아동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통계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심층분석에 필요한 통계분석 방법론에 대한 자문도 꾸준히 지속하였다. 연구 주제와 보고서 방향 설정을 위해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연구의 선행연구자를 대상으로 지식공유 동료 멘토링을 실시하였다.

〈표 I-3-1〉 전문가 자문회의 추진

회차	일시	참석자	내용
1차	2022. 3.	• 아동가족학과 교수 • 상담심리학과 교수	• 심층분석 세부주제 및 종단 통계 분석 관련 자문
2차	2022. 4.	• 국책연구기관(청소년 분야) 박사	• 유관 패널조사 연구자 대상 자문(청소년 분야) • 심층분석 주제, 분석방법 등
3차	2022. 4.	• 국책연구기관(청소년 분야) 박사	• 유관 패널조사 연구자 대상 자문(청소년 분야) • 유관 패널 심층분석 연구 경험, 연구과제 운영 방식 등
4차	2022. 4.	• 국책연구기관(교육 분야) 박사 • 국책연구기관(사회복지 분야/통계학 전공) 박사	• 유관 패널조사 연구자 대상 자문(교육/사회복지 분야) • 이탈패널 분석방법 및 분석 결과 활용
5차	2022. 4.	• 아동심리학과 교수 •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정책 효과성 분석방법 및 보고서 구성 등
6차	2022. 4.	• 통계학과 교수 • 국책연구기관(사회복지 분야/통계학 전공) 박사	• 이탈자 패널 분석(이탈패턴, 이탈가구/개인특성)에 대한 자문
7차	2022. 4.	• 교양학부 교수(교육학 전공)	• 아동패널 교육 분야 관련 핵심 이슈 논의
8차	2022. 4.	• 교육학과 교수	• 아동패널 부모 변인 관련 핵심 이슈 및 하위 주제 관련 자문
9차	2022. 5.	• 유아교육과 연구교수	• 아동패널 종단 분석방법 및 정책 효과 분석 등
10차	2022. 5.	• 교육학과 교수	• 정책 효과 분석방법 및 초등교육 정책
11차	2022. 9.	• 아동가족학과 교수	• 잠재성장모형 분석 결과 해석 자문
12차	2022. 10.	• 교육학과 교수	• 심층분석 결과 해석 및 시사점 자문

〈표 I-3-2〉 지식공유 동료멘토링 추진

회차	일시	참석자	내용
1차	2022. 3.	• 선임연구위원(한국아동패널연구 3, 4, 8차 연구책임자) • 연구위원(한국아동패널연구 6, 10, 11차 연구책임자)	• 연구내용 및 심층분석 세부 주제 관련 자문
2차	2022. 3.	• 선임연구위원(한국아동패널연구 7차 연구책임자) • 연구위원(한국아동패널연구 4차 공동연구자)	

라. 외부 전문인력 활용

본 심층분석 연구의 다양한 주제 분석을 위해 아동학, 교육학, 통계학 분야의 전문가가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연구 경험이 있고, 관련 선행연구를 수행한 전문가 5인을 초빙하여 심층분석 연구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외부 전문가의 역할은 선정된 주제별 분석을 연구진과의 협력 하에 진행하고 해당 부분 초고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외부 공동연구진 목록과 공동연구진 회의 진행 정보는 아래와 같다.

〈표 I-3-3〉 외부 공동연구진 명단

연구진	소속 및 직위	심층분석 주제
이상인	충남대학교 정보통계학과 교수	• 한국아동패널 표본이탈 분석 (2장)
송경희	우석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 아동: 미디어와 사회성 발달 (3장)
최효식	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부모: 부모 양육과 아동 발달 (4장)
송주현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 가구: 가구 위험요인과 신체·정신건강 (5장)
김재철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정책: 한국아동패널과 육아정책 (6장)

〈표 I-3-4〉 공동연구진 회의 추진

회차	시기	참석자	내용
1차	2022. 5.	송경희 교수(우석대 상담심리학과)	• 분석주제에 대한 논의
2차	2022. 5.	송주현 교수(연세대 아동가족학과)	• 분석주제에 대한 논의
3차	2022. 5.	최효식 교수(춘천교육대 교육학과)	• 분석주제에 대한 논의
4차	2022. 5.	이상인 교수(충남대 정보통계학과)	• 표본이탈 관련 변인 결정 및 중간보고 보고서 내용 논의
5차	2022. 5.	송경희 교수(우석대 상담심리학과)	• 심층분석 방향 설정
6차	2022. 5.	최효식 교수(춘천교육대 교육학과)	• 심층분석 방향 설정
7차	2022. 5.	최효식 교수(춘천교육대 교육학과)	• 심층분석 세부 주제 결정 및 중간보고 보고서 내용 논의
8차	2022. 5.	송주현 교수(연세대 아동가족학과)	• 심층분석 세부 주제 결정 및 중간보고 보고서 내용 논의
9차	2022. 6.	송경희 교수(우석대 상담심리학과)	• 심층분석 세부 주제 결정 및 중간보고 보고서 내용 논의
10차	2022. 7.	최효식 교수(춘천교육대 교육학과) 송주현 교수(연세대 아동가족학과)	• 중간보고 의견 공유 및 향후 방향성 및 일정 논의
11차	2022. 7.	김재철 교수(한남대 교육학과)	• 중간보고 의견 공유 및 심층분석 계획 방향, 일정 논의

회차	시기	참석자	내용
12차	2022. 7.	송경희 교수(우석대 상담심리학과)	• 중간보고 의견 공유 및 향후 방향성 및 일정 논의
13차	2022. 8.	이상인 교수(충남대 정보통계학과)	• 표본이탈 2차 분석 및 세미나 발표 관련 논의
14차	2022. 9.	송경희 교수(우석대 상담심리학과)	• 분석 결과 공유, 분석 범위 조정
15차	2022. 9.	김재철 교수(한남대 교육학과)	• 분석 결과 공유, 분석 범위 조정, 해석 논의
16차	2022. 9.	김재철 교수(한남대 교육학과)	• 재분석 방향 논의
17차	2022. 9.	최효식 교수(춘천교육대 교육학과)	• 보고서 기술 내용 논의
18차	2022. 10.	송주현 교수(연세대 아동가족학과) 송경희 교수(우석대 상담심리학과)	• 보고서 기술 내용 논의

마. 연구성과 세미나 개최

심층분석을 통해 얻은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패널 데이터의 정책적 활용을 높이 고자 학계, 정부, 지자체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2회 개최하였다. 첫 번째 세미나는 2022년 8월에 패널 데이터의 종단적 추이와 패널 표본이탈과 관련된 분석 결과를 일부 공유하여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을 독려할 목적으로 개최 하였다. 두 번째 세미나는 2022년 12월에 개최되었으며, 외부 공동연구진과 함께 수행한 심층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적 함의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표 I-3-5〉 연구성과 세미나 개최

구분	일시	목적	내용
1차	2022. 8. 30	•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성 제고 • 패널 유지 관리 방안 제안	•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특성과 종단적 추이 • 한국아동패널 표본이탈 분석 결과
2차	2022. 12. 1	• 심층분석 연구 결과 발표 • 정책적 함의 논의	• 한국아동패널 심층분석 연구 주제별 분석 결과 공유

[그림 I-3-1] 제1, 2차 연구성과 세미나



4. 선행연구

가. 한국아동패널 심층분석 선행연구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본 연구 이전에 수행된 한국아동패널 심층분석 과제는 총 4개로 각각 2010년, 2012년, 2014년, 2015년에 수행되었다. 2010년에는 6편, 2012년에는 4편, 2014년 13편, 2015년 7편의 연구가 담겨있어 4개의 심층보고 과제를 통해 총 30개의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연구 분야별로 비교해보면 2010년과 2012년 심층분석 선행연구의 경우 대체로 아동 발달을 주제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는 반면, 2014년, 2015년 심층분석 연구에서는 아동 발달뿐만 아니라 방법론, 경제학, 건강·생리학, 출산 및 취업, 양육환경과 같이 다양한 부문의 연구가 다뤄진 특성이 있다.

〈표 I-4-1〉 한국아동패널 심층분석 선행연구 요약

년도	#	제목	분야	연구 변인	연구 분석방법
2010	1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영아의 인지발달 간 구조모형 분석	아동 발달	결혼만족도 KMSS (1차) 모 우울 및 불안 PAI (2차 심층)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2 (2차 심층)	구조방정식: 결혼만족도→ 모 우울/불안→ 영아 발달
	2	애착유형에 따른 영아의 인지발달	아동 발달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2 (2차 심층) 애착Q-set (2차 심층)	차이 검증 (t-test etc.)
	3	어머니의 양육 특성과 영아의 애착 안정성	아동 발달	애착 Q-set (2차 심층) 모 양육 지식 KIDI (1차) 모 양육 스타일 PSQ (1차) 모 양육스트레스 PSI-SF (1차)	구조방정식: 양육 지식→ 양육 스타일→ 양육스트레스→ 애착 안정성
	4	한국과 미국 영아의 기질 구조 비교: ECBQ 타당화를 중심으로	아동 발달	기질 ECBQ (2차 심층)	신뢰도검증, 요인분석(주성분 분석, 직교회전)
	5	영아의 기질이 애착에 미치는 영향	아동 발달	애착 Q-set (2차 심층) 기질 ECBQ (2차 심층)	단계적 회귀분석 (기질→애착)
	6	인생 초기 경험과 영아기 아동의 애착 안정성과의 관계: 임신기 및 출산 시 변인을 중심으로	아동 발달	임신, 출산 및 양육관련 변인 (1차 예비, 1차) - 계획된 임신 여부, 모 계획한 임신 여부, 모 또는 부 계획한 임신 여부, 임신 및 출산 관련 느낌, 출산 후 접촉, 분만 형태, 모유 수유 애착 Q-set (2차 심층)	빈도, 상관, 차이 검증 (t-test)
2012	1	유아의 기질, 수면시간과 모의 양육 스타일이 발달 수준에 미치는 영향	아동 발달	발달 K-ASQ (3차) 체중, 하루 일과 시간 (3차) 모 양육 스타일 (3차) 기질 EAS (3차)	빈도, 상관, 중다회귀분석 (경로분석)
	2	만 3세 유아의 어휘력 발달을 예측하는 변인 탐색: 유아의 개인 특성, 평일 일과 활동 및 일상생활시간 변인을 중심으로	아동 발달	기질 EAS (4차) 유아 일과 활동, 평일 일상생활시간 (4차) 수용, 표현 어휘력 REVT (4차) 유아 성별, 출생순위, 어린이집 설립 유형 (4차)	빈도, 차이 검증, 로지스틱 회귀분석
	3	둘째 자녀 출산 의도와 출산 이행	출산	후속출산 의도/이행 집단 (1~4차) 부모연령, 결혼 유지 기간, 소득, 자가 주택소유, 모취업여부 (4차) 기질 EAS (1~4차) 모 자아존중감 Rosenberg (1~4차) 모 자아효능감 Pearlin (1~4차) 모 우울 Kessler (1~4차) 결혼만족도 RKMSS (1~4차)	t 검증,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

년도	#	제목	분야	연구 변인	연구 분석방법
				부부갈등 Markman (1~4차) 부 양육참여 (1~4차) 사회적 지원 (1~4차)	
	4	유아 어머니와 아버지 간 자녀관, 심리적, 맥락적 양육 특성 및 양육 행동의 차이에 대한 상호 비교 연구	아동 발달	자녀관: 이상 자녀수 및 이상 자녀 성별, 자녀 가치, 자녀 미래 기대 NWEC (4차) 부모의 심리적 특성: 자기효능감 Pearlin, 자아존중감 Rosenbirt, 우울 Kessler, 양육스트레스 PSI-SF (4차) 환경 맥락적 특성: 결혼만족도 RKMSS, 부부갈등 Markman, 부 양육참여 (4차) 양육행동 PSQ (4차)	t 검증, 차이 검증, 다중회귀분석
2014	1	영유아 행동의 성장곡선 추정에 미치는 측정의 오차 영향, 잠재특성모델과 관찰점수 모형의 비교	방법론	기질 EAS (1~5차) 인지, 언어, 사회, 정서발달 K-ASQ (1~3차)	신뢰도검증, 다중성장모형(회귀)
	2	부부 사이의 행위자, 상대자 상호의존성 효과와 자녀의 또래 상호작용의 관계 검증	방법론	부모 부부갈등 (1차) 부모 결혼만족도 (2차) 아동 또래 상호작용 (4차)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성 모형, 구조방정식
	3	한국 아동패널 탈락자 특성 분석	방법론	더미화된 데이터 (1~6차)	프로빗 모형 추정, 회귀분석
	4	가정환경과 아동에 대한 교육, 보육 투자: 연령별 차이와 정부개입에 대한 반응	경제학	가구소득, 지출 (1~5차) 기관 선택, 사교육 (4~5차) 의사소통,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문제해결, 사회성 (1~3차) 표현 어휘력, 수용 어휘력 (4차) 언어 발달, 인지발달, 문제행동(불안/우울, 위축, 주의 집중 문제, 공격 행동,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반항 행동 등), 유아 도형 창의성 FCTYC (5차)	회귀분석
	5	자녀에 대한 초기투자의 성별 격차와 어머니의 노동공급	경제학	출생 시 정보: 성별, 몸무게, 키, 출생순위, 기대 자녀수, 어머니 경제활동 참가 여부 (1차) 모유 수유 기간 (2차)	생존분석
	6	출산 전후 산모의 우울과 스트레스가 자녀의 알레르기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	건강, 생리학	출산 전후 우울 Kessler (1차) 천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6차)	로지스틱 회귀분석

년도	#	제목	분야	연구 변인	연구 분석방법
	7	생애초기 돌봄 및 보육, 교육 기관 이용이 아동의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동 발달	기질 (1~5차) 의사소통,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문제해결, 개인/사회성 (1~3차) 놀이 상호작용, 놀이 방해, 놀이 단절 (4~6차) 표현 어휘력, 수용 어휘력 (4차, 6차) 언어발달, 인지발달, 문제행동 (5~6차)	차이 검증, 회귀분석
	8	보육, 교육기관에서의 초기 상호작용 경험이 유아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동 발달	교사-유아 상호작용 (4~6차) 유아 특성: 기관 및 교사 선호도 (6차) 교사 특성: 1일 근로시간, 총경력, 학력, 교수 효능감 (6차) 학급 특성: 형태 (연령 구성), 규모 (유아수) (6차) 유아 성별 가족 변인 (6차) 인지, 언어발달 (5~6차) 문제행동 (5~6차)	차이 검증, 분산분석, 상관분석, SEM
	9	영아기 발달 추이 분석	아동 발달	부모 연령, 부모 최종학력, 가구소득 (3차) 모 양육 행동 (1~3차) 모 양육스트레스 (1~2차) 모 우울 (1~3차) 부 양육참여 (1~3차) 인지, 언어, 사회성, 신체발달 K-ASQ (1~3차)	성장추이 분석
	10	부 양육참여와 부모의 양육시간 및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동 발달	부 양육참여 (4차) 부모 양육시간 (4차) 부모 양육스트레스 (4차) 또래관계 PIPPS (4차) 문제행동 CBCL (5차)	기초, 상관분석, 구조방정식 경로분석
	11	지역사회 양육환경 인식 특성에 따른 후속출산 영향력 분석	출산 및 취업	가구소득, 모 최종학력, 지역사회 양육 환경에 대한 가용 육아 지원 기관의 충분성, 공공 여가 공간/시설(놀이터, 공원, 산책로 등) 이용 편리성, 치안 및 안전사고 안전성,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공연시설, 도서관 등) 이용 편리성, 후속출산 여부 (1~6차)	차이 검증, 2수준 다중모형, 로지스틱 다중모형 분석
	12	어머니의 개인 심리적 특성과 가정환경자극 질이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	출산 및 취업	가정 환경 자극 EC-HOME (4차) 모 자아효능감 Pearlin (4차) 모 자아존중감 Rosenberg (4차) 후속 자녀 출산계획 (4차)	교차분석, 집단 간 평균 비교 분석, 상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년도	#	제목	분야	연구 변인	연구 분석방법
	13	영유아 자녀를 둔 취업모의 취업지속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출산 및 취업	모 취업 지속 시간 (1~5차) 인구 사회학적 배경: 모 연령, 교육 수준, 직종 (1차) 육아 지원 서비스: 개인 대리양육자 이용 여부, 육아 지원 기관충분성 (1차) 지역사회 양육환경: 지역사회 전반적 양육 적절성, 사교육 기관의 충분성 (1~5차 평균) 가정 내 양육 환경요인: 모 양육스트레스, 부 양육참여 (1~5차 평균) 모 심리적 특성: 부부갈등, 결혼만족도, 모 부정적 자기효능감, 모 자아존중감 (1~5차 평균)	생존분석
2015	1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이 만 5세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패널 1~6차년도 자료를 중심으로	아동 발달	사교육 횟수, 이용 시간 (1~6차) 문제행동 CBCL (6차)	기술통계분석,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교차분석 차이 검증, 일원변량분석
	2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문화인프라 이용 빈도가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아동 발달	아동 사회적 기술 척도 K-SSRS (7차) 문화인프라 이용빈도 (7차) 모 양육스트레스 (7차) 모 온정적, 통제적 양육행동 (7차)	구조방정식
	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및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종단적 관계 분석	아동 발달	아동 문제행동 CBCL (5~7차) 모 양육스트레스 (5~7차) 모 온정적 양육행동 (5~7차)	자기회귀 교차지연모형, 구조방정식
	4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탐색,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아동 발달	유아 학습준비도 (7차) 유아 문제행동 (6차) 모 양육 행동 (6차) 유아 인지발달 (6차) 월 가구소득 (6차) 부모 학력 (1차)	구조방정식
	5	자녀 성장에 따른 어머니 우울 위험 집단의 예측 변인 탐색	양육 환경	모 우울 (1~7차) 모 자아존중감 (1~7차) 모 부정적 자기효능감 (1~5차) 최종학력, 주당 근무시간 (1~5차) 모 결혼만족도 (1~5차, 7차) 모 부부갈등 (1~5차, 7차) 유아 성별 (1~7차) 유아 기질 활동성 (1~5차)	의사결정나무 CHAID (Chi-Squared Automatic Interaction Detection)

년도	#	제목	분야	연구 변인	연구 분석방법
				유아 기질 부정적 정서성 (1~5차) 유아 기질 사회성 (3~5차) 양육 행동 사회적 (1~4차) 양육 행동 온정적 (5~7차) 양육 행동 통제적 (4~7차) 모 양육스트레스 (1~7차) 부 양육참여 (1~5차)	
	6	한국 영유아 부모의 양육가치관 변화 추이: European values study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양육 환경	양육신념 (1~3차, 5차) + 독일,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핀란드	기술통계, 차이분석, 교차분석
	7	출산전후 부모의 사회경제지표가 자녀의 알레르기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	건강, 생리학	부모 음주, 흡연 및 알레르기질환 과거력 (1차, 6차, 7차) 부모직업 (1차) 부모 학력 (1차) 주택 형태 (1차) 소득 및 지출 (1차, 4차) 모 직장/학업, 양육스트레스, 수유 형태 (2차, 7차) 아동 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 (6차, 7차)	로지스틱 회귀분석

자료: 1) 이정림 외(2010). 한국아동패널 제1차 심층조사 보고서. 육아정책연구소.

2) 김은설 외(2012). 한국아동패널 2012 심층분석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3) 최윤경 외(2014). 한국아동패널 2014 심층분석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4) 이정림 외(2015). 한국아동패널 2008-2014 자료 심층분석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나. 한국아동패널 학술논문 활용 변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아동패널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도 별, 영역별 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논문 활용변수 분석 내용을 정리한 결과는 <표 I-4-2>와 같다.

이용 변수는 아동 특성, 부모 특성, 돌봄, 학교/사교육 특성, 가구 특성 및 지역 사회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아동 특성은 크게 일상생활, 신체건강, 인지언어, 자아정서, 사회성 발달 및 기타로 나누었고, 부모 특성은 인구학적 특성, 심리적 특성, 부부 특성, 신체 건강 특성, 직업 특성, 양육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돌봄/학교/사교육 특성 중 기관 특성은 영유아 시기, 학교 특성은 아동기의 경우 해당된다. 또한 가구 특성은 인구학적 특성, 물리적 특성, 경제적 특성, 가정환경 특성으로 나누고, 지역사회 특성은 일반적 특성, 양육환경, 위탁가구, 지원정책으

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각 변수가 논문에서 종속변수로 활용되었는지, 종속 변수 외의 독립변수 및 기타변수로 활용되었는지를 파악하여, 종속변수일 경우 ‘종속’, 독립변수 및 기타변수일 경우 ‘기타’로 표시하였다.

먼저 2017년에는 한국아동패널 자료가 활용된 59편의 학술논문이 국내·외 학술지에 발간되었으며(도남희 외, 2018: 26-27), 아동의 사회성 발달(39회)과 부모의 양육 특성(39회)이 가장 많이 활용된 변수 군이었고, 부모의 심리적 특성(28회)도 기타변수로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종속변수로는 아동 특성 변수, 특히 사회성 발달과 인지·언어발달 영역의 변수를 사용 빈도가 높았다.

2018년에는 한국아동패널 자료가 활용된 76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김은설 외, 2019: 34-35), 아동 특성이나 부모 특성 변인뿐 아니라 학교 특성, 가구 특성, 지역사회 특성까지 종속변수로 활용된 경우들이 나타났다. 아동기로 넘어가면서 활용된 변수에도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동 특성의 일상생활 및 사회성 발달 변수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부모 특성에서는 양육 특성과 심리적 특성이 많이 활용되었다. 또한, 2018년에는 가정환경 특성의 활용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2019년에는 총 42편의 한국아동패널 자료가 활용된 논문이 발표되었으며(김은설 외, 2020: 31-32), 아동 특성 중 인지언어와 사회성 발달의 변수가 크게 늘었고, 양육 특성을 기타변수로 활용한 논문이 크게 늘었다. 또한, 가구 특성 중 경제적 특성 및 가정환경특성이 기타변수로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는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총 125편의 논문이 발간되었는데(김지현 외, 2021: 45-46), 역시 여러 변수 중 아동 특성과 부모의 양육 특성을 활용하는 논문이 가장 많게 나타났다. 아동 특성 중에서는 또래와의 상호작용, 문제행동 등 사회성 발달 변수를 활용한 논문이 월등히 많아졌고(160회), 인지언어발달(94회), 자아정서발달(76회) 순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분석의 주요 내용이 되는 종속변수로는 아동 특성 중 사회성 발달(93회)을 가장 많이 활용하였으며, 인지언어발달(43회)도 높은 빈도로 활용되었다. 독립변수 등 기타변수로는 부모의 양육 특성을 활용한 논문이 가장 많았고(166회), 그 외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60회)이나 심리적 특성(60회), 아동 특성 중 사회성 발달(67회), 돌봄/학교/사교육 특성 중 교사 특성(56회), 가구의 특성 중 경제적 특성(57회) 등도 많이 활용되었다.

〈표 I-4-2〉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논문 변수: 2017~2020년 발간 논문 기준

단위: 회

구분		아동 특성						부모 특성					
		일상 생활 ¹⁾	신체 건강 ²⁾	인지 언어 ³⁾	자아 정서 ⁴⁾	사회성 발달 ⁵⁾	기타 ⁶⁾	인구학적 특성 ⁷⁾	심리적 특성 ⁸⁾	부부 특성 ⁹⁾	신체 건강 특성 ¹⁰⁾	직업 특성 ¹¹⁾	양육 특성 ¹²⁾
2020	전체	38	13	94	76	160	74	60	66	37	12	37	179
	종속	10	5	43	28	93	-	-	6	6	-	-	13
	기타	28	8	51	48	67	74	60	60	31	12	37	166
2019	전체	14	8	70	23	68	44	24	17	16	-	11	60
	종속	2	3	23	7	21	-	-	2	2	-	-	5
	기타	12	5	47	16	47	44	24	15	14	-	11	55
2018	전체	20	3	10	11	20	6	6	23	9	2	4	39
	종속	8	1	6	3	10	-	-	3	1	1	-	5
	기타	12	2	4	8	10	6	6	20	8	1	4	34
2017	전체	12	7	20	10	39	-	6	28	14	-	13	39
	종속	1	5	12	2	29		-	4	1	-	0	8
	기타	11	2	8	8	10		6	28	13	-	13	31
구분		돌봄/학교/사교육				가구 특성			지역사회 특성				
		기관 특성 ¹³⁾	교사 특성 ¹⁴⁾	학교 특성 ¹⁵⁾	사교육 특성 ¹⁶⁾	인구학적 특성 ¹⁷⁾	물리적 특성 ¹⁸⁾	경제적 특성 ¹⁹⁾	가정 환경 특성 ²⁰⁾	일반적 특성 ²¹⁾	양육 환경 ²²⁾	위탁 가구 ²³⁾	지원 정책 ²⁴⁾
2020	전체	13	58	10	5	7	2	57	33	9	19	-	2
	종속	-	2	-	-	-	-	-	1	-	-	-	-
	기타	13	56	10	5	7	2	57	32	9	19	-	2
2019	전체	6	7	-	1	1	1	21	19	11	6	-	-
	종속	-	-	-	-	-	-	-	1	2	2	-	-
	기타	6	7	-	1	1	1	21	18	9	4	-	-
2018	전체	5	7	2	4	-	-	6	19	3	8	-	1
	종속	1	5	-	1		-	-	1	-	-	-	-
	기타	4	2	2	3		-	6	18	3	8	-	1
2017	전체	15	22	2									
	종속	0	1	1									
	기타	15	21	1									

주1: 기타변수는 종속변수를 제외한 독립변수 등의 변수를 의미함.

주2: 각 영역별 포함 변수는 다음과 같음.

- 1) 일상생활: 식습관 특성, 미디어 이용시간, 모유수유 여부, 배변/씻기 습관특성, 수면시간, 미디어 이용시간, 실내 놀이 일, 바깥놀이 및 외출일, 미디어 이용정도
- 2) 신체건강: 체중, 신장, 알레르기 질환별 의사진단 여부, 대근육/소근육운동, 운동발달,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 3) 인지언어: 인지발달, 수용어휘력, 표현어휘력, 문제해결, 언어발달, 의사소통, 학습준비도, 창의성, 발화능력, 학업 능력, 학교준비도
- 4) 자아정서: 기질,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감, 육아지원기관, 교사선호도
- 5) 사회성 발달: 또래와의 상호작용, 문제행동, 발달, 사회적 유능감, 개인-사회성
- 6) 기타: 성별, 출생순위, 출생순위, 종교참여 횟수
- 7) 인구학적 특성: 연령, 직업, 학력
- 8) 심리적 특성: 우울,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주관적행복감, 자기효능감, 일가정 양립/갈등

- 9) 부부 특성: 부부갈등, 결혼만족도
 - 10) 신체건강 특성: 음주, 흡연
 - 11) 직업특성: 취업여부, 취업/학업상태, 근무시간
 - 12) 양육특성: 양육행동, 부모-자녀상호작용, 아버지의 양육참여, 양육분담, 양육스트레스, 후속출산 계획, 양육 시간, 양육관, 자녀가치, 자녀의 미래기대, 사회적 지원정도
 - 13) 기관: 이용 여부 및 유형, 이용시간, 설립유형, 자원 아동 수, 학급 수, 학급 내 교사 및 아동 수, 교실 규모 적절성, 실내 대근육 활동 공간 유무, 기관 규모
 - 14) 교사특성: 아동과의 상호작용, 교수효능감, 교실환경, 주관적 행복감, 기관선호도, 교사선호도, 특별활동 이용 횟수, 부모 참여 행사(교육) 참여 여부
 - 15) 학교 특성: 가정기관 소통, 부모 학교생활 관심정도, 방과 후 교육시간
 - 16) 사교육 특성: 사교육 참여 횟수
 - 17) 인구학적 특성 : 조부모 동거 여부
 - 18) 물리적 특성: 개인 방 여부
 - 19) 경제적 특성: 가계 소득, 소비성 지출 비용
 - 20) 가정환경 특성: 가족상호작용, 가족기능, 가족응집성, 가족유연성
 - 21) 일반적 특성: 지역 규모, 6개 권역 구분, 시/군/구, 17개 시/도 구분
 - 22) 양육환경 특성: 교육 의료 복지 시설, 공공 여가 공간 시설, 문화시설 접근 편리성 및 이용 만족도
 - 23) 위탁가구 특성
 - 24) 지원정책: 국가지원, 근로 직장의 육아지원제도,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 자료: 1) 김지현 외(2021).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1(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p. 45-46.
 2) 김은설 외(2020).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0(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p. 31-32.
 3) 김은설 외(2019).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9(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p. 34-35.
 4) 노담희 외(2018).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8(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p. 26-27. 4년간 자료를 바탕으로 표 재작성 하였으며, 일부 수치 재분석으로 원출처와 수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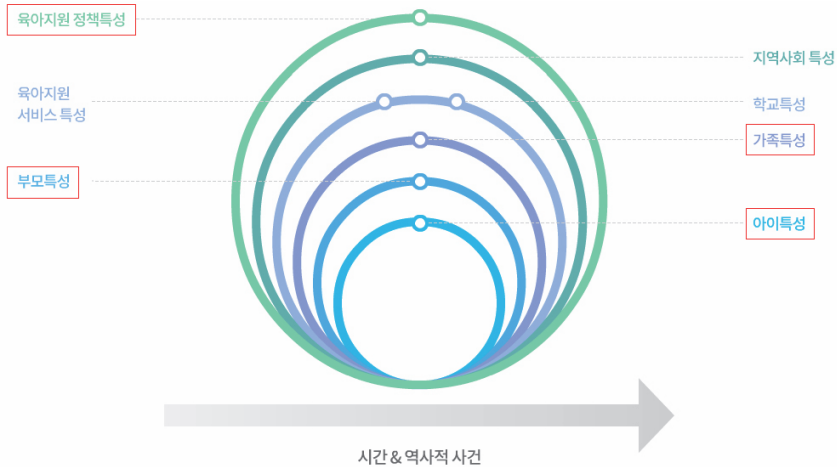
5. 연구범위

가. 한국아동패널 조사의 이론적 배경

한국아동패널 조사의 이론적, 구조적 배경은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한국아동패널 조사에서는 Microsystem으로 아이의 주 양육자의 역할을 하는 ‘부모’ 특성, 아이와 부모를 한 단위로 한 ‘가족’ 특성, 아이 ‘학교’ 특성을 다루고 있다. 이처럼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Microsystem을 조사에 포함하여 Microsystem 간의 관계성을 보는 Mesosystem 수준의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한국아동패널 자료의 강점이라 할 수 있다. Microsystem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예: 부모 직장 환경, 지역사회, 육아서비스)인 Exosystem에 관하여도 부모 조사와 교사 조사에서 다루고 있다, 나아가 Exosystem이면서 Macrosystem과 연결되어 있는 ‘육아 지원 정책’도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아동패널은 다양한 체계의 ‘시간’ 측면을 함께 다루는 종단 데이터이므로 장시간에 걸쳐 아동과 아동을 둘러싼 환경이 어떻

게 유기적으로 변화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4-1] Bronfenbrenner 생태학적 모델에 따른 한국아동패널 조사 영역



주: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본 심층분석 연구에서 다루는 대영역임.
 자료: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https://panel.kicce.re.kr/pskc/html.do?menu_idx=28(2022. 5. 11. 인출).

나. 심층분석 연구 주제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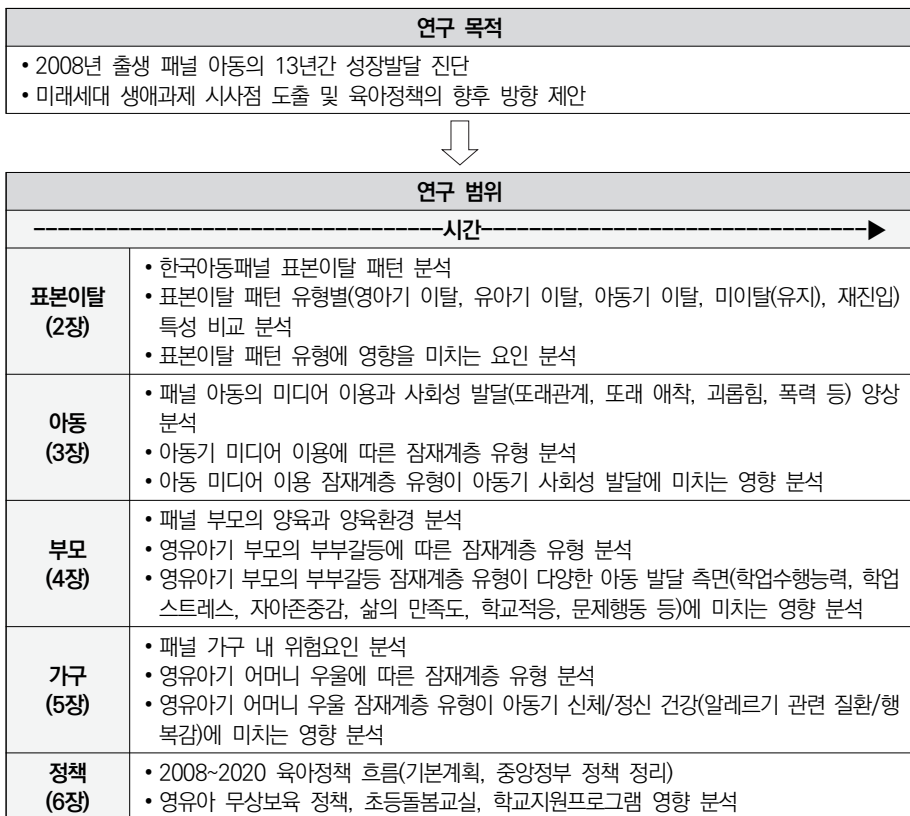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심층분석 연구는 이론적/구조적으로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을 바탕으로 하며(top-down), 아동, 교육, 정책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아동, 가족, 가구, 정책 부문에서 중요시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선정하였다(bottom-up).

본 심층분석의 핵심은 2008년부터 2020년 13년간의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시대 아동의 성장발달과 정책을 점검하는 것이며, 더불어 미래세대 생애 과제를 다루어 앞으로의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안하는 것이다.

첫 번째, 패널 원표본 이탈패턴과 유형별 특성, 이탈패턴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다. 둘째, 아동 부문에서는 조기화되고 있는 미디어 중독 위험과 초등학생의 사회성 발달에 대해 복합적으로 살펴본다. 셋째, 부모 부문은 아동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변인들과 관련한 한국아동패널 선행연구들을 정리하고 부부갈등이 아동의 다양한 발달적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다. 넷째, 가구 부문에서는 생애초기 가구 내 위험요인을 살피고, 그 중 어머니의 자녀 영아

기, 유아기 우울이 종단적으로 아동기 신체·정신 건강(알레르기 질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마지막 정책 부분에서는 2008년도 출생아가 경험한 각종 아동 지원 정책, 기본계획 등을 정리하고, 영유아 무상보육, 초등돌봄교실, 학교지원프로그램 등의 영향에 대해 조사하여 추후 정책 설계와 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제안한다.

[그림 I-4-2] 연구 목적과 범위



II

한국아동패널 표본이탈 분석

- 01 표본이탈 패턴
- 02 표본이탈 패턴 유형별 특성 비교
- 03 표본이탈 패턴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04 소결

II. 한국아동패널 표본이탈 분석¹⁾

본 장에서는 한국아동패널의 1차부터 13차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원표본의 이탈 패턴을 살펴보고, 각 표본의 이탈패턴 유형을 시기에 따라 영아기 이탈, 유아기 이탈, 아동기 이탈, 이탈하지 않은 집단(유지 집단), 재진입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이탈패턴 유형별로 주요 변인들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각 이탈패턴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순서형 로짓 모형(Ordered Logit Model)을 통해 살펴보고, 응답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포아송 회귀모형(Poisson Regression Model)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표본이탈 패턴

가. 각 차수별 응답률 및 원표본 유지율

한국아동패널은 1~3차년도까지 응답한 2,150가구를 패널로 확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적·관찰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1차년도 가구를 원표본 패널로 보는 다른 패널 조사와는 차이가 있다. 이에 1~2차년도의 원표본 유지율을 제시할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3차년도 이후부터는 패널로 확정된 2,150가구를 기준으로 원표본 유지율을 산출한다. 구체적으로 1차년도에 응답한 2,078가구 모두 원표본이고, 2차년도에는 52가구가 추가된 2,130가구가 원표본, 3차년도에 20가구가 추가된 최종 2,150가구를 원표본 패널로 확정하여 4차년도 이후부터는 2,150가구에 대해 추적조사하고 있다.

각 차수별 원표본 응답자 가구 수 및 원표본 유지율을 요약하면 <표 II-1-1>과 같다. 현재 13차년도 아동패널 원표본 유지율은 65.1%로 총 2,150가구 중 1,400가구가 응답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원표본 유지율의 경향성을 살펴보면, 초기 5년에는 표본 탈락 비율이 약 20%로 다소 높았지만 이후 다소 완만해져 6차년도

1) 본 장은 이상인 교수(충남대학교 정보통계학과)와 육아정책연구소 원내 연구진이 공동 집필함.

이후 5년 동안의 탈락률은 약 10%로 초기 5년과 비교하면 표본 탈락률이 절반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차년도 이후 원표본 유지율의 차이는 많은 차수에서 1~2% 포인트 내외의 차이를 보이는데, 8차년도와 9차년도의 원표본 유지율 차이는 3.4% 포인트로 다른 차수에 비해 원표본 유지율이 상대적으로 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시기로 아동기에 접어드는 초기시기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패널 아동이 중학교에 접어드는 초기시기에는 표본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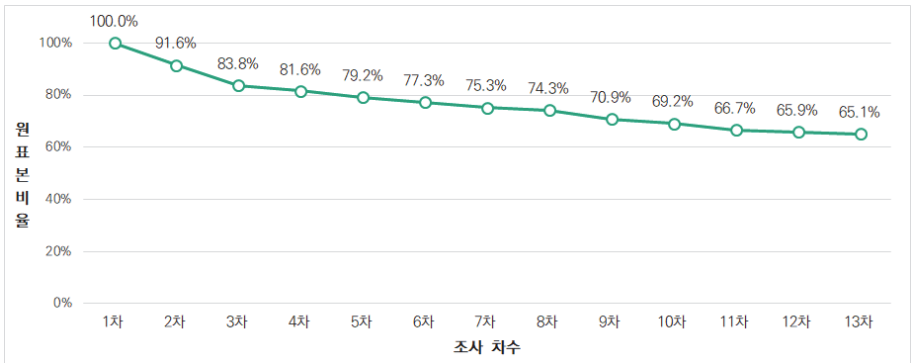
〈표 II-1-1〉 아동패널 각 차수별 응답자수 및 원표본 유지율

단위: 명, %

조사 차수	응답자	무응답자	원표본 유지율(%)	차이(%p)
1차	2,078	-	100.0	-
2차	1,904	226	91.6	8.4
3차	1,802	348	83.8	7.8
4차	1,754	396	81.6	2.2
5차	1,703	447	79.2	2.4
6차	1,662	488	77.3	1.9
7차	1,620	530	75.3	2.0
8차	1,598	552	74.3	1.0
9차	1,525	625	70.9	3.4
10차	1,488	662	69.2	1.7
11차	1,437	713	66.7	2.5
12차	1,417	733	65.9	0.8
13차	1,400	750	65.1	0.8

주: 1차년도와 2차년도 전체 원 표본수는 각각 2,078개와 2,130개로 하여 원표본 유지율 산출

〔그림 II-1-1〕 각 차수별로 원표본 유지율 시계열 그래프



나. 아동패널 표본이탈 패턴 및 유형화

한국아동패널 1차 조사부터 13차 조사까지의 응답 여부에 따른 표본이탈 패턴을 살펴보기 위한 사건계열분석(Event Sequence Analysis)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II-1-2>에 제시하였으며, 총 236개의 사건계열 패턴이 발견되었다. 이 중 빈도가 가장 높은 유형은 1차부터 13차 조사까지 모두 응답한 패널 1,109명으로 원표본의 51.6%가 안정적인 참여를 보이고 있다. 반면 1차 조사에만 한번 응답하고 이후 차수에는 전혀 응답하지 않은 표본은 124개로 표본이탈이 발생한 경우 중 가장 높은 비중(5.8%)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1, 2차 조사에만 응답하고 이후 모두 응답하지 않은 표본이 87개(4.1%), 1차부터 5차까지는 성실히 응답했으나 6차부터 응답하지 않은 표본이 47개(2.2%)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시작 시점부터 성실히 응답하다가 중간에 1~2번 응답하지 않고 이후 지속적으로 응답한 재진입 표본이 167개(8.0%)로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다양한 표본이탈 패턴이 존재했으며, 특히 1차, 9차, 13차에만 응답한 경우(사건계열: 1000000010001)와 같이 유형화하기 어려운 빈도가 1인 응답 패턴이 152개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조사에 성실히 응답한 패널은 1,251명(58.2%)이고, 이와 반대로 6차 조사 이후부터 전혀 응답하지 않는 패널은 384명(17.9%)으로 사실상 이와 같은 패널은 이탈 패널로 추정된다. 13차년도 현재 원표본 유지율은 65.1%로 향후 추가패널 구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II-1-2> 아동패널 표본이탈 사건계열별 빈도

단위: 명, %

사건계열	빈도	비율	사건계열	빈도	비율
1111111111111	1,109	51.6	1111011111111	14	0.1
1000000000000	124	5.8	11111111111011	14	0.1
1100000000000	87	4.1	11111111111101	12	0.1
1111100000000	47	2.2	0011111111111	8	0.1
1111111111000	43	2.0	0100000000000	8	0.1
1110000000000	42	2.0	1001111111111	8	0.1
1111000000000	41	1.9	11111111110111	8	0.1
11111111111110	37	1.7	11101111111111	7	0.1
1111111111100	34	1.6	11111111111001	7	0.1

사건계열	빈도	비율	사건계열	빈도	비율
1111111100000	30	1.4	1110100000000	6	0.1
1111111111100	27	1.3	1111110111111	6	0.1
1111110000000	25	1.2	1111111010000	6	0.1
1111111000000	25	1.2	1001100000000	5	0.1
1011111111111	23	1.1	1111100100000	5	0.1
0111111111111	19	0.9	1111111001111	5	0.1
1111111101111	16	0.7	기타 패턴 ¹⁾	287	13.4
1101111111111	15	0.1	전체	2,150	100.0

주: 기타 패턴 수는 총 203개(빈도수가 4인 패턴 수는 10개, 빈도수가 3인 패턴 수는 11개, 빈도수가 2인 패턴 수는 31개, 빈도수가 1인 패턴 수는 152개임).

표본이탈 패턴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각 표본의 이탈패턴 유형을 표본이 탈락한 시기에 따라 영아기 이탈(A집단), 유아기 이탈(B집단), 아동기 이탈(C집단) 집단으로 구분한다. 또한, 모든 조사에 성실히 참여한 이탈이 없는 집단(D집단)과 대부분 조사에 성실히 응답하고 중간에 1~2번 응답하지 않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응답한 재진입 집단(F집단)으로 구분한다.

[그림 II-1-2] 표본이탈 패턴 유형

조사 시기	2008 (1차)	2009 (2차)	2010 (3차)	2011 (4차)	2012 (5차)	2013 (6차)	2014 (7차)	2015 (8차)	2016 (9차)	2017 (10차)	2018 (11차)	2019 (12차)	2020 (13차)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초1)	8세 (초2)	9세 (초3)	10세 (초4)	11세 (초5)	12세 (초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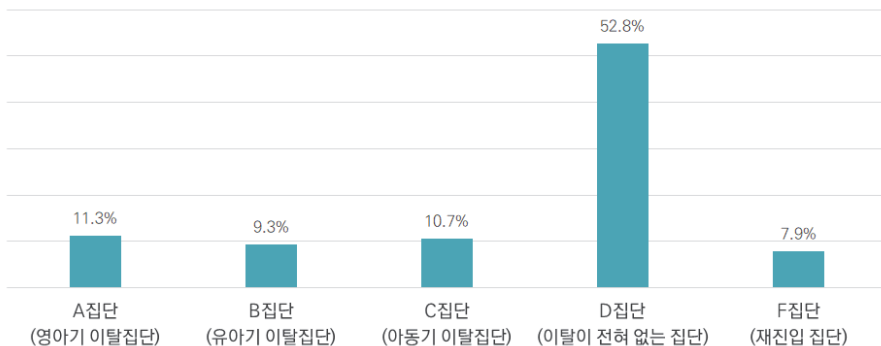
표본 탈락	【A집단】 영아기 이탈집단 11.3%	【B집단】 유아기 이탈집단 9.3%	【C집단】 아동기 이탈집단 10.7%
-------	----------------------------	---------------------------	----------------------------

패널 유지	【D집단】 이탈이 전혀 없는 집단 52.8%
	【F집단】 재진입 집단 7.9%

영아기 이탈집단(A집단)은 조사 초기에는 응답했지만 3차년도 이전에 이탈된 집단으로 243개(11.3%)의 표본이 이에 속하고, 유아기 이탈집단(B집단)은 영아기

(1~3차) 시기에는 응답했으나 유아기(4~7차)에 이탈된 집단으로 201개(9.3%)의 표본이 이에 해당된다. 비슷하게 아동기 이탈집단(C집단)은 유아기까지는 성실히 응답했으나 아동기(8~13차)에 이탈한 집단으로 229개(10.7%)의 표본이 있다. 유아기 이탈집단(B집단)은 영아기에는 모두 응답하여 영아기의 종단연구에 활용가능하고, 비슷하게 아동기 이탈집단(C집단)은 유아기 이전까지의 자료가 모두 존재하여 영·유아기 종단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한편, 모든 차수에 응답한 이탈이 전혀 없는 집단(D집단)의 표본 수는 1,136개(52.8%)이고 중간에 1~2번 응답하지 않았지만, 현재 패널로 유지되어있는 재진입 집단(F집단)의 표본은 169개(7.9%)이다. 한편, 빈도수가 1인 패턴과 5개 집단 중 한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패턴에 속하는 172개 표본은 이탈패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II-1-3] 표본이탈 패턴 유형별 비율



주: 빈도수가 1인 패턴과 5개 집단 중 한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패턴에 속하는 172개 표본은 이탈패턴 분석에서 제외

2. 표본이탈 패턴 유형별 특성 비교

가. 일반 개인/가구 특성 비교

표본이탈 패턴 유형별 특성 비교 분석에서는 아동 특성, 어머니 특성, 아버지 특성, 가구 특성, 거주지 특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였고, 각 변인별로 5개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였다. 아동 성별, 출생순위, 연령 변인의 경우 데이터의 초기시점 정보를 활용하였으며, 모/부 학력, 가구소득, 거주 지역, 이사여부, 패널

아동의 동생 출생여부 변인은 이탈직전(최근)시점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아동 특성의 경우 영아기, 유아기 이탈집단(A/B집단)에는 여아와 남아의 비중이 비슷한 반면, 아동기 이탈집단(C집단)에서는 남아의 이탈 비중이 55.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출생순위의 경우 첫째 자녀는 영아기, 유아기 이탈집단(A/B집단)에서 원 표본에 비해 그 비중이 높았으나, 아동기 이탈집단(C집단)과 이탈하지 않은 집단(D/F집단)에서는 첫째 자녀의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셋째 자녀의 경우 영아기 이탈집단(A집단)에서 비중이 5.0%이나 유아기 이탈집단(B집단)에서는 10.0%로 나타났다. 집단 간 아동의 성별 및 출생순위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표 II-2-1〉 표본이탈 유형 집단별 비교: 아동 특성

단위: 명(%)

아동 특성		전체	A집단	B집단	C집단	D집단	F집단	χ^2 (p값)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전체		1,978 (100.0)	243 (100.0)	201 (100.0)	229 (100.0)	1,136 (100.0)	169 (100.0)	
성별	남아	1,000 (50.9)	116 (47.7)	100 (49.8)	127 (55.5)	566 (49.8)	91 (53.8)	4.00 (.406)
	여아	978 (49.1)	127 (52.3)	101 (50.2)	102 (44.5)	570 (50.2)	78 (46.2)	
출생 순위	첫째자녀	930 (47.0)	128 (52.9)	95 (47.3)	106 (46.3)	523 (46.0)	78 (46.2)	14.78 (.254)
	둘째자녀	834 (42.2)	98 (40.5)	83 (41.3)	100 (43.7)	487 (42.9)	66 (39.1)	
	셋째자녀	191 (9.7)	12 (5.0)	20 (10.0)	21 (9.2)	117 (10.3)	21 (12.4)	
	넷째이상 자녀	22 (1.1)	4 (1.7)	3 (1.5)	2 (0.9)	9 (0.8)	4 (2.4)	

주: 1) A집단=영아기 이탈집단(11.3%)
 B집단=유아기 이탈집단(9.3%)
 C집단=아동기 이탈집단(10.7%)
 D집단=이탈이 전혀 없는 집단(52.8%)
 F집단=재진입 집단(7.9%)
 2) 전체 표본 기준 출생순위가 결측인 경우가 1개 있음.

아동패널 원표본의 어머니 연령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 연령은 31.34세이고, 영아기 이탈집단(A집단)의 평균 연령은 31.73세로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집단 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학력별로는 영아기 이탈집단(A집단)에서 고졸 이하 비중이 33.8%, 유아기 이탈집단(B집단)은 34.5%로 아동기 이탈집단(C집단, 31.0%)

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고, 이탈하지 않은 집단(D/F집단)에서는 고졸 이하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어머니 학력에 대한 집단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취업 여부별로는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영아기 이탈집단(A집단)은 전업주부가 68.3% 비중을 차지하여 전체 비중(45.7%)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탈하지 않은 집단(D그룹)은 전업주부가 38.6%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II-2-2〉 표본이탈 유형 집단별 비교: 모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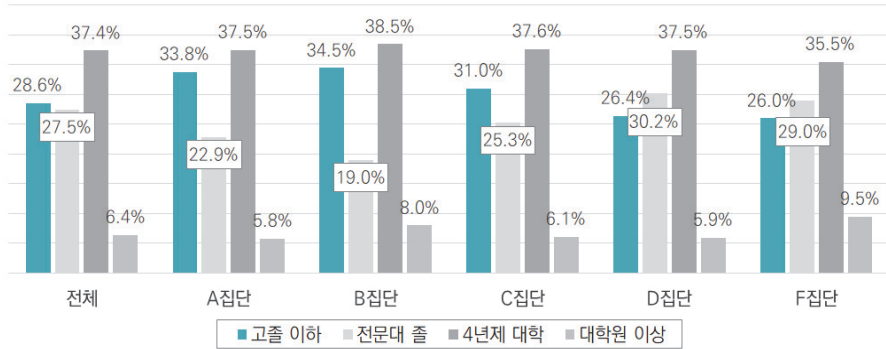
단위: 명(%), 세

어머니 특성		전체 빈도 (비중)	A집단 빈도 (비중)	B집단 빈도 (비중)	C집단 빈도 (비중)	D집단 빈도 (비중)	F집단 빈도 (비중)	χ^2 / F (<i>p</i> 값)
연령	25세 미만	53 (2.7)	8 (3.3)	6 (3.0)	10 (4.4)	25 (2.2)	4 (2.4)	20.35 (.205)
	25세~30세 미만	565 (28.6)	64 (26.3)	53 (26.4)	62 (27.1)	330 (29.1)	56 (33.1)	
	30세~35세 미만	982 (49.7)	113 (46.5)	102 (50.7)	108 (47.2)	586 (51.7)	73 (43.2)	
	35세~40세 미만	341 (17.3)	51 (21.0)	38 (18.9)	47 (20.5)	174 (15.3)	31 (18.3)	
	40세 이상	35 (1.8)	7 (2.9)	2 (1.0)	2 (0.9)	19 (1.7)	5 (3.0)	
평균연령(세)		31.34 (0.08)	31.73 (0.26)	31.46 (0.25)	31.28 (0.25)	31.24 (0.11)	31.40 (0.30)	0.93 (.446)
학력	고졸 이하	565 (28.6)	81 (33.8)	69 (34.5)	71 (31.0)	300 (26.4)	44 (26.0)	22.12* (.036)
	전문대 졸	543 (27.5)	55 (22.9)	38 (19.0)	58 (25.3)	343 (30.2)	49 (29.0)	
	4년제 대학	739 (37.4)	90 (37.5)	77 (38.5)	86 (37.6)	426 (37.5)	60 (35.5)	
	대학원 이상	127 (6.4)	14 (5.8)	16 (8.0)	14 (6.1)	67 (5.9)	16 (9.5)	
취업 여부	전업주부	903 (45.7)	166 (68.3)	111 (55.2)	123 (53.7)	439 (38.6)	64 (37.9)	90.32*** (<i><.001</i>)
	취업/학업 중	1,075 (54.3)	77 (31.7)	90 (44.8)	106 (46.3)	697 (61.4)	105 (62.1)	

주: 1) A집단=영아기 이탈집단(11.3%)
 B집단=유아기 이탈집단(9.3%)
 C집단=아동기 이탈집단(10.7%)
 D집단=이탈이 전혀 없는 집단(52.8%)
 F집단=재진입 집단(7.9%)
 2) 연령 결측은 2개, 학력 결측은 4개, 취업여부 결측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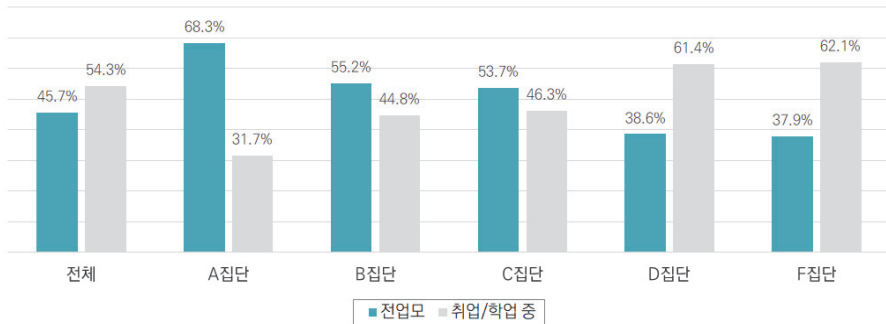
p* < .05, **p* < .001.

[그림 II-2-1] 모의 특성: 학력



주: 본 보고서 <표 II-2-2>의 내용 중,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을 그래프로 나타냄.

[그림 II-2-2] 모의 특성: 취업여부



주: 본 보고서 <표 II-2-2>의 내용 중,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을 그래프로 나타냄.

아동패널 원표본의 아버지 연령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 연령은 33.86세이고, 영아기 이탈집단(A집단)의 평균 연령은 34.28세로 다소 높게 나타났고,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는 27.0%, 4년제 대학은 41.3%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아기 이탈집단(A집단)에서 고졸 이하 비중이 28.1%, 아동기 이탈집단(C집단)은 29.3%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아버지의 연령, 학력 모두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아동패널 표본이탈 패턴에 있어 아버지의 특성보다는 어머니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2-3〉 표본이탈 유형 집단별 비교: 부의 특성

단위: 명(%), 세

아버지 특성		전체	A집단	B집단	C집단	D집단	F집단	χ^2 / F (p값)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연령	25세 미만	11 (0.6)	3 (1.3)	2 (1.1)	0 (0.0)	5 (0.5)	1 (0.6)	14.09 (.592)
	25세~30세 미만	239 (34.5)	27 (11.6)	22 (11.6)	33 (14.8)	137 (12.6)	20 (12.5)	
	30세~35세 미만	845 (44.6)	91 (39.1)	84 (44.2)	91 (40.8)	506 (46.5)	73 (45.6)	
	35세~40세 미만	658 (34.7)	88 (37.8)	66 (34.7)	85 (38.1)	365 (33.5)	54 (33.8)	
	40세 이상	142 (7.5)	24 (10.3)	16 (8.4)	14 (6.3)	76 (7.0)	12 (7.5)	
평균연령(세)		33.86 (0.09)	34.28 (0.28)	33.91 (0.29)	33.91 (0.27)	33.75 (0.12)	33.91 (0.33)	0.86 (.488)
학력	고졸 이하	531 (27.0)	66 (28.1)	50 (25.0)	67 (29.3)	303 (26.7)	45 (26.6)	10.61 (.563)
	전문대 졸	391 (19.9)	40 (17.0)	34 (17.0)	44 (19.2)	244 (21.5)	29 (17.2)	
	4년제 대학	813 (41.3)	105 (44.7)	93 (46.5)	86 (37.6)	452 (39.8)	77 (45.6)	
	대학원 이상	234 (11.9)	24 (10.2)	23 (11.5)	32 (14.0)	137 (12.1)	18 (10.7)	

주: 1) A집단=영아기 이탈집단(11.3%)
 B집단=유아기 이탈집단(9.3%)
 C집단=아동기 이탈집단(10.7%)
 D집단=이탈이 전혀 없는 집단(52.8%)
 F집단=재진입 집단(7.9%)
 2) 부의 연령 결측은 83개, 학력 결측은 8개임.

아동패널 표본이탈 패턴 유형 집단별 가구 특성을 살펴보면, 가구소득, 동생출생 여부, 결혼상태에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 가구 소득은 약 516만원이고 영아기 이탈집단(A집단)의 평균 가구소득은 약 347만원, 유아기 이탈집단(B집단)은 약 410만원, 아동기 이탈집단(C집단)은 약 509만원으로 이탈하지 않은 집단(D/F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동생 출생 여부는 아동기 이탈집단(C집단)에서 동생이 없는 가구 비중이 58.9%이고 이탈하지 않은 집단은 52.0%, 재진입 집단(F집단)은 60.9%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사 여부 관련 특성으로는 전체 이사 경험은 비중은 56.0%이며, 유

아기 이탈집단(B집단)의 경우 74.4%로 다른 집단에 비해 이사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의 결혼 상태에 따른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초혼이 아닌 가정의 비율이 전체 4.6%를 차지하는데, 재진입 집단(F집단)에서는 초혼 외 가정 비중이 8.3%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2-4〉 표본이탈 유형 집단별 비교: 가구 특성

단위: 명, 만원, (%), 회

가구 특성		전체	A집단	B집단	C집단	D집단	F집단	χ^2 / F (p값)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가구 소득	200만원 이하	173 (8.9)	66 (29.9)	42 (21.3)	19 (8.3)	37 (3.3)	9 (5.3)	376.46*** (.001)
	200만원~300만원	280 (14.3)	71 (32.1)	52 (26.4)	29 (12.7)	114 (10.0)	14 (8.3)	
	300만원~400만원	387 (19.8)	38 (17.2)	33 (16.8)	59 (25.8)	228 (20.1)	29 (17.2)	
	400만원~500만원	414 (21.2)	21 (9.5)	30 (15.2)	52 (22.7)	273 (24.0)	38 (22.5)	
	500만원 이상	698 (35.8)	25 (11.3)	40 (20.3)	70 (30.6)	484 (42.6)	79 (46.7)	
평균 가구소득		516.44 (8.39)	347.58 (18.88)	410.03 (21.46)	509.00 (23.67)	560.14 (11.67)	577.57 (24.48)	21.5*** (.001)
동생 출생 여부	동생 없음	813 (53.9)	-	-	119 (58.9)	591 (52.0)	103 (60.9)	7.03* (.029)
	동생 출생	694 (46.1)	-	-	83 (41.1)	545 (48.0)	66 (39.1)	
이사 여부	이사 안함	692 (44.0)	-	10 (25.6)	109 (47.6)	499 (43.9)	74 (43.8)	6.54 (.088)
	이사	881 (56.0)	-	29 (74.4)	120 (52.4)	637 (56.1)	95 (56.2)	
평균 이사횟수		0.92 (0.03)	-	1.08 (0.13)	1.04 (0.09)	0.89 (0.03)	0.91 (0.08)	1.52 (.207)
결혼 상태	초혼	1888 (95.4)	239 (98.4)	196 (97.5)	217 (94.8)	1081 (95.2)	155 (91.7)	12.59 (.013)
	초혼외	90 (4.6)	4 (1.6)	5 (2.5)	12 (5.2)	55 (4.8)	14 (8.3)	

주: 1) A집단=영아기 이탈집단(11.3%)

B집단=유아기 이탈집단(9.3%)

C집단=아동기 이탈집단(10.7%)

D집단=이탈이 전혀 없는 집단(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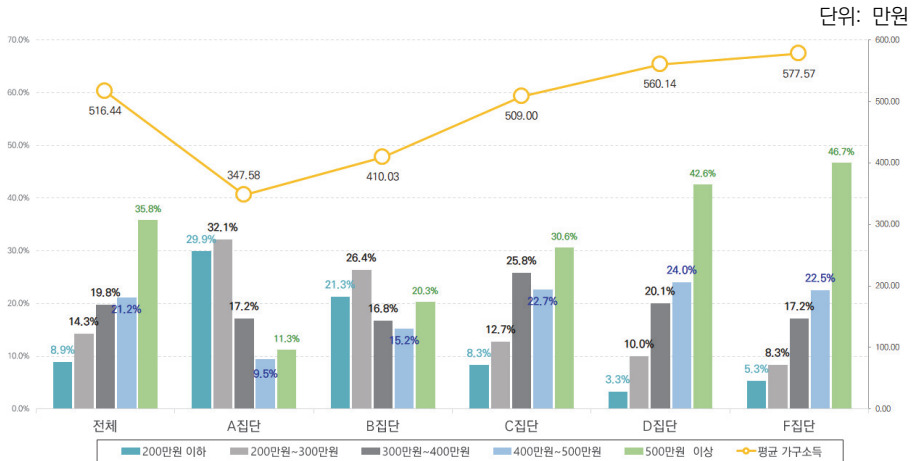
F집단=재진입 집단(7.9%)

2) 이사여부는 6차년도 이후에 자료가 존재하여 분석에서 A집단은 제외했고, B집단에서도 162개의 결측이 존재

3) 동생출생여부는 7차년도 이전에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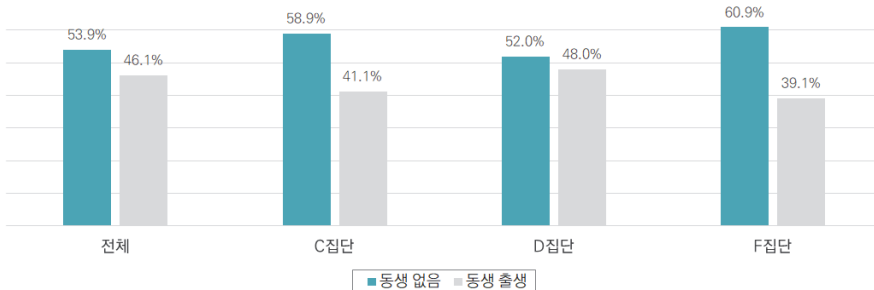
* $p < .05$, *** $p < .001$.

[그림 II-2-3] 가구 특성: 가구소득



주: 본 보고서 (표 II-2-4)의 내용 중,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를 그래프로 나타냄.

[그림 II-2-4] 가구 특성: 동생 출생 여부



주: 본 보고서 (표 II-2-4)의 내용 중,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를 그래프로 나타냄.

집단별 거주지 특성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아기 이탈집단(B집단)의 경우 경인권이 37.3%, 아동기 이탈집단(C집단)에서는 37.6%로 전체 경인지역 전체 비중인 32.7%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동기 이탈집단(C집단)의 경우 대전/충청/강원권의 비중이 17.0%로 전체(14.6%)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탈하지 않은 집단(D집단)은 광주/전라권 비중이 17.6%로 전체(11.4%)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지역 규모별로는 대도시가 전체의 41.3%, 읍/면이 9.5%, 중소도시가 49.2%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집단별로 살펴보면 영아기 이탈집단(A집단)의 경우 대도시가 43.6%, 읍/면이 19.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탈하지 않은 집단(D집단)은 중소도시 거주 비중이 53.3%로 전체(49.2%)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II-2-5〉 표본이탈 유형 집단별 비교: 거주지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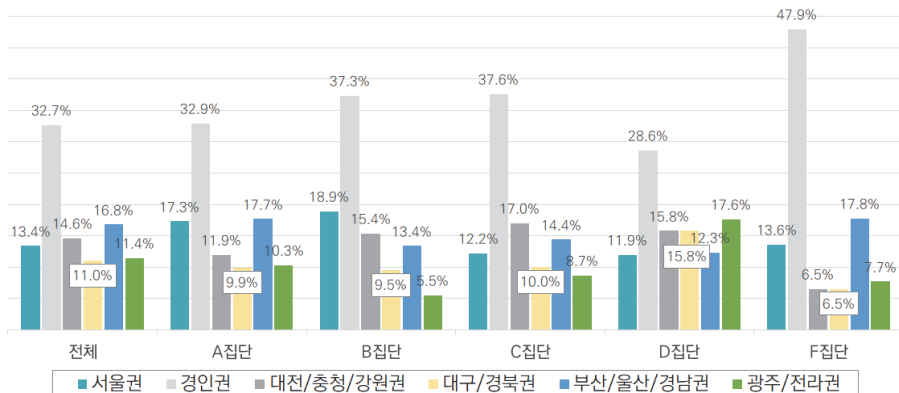
단위: 명, (%)

거주지 특성		전체 빈도 (비중)	A집단 빈도 (비중)	B집단 빈도 (비중)	C집단 빈도 (비중)	D집단 빈도 (비중)	F집단 빈도 (비중)	χ^2 / F (p 값)
거주지 지역 구역	서울권	266 (13.4)	42 (17.3)	38 (18.9)	28 (12.2)	135 (11.9)	23 (13.6)	65.33*** ($<.001$)
	경인권	647 (32.7)	80 (32.9)	75 (37.3)	86 (37.6)	325 (28.6)	81 (47.9)	
	대전/충청/강원권	289 (14.6)	29 (11.9)	31 (15.4)	39 (17.0)	179 (15.8)	11 (6.5)	
	대구/경북권	217 (11.0)	24 (9.9)	19 (9.5)	23 (10.0)	179 (15.8)	11 (6.5)	
	부산/울산/경남권	333 (16.8)	43 (17.7)	27 (13.4)	33 (14.4)	140 (12.3)	30 (17.8)	
	광주/전라권	226 (11.4)	25 (10.3)	11 (5.5)	20 (8.7)	200 (17.6)	13 (7.7)	
거주지 규모	대도시	817 (41.3)	106 (43.6)	93 (43.6)	92 (40.2)	462 (40.7)	64 (37.9)	113.75*** ($<.001$)
	읍/면	187 (9.5)	48 (19.8)	44 (21.9)	23 (10.0)	68 (6.0)	4 (2.4)	
	중소도시	974 (49.2)	89 (36.6)	64 (31.8)	114 (49.8)	606 (53.3)	101 (59.8)	

주: A집단=영아기 이탈집단(11.3%)
 B집단=유아기 이탈집단(9.3%)
 C집단=아동기 이탈집단(10.7%)
 D집단=이탈이 전혀 없는 집단(52.8%)
 F집단=재진입 집단(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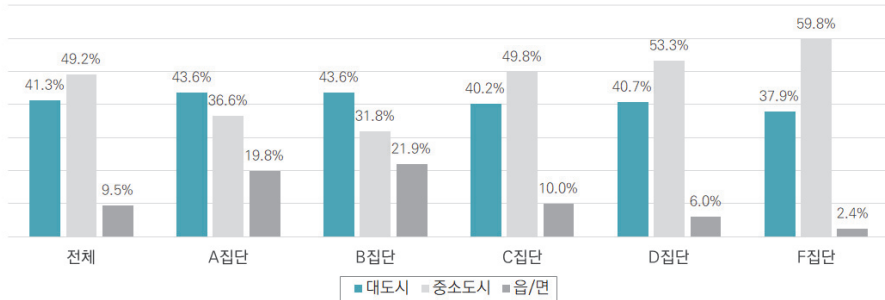
*** $p < .001$.

〈그림 II-2-5〉 거주지 특성: 거주 지역



주: 본 보고서 〈표 II-2-5〉의 내용 중,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을 그래프로 나타냄.

[그림 II-2-6] 거주지 특성: 지역규모



주: 본 보고서 <표 II-2-5>의 내용 중,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을 그래프로 나타냄.

나. 집단별 기타 영향변인 특성 비교

표본이탈 패턴 유형별 특성 비교를 위한 기타 영향 특성 변인으로는 부모의 우울, 사회적 지원정도, 양육/일상스트레스, 부 양육참여, 부부갈등 변인을 고려하였고, 각 변인별 값은 이탈이전 시기에 관측되는 자료의 평균값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예를 들면, 6차년도에 이탈한 표본의 경우 1~5차년도 존재하는 값의 평균을 사용한다.

어머니의 기타 영향 변인의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우울정도, 사회적 지원정도, 일상스트레스 변인이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영아기 이탈집단(A집단)에서 어머니의 우울 변인의 평균은 12.25로 전체 평균인 11.69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원정도 점수도 영/유아기 이탈집단(A/B집단)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아동기 이탈집단(C집단)에서 양육스트레스 점수가 2.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탈집단에서 이탈하지 않은 집단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상스트레스는 아동기 이탈집단(C집단)의 경우 3.05로 이탈하지 않은 집단(D집단)에 비해 다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2-6> 기타 영향 변인: 모의 특성

단위: 점

어머니 특성	전체	A집단	B집단	C집단	D집단	F집단	F (p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① 우울	11.69 (0.07)	12.25 (0.27)	11.90 (0.23)	11.88 (0.21)	11.49 (0.09)	11.89 (0.24)	3.08 [*] (.015)

어머니 특성	전체	A집단	B집단	C집단	D집단	F집단	F (p 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② 사회적 지원정도	3.88 (0.01)	4.01 (0.04)	3.95 (0.03)	3.82 (0.03)	3.87 (0.01)	3.77 (0.03)	10.41*** ($<.001$)
③ 양육스트레스	2.67 (0.01)	2.68 (0.04)	2.71 (0.04)	2.73 (0.03)	2.65 (0.01)	2.61 (0.04)	1.99 (.094)
④ 일상스트레스	2.96 (0.02)	-	-	3.05 (0.03)	2.95 (0.01)	2.93 (0.04)	4.80* ($<.015$)

주: 1) A집단=영아기 이탈집단(11.3%)
 B집단=유아기 이탈집단(9.3%)
 C집단=아동기 이탈집단(10.7%)
 D집단=이탈이 전혀 없는 집단(52.8%)
 F집단=재진입 집단(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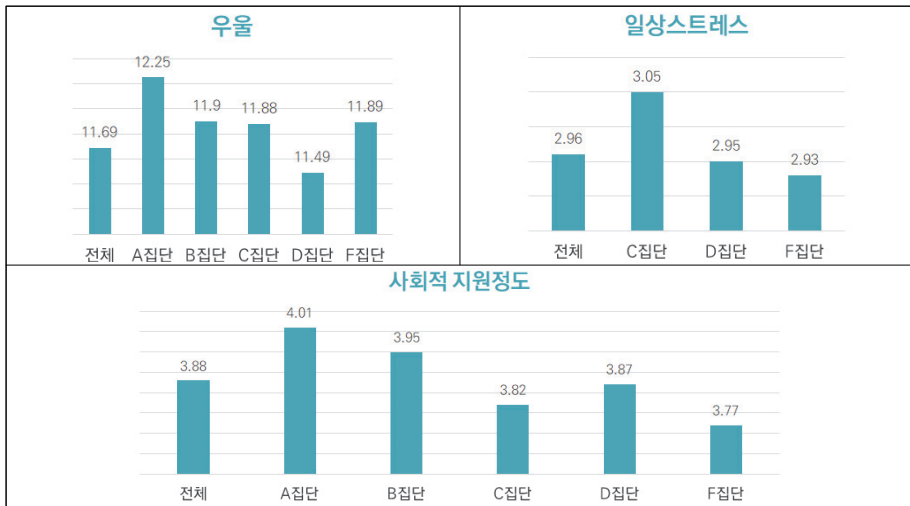
2) 변인 설명

- ① 우울: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 총 6문항.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합산 점수로 분석함.
 - ② 사회적 지원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 총 12문항/총 13문항(7차 조사 이후).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평균 점수로 분석함.
 - ③ 양육스트레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 총 11문항.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가 큰 것을 의미함. 평균 점수로 분석함.
 - ④ 일상스트레스: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음(1점)~스트레스를 많이 받음(4점). 총 1문항.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함.
- 3) 일상스트레스 변인은 7차년도부터 조사하여 A/B집단에서의 자료는 미존재
 4) A집단에서는 결측값이 다수 존재함(우울:36개, 사회적 지원정도:4개, 양육: 39개).

* $p < .05$, *** $p < .001$.

[그림 II-2-7] 기타 영향변인: 모의 특성-우울, 일상스트레스, 사회적 지원정도

단위: 점



주: 본 보고서 <표 II-2-6>의 내용 중,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을 그래프로 나타냄.

아버지의 기타 영향 변인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각 변인별로 집단 간 다소 차이가 존재하지만 우울, 양육스트레스, 일상스트레스, 양육참여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패널 이탈에 어머니의 특성이 아버지의 특성보다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표 II-2-7〉 기타 영향 변인: 부의 특성

단위: 점

아버지 특성	전체	A집단	B집단	C집단	D집단	F집단	F (p 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① 우울	11.35 (0.07)	-	11.12 (0.31)	11.23 (0.18)	11.34 (0.09)	11.66 (0.26)	0.97 (.542)
② 양육스트레스	2.37 (0.02)	-	2.43 (0.04)	2.37 (0.03)	2.37 (0.01)	2.32 (0.04)	1.44 (.344)
③ 일상스트레스	3.01 (0.01)	-	-	3.06 (0.03)	3.00 (0.01)	3.02 (0.03)	1.61 (.296)
④ 양육참여	14.51 (0.06)	14.79 (0.23)	14.45 (0.21)	14.24 (0.18)	14.51 (0.08)	14.72 (0.20)	1.30 (.267)

주: 1) A집단=영아기 이탈집단(11.3%)
 B집단=유아기 이탈집단(9.3%)
 C집단=아동기 이탈집단(10.7%)
 D집단=이탈이 전혀 없는 집단(52.8%)
 F집단=재진입 집단(7.9%)

2) 변인 설명

- ① 우울: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 총 6문항.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합산 점수로 분석함.
- ② 양육스트레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 총 11문항.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가 큰 것을 의미함. 평균 점수로 분석함.
- ③ 일상스트레스: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음(1점)~스트레스를 많이 받음(4점). 총 1문항.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함.
- ④ 양육참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대체로 그렇다(4점). 총 4문항.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합산 점수로 분석함.

3) 각 변인별 결측값은 분석에서 제외

어머니의 부부갈등 평균 점수는 16.59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반면에 아버지의 부부갈등 점수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유아기 이탈집단(B집단)의 경우 부부갈등 점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2-8〉 기타 영향 변인: 부부 특성

단위: 점

부부 특성	전체	A집단	B집단	C집단	D집단	F집단	F (p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모 부부갈등	16.59 (0.12)	16.19 (0.46)	17.18 (0.40)	17.07 (0.31)	16.41 (0.15)	16.95 (0.39)	1.94 (.101)
부 부부갈등	16.41 (0.11)	15.69 (0.41)	17.06 (0.34)	16.82 (0.29)	16.28 (0.13)	16.83 (0.36)	3.15* (.014)

주: 1) A집단=영아기 이탈집단(11.3%)
 B집단=유아기 이탈집단(9.3%)
 C집단=아동기 이탈집단(10.7%)
 D집단=이탈이 전혀 없는 집단(52.8%)
 F집단=재진입 집단(7.9%)

2) 변인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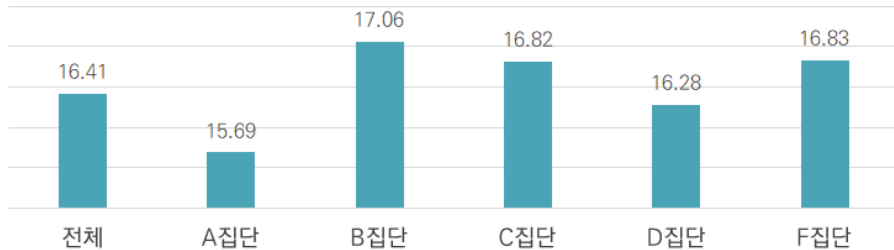
부부갈등: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 총8문항: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의 갈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합산 점수로 분석함.

3) 각 변인별 결측값은 분석에서 제외

* $p < .05$.

〔그림 II-2-8〕 기타 영향변인: 부부 특성-부가 인식한 부부갈등

단위: 점



주: 본 보고서 〈표 II-2-8〉의 내용 중,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을 그래프로 나타냄.

아동의 기타 영향 변인 특성을 살펴보면, 이탈하지 않은 집단(D집단)에서 학교 적응 점수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아동 기질 중 정서성의 경우, 아동기 이탈집단(C집단)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정서성 점수의 평균이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사하게 부정적 의미를 갖는 유아기/아동기 문제행동의 경우에도 아동기에 이탈한 집단(C집단)에서 문제행동 점수의 평균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2-9〉 기타 영향 변인: 아동 특성

단위: 점

아동 특성	전체	A집단	B집단	C집단	D집단	F집단	F (p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① 학교적응	4.41 (0.02)	-	-	4.39 (0.04)	4.42 (0.01)	4.38 (0.04)	1.23 (.296)
② 정서성	2.98 (0.01)	2.70 (0.04)	2.95 (0.03)	3.08 (0.02)	3.02 (0.01)	3.00 (0.03)	39.95*** ($<.001$)
③ 유아기문제행동	42.25 (0.61)	-	40.15 (2.75)	44.34 (1.62)	42.43 (0.72)	39.51 (1.91)	1.15 (.333)
④ 아동기문제행동	45.39 (0.63)	-	-	48.13 (1.98)	45.16 (0.17)	43.70 (1.87)	0.83 (.506)

주: 1) A집단=영아기 이탈집단(11.3%)
 B집단=유아기 이탈집단(9.3%)
 C집단=아동기 이탈집단(10.7%)
 D집단=이탈이 전혀 없는 집단(52.8%)
 F집단=재진입 집단(7.9%)

2) 변인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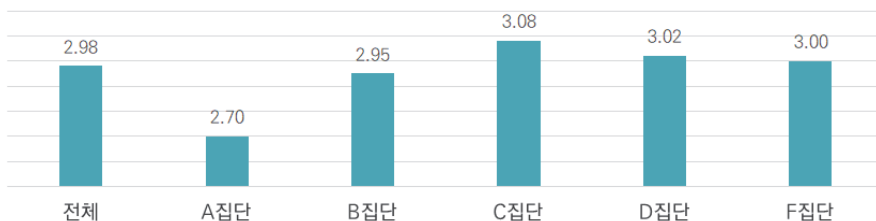
- ① 학교적응: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 총35문항(8~11차/역코딩문항: 1, 11, 31번).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평균 점수로 분석함.
- ② 정서성(기질):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 총 5문항.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나타냄을 의미함. 평균 점수로 분석함.
- ③ 유아기 문제행동: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0점), 가끔 그렇거나 그런편이다(1점), 자주 그런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2점)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구성됨. 총100문항.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가 높음을 의미함. 문제행동 총점으로 분석함.
- ④ 아동기 문제행동: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0점),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1점),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2점)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구성됨. 총120문항.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가 높음을 의미함. 문제행동 총점으로 분석함.

3) 각 변인별 결측값은 분석에서 제외

*** $p < .001$.

[그림 II-2-9] 기타 영향변인: 아동 특성-정서성

단위: 점



주: 본 보고서 〈표 II-2-9〉의 내용 중,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을 그래프로 나타냄.

3. 표본이탈 패턴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2절에서는 표본이탈 패턴 유형별 집단 간 차이를 각각의 변인별로 살펴보았다. 3절에서는 표본이탈시기별 각 집단에 속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적용하였다. 추가로 응답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포아송 회귀모형을 적용하였다.

가.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 적용 결과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반응변수가 순서형일 때 각 범주에 속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모형이다. 본 장에서 고려한 표본이탈 패턴 유형 그룹(A<B<C<D)은 재진입 집단(F집단)을 제외하면 표본이탈 시기에 따른 순서형 변수의 형태를 갖고 있다. 따라서 재진입(F집단)을 제외하고 표본이탈 패턴 그룹을 반응변수로 앞 절에서 고려한 일반 개인 및 가구 특성, 기타 영향변인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된 비례오즈 누적 로짓모형(Proportional Odds Cumulative Logit Model)을 적용하였다(McCullagh, 1980).

$$\text{Logit}\{P(Y \leq j | x_1, \dots, x_p)\} = \log \left\{ \frac{P(Y \leq j | x_1, \dots, x_p)}{P(Y > j | x_1, \dots, x_p)} \right\} = \alpha_j + x_1\beta_1 + x_p\beta_p, j = A, B, C$$

여기에서, Y 는 표본이탈 패턴 그룹, $x_1, \dots, x_p$ 는 모형에서 고려한 설명변수, α_j 는 각 로짓에 대한 절편, β_k 는 각 설명변수에 해당되는 회귀계수를 나타낸다. 위 모형은 3개의 로짓에 대해 절편만 다르고 각 설명변수 x_k 의 효과는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각 회귀계수의 추정 및 검정은 최대우도추정법, 모형의 적합도 검정은 우도비검정 적용하였고 최적모형(Optimal Model)은 단계별 변수선택법을 적용하여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를 기준으로 선택하였다. 한편, 회귀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분석 자료에 결측치가 없어야 하는데 몇몇의 변인에는 결측치가 다수 존재한다. 다음 표는 결측치 개수가 많은 상위 11개 변인의 결측치 개수 및 비율을 나타낸다. 모든 변인을 고려하기 위해 결측값이 있는 자료를 제외하면

모형에 적용할 수 있는 자료의 개수는 대략 1,000개로 정보의 손실이 많이 발생한다. 본 분석에서는 결측치 비율이 10% 이상인 변인은 회귀모형의 설명변수에서 제외하였고, 각 변인별 값은 이탈이전 시기에 관측되는 자료의 평균값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재진입 집단(F집단)과 결측치 있는 자료를 제외한 1,655개의 자료에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적용하여 모수를 추정결과는 <표 II-3-2>에 제시하였다.

<표 II-3-1> 변인별 결측치 개수 및 비율

변인	결측치 수	결측치 비율	비고
동생출생여부	471	23.8%	A,B집단 모두 결측
아동기 문제행동	460	23.2%	A,B집단 모두 결측
학교적응	445	22.4%	A,B집단 모두 결측
부 일상스트레스	441	22.2%	A,B집단 모두 결측
모 일상스트레스	418	21.1%	A,B집단 모두 결측
이사여부	405	20.4%	A집단 모두 결측
유아기 문제행동	333	16.8%	A집단 모두 결측
부 양육스트레스	293	14.8%	A집단 모두 결측
부 우울	292	14.7%	A집단 모두 결측
정서성	269	13.5%	결측치 다수 존재
부 연령	83	4.1%	-

<표 II-3-2>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 추정결과

구분	변수	수준	추정치	오즈비	유의확률
자녀 특성	성별(남아=0)	여아	-	-	-
	출생순위		-	-	-
어머니 특성	연령		-	-	-
	학력 (고졸이하=0)	전문대 졸업	0.331	1.392	0.036
		4년제대 졸업	-0.048	0.953	0.777
		대학원 이상 졸업	-0.579	0.560	0.033
	취업 (전업주부=0)	취업/학업 중	0.331	1.392	0.004
아버지 특성	연령		-0.027	0.973	0.050
	학력 (고졸이하=0)	전문대 졸업	-0.138	0.871	0.419
		4년제대 졸업	-0.522	0.593	0.001
		대학원 이상 졸업	-0.624	0.536	0.007
가구 특성	월소득		0.539	1.714	<0.001
	결혼상태 (초혼 외=0)	초혼	-1.321	0.267	<0.001

구분	변수	수준	추정치	오즈비	유의확률
	거주 지역	중소도시	0.919	2.507	<0.001
		대도시	0.737	2.090	<0.001
기타 변인	우울(모)		-0.058	0.944	0.001
	양육스트레스(모)		-	-	-
	부부갈등(모)		-	-	-
	부부갈등(부)		-	-	-
	부 양육참여		-	-	-
	사회적지원		-0.803	0.448	<0.001
절편	A B		-5.478	0.004	0.053
	B C		-4.398	0.012	0.562
	C D		-3.549	0.029	0.649
모형 적합도	residual deviance: 2983.515, AIC: 3017, $df=1638$ null deviance: 3366.781, AIC: 3372, $df=1652$ $\chi^2=383.266$, $p<.0001$.				

주: '-' 최종모형에서 제외된 변수

AIC기준 단계별 변수선택법으로 선택된 최종모형은 우도비 검정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다. 변인별로 살펴보면, 자녀특성, 어머니 연령, 모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 부 양육참여 변인은 최종모형에 선택되지 않아 각 이탈시기 그룹에 속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고졸이하인 경우보다 전문대 졸업인 경우에 늦은 이탈시기 그룹에 속할 확률이 높았으며, 전업주부에 비해 취업 및 학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늦은 이탈시기 그룹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의 월소득이 높을수록, 읍/면 지역에 비해 중소도시,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이탈시기가 늦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기타 변인의 영향으로는 어머니의 우울점수와 사회적 지원점수가 높을수록 이탈시기가 이른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포아송 회귀모형 적용 결과

포아송 회귀모형은 반응변수가 계수형일 때 반응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모형이다. 13차 조사 중 조사에 응답한 횟수는 계수형 반응변수의 형태를 갖고 있고, 포아송 회귀모형은 응답횟수의 분포를 다음과 같이 평균이 x 에 따라 변하는 포아송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log\{E(Y|x)\} = \alpha + x^T\beta, \quad Y_i|x_i \sim^{i.i.d} \text{Poisson}(\lambda_i = \exp(\alpha + x_i^T\beta)), i=1, \dots, n$$

여기에서, Y 는 응답횟수, x 는 모형에서 고려한 설명변수 벡터, β 는 회귀계수 벡터이다. 포아송 회귀모형에서 모수추정 및 추론, 모형 선택은 위에서 설명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II-3-3〉 포아송 회귀모형 추정결과

구분	변수	수준	추정치	유의확률
자녀 특성	성별(남아=0)	여아	-0.025	0.081
	출생순위		0.017	0.130
어머니 특성	연령		-	-
	학력 (고졸이하=0)	전문대 졸업	0.055	0.010
		4년제대 졸업	-0.004	0.857
		대학원 이상 졸업	-0.081	0.031
	취업 (전업주부=0)	취업/학업 중	0.038	0.017
아버지 특성	연령		-0.005	0.015
	학력 (고졸이하=0)	전문대 졸업	-0.036	0.112
		4년제대 졸업	-0.089	<0.001
		대학원 이상 졸업	-0.103	<0.001
가구 특성	월소득		0.091	<0.001
	결혼상태 (초혼 외=0)	초혼	-0.191	<0.001
		중소도시	0.233	<0.001
	거주 지역	대도시	0.197	<0.001
기타 변인	우울(모)		-0.008	0.007
	양육스트레스(모)		-	-
	부부갈등(모)		-0.003	0.151
	부부갈등(부)		-	-
	부 양육참여		-	-
	사회적지원		-0.148	<0.001
절편			2.783	<0.001
모형 적합도	residual deviance: 2866.3, AIC: 10295, $df=1,797$ null deviance: 3506.4, AIC: 10901, $df=1,814$ $\chi^2=953.721$, $p<.0001$.			

주: ‘-’ 최종모형에서 제외된 변수

〈표 II-3-3〉은 응답횟수 반응변수에 포아송 회귀모형을 적용한 결과를 나타낸다. AIC기준 단계별 변수선택법으로 선택된 최종모형은 우도비 검정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다. 변인별로 살펴보면, 자녀특성, 어머니 연령, 모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부), 부 양육참여 변인은 최종모형에 선택되지 않아 응답횟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인들이 고정되어 있을 때, 어머니가 고졸이하인 경우에 비해 전문대 졸업인 경우에 응답횟수의 평균이 높았으며, 대학원 이상 졸업인 경우에는 응답횟수의 평균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전업주부에 비해 취업 및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에 응답횟수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순서형 로지스틱 모형결과와 유사하게 가구의 월소득이 높을수록, 읍/면 지역에 비해 중소도시,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응답횟수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고, 어머니의 우울점수, 모 부부갈등, 사회적 지원점수가 낮을수록 응답횟수의 평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소결

본 장에서는 한국아동패널의 1차부터 13차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원표본의 이탈패널 및 표본이탈 패턴 유형별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아동패널의 원표본 유지율을 살펴본 결과, 조사 초기에는 표본 탈락 비율이 다소 높았지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탈락률이 다소 완만해져 13차 년도 현재 원표본 유지율은 65.1%로 총 2,150가구 중 1,400가구가 응답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아동패널의 경우 타 패널과 비교하여 총 패널 표본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2,150개인 점을 고려할 때 패널 자료의 신뢰성을 위한 패널 이탈 방지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패널의 연도별 응답여부를 기준으로 각 패널을 영아기 이탈, 유아기 이탈, 아동기 이탈, 모든 차수에 응답한 집단 및 재진입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사 초기에는 응답했지만 3차년도 이전에 이탈된 영아기 이탈집단은 243개(11.3%), 유아기 이탈집단은 201개(9.3%), 아동기 이탈집단에는 229개(10.7%)의 표본으로 이탈집단의 표본 수는 시기별로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 응답한 패널 1,109명을 포함하여 1~2번 응답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차수에 성실히 응답한 패널이 1,276명이었다.

표본이탈 패턴 유형별 특성 비교 분석결과, 아동특성(성별, 출생순위)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아버지의 특성(연령, 학력)은 집단 간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어머니의 학력 및 취업 여부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구 특성으로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이른 이탈집단에 속해 확연히 집단 간 차이를 보였고, 동생출생여부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거주지 특성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기타 영향변인 특성별 집단 간 차이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아버지의 특성인 우울, 사회적 지원정도, 양육스트레스, 일상스트레스는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어머니의 우울, 사회적 지원정도, 일상스트레스 모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아동특성의 경우, 정서성이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학교적응, 문제행동 변인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이탈 시기별 각 집단에 속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어머니의 학력, 취업여부, 가구소득, 거주 지역 규모, 어머니의 우울정도 등이었으며, 응답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유사하게 나왔다. 즉,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경우, 취업/학업을 병행하는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거주 지역이 도시인 경우, 우울정도 및 사회적 지원 정도가 낮을수록 표본이탈 확률이 낮게 나타났고, 응답횟수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리하면, 패널 이탈은 어머니의 특성이 아버지의 특성보다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추후 2기 한국아동패널의 패널 유지 관리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영아기 이탈집단은 평균 가구소득이 낮고, 상대적으로 어머니의 우울감이 높으며, 고졸 이하의 비중이 높다. 사회적 지원 정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고 전업주부가 68.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영아기 이탈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영아기 시기 어머니의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적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유아기 집단은 부/모 부부갈등 점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다른 집단에 비해 이사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기 집단의 패널 이탈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부 상담 지원 및 서비스 연계가 요구되며 이사에 따른 패널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동기 이탈집단은 양육스트레스 및 일상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으며 유아기 문제행동 및 아동기 문제행동 점수가 다른 집단(이탈하지 않은 집단 및 재진입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아동기 집단의 이탈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아동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문제행동 점수가 높은 아동을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동기 이탈집단의 아동 특성 분석을 통해 아동 이탈 경향을 파악하여 이탈 특징을 가진 아동들을 집중 관리한다면 이탈하지 않은 집단과 재진입 집단의 지속·유지를 위한 전략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탈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패널 유지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다면 차수가 높아져도 한국아동패널의 대표성은 충분히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III

미디어와 사회성 발달

- 01 미디어 이용과 사회성 발달 양상
- 02 미디어 이용에 따른 집단유형화
- 03 영유아기 미디어 이용이 아동기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 04 소결

Ⅲ. 미디어와 사회성 발달²⁾

본 장에서는 한국아동패널의 10~13차 자료를 활용하여 현시대의 아동들이 직면한 미디어 사용의 위험과 현재 양상을 종단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연령의 증가와 함께 미디어 이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용 정도에서는 이질적 특성이 있다는 점에서 잠재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하여 집단을 유형화하고, 집단 유형화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그리고 집단 유형에 따른 정서사회성 측면의 발달적 차이를 확인하였다.

1. 미디어 이용과 사회성 발달 양상

2010년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후, 미디어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였고, 기술 강국인 대한민국에서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미디어는 소통의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았다. 이 가운데 COVID-19이라는 신종바이러스의 확산은 전 국민의 생활양식에 대변화를 끌어냈으며, 이에 아동의 삶에도 미디어가 깊숙이 침투하게 되었다. 미디어의 적절한 사용은 유희활동이 아니며 교육의 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 발달에 이점을 갖기도 하지만, 언어능력의 저하(배소영, 정연구, 2015)와 연관되며 또래놀이 상호작용이나 문제행동을 야기한다는 점에서(임선아, 2019) 발달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다수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영유아기부터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자연스러운 환경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사용을 통제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교육을 통해 아동이 능동적으로 미디어를 활용하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제안과 가이드라인이 아동의 권리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강은진, 2021).

본 절에서는 미디어 사용 증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는 바(김지현 외,

2) 본 장은 송경희 교수(우석대학교 상담심리학과)와 육아정책연구소 원내 연구진이 공동 집필함.

2021), 낮은 수준의 또래애착과 학업수행능력(김영미, 박윤조, 2020), 높은 정서성, 낮은 활동성(김연하, 2021), 낮은 사회적지지(심현숙, 박경빈, 2021), 낮은 행복감과 자아존중감(한은수, 2020),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허용적 양육행동(김종민, 최은아, 2019)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

가장 먼저 미디어중독과 집행기능 곤란/그릿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그릿과 집행기능이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의존/중독에 영향을 준다는 관점(예: 공영숙, 임지영, 2021; 박은영 외, 2021; 장희선, 2022)과 미디어 이용/중독이 아동의 집행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예: 강하라, 2021; 김은향, 2020; 임양미, 2020)으로 나뉘어졌다. 즉, 미디어 중독이 심한 아동이 그릿능력과 집행기능 수준이 낮은지, 그릿 능력과 집행기능 수준이 낮아서 미디어 중독의 위험이 높은지에 관해서는 연구마다 다른 관점을 보고하고 있으나 미디어 이용과 집행기능 간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미디어 중독과 아동의 언어 발달측면을 함께 조사한 연구 결과를 보면, 아동이 미디어 기기에 더 중독될수록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고, 비속어 사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수정, 구은미, 2019). 또한 스마트기기 의존도가 높을수록 화용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향, 2020).

미디어 중독과 부모의 양육행동을 함께 살펴본 연구들은 어머니가 권위주의적이거나 허용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미디어 중독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김종민, 최은아, 2019). 김은향(2020)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스마트 미디어기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부모 모두 온정적 양육행동이 스마트 미디어 기기 의존도를 낮추는 역할을 했다. 김수정, 구은미(2019) 연구에서도 부모가 긴밀히 아이들을 감독하는 경우 아동의 미디어 기기 중독이 낮아졌고, 반면 아이가 성인 없이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미디어 중독에 빠질 확률이 높아짐을 밝혔다.

미디어 중독과 아동의 심리 사회 발달 측면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미디어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험은 아동의 낮은 학업수행능력, 낮은 시간 사용만족도, 낮은 행복감과 연관되어 있었다(최유석 외, 2022). 한은수(2020) 연구에서는 아동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미디어중독이 높게 예측하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앞서 미디어 중독과 집행기능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행복감

과 미디어기기 중독 역시 양방향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정리된다. 교사-아동 관계, 또래관계와 미디어 중독을 함께 다룬 연구는 교사-아동관계가 좋고 또래에 착과 학업수행능력이 높을수록 미디어 중독에 빠지는 위험이 줄어든다고 보고하였다(김영미, 박윤조, 2020). 임선아(2019)의 연구에서는 유아기에 스마트미디어 기기 사용을 많이 하는 경우 또래상호작용이 줄어들어 이후 문제행동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미디어 이용과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도 문제행동과 유사한 방향성을 보이는데, 학령초기에 미디어 이용시간이 길수록 이후 학교적응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박은영 외, 2021; 이소은, 김미나, 2021).

나. 패널 아동의 미디어 이용 실태

2008년 4~8월 사이 출생한 약 2,000명의 종단 자료 가운데, 10~13차 자료를 중심으로 아동기 미디어 이용 실태를 인구학적 특성을 기반으로 살펴보았다. 한국 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김지현 외, 2021: 267, 102-106)에서 13차 조사 참여 아동의 미디어 이용 평균 시간은 2.8시간(n=1,377)이었으며, 연령별 미디어 이용 정도를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III-1-1>과 같다. 구체적으로, 동영상 및 웹툰 등을 보는 엔터테인먼트 활동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게임, 정보검색, SNS, 학습 순으로 이용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 미디어 이용정도-상세

단위: 점, 명

구분	학습			정보 검색			게임			엔터테인먼트			SNS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10차 (초등3)	2.01	1.00	1,350	2.13	0.83	1,356	2.60	1.01	1,353	2.52	1.02	1,348	1.87	1.00	1,348
11차 (초등4)	2.12	1.03	1,376	2.30	0.80	1,382	2.67	1.02	1,378	2.78	1.01	1,378	2.16	1.08	1,376
12차 (초등5)	2.17	1.03	1,374	2.45	0.78	1,377	2.84	1.01	1,373	2.96	0.97	1,369	2.49	1.13	1,364
13차 (초등6)	2.72	1.04	1,382	2.78	0.85	1,381	2.95	1.05	1,383	3.20	0.90	1,376	2.86	1.08	1,376
전체	2.26	1.06	5,482	2.42	0.85	5,496	2.76	1.03	5,487	2.87	1.01	5,471	2.35	1.14	5,464

주: 1점=전혀 사용안함, 2점=가끔 사용함, 3점=자주 사용함, 4점=매일 사용함.

자료: 김지현 외(2021).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1(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 268.

2. 미디어 이용에 따른 집단유형화

가. 분석개요

본 연구는 미디어 이용시간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로 주목되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들의 미디어 이용 발달 궤적과 이에 따른 유형을 구분하고, 나아가 이러한 유형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발달적 결과에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육아정책연구소의 아동패널 종단 자료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모가 보고한 아동의 미디어 이용에 관한 자료가 수집된 초등학교 3학년(10차), 4학년(11차), 5학년(12차), 6학년(13차) 시기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발달적 변화에 대한 정보를 추정하기 위하여 네 번의 측정 시점 가운데 세 번 이상 참여한 경우에만 분석에 포함하였다. 그 결과, 총 1,354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1) 연구도구: 아동 미디어 중독(10~13차)³⁾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 중독대응센터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중독진단척도(K-척도) 청소년 관찰자용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버전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평상시 자녀의 미디어 이용 모습을 관찰한 바에 대하여 어머니가 보고하는 방식으로, 총 15문항, Likert 4점(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Chronbach's α 는 10차 .84, 11차 .86, 12차 .86, 13차 .86으로 나타났다.

2) 분석방법

미디어 이용 발달적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 유형화하기 위하여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 GMM)을 사용하였다. 성장혼합모형은 잠재성장모형과

3)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도구프로파일(아동_미디어기기 중독_부모진단) https://panel.kicce.re.kr/pskc/board/view.do?menu_idx=42&board_idx=44571&manage_idx=161&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search_type=title&search_text=%EC%A4%91%EB%8F%85&rowCount=10&viewPage=1

잠재프로파일 분석이 혼합된 것으로, 발달적 변화에 따른 프로파일을 유형화하면서 동시에 잠재프로파일별로 성장요인 모수를 추정한다는 점에서 이점을 갖는다(Muthén & Muthén, 2010). 분석을 위하여 Mplus 8.4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결측치는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FIML)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먼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미디어 이용 양상의 적절한 프로파일 수를 결정하고 각 잠재프로파일의 특성을 기술하였다. 적절한 잠재프로파일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ACI(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kaike, 1974), BCI(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chwartz, 1978), 분류의 질(Entropy) 지수 등 적합도 지수를 중심으로 하되, 집단으로 분류하기 위한 최소 집단 기준, 그리고 결과의 해석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였다. 구체적으로, 잠재계층 수에 따라 변화하는 정보지수를 비교하고, 그래프를 확인하여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Elbow'가 발견되는 곳을 잠재계층 수의 선정 근거로 삼았다(Nylund et al., 2007). 또한 분류의 질(Entropy)의 경우, 0.6 이상이면 중간 정도의 분류로 판단한다는 기준을(Clark & Muthén, 2009), 그리고 가장 적은 수의 잠재계층 비율이 5% 미만이거나, 25명 이하이면 우연히 발생한 잠재계층일 가능성이라는 점(Berlin et al., 2014)을 참고하여 최종 프로파일 개수를 결정하였다.

나. 학령기 미디어 이용 변화 양상

아동패널 연구에서 부모가 보고한 아동의 미디어 이용에 관한 자료는 초등학교 3학년(10차), 4학년(11차), 5학년(12차), 6학년(13차)에 측정되었다. 네 번의 측정 시점 가운데 세 번 이상 참여한 경우에만 분석에 포함하였다. 아동의 미디어 이용 발달 궤적을 유형화한 결과는 <표 III-2-1>에 제시하였다. 먼저, 2개의 잠재프로파일로 유형화하였을 때, AIC는 3801.367, BIC는 3863.897로 나타났으며, Entropy는 .75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3개의 잠재프로파일로 유형화를 시도하였을 때 Entropy는 .851로 다소 향상되었으나, 하나의 잠재프로파일에 분류된 인원이 5명(0.004%)에 해당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 시, 집단의 수가 25명 이하인 경우 적절한 구분으로 판별하기 어렵다는 제안(Berlin et al., 2014)을 고려하였을 때, 그리고 그 외 판별을 위한 지표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두 개의 잠재프

로파일 유형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III-2-1〉 학령기 미디어 이용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수 적합도 및 분류율 비교

프로파일	적합도지수			분류의질	잠재프로파일 분류율(%)		
	AIC	BIC	SABIC	Entropy	1	2	3
1	3952.093	3998.991	3970.401	1			
2	3801.367	3863.897	3825.778	0.754	22.8	77.2	
3	3739.647	3817.809	3770.161	0.851	0.004	24.3	7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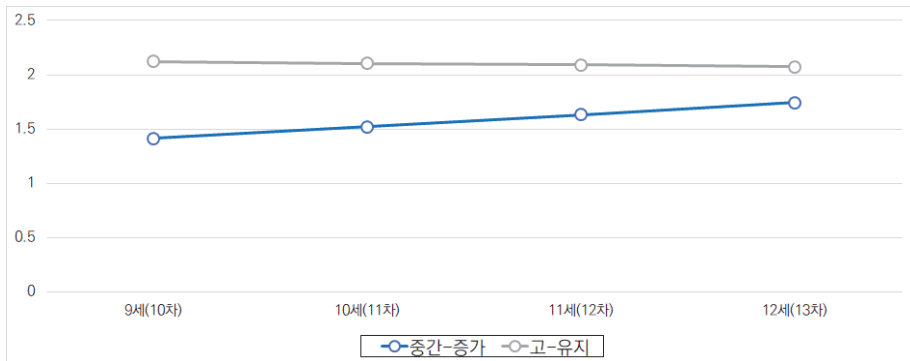
분류된 잠재프로파일을 [그림 III-2-1]에 제시하였으며, 각 프로파일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방식으로 잠재프로파일을 명명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집단은 미디어 이용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집단으로, 약 22.8%(308명)가 이에 해당하였다. 또 다른 집단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에 이르기까지 미디어 이용이 점차 증가하는 집단이나, 집단 1과 비교하여 미디어 이용은 더 낮은 정도를 보였으며 여기에는 약 78%(1,046명)가 속하였다. 이러한 발달궤적을 바탕으로, 첫 번째 집단은 ‘고-유지’ 집단으로, 두 번째 집단은 ‘중간-증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처럼 이질적인 두 개의 프로파일 가운데 ‘고-유지’ 집단은 미디어의 본격적 사용이 시작되기 이전 시기인 초등학교 3학년부터 비교적 높은 수준의 미디어 이용을 보이며 이러한 경향성이 시간의 흐름에도 꾸준히 유지되는 것으로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중간-증가’ 집단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스마트폰 보유율이 높아지고(한국미디어패널조사, 2022), 이에 따라 자연스레 사용량이 늘어나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13차 데이터의 경우 COVID-19 팬데믹이 선포된 이후 수집된 자료이므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학교 교육 역시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이루어졌던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표 III-2-2〉 학령기 미디어 이용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비교

구분	10차 (초등3)	11차 (초등4)	12차 (초등5)	13차 (초등6)
중간-증가	1.41422	1.52411	1.63399	1.74388
고-유지	2.12251	2.10666	2.0908	2.07495

[그림 III-2-1] 학령기 미디어 이용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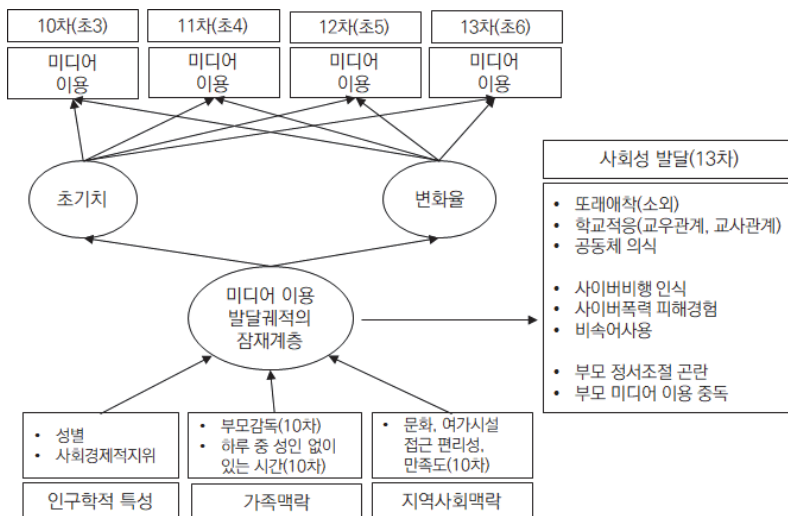


3. 영유아기 미디어 이용이 아동기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가. 분석개요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구분한 아동의 미디어 이용 유형 분류를 토대로 미디어 이용 발달 궤적을 예측하는 요인, 그리고 미디어 이용 양상이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표에 따라 연구 모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III-3-1]과 같다.

[그림 III-3-1] 연구모형



1) 연구도구

본 분석에서 예측변인으로 이용된 변인은 부모감독(10차), 하루 중 성인 없이 있는 시간(10차), 지역사회 시설 편의성 및 만족도(10차)이다.

사회성 발달 결과로 사용된 변인은 또래애착-소외(13차), 학교적응-교우관계 및 교사관계(13차), 공동체의식(13차), 사이버비행 인식(13차), 사이버폭력 피해경험(13차), 비속어 사용(13차), 부모 정서조절 곤란(13차), 부모 미디어 이용 중독(13차)이다.

가) 예측변인

(1) 부모감독(10차)⁴⁾

허묘연(2004)이 개발한 척도를 김미숙 외(2013)가 수정, 보완한 부모 감독 관련 행동 4문항을 사용하였다. Likert 5점(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로 양육자가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에 대한 모니터링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hronbach's α 는 .81이었다.

(2) 하루 중 성인 없이 있는 시간(10차)

성인의 돌봄 없이 아동이 보내는 시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동이 혼자 있거나, 형제자매끼리만 있는 경우가 몇 시간입니까?'라는 단일 문항을 사용하여 주양육자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은 6점 만점(1='없음', 2='1시간 미만', 3='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4='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5='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6='4시간 이상')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지역사회 시설 편의성 및 만족도(10차)

연구 참여자가 거주하는 지역 내 공공 여가 공간 및 시설 중 대표적 시설 13곳을 선정하고, 각 시설에 얼마나 접근하기 편리한지, 그리고 시설을 이용하며 얼마나 만족도를 느끼는지 측정하였다. Likert 5점 척도상 편리성(1='매우 불편함'~5='매

4)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도구프로파일(부모_부모감독) https://panel.kicce.re.kr/pskc/board/view.do?menu_idx=42&board_idx=44639&manage_idx=161&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search_type=title&search_text=%EA%B0%90%EB%8F%85&rowCount=10&viewPage=1

우 편리함')과 만족도(1='매우 만족하지 않음'~5='매우 만족함')를 각각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만족도의 경우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0점으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편리성 Chronbach's α 는 .92 이었으며, 만족도의 경우 .93으로 나타났다.

나) 결과변인

(1) 또래애착: 소외(13차)⁵⁾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발한 애착척도(IPPA)를 일부 추출하여 사용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패널 문항을 본 연구에서도 활용하였다. 이는 아동 자기보고식 도구로, 의사소통, 신뢰, 소외의 3개 하위영역,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소외 3문항만을 사용하였다. Likert 4점(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또래 관계에서 소외를 많이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hronbach's α 는 .60 이었다.

(2) 학교적응: 교우관계 및 교사관계(13차)⁶⁾

민병수(1991)에서 발췌하고 수정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문항을 사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에서 사용한 척도는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교우관계 5문항, 그리고 교사관계 6문항을 사용하였다. Likert 4점(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하는 아동 자기보고식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우 및 교사와 긍정적인 유대관계를 맺으며 학교생활 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교우관계 Chronbach's α 는 .64, 교사관계는 .88로 나타났다.

5)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도구프로파일(아동_또래애착) https://panel.kicce.re.kr/pskc/board/view.do?menu_idx=42&board_idx=44570&manage_idx=161&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search_type=title&search_text=%EB%98%90%EB%9E%98%EC%95%A0%EC%B0%A9&rowCount=10&viewPage=1

6)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도구프로파일(아동_학교적응_초5-6) https://panel.kicce.re.kr/pskc/board/view.do?menu_idx=42&board_idx=44596&manage_idx=161&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search_type=title&search_text=%EC%A0%81%EC%9D%91&rowCount=10&viewPage=1

(3) 공동체의식(13차)⁷⁾

교육종단연구 2013년에서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에서도 활용하였다. 총 6문항으로 Liekrt 5점(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는 아동 자기보고식 도구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참여의식, 타인배려와 같은 특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hronbach's α 는 .85였다.

(4) 사이버 비행인식(13차)⁸⁾

한국정보화진흥원(2014)에서 실시한 정보문화실태조사에서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규범 위반에 대한 6문항으로, 다양한 인터넷 역기능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되어있다. Likert 5점(1='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5='매우 문제 된다')상 응답하는 아동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환경에서 발생하는 규범 위반 관련 문제점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Chronbach's α 는 .98로 확인되었다.

(5)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13차)⁹⁾

지난 1년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당한 피해경험에 관하여 묻는 2문항으로, 한국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2017)의 2017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서 문항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Likert 5점(1='전혀 없음'~5='거의 매일')로 응답하는 아동 자기보고식 도구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온라인상에서 누군가로부터 모욕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hronbach's α 는 .58이다.

7)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도구프로파일(아동_공동체의식) https://panel.kicce.re.kr/pskc/board/view.do?menu_idx=42&board_idx=44577&manage_idx=161&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search_type=title&search_text=%EA%B3%B5%EB%8F%99%EC%B2%B4&rowCount=10&viewPage=1

8)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도구프로파일(아동_사이버 비행) https://panel.kicce.re.kr/pskc/board/view.do?menu_idx=42&board_idx=44578&manage_idx=161&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search_type=title&search_text=%EC%82%AC%EC%9D%B4%EB%B2%84&rowCount=10&viewPage=1

9)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도구프로파일(아동_사이버폭력) https://panel.kicce.re.kr/pskc/board/view.do?menu_idx=42&board_idx=44591&manage_idx=161&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search_type=title&search_text=%EC%82%AC%EC%9D%B4%EB%B2%84&rowCount=10&viewPage=1

(6) 비속어 사용(13차)

‘존나, 새끼, 개XX, 쌈가능, 현피뜬다’ 등과 같은 비속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단일문항으로 묻고, 아동 스스로 Likert 4점(1=‘전혀 사용하지 않는다’~4=‘매일 사용한다’)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비속어를 많이 사용함을 의미한다.

(7) 부모 정서조절 곤란(13차)¹⁰⁾

조용래(2007)의 논문에서 발췌한 총 35개의 문항을 사용하여 부모 각각의 정서 조절 곤란 정도를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충동통제곤란(5), 정서에 대한주의, 자각 부족(7),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7), 정서적 명료성 부족(3), 정서조절전략 접근 제한(5), 목표지향행동 수행 어려움(3), 그리고 하위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문항(5) 등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된다. 본 척도는 자기보고식 Likert 5점(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 곤란의 정도가 더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hronbach’s α 는 모 .86, 부 .87로 확인되었다.

(8) 부모 미디어 중독(13차)¹¹⁾

신광우 외(2011)가 개발한 스마트폰중독 진단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5문항이며, 일상생활장애(5), 가상세계지향(2), 금단(4), 내성(4) 등 4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된다. 자기보고식 Likert 4점(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hronbach’s α 는 부모 모두 .90이었다.

10)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도구프로파일(부모_정서조절) https://panel.kicce.re.kr/pskc/board/view.do?menu_idx=42&board_idx=46414&manage_idx=161&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search_type=title&search_text=%EC%A0%95%EC%84%9C%EC%A1%B0%EC%A0%88&rowCount=10&viewPage=1

11)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도구프로파일(부모_미디어중독) https://panel.kicce.re.kr/pskc/board/view.do?menu_idx=42&board_idx=46412&manage_idx=161&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search_type=title&search_text=%EB%AF%B8%EB%94%94%EC%96%B4&rowCount=10&viewPage=1

2) 분석방법

프로파일 양상을 예측하는 선행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혼합회귀모형 중 하나인 R3steps 분석을 실시하였다(‘나. 미디어 이용 집단유형 분류의 예측 요인’ 부분). 미디어 이용 발달 양상 프로파일에 따른 아동의 정서사회성 측면의 발달적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BCH 접근을 적용하였다(‘다. 미디어 이용 집단 유형에 따른 아동의 정서사회성 차이’ 부분).

나. 미디어 이용 집단유형 분류의 예측 요인

본 분석에서는 인구학적 특성 가운데 아동의 성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족 맥락으로서 부모의 감독, 아동 혼자 있는 시간을, 지역사회 맥락 특성으로서 지역사회 시설 편의성, 지역사회 시설 만족도 등을 선행변인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수들이 미디어 이용 발달궤적을 바탕으로 도출한 두 개의 프로파일을 예측하는지 R3steps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표 III-3-1>와 같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0=‘남’, 1=‘여’), 가정의 지각된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또 부모가 자녀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알고 있으며, 관련 활동을 명확히 지도하는 부모 감독이 높을수록 ‘고-유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적어졌다. 그러나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고-유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한편, 지역사회 시설의 편의성이나 지역사회 시설 만족도는 미디어 이용 발달 궤적 프로파일 유형을 예측하는데 유의한 설명력을 갖지 못하였다.

<표 III-3-1> 학령기 미디어 이용 발달궤적 프로파일의 영향 요인

영역	변수	준거집단: 고-유지 집단 비교집단: 중간-증가 집단		
		계수	표준오차	우도비
인구학적 정보 10차 (초등3)	성별	-.603**	.182	.547***
	SES	-.182**	.070	.834**
가족맥락 10차 (초등3)	부모 슈퍼비전	-.378*	.191	.686*
	혼자 있는 시간	.307***	.074	1.360***
지역사회맥락 10차 (초등3)	시설편의성	-.263	.210	.768
	시설만족도	-.054	.164	.947

* $p < .05$, ** $p < .01$, *** $p < .001$.

다. 미디어 이용 집단 유형에 따른 아동의 정서사회성 차이

미디어 이용 발달궤적 프로파일에 따른 정서사회성 발달 측면에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BCH 방법을 적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서사회성 발달 영역은 크게 세 범주로 구분하고, 9개 변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는 또래 애착 중 소외, 학교적응 중 교우관계 및 교사관계,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포함되었다. 둘째, 공격성 발달 및 경험과 관련하여 사이버비행인식, 사이버폭력피해, 비속어 사용 등도 미디어 이용 발달궤적 프로파일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다. 끝으로, 두 프로파일 간 부모 특성에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아버지, 어머니의 미디어 중독 및 정서조절 곤란을 변수로 투입하여 확인하였다. 이를 분석에 포함시킨 이유는 부모가 아동의 현재 정서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미시체계 구성요소이자, 이들의 미디어 사용, 정서조절 곤란이 자녀의 미디어 이용 및 이들을 대하는 양육방식에 강력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예: 김환남 외, 2014).

분석 결과, 사회적 관계 발달 측면에서 또래 애착의 하위 구성 요소인 또래소외는 ‘고-유지’ 집단이 높았으나,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인 교우관계 및 교사관계, 그리고 공동체 의식에서는 모두 ‘중간-증가’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 발달 및 경험 측면에서, ‘고-유지’ 집단의 경우 ‘중간-증가’ 집단과 비교하여 높은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 비속어 사용을 보고하였다. 한편 두 프로파일 간 사이버폭력인식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끝으로, ‘고-유지’ 집단과 ‘중간-증가’ 집단의 부모 특성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부모 모두의 미디어 중독은 ‘고-유지’ 집단에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정서조절 곤란은 어머니의 경우에 한해서만 ‘고-유지’ 집단에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버지의 정서조절 곤란의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III-3-2〉 학령기 미디어 잠재집단에 따른 아동 사회성발달 차이

변수		고-유지	중간-증가	χ^2
		M (S.E)	M (S.E)	
사회적 관계 13차 (초등6)	또래애착-소외	1.998(.048)	1.878(.020)	4.707*
	학교적응-교우관계	3.086(.030)	3.222(.014)	14.566***
	학교적응-교사관계	2.935(.042)	3.064(.019)	6.635*
	공동체 의식	3.633(.043)	3.835(.021)	15.553***

변수		고-유지	중간-증가	χ^2
		<i>M (S.E)</i>	<i>M (S.E)</i>	
공격성 발달 및 경험 13차 (초등6)	사이버비행인식	4.095(.094)	4.185(.046)	.650
	사이버폭력피해	1.333(.043)	1.127(.014)	18.439***
	비속어사용	2.106(.056)	1.775(.024)	26.127***
부모 특성 13차 (초등6)	어머니정서곤란	2.778(.041)	2.447(.022)	44.062***
	어머니미디어중독	1.964(.031)	1.734(.015)	39.843***
	아버지정서곤란	2.730(.051)	2.633(.023)	2.576
	아버지미디어중독	1.914(.032)	1.816(.016)	6.475*

* $p < .05$, *** $p < .001$.

4. 소결

본 연구는 한국 아동 패널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미디어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미디어 이용 발달 궤적을 확인하고, 이를 예측하는 선행요인, 그리고 프로파일에 따른 정서사회성 발달 측면에서 차이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주요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론적, 실천적 측면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디어 이용 발달 양상에 따른 프로파일을 살펴본 결과, ‘고-유지’ 집단과 ‘중간-증가’ 집단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미디어 이용 발달양상을 변인 중심 분석 방법(variable-centered approach)으로 분석한 경우, 연령의 증가에 따라 미디어 사용은 단순히 증가하는 것으로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대상 중심 분석 방식(person-centered approach)으로 자료를 분석하여 프로파일 간 이질성을 확인한 것은 아동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개입 전략 마련에 특기할만한 사항이라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고-유지’ 집단은 미디어의 본격적 사용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진 초등학교 고학년 이전 시기인 초등학교 3학년부터 비교적 높은 수준의 미디어 이용을 보이는 집단이며, 이러한 미디어 이용 경향성이 시간의 흐름에도 꾸준히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중간-증가’ 집단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스마트폰 보유율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용량이 늘어나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유율은 만10세를 기준으로 현격한 차이가 관찰되는데, 만 10세 미만에서 스마트폰 보유는

48.1% 가량이었으나, 만 10~19세 집단의 경우 보유율이 95.9%였다(한국미디어 패널조사, 2022).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미디어 노출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미디어 이용 및 중독의 위험성 역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13차 데이터의 경우 COVID-19 팬데믹이 선포된 이후 수집된 자료이므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학교 교육 역시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이루어졌던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2019년 초등학교 5학년 시기 미디어 이용 시간이 평균 1시간 48분이었던 것에 반하여, 2020년에는 2시간 48분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 아동패널 자료에서 관찰되었다(김지현, 2022).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s)로 동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프로파일의 이질성이 나타난다는 본 연구결과는 개입 시 차별적 접근을 해야 함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미디어 이용을 보이는 아동들의 경우, 심각성을 인지하여 우선적으로 집중적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 시기부터 미디어 이용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으므로, 이보다 이른 시기부터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되는 미디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돕는 선제적 교육과 개입이 중요할 것이다. 한편, 연령의 증가(이소은, 김미나, 2021), 그리고 COVID-19이라는 시대적 특성과 연계하여 자연스레 미디어 이용이 늘어나는(김지현, 2022) ‘중간-증가’ 집단의 경우,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목적에 따라 건강한 방식으로 미디어 사용을 하도록 교육하고 이를 조절할 힘을 기르도록 돕는 예방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미디어 이용 발달궤적의 프로파일 유형을 예측하는 요인들을 탐색한 결과, 여학생일수록, 가정의 지각된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또 부모가 자녀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알고 있으며, 관련 활동을 명확히 지도하는 부모 감독이 높을수록 ‘고-유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적어졌다. 그러나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고-유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우선 성차와 관련하여,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관계형성에 대한 욕구가 더욱 크기 때문에 미디어 사용을 더 많이 하고, 그러므로 중독의 위험성 역시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이 미디어를 사용 내용과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본 패널을 사용한 선행연구에서 아동은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위한 미디어를 이용하는 정도가 가장 높았다(김종민, 최은아, 2019). 또한 10~19세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에서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콘텐츠는 동영상, 게임, 메신저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콘텐츠는 관계적 의사소통 보다 더욱 강력한 중독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미디어 중독 경향을 측정한 본 연구 특성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 경제적 지위와 관련하여, 비록 사회 경제적 지위의 일부를 반영하는 지표이기는 하나, 부모의 학력이 대학원이나 대학 졸업자인 경우에 비하여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에 유아의 미디어 노출이 증가하였다는 선행연구 결과(김환남 외, 2014)와 본 연구결과는 유사하다. 또한 미디어 이용은 본인보다는 부모의 소득수준 혹은 교육적 특성에 의해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주장(김은미, 정화음, 2006) 역시 본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높은 사회 경제적 지위는 이와 연관된 다른 요인들의 효과를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높은 사회 경제적 지위는 아동이 미디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기보다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에 미디어 이용 위험군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선행요인으로 활용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리 감독, 그리고 어른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은 ‘고-유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낮추었는데, 어른의 존재, 특히 자녀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자녀의 활동을 지도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 미디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어머니의 허용적이고 방임적인 양육방식을 높게 지각할수록 휴대폰 사용이 증가한다는 결과(이어리, 이강이, 2012), 그리고 부모의 중재가 없는 상태에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미디어 중독 지수가 유의하게 높았다는 연구결과(김환남 외, 2014)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아동의 적절한 미디어 사용을 위하여 부모의 관리감독, 그리고 아동을 홀로 두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리 감독은 통제적 양육방식과는 차별적인 것으로, 아동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되 이들에게 위험한 사고나, 사건, 혹은 행동 등이 일어나지 않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부모의 관리감독, 그리고 아동 홀로 두지 않는 것은 아동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통제할 수 없는 미디어 이용을 하거나, 미디어 이용을 하는 과정 속에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모두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 이용을 아동에게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틀과 내용을 제공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부모와 아동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지역사회 시설의 편의성이나 지역사회 시설 만족도는 미디어 이용 발달 궤적 프로파일 유형을 예측하는데 유의한 설명력을 갖지 못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역사회 시설의 편의성이나 시설 사용에 따른 만족도에 상관없이 아동의 미디어 사용 발달 궤적 프로파일이 도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애초에 이러한 환경적 변인들은 디지털 격차가 지역에 따라 달리 확인된다는 연구 결과(고홍석, 2017)에 기반한 것이었으나, 아동의 경우 부모의 지도나 동행 하에 주로 이러한 시설에 접근하기 때문에 미디어 이용에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는 지역에 상관없이, 아동의 미디어 이용 발달궤적의 ‘고-유지’ 집단과 ‘중간-증가’ 집단이 확인되며, 이 두 집단 모두를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미디어 이용 발달 궤적 프로파일에 따른 정서사회성 측면의 발달 결과에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사회적 관계 발달 측면에서 또래 애착의 하위 구성요소인 또래소외는 ‘고-유지’ 집단이 높았으나,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인 교우관계 및 교사관계, 그리고 공동체 의식에서는 모두 ‘중간-증가’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디어 이용 고위험 집단인 ‘고-유지’ 집단의 경우 관계적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동 대상 종단 연구에서 미디어-특히 소통적 측면이 떨어지는 매체-의 과도한 사용은 더 많은 소외감을 경험하게 하고(Stevic & Matthes, 2021), 이러한 미디어 사용은 관계적 측면을 손상시킨다는 선행연구(안수빈 외, 2017)도 존재한다. 그러나 몇몇의 선행연구에서 주로 관계적 측면의 손상이 미디어 중독을 초래한다고 보는 관점(예: 김영미, 박윤조, 2020; 박천진, 정혜원, 2019), 그리고 소외가 미디어 사용을 예측했다는 연구도 존재하기에(Frison & Eggermont, 2020), 서로 상호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미디어 이용의 문제가 선행요인인지 결과가 되었든지 아동의 개인적 관계 손상과 관련되며, 나아가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 의식 발달에도 차이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아동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미디어의 적절한 이용을 통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그러한 건강한 관계 속에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시도가 가정에서, 그리고 교육장면에서 모두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아동의 공격성 발달 및 경험 측면에서, ‘고-유지’ 집단의 경우 ‘중간-증가’ 집단과 비교하여 높은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 비속어 사용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고-유지’ 집단의 경우 더 많은 인터넷 매체에 노출이 되면서 다양한 자극을 경험하는 것과 연관 지어 해석해볼 수 있다. 다양한 미디어를 사용하면서 더 많은 소통을 하거나 노출되고, 그로 인해 미디어를 덜 사용하는 ‘중간-증가’ 집단에 비하여 피해경험의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다. 또한 미디어 노출을 통해 신조어, 비속어 등을 더 많이 접촉하게 되고 익히게 되면서 더 많은 비속어 사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발견과 함께 사이버 폭력실태조사(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에서 초중고생의 사이버 폭력 경험률이 26.9%로 나타났다라는 점을 함께 고려한다면, 미디어 이용 ‘고-유지’ 집단이 노출된 위험성을 빠르게 인식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없는지, 그리고 가해경험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한편 두 집단 간 사이버 폭력 인식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사이버 폭력이 낮다는 의미라기보다,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방식의 의사소통, 오프라인과 다른 체계 등에 익숙해진 결과, 무엇이 타인에 대한 침해인지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의미로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미디어 그 자체를 교육매체로 활용하여 이를 사용하는 아동들이 사이버 폭력의 종류와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제안(김은설, 2020)을 다각도로 정책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동반될 때, 아동의 미디어 사용으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고-유지’ 집단과 ‘중간-증가’ 집단의 부모 특성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부모 모두의 미디어 중독은 ‘고-유지’ 집단에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양육자의 스마트폰 중독지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중독지수도 높아졌던 선행연구(김환남 외, 2014)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정서조절 곤란은 어머니의 경우에 한해서만 ‘고-유지’ 집단에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 아버지의 정서조절 곤란에서 두 잠재프로파일 간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의 정서조절 곤란이 12~17세 청소년의 정서조절 곤란을 야기

하고, 청소년의 정서조절 곤란이 또다시 인터넷 사용 문제로 연결되었으나, 아버지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Giordano et al., 2021). 아동을 둘러싼 가장 강력한 미시체계로서 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결과, 부모 모두의 미디어 중독은 과도한 미디어 이용을 의미하고, 결국 이는 아동에게 모델링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어머니의 정서조절 곤란 문제는 ‘고-유지’ 집단에서 더욱 현격하게 드러났는데, 이는 주로 주양육자 역할을 하는 어머니가 정서조절 곤란을 경험할 때,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가용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아동의 욕구를 수용하지 못하거나, 미디어 이용과 같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일 수 있다. 어머니의 정서조절 곤란 문제가 아동의 미디어 이용 문제로 연결되는 것인지 혹은 선행연구에서처럼 다른 제 3의 변인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본 자료의 한계로 탐색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추가적인 자료 수집을 통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부모의 미디어 중독 혹은 정서조절 곤란 등 부모변인은 아동의 미디어 이용을 예측하거나, 결과적으로 미디어 이용 발달 궤적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 등 깊게 관여되어 있으므로 아동의 미디어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를 적극적 중재자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는 부모가 아동의 미디어 이용을 통제하고 교육하는 것을 넘어, 부모의 미디어 사용 습관 혹은 과다사용 문제, 그리고 정서조절 곤란 등과 같은 심리적 속성이 다각도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미디어 사용 발달 궤적의 이질적 측면을 이해하고, 이러한 이질성을 초래하는 예측변인으로서 성차,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그리고 부모의 관리감독 및 아동 혼자 있는 시간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미디어 사용 발달궤적의 이질적 프로파일 간 정서사회성 발달 측면에서 격차가 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의 미디어 사용이 아동발달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발달궤적의 프로파일에 따라 차별적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함의를 갖는다.

IV

부모 양육과 아동 발달

- 01 아동 발달 시기별 부모 양육과 양육 환경
- 02 영유아기 부모의 부부갈등에 따른 집단유형화
- 03 영유아기 부모의 부부갈등이 아동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
- 04 소결

IV. 부모 양육과 아동 발달¹²⁾

본 장에서는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 중 부모 양육과 아동 발달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1절에서는 아동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선행연구들 중 부모 양육 및 부모 관련 변수와 아동 발달 간의 관계를 탐구한 내용을 정리하여 패널 가구의 부모-자녀 관계 양상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2절에서는 다양한 부모 양육 변인 중 영유아기 부모의 부부갈등에 따른 집단유형화를 실시하였으며, 3절에서는 영유아 시기 부부갈등이 아동기의 아동 발달 전반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설명하는 심층분석을 실시하였다.

1. 아동 발달 시기별 부모 양육과 양육 환경

본 절에서는 2010년 한국아동패널 1차 조사의 데이터가 처음 공개된 시점부터 11차 데이터가 공개되었던 2021년까지의 아동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학술지 게재 논문 결과를 검토하였다. 특히, 1~11차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논문 중 부모의 심리, 행동, 관계 변수 등 부모 양육 관련 변수 중심으로 부모 양육과 아동 발달의 관계를 밝힌 논문 170여 편을 정리하였으며, 부모 양육 영향을 아동 발달 시기별(영아기, 유아기, 아동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가. 영아기

한국아동패널의 영아기인 1차(2008년)~3차(2010년) 데이터를 활용한 다수의 연구는 부모의 특성이 영아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였다. 영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양육 특성, 심리적 특성, 부부관계특성, 가정변인 특성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양육 특성에는 양육참여,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 양육방식, 자녀 가치, 출산의도 등의 요소가 있고, 심리적 특성에는 산전 우울감, 산

12) 본 장은 최효식 교수(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와 육아정책연구소 원내 연구진이 공동 집필함.

후 우울감,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등의 요소가 포함되며, 부부관계 특성으로는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가정 변인으로는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 보고되고 있다.

먼저, 영아기 부모 양육 특성과 관련된 연구 결과는 주로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주리(2011)에 따르면 어머니의 출산 의도는 어머니의 양육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영아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홍주 외(2013)는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영아의 의사소통을 증진하며 사회성 발달을 지지한다고 보고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영아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김현옥, 2014), 어머니의 양육지식이 높을 경우 긍정적인 양육방식을 매개로 영아 발달을 촉진하였다(김종훈 외, 2013).

다음으로, 영아기 어머니 심리적 특성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 이희정(2012), 김현옥(2015)에 따르면 어머니의 우울이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영유아의 정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박찬화, 이운선(2015)은 어머니의 산후 우울감이 어머니 자아효능감과 양육스타일을 순차 매개하여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김진경 외(2016)에 따르면 출산 전 우울은 출산 후 우울, 양육스트레스를 순차매개로 영아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선녀(2015) 역시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 양육스트레스 등이 양육행동을 매개로 영아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여,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또한 영아의 발달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아기 부부관계 특성과 관련하여 정리하면, 어머니가 지각한 결혼만족도가 높고, 부부갈등이 낮을수록 아버지가 지각한 결혼만족도도 높고, 부부갈등도 낮은 결과를 나타내면서, 결과적으로 영아의 사회성 발달을 촉진하였다(김숙령 외, 2014). 유사하게 어머니와 아버지의 지각된 부부갈등은 아버지의 지각된 결혼만족도를 매개로 유아의 의사소통과 문제해결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해옥, 최효식, 2016).

이처럼 영아기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언어적 발달은 부모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 부모의 가정변인 특성 및 부부관계 등의 부모를 둘러싼 상황변수들이 부모의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부모의 심리적인 특성에서 오는 부모의 양육

관련 태도 및 행동들은 영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유아기

한국아동패널의 유아기인 4차(2011년)~7차(2014년)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들 중 부모 양육과 관련하여 살펴본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유아기 발달 중 다수의 연구는 유아기의 또래 상호작용, 유아기의 문제 행동과 관련하여 살펴보았고, 부모의 특성이 또래 상호작용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분석하였다.

1) 또래 상호작용

또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양육 특성, 심리적 특성, 부부관계 특성, 가정변인 특성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유아기 양육 특성으로 주로 양육행동을 살펴보았으며, 심리적 특성으로는 심리적 안녕감,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부부관계 특성에는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가정 변인은 발달지원적 가정환경 특성,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중심으로 연구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유아기 또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 특성 관련 연구 결과를 살펴 보았다.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은 또래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이선남, 이경옥, 2015), 아버지의 사회적 양육행동 역시 어머니 사회적 양육행동과 더불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 촉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은주, 김은영, 2014).

부모의 심리적 특성 관련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사회적 양육태도, 가정환경을 순차매개로 하여 유아의 또래부적응을 줄이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영은, 2014). 비슷하게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긍정성과 같은 심리적 특성은 사회적 양육유형을 매개로 아동 또래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황성온, 2014).

유아기 부모의 부부관계 특성과 관련된 황성온(2014)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의 결혼 특성인 결혼만족도, 부부화합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긍정적사회적 양육유형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아기 가정환경 변인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임현주(2014), 노성향(2015)은 물리적 환경, 학습자료 등의 발달 지원적 가정환경 특성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 장영은, 성미영(2015)은 발달지원적 가정환경 특성이 유아 언어능력을 매개로 긍정적 및 부정적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김세리, 이강이(2016)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학력, 월평균 수입)가 발달 지원적 환경 자극을 높임으로써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지지한다고 보고하였다.

2) 유아의 문제행동

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 중 유아기 발달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친 영향을 본 연구가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특히 공통적으로 부모의 여러 가지 심리적, 행동적 특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 특성으로는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양육참여를 포함하고, 부모의 심리적 특성은 우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등을 포함하며, 부부관계 특성은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그리고 가정 변인은 발달 지원적 가정환경 특성,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 특성 관련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이 증가하는데(조재숙, 박재학, 2017), 특히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우울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문제행동 수준을 높이는 경향을 보였다(안혜진, 2018). 또한, 최효식 외(2016)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를 매개로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을 낮춘다고 하였으며, 민미희 외(2016)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긍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하민경(2020)에 따르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버지 양육참여 및 내재화 문제행동을 매개로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또한 유아기의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되었는데, 우수정(2016)에 따르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을 매개로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길혜지, 황정원(2017)은 무관심한 어머니 집단과 소극적인 아버지 집단에서 양육되는 아동의 문

제행동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외현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데(임현주, 2016),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중수준 감소형 집단’이 아버지 참여수준이 제일 높은 ‘최상수준 변동형 집단’보다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연은모, 최효식, 2020a).

다음으로, 부모의 심리적 특성과 유아기의 문제행동 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았다. 서석원, 우수경(2016)에 따르면,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효능감은 문제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어머니의 우울은 문제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고운(2018)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우울은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기능을 매개로 남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오새니 외(2016)에 따르면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은 부부특성(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온정적 양육태도를 순차매개로 유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은 양육스트레스, 온정적 양육태도를 순차매개로 유아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부부갈등 및 결혼만족도로 대표되는 부부관계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공통적으로 부모의 부부관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힌다(기쁘다, 2018; 박진희, 손수연, 2016).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은 아버지의 훈육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자녀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 감소에 영향을 주고,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은 어머니의 사회정서적 양육행동과 아버지의 훈육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자녀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을 낮춘다(한인숙, 양혜정, 2015). 이형민(2015)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양육행동을 각각 매개하여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서고운(2017)에 따르면 아버지가 지각한 결혼만족도는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 및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아동의 문제행동을 낮추며, 어머니가 지각한 결혼만족도는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 및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아동의 문제행동을 낮춘다. 또한, 민미희 외(2016)는 어머니가 지각한 긍정적 부부관계(높은 결혼만족도, 낮은 부부갈등)는 긍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문

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김선희(2017), 김유선 외(2018)에 따르면 유아기의 부부갈등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매개로 유아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서영주, 김영근(2020)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은 또래 놀이방해 행동을 매개로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아기는 기관 이용 등을 통해 또래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로, 유아기에 중요한 발달과정으로 또래간의 관계 및 문제행동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유아기에 나타난 부부간의 관계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영향을 주며 이는 모의 양육행동 뿐 아니라 부의 양육 참여에도 영향을 주어 최종적으로 유아의 또래관계 및 문제행동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특히, 유아기에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은 패널 아동이 유아기였던 2010년 초반 대에 주로 어머니가 양육을 맡았던 사회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더욱 주목할 만한 결과이며, 이는 높은 아버지 양육 참여는 긍정적 부부간의 관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부모의 양육 관련 특성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 아동기: 학교적응

한국아동패널이 아동기인 8차(2015년)~12차(2019년)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이 시기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된 연구 중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학교적응에 초점을 맞추어, 부모영향 변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부모 변인으로 양육 특성(공동양육,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부모-자녀 상호작용, 부모의 학교생활 관심 정도, 성취압력), 심리적 특성(우울), 부부관계 특성(부부갈등), 가정 변인(일-가정 양립) 등이 있다.

먼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 특성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살펴보았다. 부모의 학교생활 관심 정도가 높을수록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 수준이 높았다(김은설, 2018). 서재화, 김현경(2018)은 어머니가 아동과의 활동에 참여한 정도(5세)가 높을수록 사회적 기술을 매개(6세)로 학교적응(7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장원호 외(2018)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동 자아존중감을 낮춤으로써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공성인, 심미경(2020)

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 민감성은 문제행동을 낮추고, 학교준비도를 높이는 순차매개로 학교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혜진, 이소연(2021)은 부모의 공동양육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 이설아 외(2021)는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또래 상호작용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였다.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육행동으로 허용적 양육행동과 성취압력이 있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김경민, 2021), 부모의 성취압력은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 그릇을 순차매개로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혜선, 한세영,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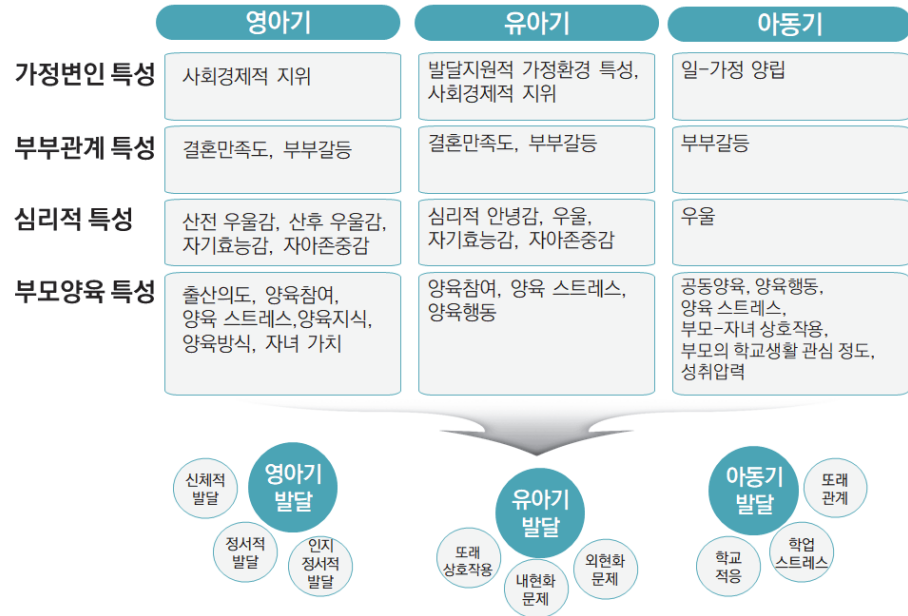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특성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양육스트레스, 우울)이 긍정적 양육행동과 자아존중감을 순차매개로 하여 아동의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민미희, 2018). 특히, 아버지의 우울 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연은모, 최효식, 2020b). 부부관계 특성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이 모-자녀 상호작용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장원호, 2020).

마지막으로 가정환경 변인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은모, 최효식(2019)은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 이점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집행기능곤란을 순차매개로 자녀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 이점이 집행기능곤란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 갈등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집행기능곤란을 순차매개로 자녀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 갈등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집행기능곤란을 순차매개로 자녀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의 경우 발달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던 영유아기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 직접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주기 보다는 부부관계 특성이 부모-자녀관계 특성에 영향을 주거나, 부모의 양육행동 성향이 아동의 미디어 기기 사용 및 중독 정도에 영향을 주는 등 부모의 양육 특성이 아동의 심리적 특성을 매개로 아동발달에 영향을 주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부모의 배경적 요인, 심리적 요인, 부부관계적 요인, 양육행동적 요인은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

며, 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부모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IV-1-1] 발달시기별 부모양육의 영향특성



2. 영유아기 부모의 부부갈등에 따른 집단유형화

가. 분석개요

본 절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영유아 시기(1~7차) 동안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 영유아기 동안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의 변화 양상을 집단으로 나누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1차(2008년)~5차(2012년), 7차(2014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집단유형화를 위해서 영유아기 어머니와 아버지가 응답한 부부갈등 응답을 질문한 1차(2008년)~5차(2012년), 7차(2014년) 자료 중 네 번 이상 응답한 어머니 1,830명, 아버지 1,783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1) 연구도구: 부부갈등(1~5차, 7차)¹³⁾

Markman et al. (1994)의 부부갈등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2008년)부터 5차년도(2012년), 7차년도(2014년)의 동일한 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자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다른 사람과 사귀거나 결혼하면 어떻게 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Chronbach’s α 는 어머니 1차 .90, 2차 .91, 3차 .91, 4차 .92, 5차 .92, 7차 .92, 아버지 1차 .89, 2차 .89, 3차 .90, 4차 .91, 5차 .91, 7차 .92로 확인되었다.

2) 분석방법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갈등 변화 패턴을 최적으로 설명하는 모형을 확인하기 위해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이차변화모형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갈등 변화 양상을 유형화하기 위해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 GMM) 방법을 활용하였다. 가장 적합한 잠재집단 수를 결정하기 위해 AIC, BIC, SABIC, Entropy, LMR LRT(p), BLRT(p), 잠재집단 분류율, 해석의 용이성을 함께 고려하였다. 결측치 처리 방법은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IML)을 사용하였으며, Mplus 8.3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나. 부부갈등의 변화 양상

영유아기 부모의 부부갈등 변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무변화 모형, 선형변화모형, 이차곡선변화모형을 비교하였다. 모형 적합도를 고려했을 때(표 IV-2-1), <표 IV-2-2> 참조),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무변화 모형보다는 선형변화모형보다, 이차곡선변화모형이 더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머니의 이차곡선변화모형의 경우

13)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도구프로파일(부모_부부갈등) https://panel.kicce.re.kr/pskc/board/view.do?menu_idx=42&board_idx=44519&manage_idx=161&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search_type=title&search_text=%EA%B0%88%EB%93%B1&rowCount=10&viewPage=1

1차항과 2차항의 상관계수가 -.925, 아버지의 이차곡선변화모형의 경우 1차항과 2차항의 상관계수가 -.889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를 고려하여 선형변화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의 경우 선형변화모형의 초기값 평균은 1.998이고, 선형변화율의 평균은 .386이다.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의 경우 선형변화모형의 초기값 평균은 1.936이고, 선형변화율의 평균은 .273이다.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초기값, 선형변화율의 평균,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 모의 부부갈등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비교

모형	χ^2	df	CFI	TLI	RMSEA (90% C.I.)	SRMR	평균			분산		
							I	S	Q	I	S	Q
무변화	347.888***	19	.942	.954	0.097 (0.088-0.106)	.044	2.079**			.376***		
선형변화	58.485***	16	.992	.993	0.038 (0.028-0.049)	.020	1.998**	.033***		.386***	.009***	
이차변화	20.052	12	.999	.998	0.019 (0.000-0.033)	.011	1.984**	.057***	.005*	.442***	.056***	.001***

* $p < .05$, *** $p < .001$.

〈표 IV-2-2〉 부의 부부갈등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비교

모형	χ^2	df	CFI	TLI	RMSEA (90% C.I.)	SRMR	평균			분산		
							I	S	Q	I	S	Q
무변화	394.705***	19	.901	.922	.105 (.096-0.114)	.060	2.057***			0.283***		
선형변화	95.788***	16	.979	.980	.053 (.043-.063)	.026	1.936***	.046***		.273***	.007***	
이차변화	19.211	12	.998	.998	.018 (.000-.033)	.018	1.883***	.124***	-.016***	.274***	.037***	.001**

** $p < .01$, *** $p < .001$.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선형변화모형을 활용하여 성장혼합모형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정보준거지수, LMR LRT(p), BLRT(p), Entropy, 잠재집단의 고유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어머니의 경우 잠재집단이 5개인 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적은 수의 잠재계층 비율이 1% 미만이면 우연히 발생하는 잠재계층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단 수를 결정하였다(Hill et al., 2000; Jung & Wickrama, 2008; Nooner et al., 2010). 분류 정확도를 보여주는 평균 사후확률은 .799~.927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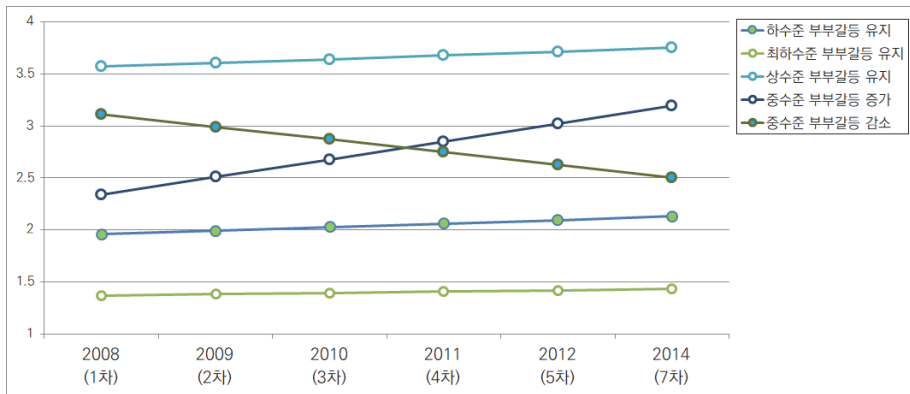
첫 번째 잠재집단은 792명(43.3%)이 해당되며, 초기값 1.958($p < .001$), 선형변화율 0.034($p < .001$)로 보고되었다. 선형변화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실제적 유의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잠재집단은 ‘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잠재집단인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은 565명(30.9%)이 포함되었으며, 초기값 1.373($p < .001$), 선형변화율 0.012($p < .05$)이다. 선형변화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실제적 유의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잠재집단은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잠재집단인 ‘상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은 80명(4.4%)이 해당되었으며, 초기값 3.570($p < .001$), 선형변화율 0.036($p > .05$)이다. 세 번째 집단의 비율이 5% 미만이지만, 집단에 해당하는 명수가 Berlin et al. (2014)이 제안한 25명을 넘어서는 수치이기 때문에 우연히 발생한 잠재계층이 아니라 판단하였다. 네 번째 잠재집단인 ‘중수준 부부갈등 증가’ 집단은 253명(13.8%)이 포함되었으며, 초기값 2.337($p < .001$), 선형변화율 0.171($p < .01$)이다. 다섯 번째 잠재집단인 ‘중수준 부부갈등 감소’ 집단은 140명(7.7%)이 해당되며, 초기값 3.111($p < .001$), 선형변화율 -0.121($p > .05$)이다. 선형변화율이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선형변화율의 p 값이 .108이며, 경향성을 고려하여 다섯 번째 잠재집단은 ‘중수준 부부갈등 감소’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표 IV-2-3〉 모가 인식한 부부갈등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수 적합도 및 분류율 비교

구분		잠재프로파일 수				
		2	3	4	5	6
AIC		19335.759	18171.640	17629.153	17462.940	17353.456
BIC		19396.392	18248.809	17722.858	17573.182	17480.233
SABIC		19361.445	18204.332	17668.850	17509.642	17407.163
Entropy		0.874	0.818	0.828	0.819	0.748
LMR LRT(p)		0.0000	0.0000	0.0000	0.1001	0.0076
BLRT(p)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분류율	1(%)	30.9	17.0	21.6	43.3	3.8
	2(%)	69.1	39.7	4.9	30.9	10.4
	3(%)		43.3	42.5	4.4	31.0
	4(%)			31.0	13.8	25.0
	5(%)				7.7	22.4
	6(%)					7.4

어머니가 인식한 부부갈등 변화 양상으로 본 5개의 잠재집단은 [그림 IV-2-1]과 같다. 5개의 잠재집단은 ‘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 ‘상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 ‘중수준 부부갈등 증가’ 집단, ‘중수준 부부갈등 감소’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그림 IV-2-1] 모가 인식한 부부갈등 변화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형태



아버지의 경우 잠재집단이 3개인 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류 정확도를 보여주는 평균 사후확률은 0.884~0.921로 확인되었다. 첫 번째 잠재집단인 ‘중수준 부부갈등’ 집단은 288명(16.2%)이 해당되었으며, 초기값 2.733($p<.001$), 선형변화율 0.089($p<.001$)이다. 두 번째 잠재집단인 ‘최하수준 부부갈등’ 집단은 647명(36.3%)을 포함하며, 초기값 1.428($p<.001$), 선형변화율 0.023($p<.001$)이다. 선형변화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실제적 유의성은 크지 않았다. 세 번째 잠재집단인 ‘하수준 부부갈등’ 집단은 848명(47.6%)이며, 초기값 2.067($p<.001$), 선형변화율 0.048($p<.001$)로 보고되었다. 선형변화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실제적 유의성은 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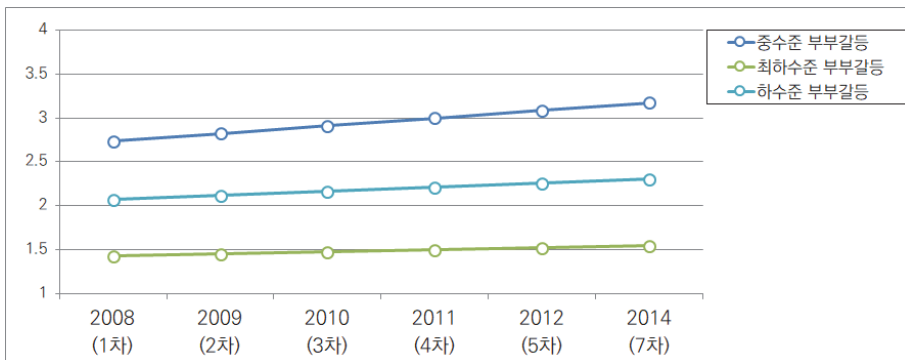
<표 IV-2-4> 부가 인식한 부부갈등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수 적합도 및 분류율 비교

	잠재프로파일 수				
	2	3	4	5	6
AIC	17669.506	16901.070	16714.777	16638.213	16571.635
BIC	17729.852	16977.875	16808.040	16747.934	16697.814
SABIC	17694.906	16933.398	16754.033	16684.395	16624.744

		잠재프로파일 수				
		2	3	4	5	6
Entropy		0.795	0.783	0.763	0.711	0.689
LMR LRT(p)		0.0000	0.0000	0.1533	0.5195	0.0981
BLRT(p)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분류율	1(%)	58.7	16.2	23.3	19.9	7.3
	2(%)	41.3	36.3	3.9	5.5	12.7
	3(%)		47.6	42.7	7.9	24.2
	4(%)			30.1	27.8	20.6
	5(%)				38.9	32.6
	6(%)					2.5

아버지가 인식한 부부갈등 변화 양상으로 본 3개의 잠재집단은 [그림 IV-2-2]와 같다. 세 개 집단은 ‘중수준 부부갈등’ 집단, ‘최하수준 부부갈등’ 집단, ‘하수준 부부갈등’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그림 IV-2-2] 부가 인식한 부부갈등 변화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형태



다. 부모 부부갈등 잠재집단 유형별 특성

어머니가 인식한 부부갈등 잠재집단 유형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월 평균 가구 소득, 모 학력, 거주 지역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어머니가 인지한 부부갈등을 자녀가 만 0세인 1차시기부터 살펴보았기 때문에, 가장 초기인 1차시기를 기준으로 잠재집단 유형에 따른 배경변인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어머니가 인지한 부부갈등의 잠재집단에 따른 월 평균 가구소득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이 1차 기준 월평균 가구소득 336만원으로 5집단 중 가장 소득이 높았으며, ‘중수준 부부갈등 감소’ 집단의 소

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5〉 모의 잠재집단별 월 평균 가구 소득 차이

가구 특성	잠재집단	N	M	S.E.	F
월 평균 가구 소득 1차 (0세)	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724	318.56	158.88	2.945 [*]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509	336.26	147.52	
	상수준 부부갈등 유지	72	315.83	151.99	
	중수준 부부갈등 증가	222	307.46	139.01	
	중수준 부부갈등 감소	125	294.04	134.21	

* $p < .05$.

다음은 어머니가 인지한 부부갈등의 잠재집단에 따라 학력 분포를 살펴보았는데, 잠재집단별 차이를 보였다.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은 상대적으로 대학교 졸업(4년제 이상) 비율이 높지만, ‘상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은 상대적으로 고졸 이하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6〉 모의 잠재집단별 모 학력 분포 차이

가구 특성	잠재집단	고졸 이하	전문 대졸	대학 교졸	대학 원졸	전체	$\chi^2(df)$
모 학력 1차 (0세)	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28.8	31.2	35.6	4.4	100(765)	29.895(12)**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26.1	29.4	37.2	7.3	100(548)	
	상수준 부부갈등 유지	44.0	24.0	26.7	5.3	100(75)	
	중수준 부부갈등 증가	37.4	28.0	29.7	4.9	100(246)	
	중수준 부부갈등 감소	39.3	24.4	33.3	3.0	100(135)	

** $p < .01$.

어머니가 인지한 부부갈등의 잠재집단에 따라 거주 지역 분포를 살펴보았는데, 잠재집단에 따른 분포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2-7〉 모의 잠재집단별 거주 지역 분포 차이

가구 특성	잠재집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chi^2(df)$
거주 지역 1차 (0세)	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38.9	41.6	19.5	100(791)	8.662(8)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41.4	40.2	18.4	100(565)	
	상수준 부부갈등 유지	47.5	30.0	22.5	100(80)	
	중수준 부부갈등 증가	36.0	40.3	23.7	100(253)	
	중수준 부부갈등 감소	39.3	37.9	22.9	100(140)	

다음으로 아버지가 인식한 부부갈등 잠재집단 유형에 따라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월 평균 가구 소득, 모 학력, 거주 지역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아버지의 경우 역시 가장 초기 데이터인 1차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자녀가 만 0세 시기(2008년, 1차)에서 아버지의 부부갈등 잠재집단에 따른 월 평균 가구 소득은 잠재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최하수준 부부갈등’ 집단이 ‘하수준 부부갈등’ 집단보다 월 평균 가구 소득이 높았다.

〈표 IV-2-8〉 부의 잠재집단별 월 평균 가구 소득 차이

가구 특성	잠재집단	N	M	S.E.	F
월 평균 가구 소득 1차 (0세)	중수준 부부갈등	261	316.36	141.88	4.150*
	최하수준 부부갈등	596	333.50	148.90	
	하수준 부부갈등	753	310.53	147.41	

* $p < .05$.

또한 자녀가 만 0세 시기(2008년, 1차)에 아버지의 부부갈등 잠재집단에 따라 학력 분포를 살펴본 결과 잠재집단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최하수준 부부갈등’ 집단은 상대적으로 대학교 졸업(4년제 이상) 비율이 높지만, ‘중수준 부부갈등’ 집단, ‘하수준 부부갈등’ 집단은 상대적으로 고졸 이하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9〉 부의 잠재집단별 부 학력 분포 차이

가구 특성	잠재집단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학교졸	대학원졸	전체	$\chi^2(df)$
부 학력 1차 (0세)	중수준 부부갈등	29.8	22.4	37.1	10.7	100(272)	20.398(6)**
	최하수준 부부갈등	23.3	20.2	44.7	11.8	100(619)	
	하수준 부부갈등	31.3	23.4	37.1	8.2	100(782)	

** $p < .01$.

자녀가 만 0세 시기(2008년, 1차)에 아버지의 부부갈등 잠재집단에 따라 거주 지역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잠재집단별 거주 지역에는 분포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2-10〉 부의 잠재집단별 거주 지역 분포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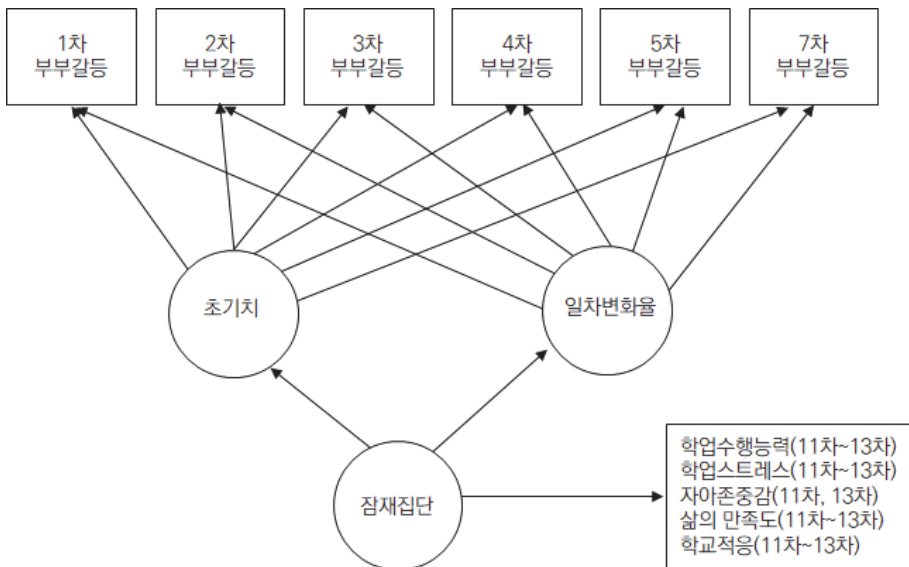
가구 특성	잠재집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chi^2(df)$
거주지역 1차 (0세)	중수준 부부갈등	38.5	39.9	21.5	100(288)	2.624(4)
	최하수준 부부갈등	41.6	40.2	18.2	100(264)	
	하수준 부부갈등	38.6	40.5	20.9	100(847)	

3. 영유아기 부모의 부부갈등이 아동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

가. 분석개요

본 절에서는 어머니, 아버지의 부부갈등 정도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앞서 2절에서 구분한 모, 부 각각의 성장혼합 모형의 집단에 따라 아동기 후반(4학년~6학년, 11~13차)의 주요 발달 변인(학업 수행능력, 학업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 IV-3-1]과 같다.

[그림 IV-3-1] 연구 모형



1) 연구도구

가) 학업수행능력(11~13차)¹⁴⁾

이은혜 외(2008)의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담임교사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예체능 6개 영역과 전반적인 학업수행능력에 대해 응답한 값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8차는 국어(4문항), 수학(5문항), 전반(1문항), 9차는 국어(4문항), 수학(3문항), 예체능(3문항), 전반(1문항), 10차는 국어(3문항), 수학(4문항), 과학(1문항), 사회(1문항), 예체능(3문항), 전반(1문항), 11차, 12차는 국어(3문항), 영어(1문항), 수학(5문항), 과학(1문항), 사회(1문항), 예체능(3문항), 전반(1문항), 13차는 국어(3문항), 영어(1문항), 수학(6문항), 과학(1문항), 사회(1문항), 예체능(3문항), 전반(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Chronbach's α 는 11차 .97, 12차 .96, 13차 .98로 확인되었다.

나) 학업스트레스(11~13차)¹⁵⁾

한국청소년패널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항을 활용하여 학업스트레스 수준을 확인하였으며, 11차(2018년)부터 13차(2020년)까지 동일한 3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아동이 '그런적 없다'(1점)~'항상 그렇다'(5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나는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Chronbach's α 는 11차 .79, 12차 .79, 13차 .80로 확인되었다.

14)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도구프로파일(아동_학업수행능력_초등) https://panel.kicce.re.kr/pskc/board/view.do?menu_idx=42&board_idx=44564&manage_idx=161&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search_type=title&search_text=%ED%95%99%EC%97%85&rowCount=10&viewPage=1

15)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도구프로파일(아동_학업스트레스) https://panel.kicce.re.kr/pskc/board/view.do?menu_idx=42&board_idx=44582&manage_idx=161&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search_type=title&search_text=%EC%8A%A4%ED%8A%B8%EB%A0%88%EC%8A%A4&rowCount=10&viewPage=1

다) 자아존중감(11차, 13차)¹⁶⁾

MCS(2012)에서 Rosenberg(1965)의 척도를 5문항으로 축소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11차(2018년), 13차(2020년)의 동일한 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아동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등이다. Chronbach’s α 는 11차 .83, 13차 .90로 확인되었다.

라) 삶의 만족도(11~13차)¹⁷⁾

한국아동청소년패널(2010) 문항을 활용하여 아동의 삶의 만족도 수준을 확인하였으며, 11차(2018년)부터 13차(2020년)까지 동일한 3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아동이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Chronbach’s α 는 11차 .74, 12차 .66, 13차 .66로 확인되었다.

마) 학교적응(11~13차)¹⁸⁾

학교적응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초등학교 4학년 시기(11차)는 지성애, 정대현

16)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도구프로파일(아동_자아존중감_초등) https://panel.kicce.re.kr/pskc/board/view.do?menu_idx=42&board_idx=44562&manage_idx=161&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search_type=title&search_text=%EC%9E%90%EC%95%84%EC%A1%B4%EC%A4%91%EA%B0%90&rowCount=10&viewPage=1

17)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도구프로파일(아동_삶의 만족도) https://panel.kicce.re.kr/pskc/board/view.do?menu_idx=42&board_idx=44579&manage_idx=161&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search_type=title&search_text=%EB%A7%8C%EC%A1%B1%EB%8F%84&rowCount=10&viewPage=1

18) -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도구프로파일(아동_학교적응_초1-4) https://panel.kicce.re.kr/pskc/board/view.do?menu_idx=42&board_idx=44721&manage_idx=161&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search_type=title&search_text=%EC%A0%81%EC%9D%91&rowCount=10&viewPage=1

-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도구프로파일(아동_학교적응_초5-6) https://panel.kicce.re.kr/pskc/board/view.do?menu_idx=42&board_idx=44596&manage_idx=161&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search_type=title&search_text=%EC%A0%81%EC%9D%91&rowCount=10&viewPage=1

(2006)의 척도, 초등학교 5학년부터 6학년 시기(12, 13차)는 민병수(1991)의 척도를 수정 보완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문항을 활용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 시기(11차)는 학교생활적응(11문항), 학업수행적응(11문항), 또래적응(8문항), 교사적응(5문항)의 4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5, 6학년 시기(12, 13차)는 학습활동(5문항), 학교규칙(5문항), 교우관계(5문항), 교사관계(6문항)의 4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의 초등학교 4학년 시기는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로, 초등학교 5, 6학년 시기는 4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문항은 초등학교 4학년 시기(11차)의 학교생활적응 '실외활동시간에 질서를 잘 지킨다.', 학업수행적응 '과제를 잘해오며 준비물을 잘 챙겨온다.', 또래적응 '과제를 잘해오며 준비물을 잘 챙겨온다.', 교사적응 '필요로 할 때 선생님께 도움을 청한다.', 초등학교 5, 6학년 시기(12, 13차) 학습활동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학교규칙 '휴지나 쓰레기를 버릴 때 꼭 휴지통에 버린다.', 교우관계 '친구가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 준다.', 교사관계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Chronbach's α 는 11차 학교생활적응 .95, 학업수행적응 .95, 또래적응 .94, 교사적응 .81, 12차 학습활동 .73, 학교규칙 .75, 교우관계 .69, 교사관계 .89, 13차 학습활동 .70, 학교규칙 .77, 교우관계 .64, 교사관계 .88이다.

2) 분석방법

영유아기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 변화 궤적에 기초한 잠재집단별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 발달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BCH 보조변수(Auxiliary)를 사용하였다(Asparouhov & Muthén, 2014).

나. 모의 부부갈등 잠재집단에 따른 아동 발달 특성 차이

영유아기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 변화 궤적에 기초한 잠재집단별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 발달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BCH 방법(BCH Method)을 사용하였다.

1) 학업수행능력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 변화 궤적에 기초한 잠재집단별 차이 분석 결과, 학업 수행능력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 시기(11차)는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 ‘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 ‘중수준 부부갈등 증가’ 집단 순으로, 그리고 ‘중수준 부부갈등 감소’ 집단이 ‘중수준 부부갈등 증가’ 집단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등학교 5학년(12차) 때는 ‘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이 ‘중수준 부부갈등 증가’ 집단보다 학업수행능력이 더 좋게 보고되었다. 초등학교 6학년 시기(13차)는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이 ‘중수준 부부갈등 증가’ 집단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3-1〉 모의 잠재집단에 따른 아동의 학업수행능력 차이

종속변인	잠재집단	N	M	S.E.	χ^2	사후 검증
학업수행능력 11차 (초등4)	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792	4.196	0.049	24.202***	4<1(2; 4<5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565	4.416	0.047		
	상수준 부부갈등 유지	80	3.927	0.192		
	중수준 부부갈등 증가	253	3.838	0.148		
	중수준 부부갈등 감소	140	4.304	0.119		
학업수행능력 12차 (초등5)	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792	4.229	0.055	14.323**	4<1,2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565	4.368	0.052		
	상수준 부부갈등 유지	80	4.083	0.176		
	중수준 부부갈등 증가	253	3.918	0.131		
	중수준 부부갈등 감소	140	4.209	0.146		
학업수행능력 13차 (초등6)	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792	4.235	0.058	4.485	4<2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565	4.250	0.062		
	상수준 부부갈등 유지	80	4.319	0.175		
	중수준 부부갈등 증가	253	3.989	0.116		
	중수준 부부갈등 감소	140	4.290	0.136		

주: BHC 보조변수 분석 결과로 일부 표에서 전체 검증(overall test)에서 유의하지 않더라도, 개별 그룹 비교(group comparison)에서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 $p < .01$, *** $p < .001$.

2) 학업 스트레스

초등학교 4학년(11차) 시기의 학업스트레스 점수는 ‘중수준 부부갈등 증가’ 집단에서 ‘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보다 높게 보

고되었다. 초등학교 5학년(12차) 시기는 전체 검증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개별검증에서는 ‘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 ‘중수준 부부갈등 감소’ 집단이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6학년 시기(13차)에는 ‘중수준 부부갈등 증가’ 집단이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보다 학업 스트레스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3-2〉 모의 잠재집단에 따른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 차이

종속변인	잠재집단	N	M	S.E.	χ^2	사후 검증
학업 스트레스 11차 (초등4)	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792	2.038	0.040	16.596**	1,2<4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565	1.933	0.044		
	상수준 부부갈등 유지	80	2.123	0.111		
	중수준 부부갈등 증가	253	2.289	0.092		
	중수준 부부갈등 감소	140	2.115	0.113		
학업 스트레스 12차 (초등5)	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792	2.175	0.040	9.358	2<1,5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565	2.030	0.043		
	상수준 부부갈등 유지	80	2.193	0.115		
	중수준 부부갈등 증가	253	2.106	0.088		
	중수준 부부갈등 감소	140	2.301	0.103		
학업 스트레스 13차 (초등6)	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792	2.268	0.044	11.205*	2<4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565	2.194	0.048		
	상수준 부부갈등 유지	80	2.445	0.145		
	중수준 부부갈등 증가	253	2.427	0.088		
	중수준 부부갈등 감소	140	2.411	0.106		

주: BHC 보조변수 분석 결과로 일부 표에서 전체 검증(overall test)에서 유의하지 않더라도, 개별 그룹 비교(group comparison)에서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 $p < .05$, ** $p < .01$.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시기(11차, 13차)에 공통적으로 ‘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이 ‘중수준 부부갈등 증가’ 집단보다 점수가 높았다.

〈표 IV-3-3〉 모의 잠재집단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 차이

종속변인	잠재집단	N	M	S.E.	χ^2	사후 검증
자아존중감 11차 (초등4)	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792	3.534	0.021	10.031*	4<1,2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565	3.533	0.023		
	상수준 부부갈등 유지	80	3.445	0.068		
	중수준 부부갈등 증가	253	3.397	0.052		
	중수준 부부갈등 감소	140	3.468	0.061		
자아존중감 12차 (초등6)	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792	3.356	0.029	10.877*	4<1,2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565	3.338	0.031		
	상수준 부부갈등 유지	80	3.233	0.075		
	중수준 부부갈등 증가	253	3.184	0.060		
	중수준 부부갈등 감소	140	3.265	0.063		

주: BHC 보조변수 분석 결과로 일부 표에서 전체 검증(overall test)에서 유의하지 않더라도, 개별 그룹 비교(group comparison)에서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 $p < .05$.

4)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 시기(11차)에 ‘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이 ‘중수준 부부갈등 증가’ 집단보다 점수가 높았다. 초등학교 5학년 시기(12차)에는 ‘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이 ‘중수준 부부갈등 감소’ 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보고하였다. 반면, 초등학교 6학년 시기(13차)에는 전체 검증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개별검증에서는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이 ‘중수준 부부갈등 감소’ 집단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3-4〉 모의 잠재집단에 따른 아동의 삶의 만족도 차이

종속변인	잠재집단	N	M	S.E.	χ^2	사후 검증
삶의 만족도 11차 (초등4)	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792	3.537	0.022	12.711*	4<1,2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565	3.562	0.024		
	상수준 부부갈등 유지	80	3.447	0.079		
	중수준 부부갈등 증가	253	3.420	0.054		
	중수준 부부갈등 감소	140	3.420	0.072		
삶의 만족도 12차 (초등5)	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792	3.365	0.023	12.016*	5<1,2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565	3.363	0.027		
	상수준 부부갈등 유지	80	3.277	0.076		

종속변인	잠재집단	N	M	S.E.	χ^2	사후 검증
삶의 만족도 13차 (초등6)	중수준 부부갈등 증가	253	3.279	0.056		
	중수준 부부갈등 감소	140	3.186	0.064		
	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792	3.131	0.029	6.723	5(2)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565	3.156	0.031		
	상수준 부부갈등 유지	80	3.022	0.077		
	중수준 부부갈등 증가	253	3.116	0.051		
	중수준 부부갈등 감소	140	3.014	0.063		

주: BHC 보조변수 분석 결과로 일부 표에서 전체 검증(overall test)에서 유의하지 않더라도, 개별 그룹 비교(group comparison)에서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 $p < .05$.

5) 학교적응

초등학교 4학년 시기(11차)의 학교생활적응은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이 ‘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 ‘중수준 부부갈등 증가’ 집단보다 점수가 높았다. 학업수행적응과 또래적응은 ‘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 ‘중수준 부부갈등 감소’ 집단이 ‘중수준 부부갈등 증가’ 집단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사적응의 경우 잠재집단에 따른 점수 차이가 없었다.

초등학교 5학년 시기(12차)의 학습활동은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이 ‘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 ‘상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 ‘중수준 부부갈등 증가’ 집단, ‘중수준 부부갈등 감소’ 집단보다 높았고, ‘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이 ‘중수준 부부갈등 증가’ 집단보다 점수가 높게 보고되었다. 학교규칙은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이 ‘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 ‘중수준 부부갈등 증가’ 집단, ‘중수준 부부갈등 감소’ 집단보다 점수가 높았다. 교우관계는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 ‘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 ‘중수준 부부갈등 증가’ 집단 순으로, 그리고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이 ‘중수준 부부갈등 감소’ 집단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교사관계는 전체 검증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개별검증에서는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이 ‘중수준 부부갈등 증가’ 집단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등학교 6학년 시기(13차)의 학습활동은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 ‘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 ‘중수준 부부갈등 증가’ 집단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학교

규칙은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이 ‘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 ‘중수준 부부갈등 증가’ 집단, ‘중수준 부부갈등 감소’ 집단보다 높게 보고되었다. 교우관계는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 ‘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이 ‘중수준 부부갈등 증가’ 집단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교사관계의 경우 잠재집단에 따른 점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IV-3-5〉 모의 잠재집단에 따른 아동의 학교적응 차이

종속변인	잠재집단	N	M	S.E.	χ^2	사후검증
학교적응_학교생활적응 11차 (초등4)	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792	4.188	0.057	20.378***	1,4<2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565	4.483	0.051		
	상수준 부부갈등 유지	80	4.162	0.166		
	중수준 부부갈등 증가	253	4.057	0.122		
	중수준 부부갈등 감소	140	4.352	0.115		
학교적응_학업수행적응 11차 (초등4)	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792	4.011	0.054	9.842*	4<1,2,5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565	4.108	0.058		
	상수준 부부갈등 유지	80	3.772	0.190		
	중수준 부부갈등 증가	253	3.727	0.127		
	중수준 부부갈등 감소	140	4.173	0.124		
학교적응_또래적응 11차 (초등4)	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792	4.075	0.053	11.664*	4<1,2,5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565	4.190	0.053		
	상수준 부부갈등 유지	80	4.037	0.156		
	중수준 부부갈등 증가	253	3.761	0.118		
	중수준 부부갈등 감소	140	4.195	0.114		
학교적응_교사적응 11차 (초등4)	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792	4.035	0.045	4.143	-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565	4.117	0.051		
	상수준 부부갈등 유지	80	3.915	0.159		
	중수준 부부갈등 증가	253	4.030	0.104		
	중수준 부부갈등 감소	140	4.243	0.115		
학교적응_학습활동 12차 (초등5)	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792	3.113	0.021	25.822***	1,3,4,5<2; 4<1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565	3.194	0.025		
	상수준 부부갈등 유지	80	3.042	0.070		
	중수준 부부갈등 증가	253	2.957	0.048		
	중수준 부부갈등 감소	140	3.074	0.054		
학교적응_학교규칙 12차 (초등5)	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792	3.178	0.021	15.848**	1,4,5<2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565	3.289	0.024		
	상수준 부부갈등 유지	80	3.180	0.052		
	중수준 부부갈등 증가	253	3.158	0.045		
	중수준 부부갈등 감소	140	3.161	0.059		

종속변인	잠재집단	N	M	S.E.	χ^2	사후 검증
학교적응_교우관계 12차 (초등5)	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792	3.241	0.020	26.171***	4<1<2; 5<2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565	3.328	0.022		
	상수준 부부갈등 유지	80	3.218	0.070		
	중수준 부부갈등 증가	253	3.119	0.042		
	중수준 부부갈등 감소	140	3.217	0.051		
학교적응_교사관계 12차 (초등5)	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792	3.191	0.027	9.164	4<2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565	3.223	0.032		
	상수준 부부갈등 유지	80	3.033	0.095		
	중수준 부부갈등 증가	253	3.059	0.060		
	중수준 부부갈등 감소	140	3.179	0.071		
학교적응_학습활동평균 13차 (초등6)	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792	3.019	0.022	32.362***	4<1<2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565	3.112	0.023		
	상수준 부부갈등 유지	80	2.990	0.066		
	중수준 부부갈등 증가	253	2.851	0.045		
	중수준 부부갈등 감소	140	3.004	0.059		
학교적응_학교규칙평균 13차 (초등6)	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792	3.181	0.022	24.453***	1,4,5<2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565	3.283	0.023		
	상수준 부부갈등 유지	80	3.160	0.061		
	중수준 부부갈등 증가	253	3.100	0.044		
	중수준 부부갈등 감소	140	3.130	0.054		
학교적응_교우관계 13차 (초등6)	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792	3.205	0.020	10.648*	4<1,2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565	3.212	0.022		
	상수준 부부갈등 유지	80	3.123	0.063		
	중수준 부부갈등 증가	253	3.082	0.041		
	중수준 부부갈등 감소	140	3.184	0.046		
학교적응_교사관계 13차 (초등6)	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792	3.026	0.028	2.836	-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565	3.053	0.032		
	상수준 부부갈등 유지	80	3.083	0.082		
	중수준 부부갈등 증가	253	2.954	0.058		
	중수준 부부갈등 감소	140	3.021	0.065		

주: BHC 보조변수 분석 결과로 일부 표에서 전체 검증(overall test)에서 유의하지 않더라도, 개별 그룹 비교(group comparison)에서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다. 부의 부부갈등 잠재집단에 따른 아동 발달 특성 차이

영유아기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 변화 궤적에 기초한 잠재집단별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 발달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BCH 방법(BCH Method)

을 사용하였다.

1) 학업수행능력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 변화 궤적에 기초한 잠재집단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초등학교 4학년(11차), 5학년 시기(12차)에 ‘최하수준 부부갈등’ 집단이 ‘중수준 부부갈등’ 집단, ‘하수준 부부갈등’ 집단보다 학업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초등학교 6학년 시기(13차)에는 잠재집단에 따른 학업수행능력 점수에 차이가 없었다.

〈표 IV-3-6〉 부의 잠재집단에 따른 아동의 학업수행능력 차이

종속변인	잠재집단	N	M	S.E.	χ^2	사후 검증
학업수행능력 11차 (초등4)	중수준 부부갈등	288	3.967	0.099	20.477***	1,3<2
	최하수준 부부갈등	647	4.395	0.046		
	하수준 부부갈등	848	4.174	0.051		
학업수행능력 12차 (초등5)	중수준 부부갈등	288	4.003	0.108	10.371**	1,3<2
	최하수준 부부갈등	647	4.348	0.051		
	하수준 부부갈등	848	4.190	0.052		
학업수행능력 13차 (초등6)	중수준 부부갈등	288	4.200	0.096	0.237	-
	최하수준 부부갈등	647	4.235	0.058		
	하수준 부부갈등	848	4.196	0.055		

** $p < .01$, *** $p < .001$.

2) 학업 스트레스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시기(11차, 13차)에는 공통적으로 ‘중수준 부부갈등’ 집단, ‘하수준 부부갈등’ 집단이 ‘최하수준 부부갈등’ 집단보다 학업스트레스가 높았다. 초등학교 5학년 시기(12차)에는 ‘하수준 부부갈등’ 집단이 ‘최하수준 부부갈등’ 집단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보고되었다.

〈표 IV-3-7〉 부의 잠재집단에 따른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 차이

종속변인	잠재집단	N	M	S.E.	χ^2	사후 검증
학업 스트레스 11차 (초등4)	중수준 부부갈등	288	2.168	0.067	9.580**	2<1,3
	최하수준 부부갈등	647	1.953	0.040		
	하수준 부부갈등	848	2.087	0.041		

종속변인	잠재집단	N	M	S.E.	χ^2	사후 검증
학업 스트레스 12차 (초등5)	중수준 부부갈등	288	2.171	0.067	8.479*	2<3
	최하수준 부부갈등	647	2.032	0.039		
	하수준 부부갈등	848	2.197	0.040		
학업 스트레스 13차 (초등6)	중수준 부부갈등	288	2.373	0.070	14.292**	2<1,3
	최하수준 부부갈등	647	2.145	0.043		
	하수준 부부갈등	848	2.365	0.043		

* $p < .05$, ** $p < .01$.

3) 자아존중감

초등학교 4학년 시기(11차)에는 전체 검증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개별검증에서는 ‘최하수준 부부갈등’ 집단이 ‘하수준 부부갈등’ 집단보다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았다. 반면 초등학교 6학년 시기(13차)는 잠재집단에 따른 자아존중감 점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3-8〉 부모 잠재집단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 차이

종속변인	잠재집단	N	M	S.E.	χ^2	사후 검증
자아존중감 11차 (초등4)	중수준 부부갈등	288	3.482	0.033	5.388	3<2
	최하수준 부부갈등	647	3.530	0.021		
	하수준 부부갈등	848	3.456	0.022		
자아존중감 13차 (초등6)	중수준 부부갈등	288	3.264	0.044	4.800	-
	최하수준 부부갈등	647	3.360	0.027		
	하수준 부부갈등	848	3.292	0.026		

주: BHC 보조변수 분석 결과로 일부 표에서 전체 검증(overall test)에서 유의하지 않더라도, 개별 그룹 비교(group comparison)에서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4) 삶의 만족도

초등학교 4학년 시기(11차)의 삶의 만족도는 ‘최하수준 부부갈등’ 집단, ‘하수준 부부갈등’ 집단에서 ‘중수준 부부갈등’ 집단보다 높았다. 초등학교 5학년(12차)과 6학년 시기(13차)에는 공통적으로 ‘최하수준 부부갈등’ 집단이 ‘중수준 부부갈등’ 집단보다 더 높은 삶의 만족도 수준을 보고하였다.

〈표 IV-3-9〉 부의 잠재집단에 따른 아동의 삶의 만족도 차이

종속변인	잠재집단	N	M	S.E.	χ^2	사후 검증
삶의 만족도 11차 (초등4)	중수준 부부갈등	288	3.382	0.041	14.338**	1<2,3
	최하수준 부부갈등	647	3.559	0.022		
	하수준 부부갈등	848	3.522	0.023		
삶의 만족도 12차 (초등5)	중수준 부부갈등	288	3.273	0.043	6.728*	1<2
	최하수준 부부갈등	647	3.385	0.025		
	하수준 부부갈등	848	3.317	0.024		
삶의 만족도 13차 (초등6)	중수준 부부갈등	288	3.058	0.039	5.551	1<2
	최하수준 부부갈등	647	3.167	0.027		
	하수준 부부갈등	848	3.113	0.026		

주: BHC 보조변수 분석 결과로 일부 표에서 전체 검증(overall test)에서 유의하지 않더라도, 개별 그룹 비교(group comparison)에서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 $p < .05$, ** $p < .01$.

5) 학교적응

초등학교 4학년 시기(11차)의 학교생활적응은 ‘최하수준 부부갈등’ 집단, ‘하수준 부부갈등’ 집단 ‘중수준 부부갈등’ 집단 순으로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은 ‘최하수준 부부갈등’ 집단이 ‘중수준 부부갈등’ 집단, ‘하수준 부부갈등’ 집단보다 높았고, 교사적응은 ‘최하수준 부부갈등’ 집단이 ‘하수준 부부갈등’ 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초등학교 5학년 시기(12차) 학습활동, 교우관계는 ‘최하수준 부부갈등’ 집단이 ‘중수준 부부갈등’ 집단, ‘하수준 부부갈등’ 집단보다 높은 수준을 보고하였다. 학교규칙과 교사관계는 ‘최하수준 부부갈등’ 집단이 ‘중수준 부부갈등’ 집단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6학년 시기(13차)의 학습활동, 학교규칙 점수가 ‘중수준 부부갈등’ 집단, ‘하수준 부부갈등’ 집단보다 ‘최하수준 부부갈등’ 집단에서 높았다. 교우관계는 ‘최하수준 부부갈등’ 집단이 ‘하수준 부부갈등’ 집단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고하였다.

〈표 IV-3-10〉 부의 잠재집단에 따른 아동의 학교적응 차이

종속변인	잠재집단	N	M	S.E.	χ^2	사후 검증
학교적응, 학교생활 적응 11차 (초등4)	중수준 부부갈등	288	3.980	0.102	20.520***	1<3/2
	최하수준 부부갈등	647	4.446	0.048		
	하수준 부부갈등	848	4.242	0.054		

종속변인	잠재집단	N	M	S.E.	χ^2	사후 검증
학교적응_학업수행 적응 11차 (초등4)	중수준 부부갈등	288	3.802	0.102	13.322**	1,3<2
	최하수준 부부갈등	647	4.164	0.051		
	하수준 부부갈등	848	3.965	0.053		
학교적응_또래적응 11차 (초등4)	중수준 부부갈등	288	3.902	0.097	14.920**	1,3<2
	최하수준 부부갈등	647	4.242	0.049		
	하수준 부부갈등	848	4.020	0.050		
학교적응_교사적응 11차 (초등4)	중수준 부부갈등	288	4.015	0.087	6.638*	3<2
	최하수준 부부갈등	647	4.174	0.045		
	하수준 부부갈등	848	4.012	0.045		
학교적응_학습활동 12차 (초등5)	중수준 부부갈등	288	3.054	0.039	18.044***	1,3<2
	최하수준 부부갈등	647	3.192	0.023		
	하수준 부부갈등	848	3.066	0.021		
학교적응_학교규칙 12차 (초등5)	중수준 부부갈등	288	3.152	0.036	7.269*	1<2
	최하수준 부부갈등	647	3.254	0.022		
	하수준 부부갈등	848	3.193	0.020		
학교적응_교우관계 12차 (초등5)	중수준 부부갈등	288	3.165	0.034	13.803**	1,3<2
	최하수준 부부갈등	647	3.302	0.020		
	하수준 부부갈등	848	3.234	0.020		
학교적응_교사관계 12차 (초등5)	중수준 부부갈등	288	3.104	0.050	5.597	1<2
	최하수준 부부갈등	647	3.226	0.030		
	하수준 부부갈등	848	3.154	0.026		
학교적응_학습활동 13차 (초등6)	중수준 부부갈등	288	2.944	0.038	19.994***	1,3<2
	최하수준 부부갈등	647	3.101	0.022		
	하수준 부부갈등	848	2.984	0.021		
학교적응_학교규칙 13차 (초등6)	중수준 부부갈등	288	3.161	0.034	13.515**	1,3<2
	최하수준 부부갈등	647	3.265	0.023		
	하수준 부부갈등	848	3.154	0.020		
학교적응_교우관계 13차 (초등6)	중수준 부부갈등	288	3.174	0.034	5.988	3<2
	최하수준 부부갈등	647	3.227	0.021		
	하수준 부부갈등	848	3.155	0.019		
학교적응_교사관계 13차 (초등6)	중수준 부부갈등	288	3.014	0.046	2.454	-
	최하수준 부부갈등	647	3.064	0.030		
	하수준 부부갈등	848	2.998	0.027		

주: BHC 보조변수 분석 결과로 일부 표에서 전체 검증(overall test)에서 유의하지 않더라도, 개별 그룹 비교(group comparison)에서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4. 소결

본 절에서는 1~11차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논문 중 부모의 심리, 행동, 관계 변수 등 부모 양육 관련 변수 중심으로 부모 양육과 아동 발달의 관계를 밝힌 논문 170여 편을 정리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아기의 경우 양육 특성 중 부모의 계획된 출산의도, 높은 양육참여, 양육지식, 자녀 가치, 낮은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양육태도가 영아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리적 특성의 경우 산전 우울감, 산후 우울감이 낮을수록,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영아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부부관계 특성이 긍정적일수록(높은 결혼만족도, 낮은 부부갈등) 긍정적 영아 발달을 촉진하였다.

유아기 또래 상호작용에 부모의 사회적 상호작용, 발달지원적 가정환경 특성, 사회경제적 지위(학력, 월평균 수입)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부모의 높은 심리적 안녕감,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결혼만족도, 낮은 우울이 또래 상호작용 촉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사회적 양육행동,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아버지의 양육참여, 결혼만족도가 아동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며, 양육스트레스, 우울,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의 공동양육, 온정적 양육행동, 부모-자녀 상호작용, 부모의 학교생활 관심 정도, 일-가정 양립 이점이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을 촉진하며, 성취압력, 양육스트레스, 우울, 부부갈등이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본 절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영유아 시기(1~7차) 동안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 영유아기 동안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의 변화 양상을 잠재집단으로 나누었다. 부정적 부부관계의 대표적 지표인 부부갈등은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양육 특성으로 전이될 수 있으며(Erel & Burman, 1995), 결과적으로 자녀의 발달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는 각자 부부갈등을 다르게 지각할 수 있으며,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은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가 있다(Li & Liu, 2020). 어머니의 아버지는 자녀 발달 과정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영유아 시기 동안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갈등의 변화 양상을 분리하

여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분석 결과 어머니의 부부갈등 변화 양상은 잠재집단이 5개인 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 번째 잠재집단인 ‘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792명, 43.3%)은 영유아 시기 동안 두 번째로 낮은 부부갈등 수준을 보이며, 큰 변화가 없는 특징을 보였다. 두 번째 잠재집단인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565명, 30.9%)은 가장 낮은 수준의 부부갈등을 보이면서, 영유아 시기 동안 큰 변화가 없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세 번째 잠재집단인 ‘상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80명, 4.4%)은 가장 높은 부부갈등 수준을 보이며, 변화가 없는 특징을 보였다. 네 번째 잠재집단인 ‘중수준 부부갈등 증가’ 집단(253명, 13.8%)은 영유아 시기 동안 부부갈등 수준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다섯 번째 잠재집단인 ‘중수준 부부갈등 감소’ 집단(140명, 7.7%)은 영유아 시기 동안 부부갈등 수준이 감소하는 특징을 가진다.

아버지의 부부갈등 변화 양상은 잠재집단이 3개인 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 번째 잠재집단인 ‘중수준 부부갈등’ 집단(288명, 16.2%)은 영유아 시기 동안 가장 높은 부부갈등 수준을 보이며, 영아기 동안 부부갈등 수준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두 번째 잠재집단인 ‘최하수준 부부갈등’ 집단(647명, 36.3%)은 영아기 동안 부부갈등 수준이 가장 낮은 특징을 보이며, 큰 변화가 없는 특징을 보였다. 세 번째 잠재집단인 ‘하수준 부부갈등’ 집단(848명, 47.6%)은 두 번째로 낮은 부부갈등 수준을 보이며, 다소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 변화 궤적에 기초한 잠재집단별 차이 분석 결과, 학업 수행능력의 경우 대체로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 ‘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이 ‘중수준 부부갈등 증가’ 집단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업스트레스의 경우 대체로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이 가장 낮은 특징을 보였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 ‘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이 ‘중수준 부부갈등 증가’ 집단보다 점수가 높았다. 삶의 만족도는 대체로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 ‘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이 ‘중수준 부부갈등 증가’ 집단, ‘중수준 부부갈등 감소’ 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보고하였다. 학교적응은 전반적으로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 ‘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이 ‘중수준 부부갈등 증가’ 집단보다 그 수준이 높았다.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 변화 궤적에 기초한 잠재집단별 차이 분석 결과, 학업

수행능력의 경우 대체로 ‘최하수준 부부갈등’ 집단이 ‘중수준 부부갈등’ 집단, ‘하수준 부부갈등’ 집단보다 점수가 높았다. 학업스트레스의 경우 전반적으로 ‘중수준 부부갈등’ 집단, ‘하수준 부부갈등’ 집단이 ‘최하수준 부부갈등’ 집단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아존중감은 대체로 ‘최하수준 부부갈등’ 집단이 ‘중수준 부부갈등’ 집단보다 점수가 높았다. 삶의 만족도는 대체로 ‘중수준 부부갈등’ 집단보다 ‘최하수준 부부갈등’ 집단에서 그 수준이 높게 보고되었다. 학교적응의 경우 대체로 ‘최하수준 부부갈등’ 집단이 ‘중수준 부부갈등’ 집단, ‘하수준 부부갈등’ 집단보다 점수가 높은 특성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는 영유아기 시기 동안 어머니와 아버지가 느끼는 부부갈등이 자녀 발달 과정으로 전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선행연구는 부부갈등이 자녀의 발달 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양육의 질,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Braithwaite et al., 2015; Colnet et al., 2013; Davies & Cummings 1994; Erath et al., 2006; Hosokawa & Katsura, 2017; Li et al., 2020; Zemp et al., 2019). 부부갈등은 자녀가 경험하는 가장 큰 스트레스 사건일 수 있으며, 자녀는 부모의 부부갈등에 대한 부정적 반응으로 부정적 정서성, 행동조절의 어려움 등을 보인다(Li et al., 2020; Warmuth et al., 2018). 부부갈등은 건강한 가족 기능 및 부모의 정서적 안정성을 낮추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양육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감소시킴으로써 부모-자녀 간 안정적인 애착을 저해할 수 있다(Yang, et al., 2016). 높은 부부갈등은 사회적 양육행동, 양육 민감성, 공동양육 등의 양육의 질을 저해할 수 있으며, 낮은 질의 양육 특성은 자녀 발달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 결과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녀 발달 과정에 상호보완적이면서도 독립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부부관계에서 부부갈등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부부갈등 상황에서 파괴적인 해결 전략이 아닌 건설적인 해결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며(Craft et al., 2021; McCoy et al., 2013), 부모교육 등을 통해 부부갈등 상황에서의 건설적인 갈등 해결 기술을 향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V

가구 내 위험요인과 신체·정신건강

- 01 가구 내 위험요인
- 02 영유아기 어머니 우울에 따른 집단유형화
- 03 영유아기 어머니 우울이 아동기 신체·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04 소결

V. 가구 내 위험요인과 신체·정신건강¹⁹⁾

본 장에서는 한국아동패널 1차부터 13차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패널 아동에게 스트레스 경험이 되는 가구의 생애초기 위험요인을 아동 발달 시기별로 점검하였다. 둘째, 가구 내 위험요인 중 어머니 우울에 집중하여 그 수준에 따라 패널 가구 집단을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셋째, 구분된 유형에 따라 아동기의 신체·정신건강(알레르기 관련 질환, 행복감)의 차이를 확인함에 따라 영유아기 가정 내 스트레스 경험(생애 초기 위험요인)이 이후 아동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하였다.

1. 가구 내 위험요인

가. 연구의 배경

생애 초기에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뇌의 스트레스 조절 시스템의 발달을 저해하여 아동의 심리적 적응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왔다(Blair, 2010). 특히 부모의 우울, 특히 어머니의 우울은 가족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양육행동을 매개로 아동의 문제행동과 사회성 등의 발달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왔다(박주연 외, 2019; 연은모 외, 2016). 또한, 부부간의 갈등은 직접적으로, 그리고 양육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아동의 정서조절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노지운, 신나나, 2020), 이때 어머니가 높은 수준의 부모역할 만족도를 경험하면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력은 감소되기도 한다(김은혜, 장경은, 2021). 따라서 영유아기의 부모 간 갈등이 아동 발달에 해로운 영향력을 미치는 한편, 어머니의 정신건강은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중요한 보호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생애 초기 스트레스 경험은 이후 심리적 적응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

19) 본 장은 송주현 교수(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와 육아정책연구소 원내 연구진이 공동 집필함.

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해외의 연구들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생애 초기 가정 내 스트레스는 호르몬 분비와 관련된 뇌의 스트레스 시스템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Wright et al., 2005), 면역기능에 영향을 미쳐(Cacioppo et al., 1998), 알레르기 관련 질환 발생(Lange et al., 2011)과도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왔다. 특히 영유아기에 스트레스에 노출된 경험이 아동의 천식증상이나 기타 알레르기 발달과 연관이 된다는 증거가 축적되면서, 어머니의 우울이나 가정 내외의 폭력이나 트라우마 등을 아동의 건강문제를 일으키는 ‘사회적 오염물질’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Lange et al., 2011). 사회적 오염물질에는 아동 본인이 경험하는 직접적인 스트레스 경험(예: 학대, 열악한 물리적 환경) 외에도 부모의 스트레스, 특히 어머니의 우울 증상이나 부부간의 갈등 등이 포함된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들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Graham-Bermann & Seng, 2005; Lange et al., 2011; Pape et al., 2021; Suglia et al., 2010).

그러나 국내에는 종단연구를 통해 생애 초기 스트레스와 아동기 건강과의 인과 관계를 검증한 연구가 매우 드문 실정이다. 그 중, 한국아동패널 2008~2014년 자료를 이용한 2015년 심층분석 연구(이정림 외, 2015)에서는 부모의 스트레스나 흡연 및 음주 등의 부정적인 생활습관과 아동의 만 6세까지의 알레르기 질환 발병률 간의 정적인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동시에 사회경제지표(예: 소득수준, 부모 교육수준)의 영향력도 확인하였으나 이는 아동의 알레르기 질환 발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가족이 처한 지역사회, 물리적 특성 보다는 부모의 심리적 스트레스나 일상적인 생활 습관이 아동의 면역력에 미치는 상대적인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이전 연구들은 대부분 변수-중심(variable-centered)의 접근방식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변수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이후 적응을 예측하는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아동이 경험한 스트레스의 패턴에 따라 유사한 경험을 경험한 아동끼리 하위집단으로 분류하여 그들의 실제 발달 특성을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대상-중심(person-centered) 접근방식으로 다양한 특성의 아동들을 스트레스 경험 패턴에 따라 유사한 하위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으면, 집단 간 차이를 이해하고 고위험집단을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개입을 계획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Laursen & Hoff, 2006). 이에

본 장의 2절과 3절에서는 기존의 영유아기 가정 내 스트레스 경험과 아동의 건강에 관한 연구를 더욱 확장하여, 생애 초기 스트레스 경험(어머니 우울)이 이후 아동 중기와 후기의 신체적 건강(알레르기 관련 질환 여부)과 정신적 건강(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대상-중심적 접근방식을 이용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한편, 생애 초기 스트레스 경험의 영향력은 스트레스에 노출된 시기가 언제인가에 따라 다르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Nord & Hopwood, 2007). 예를 들어, 태내기나 영아기에는 뇌가 경험-의존적(experience-dependent)으로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특히나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의해 매우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Hodel, 2018). 특히 영아기에 경험한 어머니의 우울은 위험요인으로 축적되어(additive effect) 이후 어머니와 아동 간의 불안정 애착과 아동의 문제행동을 예측한다는 것이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바 있다(Kim-Cohen et al., 2005; Monk et al., 2012). 반면에, 아동의 기억력 증진과 최신성 효과에 의해 어린 영아기 시기보다 유아기에 경험한 스트레스가 더욱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본 장의 3절에서는 영아기와 유아기에 경험한 어머니의 우울의 양상을 구분하여 각각 어떻게 아동 중기와 후기의 알레르기 질환 발병과 심리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영아기와 유아기 동안에도 가정 내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수준은 변화할 수 있다. 특히 가족 체계적(family systems) 관점에서 보면 아동의 출생은 가정 내 큰 전환(family transition)을 일으키는 사건으로서, 영유아기는 부모의 심리적 상태나 부부간의 관계가 크게 변동할 수 있는 시기이다(Cox & Parley, 2003; Volling et al., 2017). 아동 출생을 전후한 시기 동안 가족 구성원들의 적응을 종단적으로 파악한 선행 연구에 의하면, 예를 들어 둘째 아동이 태어난 이후 첫째 아동(형제/자매)의 행동 문제의 패턴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집단 내의 이질성을 고려하고 종단적으로 변화하는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Volling et al., 2017). 이에 한국아동패널 자료의 강점인 종단적 반복측정 디자인을 활용하여, 본 장 2절에서는 영아기(1~3차)와 유아기(4~7차) 각각의 발달 단계 안에서의 어머니 우울 양상 변화 궤적에 따른 아동 하위집단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연구 참여자 내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고려하면서 종단적 자료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연구 접근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패널 가구의 생애초기 위험요인

1) 아동 발달 단계별 위험요인

한국아동패널 1차부터 13차 자료 중 아동 생애주기를 통틀어 아동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부모와 가구 특성을 정리해 보았다. 부모 특성으로 고려할 수 있는 변인은 부모 우울, 부부갈등, 부모 동거여부, 양육행동, 부모의 주관적 건강상태 등이 있다. 가구 특성으로 고려되는 변인은 가구 소득,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가구의 경제적 걱정빈도, 사회적 지원 정도, 가정환경의 질(물리적 환경), 이사 횟수 등이 있다.

위에서 제시한 위험요인을 본 장의 분석을 위해 한국아동패널 가구 내 위험요인을 아동 발달 시기별로 구분해 보았다(〈표 V-1-1〉 참조). 영아기(한국아동패널 자료 1~3차)는 주 양육자의 영향을 가장 밀접하게 받는 시기로, 높은 부모 우울, 부부갈등, 부모 별거 등을 반영하는 불안정한 결혼상태, 낮은 가구 소득, 부모, 낮은 사회적 지원 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동 기관 이용률이 90%를 상회하는 시기인 유아기에는 부모 요인과 더불어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이 아동 스트레스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아동패널(4~7차)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유아기도 영아기와 마찬가지로 높은 부모 우울, 부부갈등, 부정적 양육행동, 불안정한 결혼 상태, 낮은 사회적 지원 등이 위험요인이 되며, 더불어 낮은 가정환경의 질 등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

〈표 V-1-1〉 한국아동패널 1~13차 자료의 아동 발달 시기별 위험요인 구분

위험요인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부모 특성	우울	○	○	○	○	○	○	○	○		○		○	○
	부부갈등	○	○	○	○	○		○	○	○		○		○
	주관적 건강상태								○	○	○	○	○	
가구 지역 특성	결혼상태	○	○	○	○	○	○	○	○	○	○	○	○	○
	배우자 동거여부		○	○	○									
	가구소득	○	○	○			○	○	○	○	○	○	○	○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	○	○	○	○	○
	가구의 경제적 걱정빈도										○	○	○	○

위험요인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동거여부	○	○	○	○	○	○	○	○	○	○	○	○	○
사회적 지원정도	○	○	○	○		○	○	○	○	○	○		
가정환경의 질				○	○	○	○	○	○				
이사 횟수						○	○	○	○		○	○	

주: ○=해당 요인이 해당 시기에 측정되었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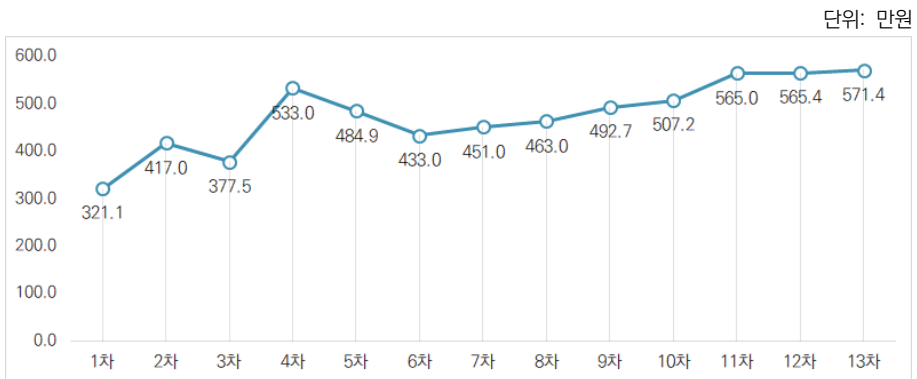
2) 패널 가구 특성과 위험요인 관련 추이

13차 패널 가구의 기본 특성을 정리하고, 일부 위험요인 변인에 대해 기초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아동패널 가구의 위험수준이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3차(2020년) 기준으로 한국아동패널 가구의 아버지의 최종학력이 대학교 졸업 이상인 비율은 53.3%, 어머니의 최종학력이 대학교 졸업 이상인 비율은 44.3%로 학력 수준이 높게 보고되었다. 자녀수는 가구 당 평균 2.23명($SD=0.83$)이며, ‘부모+자녀’로 구성된 패널 가구의 비율이 86.5%로 가장 많았다.

한국아동패널 1차부터 13차까지의 패널 가구 소득 추이는 [그림 V-1-1]과 같다. 패널 시작 시에 가구소득이 321만원 정도였으나 해가 거듭되면서 꾸준히 올라 13차(2020년)에는 약 571만원($SD=404.93$)으로 2020년 4인 가구 중위소득 474만 9,174원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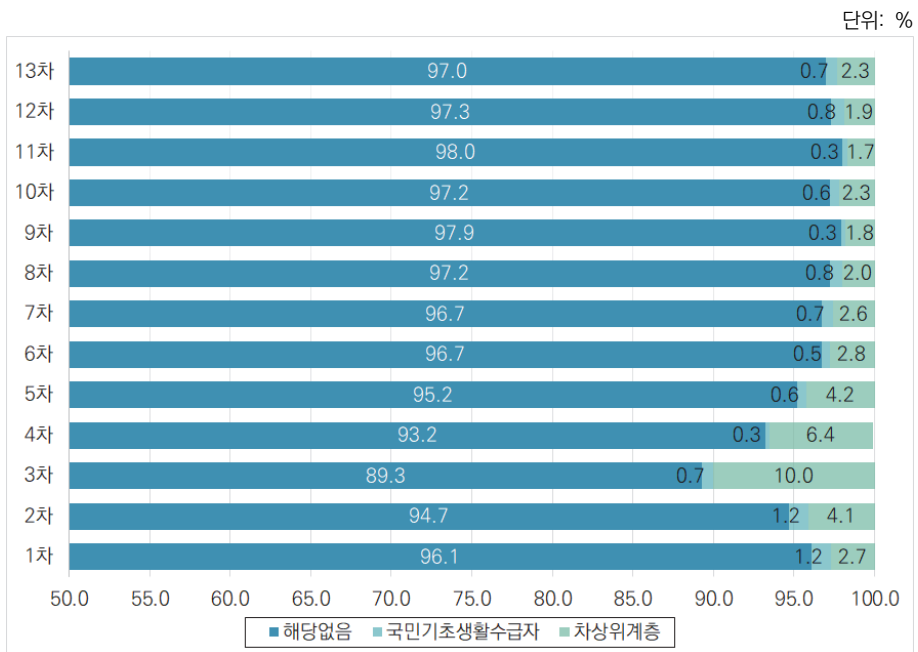
[그림 V-1-1] 한국아동패널 가구소득 추이(1~13차)



20) e-나라지표. (n.d.). 기준 중위소득 추이.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2 (2022. 10. 13.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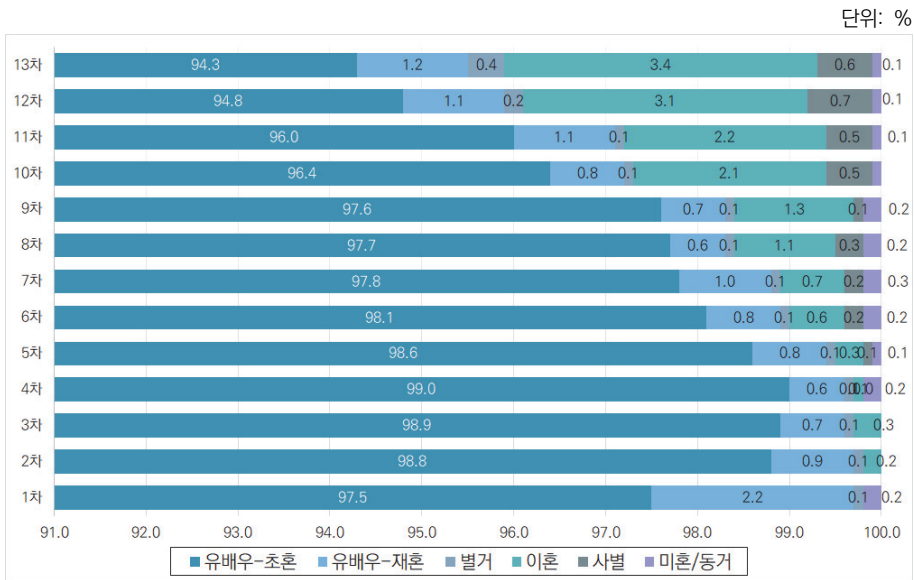
패널 가구의 기초생활수급 상태 추이를 정리한 결과는 [그림 V-1-2]와 같다.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체 패널 가구 1% 내(최소 0.3%, 최대 1.2%)로 집계되었고, 차상위계층은 최소 1.8%, 최대 10% 내에 분포되었다. 전체 패널 응답 가구의 90% 이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 이어서 가구의 경제적인 위험이 높은 집단은 패널 가구 중 극히 일부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림 V-1-2] 한국아동패널 기초생활수급 상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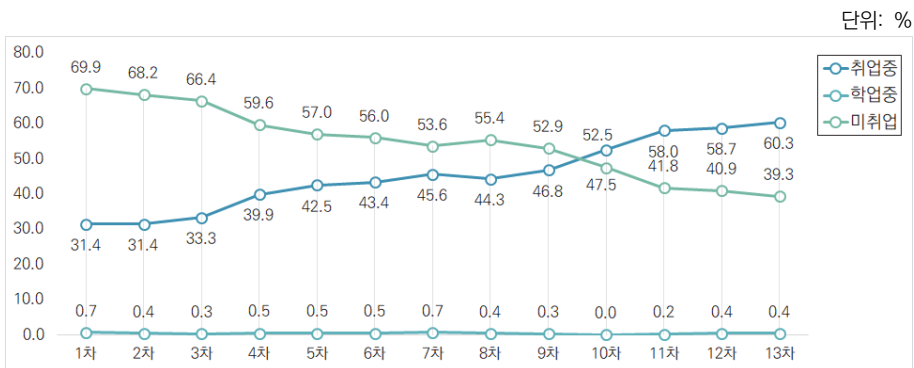
패널 가구의 어머니 결혼 상태를 1차에서 13차까지 정리한 결과는 [그림 V-1-3]와 같다. 각 차수 응답 가구의 94.3%~99.0%가 초혼이고 결혼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혼가정의 비율은 점점 증가하여 13차(2020년)에 3.4%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패널에 참여하다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패널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패널 가구 중 실제 이혼한 가정의 수는 데이터에서 보여주는 수치보다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림 V-1-3] 한국아동패널 모 결혼 상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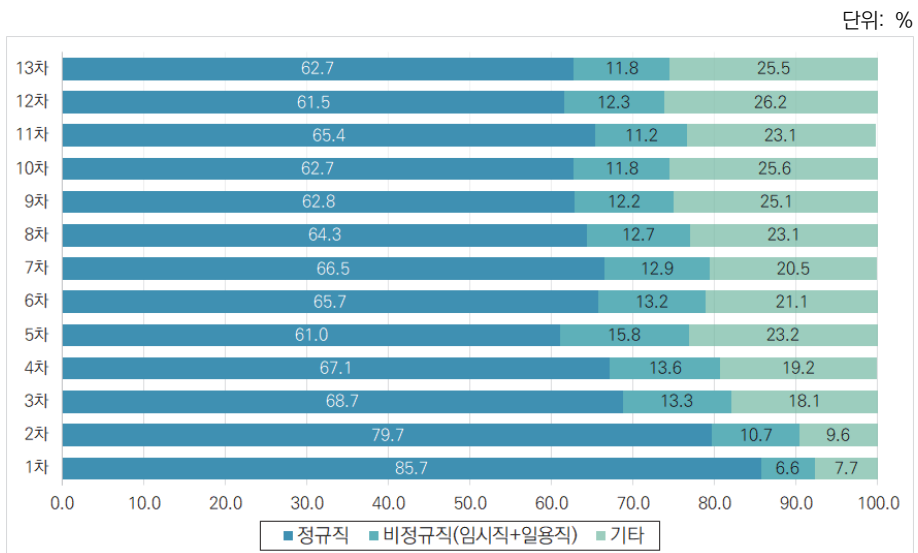
패널 가구의 어머니 취업 상태의 추이를 정리하면 [그림 V-1-4]와 같다. 취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 '취업중'으로 포함시켜 비율을 살펴보았다. 1차시기에 취업 중인 어머니가 31.4% 수준이었던 것에 반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10차시기에 어머니의 취업비율이 52.5%, 미취업 비율이 47.5%로 취업모가 미취업 모 비율을 넘어서게 됨을 확인하였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이후에 어머니들의 취업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그림 V-1-4] 한국아동패널 모 취업 상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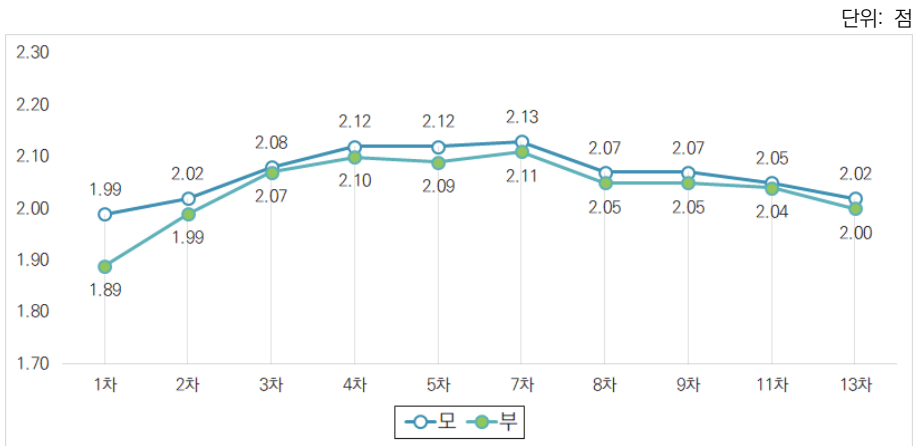
패널 가구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에 대한 추이 결과는 [그림 V-1-5]에 정리하였다. 1차시기 취업모의 85.7%가 정규직이라는 점에서 맞벌이 가구 중 고용이 안정되어 있는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가정 양립을 유지하기 위해 어머니가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정규직 취업모의 비율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지만, 1차에서 13차까지 정규직 비율이 60% 이상으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패널 가구의 위험성이 낮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림 V-1-5] 한국아동패널 모 종사상 지위



한국아동패널 가구의 부부갈등 추이를 정리한 결과는 [그림 V-1-6]과 같다. 5점 만점 척도로 부부갈등 수준을 조사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높음을 의미한다. 1차에서 13차까지 모와 부의 부부갈등 수준을 살펴보면, 중간값인 2.5 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차에서 7차까지 부모 모두 부부갈등 수준이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8차 이후에 다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V-1-6] 한국아동패널 부부갈등 추이



패널 가구의 배경적 특성을 검토한 결과, 가구소득이 4인가구 중위소득 보다 약 100만원 가량 높고, 결혼생활의 유지비율이 90% 이상으로 높고, 취업모 비율과 정규직 비율이 높은 특성을 가졌다. 즉,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낮기 때문에 위험요인의 높고 낮은 수준에 따라 고위험 집단과 저위험 집단을 구분하기 어렵다. 이러한 특성을 근거로 위험요인의 누적도를 통해 고위험 집단과 저위험 집단을 나누는 것보다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에 걸쳐 지속해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특정 일부 변인에 초점을 맞추어 생애초기 위험요인을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어지는 2절에서는 영유아기에 지속해서 위험요인으로 고려되는 모의 우울 수준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위험집단을 구분하였음을 밝힌다.

2. 영유아기 어머니 우울에 따른 집단유형화

본 절에서는 한국아동패널 조사의 1차부터 7차년도까지의 조사 자료를 생애초기 가정 내 위험요인으로 보고 앞서 탐색한 다양한 가구 내 위험요인 중 여러 아동 발달 시기에 걸쳐 공통적으로 측정된 어머니 우울 변수에 집중하여 아동 발달 시기 별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연구의 배경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생애초기, 출산 직후 민감한 시기의 스트레스의 영향(영아기)과 아동의 기억력 증진과 최선성 효과를 고려한 유아기 시기의 스트레스(유아기)가 아동기 신체·정신건강에

각기 다르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본 연구에서 탐구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어머니 우울을 1~7차까지의 잠재프로파일을 한 번에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별 위험요인의 효과를 구분하고 비교하는 목적을 가지고 영아기(1~3차)의 어머니의 우울 정도에 따른 잠재프로파일과 유아기(4~7차)의 어머니의 우울 정도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을 각기 추출하였다.

가. 분석개요

본 연구에서는 1차부터 3차년도 조사 중 어머니 우울 설문에 1회 이상 응답한 2,097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영아기 우울 잠재계층 분석을 진행하였고, 4차부터 7차년도 조사 중 어머니 우울 설문에 1회 이상 응답한 1,826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유아기 우울 잠재계층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잠재프로파일 간의 가구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다양한 가구 특성 변수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1) 연구도구

가) 모의 우울(1~7차)²¹⁾

패널 가구 가정 내 스트레스 경험과 아동기 신체·정신 건강 간 관계 분석을 위해 영아기와 유아기의 스트레스 경험의 변화 궤적은 어머니의 우울 수준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어머니의 우울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해 Kessler 우울(Kessler et al, 2002) 척도 질문지의 6문항(예: ‘지난 30일 동안 무기력하셨습니다’)으로 어머니가 지난 30일 동안 느낀 우울감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아니다’~5점=‘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진단이 목적이 아니므로, 6문항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영유아기에 해당하는 1차에서 7차년도의 자료를 포함하였고 문항 간 내적신뢰도(α)는 .91에서 .92사이였다. 6문항의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지각하는 본인의 우울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21)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도구프로파일(부모_우울) https://panel.kicce.re.kr/pskc/board/view.do?menu_idx=42&board_idx=44526&manage_idx=161&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search_type=title&search_text=%EC%9A%B0%EC%9A%B8&rowCount=10&viewPage=1

나) 가구 특성(1차, 4차, 8차)²²⁾

각 가정을 둘러싼 환경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출산 직후인 1차년도와 아동의 학교전환기인 8차년도의 가구소득과, 어머니가 보고한 사회적지지 평균점수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이재림과 옥선화(2001)의 사회적 지원척도와 조병은 외(1998)의 사회적 지원 척도를 기초로 자체 제작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어머니는 정서적, 도구적, 사교적, 정보적 지지에 대해 묻는 총 12문항(1차)/13문항(8차)에 5점 Likert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8차년도에 어머니가 보고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자료를 사용하였다.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1에서 10까지의 단계가 있는 사다리 그림을 제시하고 '이 사다리가 대한민국의 구조/지역사회나 공동체를 나타내고 있다면, 귀하는 이 사다리의 어디쯤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두 질문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계산하였다.

또한, 가구 내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머니가 보고한 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8차)와 일상스트레스 자료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부부갈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정현숙(2004), Markman et al. (1994, 2001)의 부부갈등 척도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발달 시기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영아기 초기, 유아기 초기, 아동기 초기인 1차, 4차, 8차년도에 어머니가 보고한 부부갈등 평균 점수를 이용하였다. 총 8문항(예: '남편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을 5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문항 간 평균 점수를 계산하였으며($\alpha=.91\sim.92$),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22) -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도구프로파일(부모_사회적 지원 정도) https://panel.kicce.re.kr/pskc/board/view.do?menu_idx=42&board_idx=44520&manage_idx=161&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search_type=title&search_text=%EC%82%AC%ED%9A%8C%EC%A0%81&rowCount=10&viewPage=1
 -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도구프로파일(부모_부부갈등) https://panel.kicce.re.kr/pskc/board/view.do?menu_idx=42&board_idx=44519&manage_idx=161&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search_type=title&search_text=%EB%B6%80%EB%B6%80%EA%B0%88%EB%93%B1&rowCount=10&viewPage=1

2) 분석방법

아동의 영유아기 스트레스 경험 패턴에 따른 하위집단을 파악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우울 양상에 따른 잠재집단을 분류하기 위해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 GMM)을 사용하였다. 어머니 우울의 영아기와 유아기의 변화 패턴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1차부터 3차까지의 자료와 4차부터 7차까지의 자료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결측치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Mplus의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FIML)을 이용하였다.

가장 적합한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통계적 적합도와 최소집단의 사례 수를 함께 고려하였다. 정보지수로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kaike, 1974),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chwartz, 1978), SABIC(Sample Size Adjusted BIC; Sclove, 1987)와 분류의 질(Entropy), 그리고 해석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정보지수의 변화를 잠재프로파일 수에 따라 비교하여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Elbow'가 발견되는 곳을 잠재프로파일 수의 선정 근거로 삼고(Nylund et al., 2007), 동시에 Entropy 0.8 이상을 사용하였다(Clark, 2010). 가장 적은 수의 잠재계층 비율이 1% 미만이면 우연히 발생하는 잠재계층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단 수를 결정하였다(Hill et al., 2000; Jung & Wickrama, 2008; Nooner et al., 2010).

영유아기 어머니 우울 양상 변화에 따라 구분한 잠재계층별 생애 초기와 발달 전환기의 가구 특성을 탐색하고자 한국아동패널 1차와 8차년도의 가구소득, 사회적지지, 8차년도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어머니의 주관적 건강 상태, 그리고 1차(출산 직후), 4차(영아기에서 유아기로의 전환), 8차(학령기로의 전환)의 부부갈등에 대해 차이검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나. 모의 우울 수준 변화 양상

1) 영아기

가) 영아기 모의 우울 잠재프로파일 수

영아기에 어머니가 보고한 우울 수준 변화에 따라 잠재프로파일 수를 결정하기 위해 분산 동일화 제약을 가한 후 프로파일 수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정보지수와

분류의 질이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표 V-2-1〉 참조). 정보지수가 프로파일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에서 잠재계층의 수가 4에서 5로 증가할 때 지수의 감소폭이 줄어들어 ‘Elbow’가 발견되었고 Entropy도 .791로 양호하여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4개인 모형이 자료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V-2-1〉 영아기 모 우울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수 적합도 및 분류율 비교

잠재프로파일 수	2	3	4	5
AIC	10444.05	10397.66	10367.44	10364.17
BIC	10506.18	10476.73	10463.46	10477.14
SABIC	10471.23	10432.25	10409.45	10413.60
Entropy	0.806	0.828	0.791	0.783

나) 영아기 모의 우울 잠재집단별 특징

선정된 4개의 잠재계층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잠재프로파일의 구체적인 성장요인 모수 추정치는 〈표 V-2-2〉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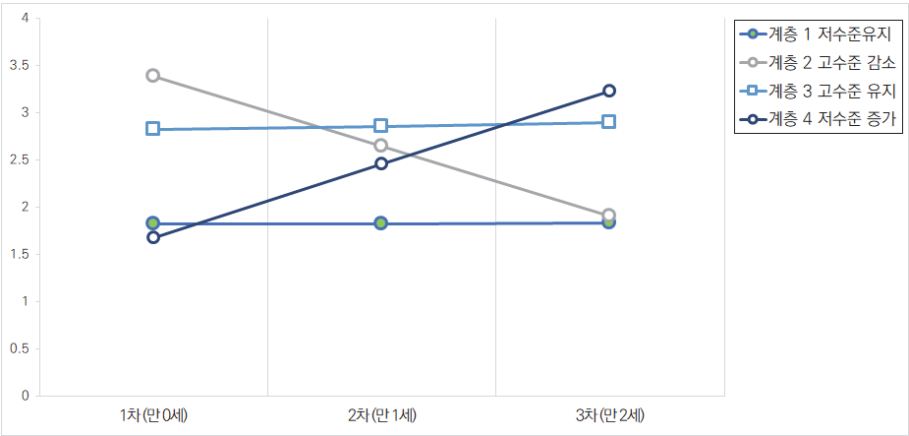
첫 번째 잠재집단은 분석 포함 패널 가구의 85.1%가 해당되며, 초기값 1.811($p < .001$)에 선형변화율 0.011($p > .05$)로 나타났다. 초기값이 상대적으로 낮고 변화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첫 번째 집단을 ‘저수준 유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잠재 집단은 3.7%가 해당되고, 초기값 3.324($p < .001$), 선형변화율이 -0.698 ($p < .001$)로 나타났다. 두 번째 집단은 초기값이 높고 선형변화율이 음의 방향이므로 ‘고수준 감소’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집단은 전체의 8.0%가 속하며, 초기치는 2.832($p < .001$), 선형변화율은 0.031($p > .05$)이어서 ‘고수준 유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 집단은 전체의 3.2%가 해당되며, 초기치는 1.636($p < .001$), 선형변화율은 0.797($p < .001$)이었다. 초기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변화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마지막 집단은 ‘저수준 증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일부 집단의 분류 비율이 5% 미만인 경우가 있으나 우연히 잠재계층으로 묶어질 가능성이 있는 1% 기준보다 높고(Hill et al., 2000; Jung & Wickrama, 2008; Nooner et al., 2010), 계층 중 가장 낮은 비율(3.2%)을 보고한 ‘저수준 증가’ 집단에 속하는 가구의 수가 67로 Berlin et al. (2014)이 제안한 25보다 높으므로 우연히 발생하는 잠재계층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V-2-2〉 영아기 모 우울 잠재프로파일별 분류 비율과 모수 추정치

잠재프로파일	분류비율	잠재성장요인	추정된 평균	표준오차
계층1 저수준 유지	85.1%	초기치	1.811***	0.030
		변화율	0.011	0.013
계층2 고수준 감소	3.7%	초기치	3.324***	0.187
		변화율	-0.698***	0.144
계층3 고수준 유지	8.0%	초기치	2.832***	0.251
		변화율	0.031	0.146
계층4 저수준 증가	3.2%	초기치	1.636***	0.216
		변화율	0.797***	0.184

*** $p < .001$.

〔그림 V-2-1〕 영아기 모 우울 변화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형태



영아기 어머니의 우울 변화 양상으로 본 4개의 잠재집단은 [그림 V-2-1]과 같다. 각 집단은 ‘저수준 유지’ 집단, ‘고수준 감소’ 집단, ‘고수준 유지’ 집단, ‘저수준 증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2) 유아기

가) 유아기 모의 우울 잠재프로파일 수

영아기에 어머니가 보고한 우울 수준 변화에 따라 잠재프로파일 수를 결정하기 위해 프로파일 수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정보지수와 분류의 질이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표 V-2-3〉 참조). 정보지수가 프로파일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

하는 추세에서 잠재계층의 수가 4에서 5로 증가할 때 지수의 감소폭이 줄어들어 'Elbow'가 발견되었고 Entropy도 .815로 양호하여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4개인 모형이 자료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V-2-3〉 유아기 모 우울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수 적합도 및 분류율 비교

잠재프로파일 수	2	3	4	5
AIC	12608.83	12552.91	12512.07	12494.81
BIC	12674.95	12635.56	12611.24	12610.52
SABIC	12636.83	12587.91	12554.06	12543.80
Entropy	0.821	0.810	0.815	0.737

나) 유아기 모의 우울 잠재집단별 특징

선정된 4개의 잠재계층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잠재프로파일의 구체적인 성장요인 모수 추정치는 〈표 V-2-4〉와 같다.

전체의 83.9%가 포함된 첫 번째 집단의 초기치는 1.824($p<.001$), 선형변화율은 -0.013($p>.05$)로 나타났다. 초기치가 가장 낮고 선형변화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첫 번째 집단 명을 '저수준 유지' 집단으로 칭하였다. 두 번째 집단에 전체의 6.2%가 속하며, 이 집단의 초기치는 3.126($p<.001$), 선형변화율은 -0.448($p<.001$)이었다. 두 번째 집단의 초기치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고 선형변화율의 방향이 음으로 유의하여 '고수준 감소' 집단이라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전체의 5.6%가 속해있는 세 번째 집단은 초기치가 3.121($p<.001$), 선형변화율이 0.017($p>.05$)로 보고되었다. 초기치는 높지만 선형변화율이 유의하지 않아서 세 번째 집단을 '고수준 유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 집단에 전체 집단의 4.4%가 해당되며, 초기치는 1.841($p<.001$), 선형변화율은 0.497($p<.001$)로 나타나 '저수준 증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저수준 증가' 집단의 비율이 4.4%로 상대적으로 낮으나 우연히 잠재계층으로 묶어질 가능성이 있는 1%보다 높은 비율이므로 우연히 발생하는 잠재계층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Hill et al., 2000; Jung & Wickrama, 2008; Nooner et al.,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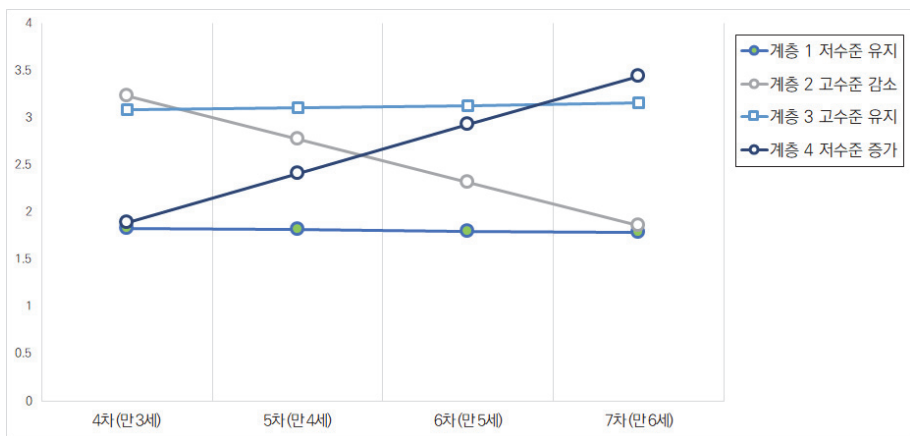
〈표 V-2-4〉 유아기 모 우울 잠재집단 분류 비율과 모수 추정치

잠재프로파일	분류비율	잠재성장요인	추정된 평균	표준오차
계층1 저수준 유지	83.9%	초기치	1.824***	0.022
		변화율	-0.013	0.008
계층2 고수준 감소	6.2%	초기치	3.126***	0.135
		변화율	-0.448***	0.039
계층3 고수준 유지	5.6%	초기치	3.121***	0.139
		변화율	0.017	0.046
계층4 저수준 증가	4.4%	초기치	1.841***	0.121
		변화율	0.497***	0.065

*** $p < .001$.

유아기 어머니의 우울 변화 양상으로 본 4개의 잠재집단은 [그림 V-2-2]와 같다. 각 집단은 ‘저수준 유지’ 집단, ‘고수준 감소’ 집단, ‘고수준 유지’ 집단, ‘저수준 증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그림 V-2-2] 유아기 모 우울 변화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유형



다. 모의 우울 잠재집단 유형별 특성

영유아기 어머니 우울 양상 변화에 따라 앞서 구분한 잠재집단별 생애 초기와 발달 전환기의 가구 특성을 탐색하고자 한국아동패널 1차와 8차년도의 가구소득, 사회적지지, 8차년도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어머니의 주관적 건강상태, 그리고 1차(출산 직후), 4차(영아기에서 유아기로의 전환), 8차(학령기로의 전환)의

부부갈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아기 어머니 우울 양상 변화 궤적에 기초한 잠재계층별 차이 분석 결과는 <표 V-2-5>와 같다. 만 0세와 7세 시기의 가구 소득과 만 7세 시기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모두 ‘저수준 유지’ 집단이 ‘고수준 감소’ 집단과 ‘고수준 유지 집단’보다 높았다. 만 0세 시기 사회적지지 평균은 ‘저수준 증가’ 집단이 다른 집단들보다 높았고 ‘고수준 유지’ 집단이 가장 낮았으나, 만 7세 시기의 사회적 지지의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만 3세, 7세 시기 ‘고수준 유지’ 집단의 부부갈등 정도는 다른 집단들에 비해 높은 반면, ‘저수준 유지’ 집단의 부부갈등 수준은 가장 낮게 보고되는 경향을 보였다. 만 7세 시기에 다른 세 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어머니 주관적 건강 상태를 보인 집단은 ‘고수준 유지’ 집단이었다.

<표 V-2-5> 영아기 모 우울 잠재집단별 가구 특성

가구 특성	잠재집단	M	S.E.	χ^2	사후검증
가구소득 1차	저수준 유지	3.499	0.040	18.079***	2,3<1
	고수준 감소	2.720	0.239		
	고수준 유지	3.030	0.206		
	저수준 증가	3.133	0.302		
가구소득 8차	저수준 유지	4.889	0.056	28.376***	2,3<1
	고수준 감소	3.704	0.306		
	고수준 유지	4.029	0.291		
	저수준 증가	4.122	0.405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8차	저수준 유지	5.161	0.038	25.417***	2,3<1
	고수준 감소	4.357	0.331		
	고수준 유지	4.245	0.226		
	저수준 증가	4.830	0.389		
사회적지지 평균 1차	저수준 유지	4.173	0.017	32.691***	2<4, 3<1<4
	고수준 감소	3.974	0.136		
	고수준 유지	3.608	0.110		
	저수준 증가	4.419	0.116		
사회적지지 평균 8차	저수준 유지	3.863	0.019	2.362	
	고수준 감소	3.899	0.154		
	고수준 유지	3.699	0.107		
	저수준 증가	3.808	0.142		
부부갈등 1차	저수준 유지	1.834	0.022	158.983***	1,4<2,3
	고수준 감소	3.230	0.182		
	고수준 유지	3.194	0.155		
	저수준 증가	1.791	0.183		

가구 특성	잠재집단	<i>M</i>	<i>S.E.</i>	χ^2	사후검증
부부갈등 4차	저수준 유지	1.970	0.023	85.545***	2<3, 1<4
	고수준 감소	2.452	0.203		
	고수준 유지	3.159	0.152		
	저수준 증가	2.534	0.169		
부부갈등 8차	저수준 유지	1.962	0.025	51.294***	1,4<3
	고수준 감소	2.413	0.299		
	고수준 유지	3.143	0.181		
	저수준 증가	2.334	0.226		
주관적 건강상태 8차	저수준 유지	3.428	0.024	20.871***	3<1,2,4
	고수준 감소	3.486	0.184		
	고수준 유지	2.658	0.162		
	저수준 증가	3.442	0.228		

*** $p < .001$.

유아기 어머니 우울 양상 변화 궤적에 기초한 잠재계층별 차이 분석 결과는 <표 V-2-6>과 같다. 만 0세와 7세 시기의 가구 소득과 만 7세 시기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모두 ‘저수준 유지’ 집단이 다른 계층들보다 높았으며, 특히 ‘고수준 유지’ 집단이 가장 낮은 가구소득과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고했다. 만 0세 시기 사회경제적 지위는 ‘고수준 유지’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았고, 만 7세 시기에도 ‘저수준 유지’ 집단에 비해 낮았다. 어머니가 보고한 부부갈등은 만 0세, 3세, 7세 시기 모두 ‘저수준 유지’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았고, ‘저수준 증가’ 집단은 ‘저수준 유지’ 집단에 비해 만 3세와 7세 부부갈등이 더 높았다. 만 7세 시기 어머니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고수준 유지’ 집단이 다른 세 집단에 비해 가장 낮았다.

<표 V-2-6> 유아기 모 우울 잠재집단별 가구 특성

가구 특성	잠재집단	<i>M</i>	<i>S.E.</i>	χ^2	사후검증
가구소득 1차	저수준 유지	3.495	0.040	24.752***	2,3,4<1
	고수준 감소	2.930	0.272		
	고수준 유지	2.896	0.171		
	저수준 증가	2.949	0.206		
가구소득 8차	저수준 유지	4.864	0.054	19.884***	2,3<1
	고수준 감소	4.004	0.336		
	고수준 유지	4.048	0.257		
	저수준 증가	4.434	0.299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저수준 유지	5.137	0.036	21.164***	3<1
	고수준 감소	4.752	0.245		

가구 특성	잠재집단	M	S.E.	χ^2	사후검증
8차	고수준 유지	4.346	0.227		
	저수준 증가	4.543	0.299		
사회적지지 1차	저수준 유지	4.163	0.016	22.464***	3<1,2,4
	고수준 감소	4.053	0.118		
	고수준 유지	3.688	0.107		
	저수준 증가	4.071	0.125		
사회적지지 8차	저수준 유지	3.876	0.018	9.336*	3<1
	고수준 감소	3.734	0.128		
	고수준 유지	3.636	0.096		
	저수준 증가	3.745	0.138		
부부갈등 1차	저수준 유지	1.902	0.021	57.408***	1,4<3, 1<2
	고수준 감소	2.323	0.175		
	고수준 유지	2.766	0.132		
	저수준 증가	2.240	0.183		
부부갈등 4차	저수준 유지	1.961	0.021	158.771***	1<2,3,4, 4<2,3
	고수준 감소	3.163	0.162		
	고수준 유지	3.049	0.123		
	저수준 증가	2.380	0.168		
부부갈등 8차	저수준 유지	1.968	0.024	79.698***	1<2<3 1<4
	고수준 감소	2.405	0.170		
	고수준 유지	3.046	0.151		
	저수준 증가	2.726	0.222		
주관적 건강상태 8차	저수준 유지	3.443	0.023	44.734***	3<1,2,4
	고수준 감소	3.204	0.160		
	고수준 유지	2.499	0.156		
	저수준 증가	3.192	0.155		

* $p < .05$, *** $p < .001$.

3. 영유아기 어머니 우울이 아동기 신체·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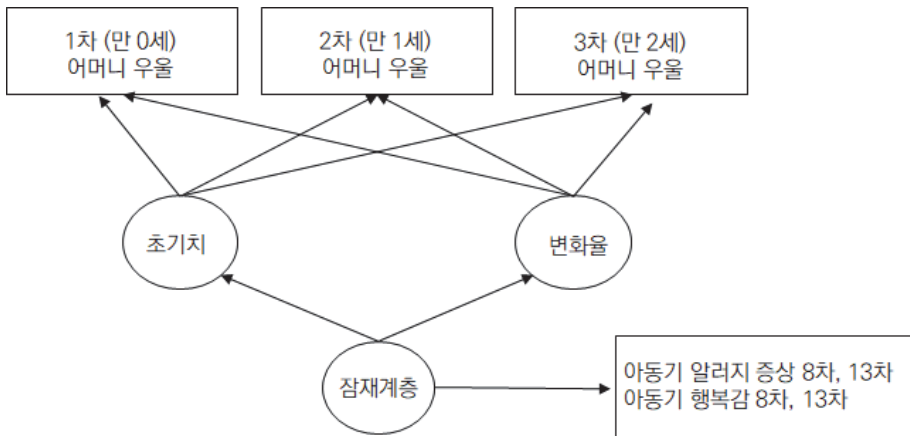
가. 분석개요

본 절에서는 영유아기 생애 초기 가정 내 스트레스 경험이 아동기 신체·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국아동패널 조사의 1차년도부터 7차년도까지의 어머니 우울을 가정 내 위험요인으로 설정하고 8차년도와 13차년도 조사 자료를 아동 신체적, 심리적 건강 결과 분석을 위하여 활용하였다.

앞서서 어머니의 우울을 영아기와 유아기로 구분하여 잠재집단을 구분했던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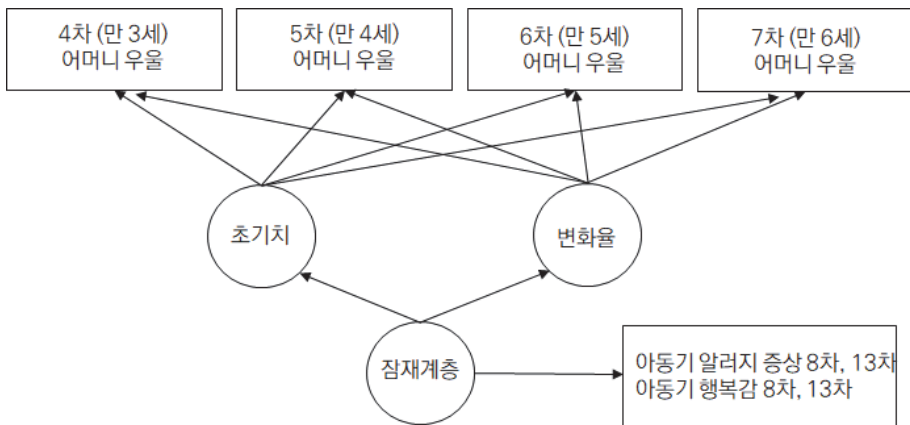
영아기 어머니 우울에 따른 잠재집단과 아동기 신체 건강(아동 알레르기 증상) 및 심리 건강(아동 행복감)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모델은 [그림 V-3-1]과 같다.

[그림 V-3-1] 영아기 연구모형



유아기 어머니 우울에 따른 잠재집단과 아동기 신체 건강(아동 알레르기 증상) 및 심리 건강(아동 행복감)과의 관계를 탐구한 모델은 [그림 V-3-2]와 같다.

[그림 V-3-2] 유아기 연구모형



1) 연구도구

패널 가구 가정 내 스트레스 경험과 아동기 신체·정신 건강 간 관계 분석을 위해 영아기와 유아기의 스트레스 경험의 변화 궤적은 어머니의 우울 수준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잠재집단별 아동건강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아동기 신체건강은 8차와 13차년도에 알레르기 관련 질환 여부로 측정하였다. 아동기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해서 8차년도와 13차년도에 아동이 보고한 전반적 행복감 변수를 이용하였다.

가) 아동기 신체건강: 알레르기 관련 질환 진단(8차, 13차)

알레르기 관련 질환 진단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응답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알레르기 관련 질환 발병률을 조사하였다. 8차년도에 조사한 천식, 모세기관지염,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피부염,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생후 만 7세까지의 진단 여부(1='예', 0='아니오')를 합산하여 아동기 초기 알레르기 관련 질환 총점을 계산하였다(범위: 0~5점). 13차년도에 조사한 초등학교 3학년 이후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피부염 진단 여부를 묻는 문항 3개 문항에 대한 '예'(1) 또는 '아니오'(0) 응답을 합산하여 아동 후기 알레르기 관련 질환 진단여부 총점을 계산하였다(범위: 0~3점). 각 알레르기 관련 질환 항목별 발병률과 알레르기 관련 질환 총점 분포는 <표 V-3-1>과 <표 V-3-2>와 같다.

<표 V-3-1> 8차와 13차년도의 알레르기 관련 질환 항목별 발병률

단위: %

진단 여부	8차년도 조사 (생후~만 7세까지)					13차년도 조사 (초등학교 3학년 이후~만 12세까지)		
	천식	모세 기관지염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피부염	식품 알레르기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피부염
예	4.3	15.4	34.2	14.9	4.7	1.3	22.7	5.8
아니오	68.8	57.6	38.6	58.4	68.4	59.0	37.0	54.8
무응답 결측치	26.9	27.0	27.2	26.7	26.9	39.4	39.4	39.4

〈표 V-3-2〉 알레르기 관련 질환 진단 여부 총점 분포

단위: %, 개

8차년도 알레르기 진단 개수	유효 퍼센트	13차년도 알레르기 진단 개수	유효 퍼센트
0개	36.7	0개	58.8
1개	35.9	1개	33.7
2개	19.4	2개	7.1
3개	6.5	3개	0.4
4개	1.4	-	
5개	0.1	-	

나) 아동기 정신건강: 행복감(8차, 13차)²³⁾

아동의 행복감을 측정하기 8차년도와 13차년도에 MCS(2008) Child Paper Self Completion Questionnaire의 전반적 행복감을 묻는 6개의 문항(예: ‘○○는 하루하루를 생각하면 어떠니?’)을 이용하여 아동이 4점 리커트 척도(1=‘전혀 행복하지 않아요’~4=‘매우 행복해요’)로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아동의 이해도를 돕기 위하여 표정 그림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6문항의 평균 점수를 계산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의 각 영역(학교 공부, 외모, 가족, 친구, 학교, 삶)에 대한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alpha=.68\sim.78$).

2) 분석방법

주요 분석에 앞서 자료의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우울 양상에 따른 잠재계층을 분류하고, 그 분류에 따른 가구 특성의 차이와 이후 아동기 건강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 GMM)을 사용하였다. 성장혼합모형은 잠재계층분석과 잠재성장모형의 결합체로서, 개인의 변화 유형에 따라 잠재계층을 분석하면서도 각 잠재계층별로 관련된 성장요인 모수를 추정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Muthén &

23)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도구프로파일(아동_전반적 행복감) https://panel.kicce.re.kr/pskc/board/view.do?menu_idx=42&board_idx=44848&manage_idx=161&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search_type=title&search_text=%ED%96%89%EB%B3%B5%EA%B0%90&rowCount=10&viewPage=1

Muthén, 2010). 즉, 종단적으로 수치의 변화 양상에 따른 하위 잠재계층을 도출한 후 그 분류와 관련된 요인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영유아기 스트레스 경험 패턴에 따른 아동기 신체 및 정신건강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분석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잠재계층 분류와 이후 어머니 우울 변화 궤적에 따른 잠재계층별 가구 및 아동기 건강변수 특성 차이 검증을 위해 BCH 방법을 사용하였다.

나.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연구 변수들의 측정시기별 기술통계와 상관은 <표 V-3-3>과 같다. 어머니 우울은 0에서 5점 척도에서 평균 1.94~1.98로 대체로 낮은 편이며, 평균 점수에 의하면 1차에서 7차 시기별로 눈에 띄는 증가나 감소가 없는 편이다. 7세 알레르기는 최대 5점 척도에서 평균 1점이고 12세 알레르기는 최대 3점 척도에서 평균 0.49점으로 낮은 편이다. 행복감은 0~5점 척도에서 7세에는 평균 3.25, 12세에는 2.96으로 대체로 높은 편이나 연령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어머니의 우울은 만 0세부터 6세까지 중간강도의 상관을 보이므로 시간에 따른 중간 정도의 안정성을 보이며, 간격이 가까운 시기 간의 상관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어머니 우울과 아동 알레르기 사이에는 정적인 약한 상관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어머니 우울은 12세 행복감과 약한 부적인 상관을 보인다. 7세 알레르기 증상은 12세 알레르기 증상과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이 있다. 7세 행복감과 12세 행복감은 약한 정적 상관을 보인다.

<표 V-3-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 0세 모 우울	-										
2. 1세 모 우울	.51**	-									
3. 2세 모 우울	.49**	.54**	-								
4. 3세 모 우울	.44**	.48**	.52**	-							
5. 4세 모 우울	.46**	.45**	.51**	.56**	-						

	1	2	3	4	5	6	7	8	9	10	11
6. 5세 모 우울	.38**	.42**	.42**	.46**	.55**	-					
7. 6세 모 우울	.41**	.42**	.46**	.51**	.55**	.57**	-				
8. 7세 알레르기	.04	.08**	.09**	.06*	.05*	.07**	.05*	-			
9. 12세 알레르기	.04	.09**	.08**	.03	.06*	.07*	.06	.39**	-		
10. 7세 행복감	-.02	-.04	-.04	-.04	-.08*	-.04	-.04	-.001	.004	-	
11. 12세 행복감	-.05	-.09**	-.04	-.07*	-.06*	-.07*	-.08**	.01	-.01	.13**	-
<i>M</i>	1.95	1.92	1.97	1.98	1.96	1.94	1.94	1.00	0.49	3.25	2.96
<i>SD</i>	0.70	0.70	0.70	0.75	0.75	0.74	0.75	0.98	0.64	0.48	0.48

주: 만 연령으로 표기함.

* $p < .05$, ** $p < .01$.

다. 영유아기 모의 우울 잠재집단과 아동기 신체·정신건강과의 관계

영아기와 유아기의 어머니 우울 경험 잠재프로파일에 따라 학령기 초기(7차)와 후기(13차)의 신체건강 지표로서 알레르기 관련 질환 발병률과 정신건강 지표로서 행복감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

1) 영아기

영아기 어머니 우울 양상 변화 궤적에 기초한 잠재집단별 차이 분석 결과는 <표 V-3-4>와 같다. 알레르기 발병률의 경우 만 7세와 12세 모두 어머니 우울 ‘저수준 유지’ 집단이 ‘고수준 유지’ 집단보다 낮았다. 만 12세에는 어머니 우울 ‘고수준 감소’ 집단도 ‘고수준 유지’ 집단보다 낮은 발병률을 보였다. 아동기 행복감은 영아기 어머니 우울 잠재계층 간에 차이가 없었다.

<표 V-3-4> 영아기 모 우울 잠재집단에 따른 아동 신체·정신건강 특성 차이

분류	종속변인	잠재집단	<i>M</i>	<i>S.E.</i>	χ^2	사후검증
신체 건강	알레르기 8차 (초등1)	저수준 유지	0.969	0.030	6.611*	1<3
		고수준 감소	0.794	0.229		
		고수준 유지	1.341	0.168		
		저수준 증가	1.310	0.296		

분류	종속변인	잠재집단	M	S.E.	χ^2	사후검증
정신 건강	알레르기 13차 (초등6)	저수준 유지	0.467	0.467	10.673*	1, 2<3
		고수준 감소	0.215	0.137		
		고수준 유지	0.877	0.140		
		저수준 증가	0.522	0.522		
	행복감 8차 (초등1)	저수준 유지	3.263	0.015	3.394	-
		고수준 감소	3.363	0.151		
		고수준 유지	3.125	0.090		
		저수준 증가	3.172	0.099		
	행복감 13차 (초등6)	저수준 유지	2.971	0.016	4.201	-
		고수준 감소	2.790	0.097		
		고수준 유지	2.918	0.106		
		저수준 증가	3.046	0.151		

* $p < .05$.

2) 유아기

유아기 어머니 우울 양상 변화 궤적에 기초한 잠재집단별 차이 분석 결과는 <표 V-3-5>와 같다. 아동기 행복감의 경우 만 7세 시기에 ‘고수준 유지’ 집단이 ‘저수준 유지’ 집단이나 ‘저수준 증가’ 집단보다 낮았다. 만 12세 시기에는 ‘고수준 유지’ 집단이 ‘고수준 감소’ 집단을 포함한 모든 세 집단보다 낮은 수준의 행복감을 보였다. 알레르기 발병률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V-3-5> 유아기 모 우울 잠재집단에 따른 아동 신체·정신건강 특성 차이

분류	종속변인	잠재집단	M	S.E.	χ^2	사후검증
신체 건강	알레르기 8차 (초등1)	저수준 유지	0.989	0.029	2.803	-
		고수준 감소	1.334	0.206		
		고수준 유지	0.996	0.171		
		저수준 증가	0.944	0.197		
	알레르기 13차 (초등6)	저수준 유지	0.481	0.021	2.049	-
		고수준 감소	0.474	0.126		
		고수준 유지	0.630	0.135		
		저수준 증가	0.603	0.156		
정신 건강	행복감 8차 (초등1)	저수준 유지	3.266	0.014	10.980*	3<1,4
		고수준 감소	3.168	0.088		
		고수준 유지	3.009	0.085		
		저수준 증가	3.352	0.097		

분류	종속변인	잠재집단	<i>M</i>	<i>S.E.</i>	χ^2	사후검증
	행복감 13차 (초등6)	저수준 유지	2.980	0.015	10.878*	3(1,2,4)
		고수준 감소	2.972	0.084		
		고수준 유지	2.628	0.105		
		저수준 증가	3.030	0.103		

* $p < .05$.

4. 소결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의 스트레스 경험이 아동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영아기와 유아기 각각의 어머니 우울 양상 변화 잠재계층을 구분하고 각 계층 간 가구 특성과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학령기 초기(만 7세)와 후기(만 12세)의 신체건강의 지표로서 어머니가 보고한 아동의 알레르기 발병률과 심리건강의 지표로서 아동이 보고한 전반적 행복감 자료를 사용했다.

주요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어머니의 우울 양상 변화는 영아기와 유아기 모두 네 개의 잠재계층으로 구분되었는데, 두 발달 시기 모두 ‘고수준 감소’, ‘고수준 유지’, ‘저수준 유지’, ‘저수준 증가’ 집단으로 나뉘어 알 수 있었다. 가장 큰 집단은 ‘저수준 유지’ 집단으로, 약 85%의 패널 가구가 이에 해당되었으므로, 본 패널 연구의 참여 가족들이 대체로 저위험군에 속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계층 구분은 영아기와 유아기에 동일하게 나타났고, 저수준 유지 계층에 해당되는 패널 가구의 비율도 두 시기에 유사한 정도였다. 다만, 가장 고위험군으로 여겨질 수 있는 ‘고수준 유지’ 집단은 영아기에 8.0%, 유아기에 5.6%로, 영아기에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영아기에 높은 우울 수준을 보고한 어머니들 중에는 산후우울증을 겪는 어머니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산후우울증은 산모의 약 75~80%가 경험하는 일시적인 일과성 우울증(postpartum blues)과는 다르게 10~20%의 산모가 경험하는데, 1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며 우울증 회복 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녀와의 관계의 질과, 유아의 정서적, 행동적 적응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왔다(강민철 외, 2012). 따라서 ‘고수준 유지’ 집단의 비율이 영아기에 비해 유아기에 낮

아지긴 하지만, 이후 아동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력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어머니 우울 양상 변화에 따른 계층별 가구 특성을 살펴본 결과, 가구소득과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지지 정도, 부부갈등 수준,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아기와 유아기를 거쳐 유사한 형태의 계층 차이가 있었다. 가구 특성 중에서도 가구소득은 만 0세 시기와 7세 시기 모두 영아기와 유아기의 어머니 우울 ‘저수준 유지’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고수준 감소’와 ‘고수준 유지’ 집단 모두 ‘저수준 유지’ 집단에 비해 낮은 가구소득을 보고했는데, 이러한 패턴이 만 0세 시기와 7세 시기 모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가구소득이 대체로 안정적인 가구 특성임과 동시에, 영아기와 유아기에 걸친 어머니 우울과 관련된 강력한 위험요인임을 보여준다. 유사하게, 만 7세 시기에 어머니가 지각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역시 영아기와 유아기 모두 ‘저수준 유지’ 집단에서 ‘고수준 유지’ 집단보다 높았다. 또한, 만 0세 시기의 사회적 지지도 영아기 어머니 우울 ‘고수준 유지’와 ‘고수준 감소’ 집단이 ‘저수준 유지’와 ‘저수준 증가’ 집단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유아기 우울 계층 분석 결과 역시 ‘고수준 유지’ 집단의 사회적지지가 만 0세와 7세 시기 모두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정신건강을 위한 중재 방안으로 어머니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이 처한 지역 환경적 특성 차원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이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 외에도 가구 내적 특성으로서, 어머니가 보고한 만 0세, 3세, 7세 시기의 부부갈등 수준을 잠재계층별로 비교해 본 결과, 만 0세 시기의 부부갈등은 영아기(만 0~2세) 어머니 우울 ‘고수준 유지’와 ‘고수준 감소’ 집단이 ‘저수준 유지’와 ‘저수준 감소’ 집단에 비해 더 높았다. 한편, 만 3세 시기 부부갈등은 유아기(만 3~6세) 어머니 ‘고수준 유지’와 ‘고수준 감소’ 집단에서 ‘저수준 유지’와 ‘저수준 감소’ 집단에 비해 높았다. 반면, 영아기 어머니 우울 ‘고수준 감소’ 집단은 ‘고수준 유지’ 집단과 달리 만 3세와 7세 시기 모두 유의하게 높은 부부갈등 수준을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유아기 어머니 우울 ‘저수준 증가’ 집단은 ‘저수준 유지’ 집단과 차이 없이 낮은 수준의 만 0세 시기 부부갈등을 보였던 반면, 만 3세와 7세 시기에는 더 높은 부부갈등을 보였다. 이러한 부부갈등과 우울 잠재계층 간의 관련성 양상으로 보아, 어머니의 우울은 어머니가 보고하는 부부갈등이 높을 때 함께 높아지고

부부갈등이 낮을 때 함께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 결과들 역시 변수-중심적 접근을 통해 부부갈등과 부모우울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뒷받침 해왔으나(이형실, 2016; 최효식 외, 2015; Hanington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대상-중심적 분석을 통하여 우울 잠재계층 집단 간에 갈등 수준의 차이가 실제로 있음을 검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만 7세 시기에 어머니가 인식한 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영아기와 유아기 우울 모두 ‘고수준 유지’ 집단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므로, 높은 수준의 우울증상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어머니의 경우 본인의 웰빙에 대한 우려가 높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스트레스의 spill-over 효과를 통하여 양육스트레스를 더 느끼고 자녀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이형실, 2016).

셋째, 어머니 우울 양상 변화에 따른 계층별 아동기 건강 특성을 살펴본 결과 영아기의 어머니 우울 양상은 아동의 신체적 건강 지표인 알레르기 발병률과 유아기의 어머니 우울 양상은 아동의 심리적 건강 지표인 전반적 행복감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영아기 어머니 우울 ‘고수준 유지’ 집단은 ‘저수준 유지’ 집단이나 ‘고수준 감소’ 집단보다 만 7세(초등학교 1학년)와 12세(초등학교 6학년)에 알레르기 발병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지속적인 우울 경험이 아동의 면역체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특히 생애 초기인 영아기가 이러한 영향력에 특히 더 민감한 시기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생애 초기의 부부갈등과 같은 사회적 스트레스(social stress)에의 노출(Suglia et al., 2010)과 부모의 우울 증상(Lange et al., 2011)이 만 3세 자녀의 천식 증상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켰다는 국외 연구들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아동기 역경이 천식 외에도 기타 알레르기 증상을 높일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한 연구들 역시 많은 경우 영아기나 초기 유아기의 스트레스 노출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Graham-Bermann & Seng, 2005; Pape et al., 2021). 또한, 어머니 고수준 우울을 경험한 아동들이 알레르기 발병률이 높은 것은 아동기 초기인 만 7세 뿐만 아니라 만 12세 시기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난 경향성이라는 점에서, 영아기 어머니 우울 경험이 아동기 전반의 면역체계 기능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한편, 아동이 보고한 전반적 행복감은 영아기 어머니 우울 양상에 따른 계층 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유아기 어머니 우울 양상과는 관련이 있었는데, 만 7세의 아동 행복감은 유아기 어머니 우울 ‘저수준 유지’와 ‘저수준 증가’ 집단이 ‘고수준 유지’ 집단에 비해 더 높았다. 만 12세에는 ‘고수준 감소’ 집단도 ‘고수준 유지’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아동 행복감을 보였는데, 이는 유아기 초반에 어머니 우울 수준이 높았더라도 이후 그 수준이 감소했다면, 만 12세에는 아동의 행복감 수준이 회복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심리적 건강에 기여하는 어머니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어머니의 우울은 낮은 긍정적 양육행동과 높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매개로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김춘경, 조민규, 2017; 최효식 외, 2015), 부모 양육 행동과 부모 우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이소현, 2018)에서는 우울이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임을 밝히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유아기 어머니 우울과는 달리 영아기의 어머니 우울 양상이 아동기의 행복감을 직접적으로 예측하지 않은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는 유아기의 부모 우울은 부모의 훈육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의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반면, 영아기 우울은 애착관계 형성에는 중요하지만 자녀와의 언어적인 소통과 훈육이 아직 많이 요구되지 않는 시기라는 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아동기의 행복감에는 아동이 의식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유아기의 경험들이 영아기 경험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일 수도 있다. 영아기 어머니 우울이 아동의 주관적인 행복감을 직접적으로 예측하지는 않았지만, 면역 체계에 영향력을 미침을 밝혔다는 점에서 종단분석을 사용하여 알레르기 관련 면역기능에 미치는 어머니 우울의 영향력을 확인한 최초 국내 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상의 주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영유아기 어머니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생애 초기의 어머니의 우울이 초등학교 고학년까지의 아동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출산 후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유아기에 비해 영아기에 ‘고수준 유지’ 집단의 비율이 높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출산 후 산후우울증의 감소를 위한 개입과 더불어 처음 부모가 되는 부부를 위한 부모 교육이나 사회적 지지의 확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어머니 우울 잠재계층 별로 관련된 가구 특성에 차이가 있었던 결과는, 어머니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정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곤란에 대한 개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즉, 아동의 생애 초기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중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생태체계의 환경 변인들의 영향력을 고려하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Bronfenbrenner, 1995). 구체적으로, 어머니 우울 고위험군을 생애초기에 스크린하여 부모의 내적 위험 요인 이외에도 부모 간 관계적 위험(예: 부부갈등)과 가족을 둘러싼 외체계(예: 사회적지지, 사회경제적 환경)의 관련 위험요인을 함께 진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영아기 어머니 우울은 면역체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유아기 어머니 우울은 아동의 주관적인 행복감을 직접적으로 예측했다는 점에서 발달 시기별로 차별화된 중재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머니 우울을 예방 및 중재하기 위하여 영아기에는 사회적지지, 경제적 지원, 부모로의 전환기에 겪는 스트레스의 감소 등이 중요한 개입 목표가 되는 한편, 유아기에는 어머니 우울이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적, 교육적 개입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와 그에 따른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가족들은 상대적으로 저위험군에 속한다고 판단되므로, 본 연구의 결과가 고위험군의 아동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를 통해 생애초기 위험에의 노출과 아동 건강 간의 관련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어머니 우울과 부부갈등 수준이 비슷한 양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했을 때, 각 변수의 종단적인 변화패턴을 평행적으로 비교한다면 두 변인 간의 상호관련성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따른 부부갈등과 어머니 우울에 대한 효과적인 중재방안을 통합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을 생애초기 대표 위험요인으로 분석하였지만, 그 외에도 아버지의 우울이나 부모 간 갈등과 같은 다른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도 아동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들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 이러한 위험요인들을 포함하여 아동의 건강을 예측할 수 있는지 통합적으로 분석하기를 제언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와 유아기를 구분하여 각 시기의 어머니 우울 양상의 특수한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대체로 유사한 패턴의 결과를 확인하였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영유아기에 걸친 연속적인 종단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선형적인 변화 양상에 따른 잠재계층을 분석하여 계층별 아동 적응 특성을 분석하는 것도 영아기와 유아기 간의 연속성과 특수성을 추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영아기 어머니 우울과 아동의 알레르기 증상 발현율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였지만 두 변수간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발달적 기제나 조절변인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부모-자녀 관계의 질이 어머니 우울과 아동의 건강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성 또한 어머니 우울과 면역체계 발달 간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 생애 초기 스트레스와 아동기 건강 간 관계의 성격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개별화된 중재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종단데이터라는 한국아동패널 자료의 강점을 살려 어머니 우울 양상 변화 궤적이 따른 가구 특성 차이와 아동기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아기와 유아기의 특수한 영향력을 이해하는데 기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어머니의 우울은 유아기에 경험할 경우, 아동의 행복감에 장기적인 영향력을 미칠 뿐 아니라, 영아기에 경험할 경우, 아동의 면역체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우울은 어머니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간의 갈등과 가족이 처한 사회경제적 환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아동의 생태체계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중재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VI

한국아동패널과 육아정책

- 01 2008~2020 육아정책 흐름
- 02 한국아동패널 육아정책 영향 분석
- 03 소결

VI. 한국아동패널과 육아정책²⁴⁾

본 장에서는 2008년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패널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쳤을 정부의 영유아 관련 주요 기본계획과 정부의 육아정책 흐름을 정리하였다. 뒤이어 한국아동패널 아동들이 이용한 주요 정책들 중 무상보육, 초등돌봄교실, 학교지원프로그램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1. 2008~2020 육아정책 흐름

가. 주요 기본계획

한국아동패널 조사 시작 시기인 2008년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주요 기본계획을 살펴보았다. 패널 아동과 관련이 있는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3)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4) 아동정책 기본계획, 5) 건강가정 기본계획, 6)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7)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VI-1-1〉 정부의 육아정책 관련 주요 기본계획

구분	2008 (1차)	2009 (2차)	2010 (3차)	2011 (4차)	2012 (5차)	2013 (6차)	2014 (7차)	2015 (8차)	2016 (9차)	2017 (10차)	2018 (11차)	2019 (12차)	2020 (13차)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초1)	8세 (초2)	9세 (초3)	10세 (초4)	11세 (초5)	12세 (초6)	
	영아기			유아기				초등학령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1차 (2006~2010)			2차 (2011~2015)				3차 (2016~2020)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1차 (2006~2012)				2차 (2013~2017)				3차 (2018~2022)					
	(새싹 플랜)	(아이사랑플랜)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						유아교육발전 5개년 (2013~2017)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2018~2022)			

24) 본 장은 김재철 교수(한남대학교 교육학과)와 육아정책연구소 원내 연구진이 공동 집필함.

구분	2008 (1차)	2009 (2차)	2010 (3차)	2011 (4차)	2012 (5차)	2013 (6차)	2014 (7차)	2015 (8차)	2016 (9차)	2017 (10차)	2018 (11차)	2019 (12차)	2020 (13차)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초1)	8세 (초2)	9세 (초3)	10세 (초4)	11세 (초5)	12세 (초6)
	영아기			유아기				초등학령기					
아동정책 기본계획								1차 (2015~2019)					2차 (2020~ 2024)
건강가정 기본계획	1차 (2006~2010)			2차 (2011~2015)				3차 (2016~2020)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4차 (2008~2012)					5차 (2013~2017)					6차 (2018~202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1차 (2005~ 2009)		2차 (2010~2014)					3차 (2015~2019)					4차 (2020~ 2024)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본격 대응하기 위하여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0: 14).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2006년 5개 중앙부처,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5년간(2006~2010년) 추진할 정책과제를 발굴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하였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지속발전가능사회’를 마련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출산을 회복 및 고령사회 성공적 대응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을 목표로 4대 분야, 237개 세부사업을 계획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0: 39).

이어서,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제2차 기본계획(2011~2015) 수립을 추진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저출산·고령사회 성공적 대응으로 활력 있는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지향하는 것이며, 점진적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 OECD 평균수준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효과적 대응을 목표로 3대 분야 231개 세부 과제를 마련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1: 21).

제1, 2차 기본계획 추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정책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다(대한민국정부, 2016: 8). 이에, 제3차 기본계획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그간의 미시적이고 현상

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였으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은 사회 전반의 인식·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지역과의 협력하여야 하며, 20~3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접근을 강화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6: 37). 제3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 사회 구현’이며, 목표는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 구축이다.

〈표 VI-1-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구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기간	2006~2010	2011~2015	2016~2020
비전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지속발전가능사회	저출산·고령사회 성공적 대응으로 활력 있는 선진국가로 도약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
목표	- 2011~20: 출산율 회복 및 고령 사회 성공적 대응 - 2006~1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반 구축	- 2011~15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 - 2016~30 OECD 평균수준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효과적 대응	-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합계출산율:('14)1.21→('20)1.5명) -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 (노인빈곤율:('14)49.6→('20)39%)
추진 과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 결혼, 출산, 양육 부담 경감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 청년고용 활성화 -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 노후준비와 사회참여 기반 조성 -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 베이비붐 세대 고령화 대응 체계 구축 -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 생활 보장 - 고령친화 사회환경 조성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실현〉 -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적 지원 확대 - 포용적 가족형태 인식 확산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 여성·고령자 등 잠재 인력 활용 기반 구축 -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 고령친화사업 육성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 자원 경쟁력 제고 -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 개선 - 고령친화산업 육성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 맞춤형 보육·돌봄 확대 - 자녀와 부모가 행복한 교육개혁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분위기 조성〉 - 전략적 교육 홍보 -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 양성이 평등한 일·가정양립 - 중소기업·비정규직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노후 소득보장 강화〉 - 1인 1국민연금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 - 주택연금 등 활성화로 노후보장 수준 제고

구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 간병·치매·호스피스 등 의료·돌봄 강화 - 고령자 교통·생활안전 환경 조성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 여성·고령친화 고용시스템 전환 - 사회통합적 외국인력 활용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 분야별 인구 다운사이징 대비 - 고령친화산업의 발전 생태계 조성
기타	<기획요인> • 청년층의 평균 기대자녀수가 인구 대체 수준(2.1명)에서 유지 • 여성·고령자 경제활동 참여육구 증대 • 양성평등 가치관 확대 <위곡요인> • 가족의 육아 및 노인부양기능 약화 •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미흡 •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성장기반 약화 • 사회적 부양부담 증가	<실행기반> • 교육홍보 강화 및 민간부분의 적극 참여 유도 • 법적·제도적·재정적 기반 강화	<실행기반> • 민간-지역-정부 협력으로 전사회적 대응체계 강화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문화개선 대대적 확산 • 지속적인 실행력 확보를 위한 추진 인프라 확립

자료: 1) 대한민국정부(2010). 2006-2010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보완판). p. 38.
 2) 대한민국정부(2011). 2011-2015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p. 20.
 3) 대한민국정부(2016). 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p. 41.

2)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해, 5년마다 국가 수준의 보육 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17), 이에 정부는 2006년 제1차 중장기보육계획인 새싹플랜을 시작으로, 새싹플랜을 수정·보완한 아이사랑플랜, 제2~3차 중장기 보육계획을 수립하였다.

2006년에 최초로 수립된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인 새싹플랜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함께 키우는 건강한 아동’이라는 비전 아래, 공보육 기반 조성, 부모 육아부담 경감,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아동 중심의 보육환경 조성,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 등을 정책과제에 포함하였다. 새싹플랜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대응한 보육서비스 공급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이사랑플랜은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보육업무가 이관 된 후, 1차 계획 수정 보완한 기본계획으로, 국가책임 강화를 강조하고 보육서비스를 ‘영유아’ 중심으로 계획을 구성하였다(보건복지부, 2017). 아이사랑플랜의 비전은 ‘아이와 부모

가 행복한 세상’이며, 부모의 비용부담 완화, 수요자 맞춤 지원, 보육시설 질 제고 및 균형 배치,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전달체계 효율화, 보육사업 지원체계 구축과 같은 6대 추진과제로 구성되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중장기 비전 하에,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 수요자 맞춤형 보육 지원, 공공성 확대와 품질 관리 강화,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 신뢰 있고 투명한 보육생태계 구축, 보육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의 6대 추진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제2차 기본계획의 주요 특징은 ‘전계층 무상보육’ 시행과 가정양육수당의 단계적 인상, 수요자 맞춤 지원에 중점을 둔 것이다.

제3차 기본계획은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 비전 아래,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체계 개편, 보육서비스 품질향상, 부모 양육지원 확대의 4개 전략과 17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표 VI-1-3〉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구분	제1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새싹플랜)	제1차 계획 보완 (아이사랑플랜)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기간	2006~2008	2009~2012	2013~2017	2018~2022
비전	함께 키우는 건강한 아동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
전략	- 보육의 공공성 강화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영유아 중심 - 국가책임제 보육 - 신뢰구축	-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최우선 -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실현 - 참여와 신뢰의 보육 생태계 조성	- 보육의 공공성 강화 - 보육 체계 개편 - 보육서비스 품질향상 - 부모 양육지원 확대
추진 과제	〈공보육 기반조성〉 - 중장기 수급계획에 따른 시설 확충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기본보조금제도 도입	〈부모의 비용 부담 완화〉 - 보육료 지원 확대 - 양육수당 지급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 - 0~5세 전 계층 보육·양육지원 실현 - 보육료 적정화 및 부모 추가비용 경감	〈보육의 공공성 강화〉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로 확대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강화 -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
	〈부모 육아부담 경감〉 - 보육비용 지원 확대 - 영아보육 활성화 - 취업 부모에 대한 지원 강화 -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	〈수요자 맞춤 지원〉 -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 서비스 강화 - 장애아 보육시설 이용의 제공 - 맞벌이부모를 위한 보육 서비스 지원 - 가정 내 자녀양육서비스 지원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 - 아동 및 가구 특성별 맞춤형 지원 - 장애아, 다문화 영유아 맞춤형 지원 강화	〈보육체계 개편〉 -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 체계 개선 -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 - 보육과정 개선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 보육시설 이용시간	〈보육시설 질 제고 및 균형 배치〉	〈공공성 확대와 품질 관리 강화〉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구분	제1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새싹플랜)	제1차 계획 보완 (아이사랑플랜)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 다양화 - 장애아 보육 활성화 - 농어촌 보육서비스 확대 -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활성화 - 포괄적 보육서비스 등 활성화	- 보육시설 안전 기준 개선 - 보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 평가인증 활성화 - 보육시설 균형 배치	- 믿고 맡길 수 있는 복지형 어린이집 확대 - 서비스 질 관리 강화 및 진입·퇴출 등 연계	-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 상시적 품질관리 강화
	〈아동 중심의 보육환경 조성〉 - 보육시설 환경 개선 - 건강·영양·안전관리 강화 -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 - 표준보육과정 개발·보급	〈보육 인력 전문성 제고〉 - 보육종사자 자격관리 강화 - 보육교사 처우개선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 - 보육인력의 역량 지원 강화 및 처우 개선 -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질 높은 보육 프로그램 제공 -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	〈부모 양육지원 확대〉 -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 지원 -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 취약보육 지원 개선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 - 보육시설 평가인증시스템 구축 - 보육행정시스템 구축 - 지자체 보육정책 활성화 - 지역사회 참여 및 시설 운영 투명성 제고 - 보육사업 추진관련 인프라 확충	〈전달체계 효율화〉 -비용지원 선정기준 간소화 - I-사랑카드 도입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 - 참여·공개·신뢰 등 만·관 협력 기반 조성 - 효율적·체계적인 보육 3.0 관리시스템 구축	
		〈보육사업 지원체계 구축〉 - 보육정책 연구기능 강화 - 보육사업 지원기구 효율적 개편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설립 - 보육시설 지도감독 개선 - 부모단체, 모니터링 활성화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 체계 개선〉 - 보육·양육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 - 중앙-지방간 보육 재정 합리적 분담 - 바람직한 한국형 유보 통합 추진방안 검토	

자료: 1) 여성가족부(2006). 새싹플랜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2006~2010)-. p. 9.
 2) 보건복지가족부(2009). 아이사랑플랜(2009~2012). p. 6.
 3) 보건복지부(2013).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pp. 23~26.
 4) 보건복지부(2017).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pp. 14~16.

3)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2012년 개정된 「유아교육법」 제3조의2와 시행령에 의거하여, 정부는 5년마다 유아교육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 설정을 담은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3).

2013년~2017년간의 계획을 담은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유아교육 국가 완전책임제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유아교육 기회 확대, 유치원 운영 효율화, 교

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교육의 전문성 및 자긍심 강화,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의 5개 추진과제를 계획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3).

2018년~2022년 계획을 담은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교육문화 혁신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교실혁명을 통한 유아중심의 교육문화 조성, 교육공동체와 함께 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 유아교육 혁신을 위한 행정시스템 구축을 4대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교육부, 2018).

〈표 VI-1-4〉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구분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기간	2013~2017	2018~2022
비전	유아교육 국가 완전 책임제 실현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교육문화 혁신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公共善) 실현
목표		- 국가 책무성 강화를 통한 양질의 유아교육 및 실질적 교육기회 평등 보장 - 유치원, 교원,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와 함께 유아발달 지원 - 교육 현장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
추진과제	〈유아교육 기회 확대〉 - 유아 무상교육 지속 확대 - 유치원 신증설의 적정화 - 유치원 시설·설비의 적정 기준 마련 - 내실 있는 유치원 정보제공을 위한 공시제도 정착 -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통한 국가책임 강화 - 희망사다리 복원을 통한 실질적 교육기회 평등 실현 - 건전한 사립유치원 육성·지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
	〈유치원 운영 효율화〉 - 공립유치원 운영 개선 - 사립유치원 지원 및 운영체제 개선 - 유치원 평가제도 개선 - 유치원 재무·회계규칙 도입 - 유치원운영위원회 정착 및 발전	〈교실혁명을 통한 유아중심의 교육문화 조성〉 - 유아가 중심이 되는 교육패러다임 전환 - 영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 문화 개선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내실화〉 - 누리과정 정제성 명확화 및 질적 발전 -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현장 지원체계 강화 - 유아교육 교재교구 인증제 도입 및 우수 프로그램 활용 -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 - 방과후과정 전담인력 배치	〈교육공동체와 함께 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 -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유아 교육환경 조성 - 학부모 참여 강화로 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 - 교원의 업무부담 완화를 통한 유아와의 상호작용 강화
	〈교원의 전문성 및 자긍심 강화〉 - 누리과정 담당교사 자격기준 강화 -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연수 지원 -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착 - 유치원 교원임용 및 인사방식 개선 - 유치원 교사 근무여건 개선	〈유아교육 혁신을 위한 행정시스템 구축〉 - 현장에 적합한 평가체계 마련 - 사립유치원 행정지원 체계 정비

구분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 유아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유아교육진흥원 및 체험교육원 운영 활성화 - 유아교육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 전개 - 유아교육 대내외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유아교육 지원기능 강화	
추진 체계		교육부-교육청-현장(유치원, 교사, 학부모), 관계부처(기관) 간 종합적·체계적 지원체계 구축

자료: 1) 교육과학기술부(2013).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 pp. 6-7.

2) 교육부(2018).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 -공공성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 혁신 방안-. p. 8.

4) 아동정책 기본계획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5년 단위의 아동정책 목표와 기본방향, 주요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중앙부처·지자체 공동으로 시행 관리하는 중기플랜(관계부처합동, 2015)으로, 2015년~2019년의 1차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하여 2020년~2024년의 2차 기본계획까지 마련되었다.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대상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며,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아동 관련 모든 정책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5).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15~2019)의 비전은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함께하는 삶,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의 5대 추진영역으로 구성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15).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라는 비전 아래, 아동권리 존중 및 실현, 아동이 현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를 구성하였고, 추진전략으로는 권리주체 아동 권리 실현,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 지원,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을 포함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20).

〈표 VI-1-5〉 아동정책 기본계획

구분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기간	2015~2019	2020~2024
비전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	아동이 행복한 나라
핵심 목표	- 아동 행복도 증진 - 아동 최우선의 원칙 실현기반 조성	- 아동 권리의 존중 및 실현 - 아동이 현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추진 영역	〈미래를 준비하는 삶〉 - 아동기 역량강화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체계 마련

구분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실현 - 아동의 참여권 보장 - 놀이·여가 권리 보장	- 생활 속 아동권리 실현
	〈건강한 삶〉 - 생활공간 기반 건강관리체계 마련 - 발달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내실화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 지원〉 - 놀이와 학습이 조화로운 학교와 지역사회 - 아동 신체와 마음건강 관리 강화 - 폭력과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
	〈안전한 삶〉 - 생활공간 안전확보 - 사회안전 위협요인 대응체계 구축 - 아동안전기반 구축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 아동중심 공적 보호·돌봄체계 구축 - 저소득 가구 등 취약아동 지원 강화
	〈함께하는 삶〉 - 아동보호 무차별 원칙 실현 - 보호·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 가정의 양육 역량 강화 - 재난 상황에 대응가능한 돌봄체계 마련
	〈실행기반 조성〉 - 아동권리 실현기반 조성 - 가정의 양육역량 강화 - 아동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 민간과의 협력 강화 - 아동정책 지원 인프라 강화	

자료: 1) 관계부처합동(2015). 제1차('15~'19) 아동정책 기본계획. p. 25.

2) 관계부처합동(2020). 제2차('20~'24) 아동정책 기본계획. p. 24.

5) 건강가정 기본계획

정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에 의거하여 매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제1차 계획은 2006년에 수립되었다. 그러나 2008년 가족 업무의 주무부처가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됨에 따라, 가족의 변화, 가족 정책의 새로운 요구,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 등을 반영하여 2009년에 제1차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09).

수정·보완된 제1차 기본계획(2006~2010)의 비전은 '가족 모두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로서, 가족돌봄의 사회화, 직장·가정의 양립,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새로운 가족관계 및 문화조성,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의 6개 영역, 14개 대과제, 31개 정책과제로 구성되었다. 제1차 기본계획의 특징은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가족지원서비스의 다양화 및 인프라 확충으로 볼 수 있다(관계부처합동, 2009).

제2차 기본계획(2011~2015)은 '함께 만드는 행복한 가정,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사회'라는 비전 아래, 가족가치의 확산, 자녀 돌봄 지원 강화,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가족정책인프라 강화와 전문성 제고의 5대 영역, 11개 대과제, 29개 정책과제로 구성되었다. 제2차 기본계획의 주요 특징은 청소년 등 정책과의 연계는 강화하고 보육관련 과제는 축소했다는 점이다(관계부처합동, 2011).

제3차 기본계획(2016~2020)은 2015년에 수립되었으나,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가족 관련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2018년에 수정·보완되었다. 제3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평등한 가족,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으로서, 민주적 가족 문화 조성, 함께 돌봄체계 구축,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가족의 일·쉼·삶의 균형, 가족정책 기반 조성의 5개 영역, 10개 대과제, 20개 정책과제로 구성되었다. 제3차 기본계획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개선, 돌봄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등의 특징을 담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8a).

〈표 VI-1-6〉 건강가정 기본계획

구분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보완)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기간	2006~2010	2011~2015	2016~2020
비전	가족 모두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	정책 비전 함께 만드는 행복한 가정,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사회	평등한 가족,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
정책 목표	- 가족과 사회에서의 남녀간·세대간 조화 실현 - 가족 및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증진	- 개인과 가정의 전 생애에 걸친 삶의 질 만족도 제고 - 가족을 위한, 가족을 통한 사회적 자본 확충	- 소통하고 존중하는 가족 - 일·생활이 조화로운 사회
추진 과제	〈가족돌봄의 사회화〉 - 가족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가족가치의 확산〉 -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 평등한 가족생활 여건 조성 - 민주적인 가족문화 확산
	〈직장·가정의 양립〉 -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반 구축	〈자녀 돌봄 지원 강화〉 - 자녀 돌봄지원의 다양화 - 부모역할 지원	〈함께 돌봄 체계 구축〉 -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체계 구축 - 가족 돌봄에 대한 공공성 강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 한부모 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 체계 구축 -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 다양한 소외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확대 및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활성화 - 가족돌봄자 및 취약가정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개선 -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평등한 지원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 가족친화적 직장 환경 조성 -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 안전한 가족생활환경 조성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 - 가족친화적인 지역환경 조성	〈가족의 일·쉼·삶의 균형〉 -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 균형 지원 - 기업의 일·생활 균형 촉진
	〈새로운 가족관계 및 문화조성〉 -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문제 예방 -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가족정책인프라 강화와 전문성 제고〉 - 가족정책 기반 강화 및 효율화 -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전문화와 특성화	〈가족정책 기반 조성〉 - 가족정책 추진체계 구축 - 가족환경 변화에 따른 법령 정비

구분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보완)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 가족정책의 총괄·조정 체계 정비 - 가족정책 추진 인프라 확충 및 내실화		

자료: 1) 관계부처합동(2009).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 보완판, 함께 가는 가족 2010. p. 54.
 2) 관계부처합동(2011).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11~2015) 「2015 가족행복 더하기」. p. 37.
 3) 관계부처합동(2018a).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보완) -2016~2020-. p. 6.

6)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정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①에 의거하여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청소년문제개선종합대책(’85~’87)」이후 제1차에서 제6차에 이르는 범정부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제4차 기본계획(2008~2012)은 2007년에 수립되었으며, 주무부처의 이관으로 인하여 2010년에 수정·보완되었다. 제4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꿈을 키우는 청소년, 희망을 더하는 가족, 밝은 미래사회’로,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증진, 가족기능 및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 정비라는 4대 분야에 따라 12대 중점과제 100대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10).

제5차 기본계획(2013~2017)의 비전은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이며,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참여 및 권리 증진, 복지 및 자립 지원, 친화적 환경 조성, 청소년정책 추진 체계 강화의 5대 영역 15대 중점과제, 75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다. 제5차 기본계획의 특징은 청소년 활동 기반 강화, 맞춤형 지원 강화, 청소년정책 총괄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관계부처합동, 2012).

제6차 기본계획(2018~2022)은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의 비전 아래,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의 4대 정책 목표, 12개 중점과제, 144개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있다(관계부처합동, 2018b).

〈표 VI-1-7〉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구분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보완)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기간	2008~2012	2013~2017	2018~2022
비전	꿈을 키우는 청소년, 희망을 더하는 가족, 밝은 미래사회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정책 목표		- 청소년의 역량 함양 및 미래핵심 인재로 양성 -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와 권리 증진 - 청소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 -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	-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청소년 주도의 지원적·협업적 청소년정책으로의 전환
추진 과제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증진〉 - 다양한 체험 활동 기회확대 - 시민역량 증진 및 인성교육 강화 - 자기주도적 진로개척 지원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 청소년의 인성 및 민주시민 교육 강화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 청소년 참여 확대 -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
	〈가족기능및사회 안전망 강화〉 - 건강한 가족기능 강화 -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 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강화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 -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제 강화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 유익한 환경 조성 - 청소년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청소년 복지 및 자립지원〉 -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 청소년(청년) 진로체험 및 자립 지원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 대상별 맞춤형 지원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정비〉 - 청소년시설·단체·전문인력의 역량 제고 - 지역 중심 추진체계 개편 - 범부처 총괄조정기능 강화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및 의식제고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강화 - 지역·현장 중심의 청소년정책 활성화 -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청소년정책 추진 체계 강화〉 - 범부처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 청소년 지원 인프라 보강 -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자료: 1) 관계부처합동(2010).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 기본계획 2008~2012. p. 25.
 2) 관계부처합동(201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p. 33.
 3) 관계부처합동(2018b).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p. 13.

7)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정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2005년부터 지금까지 4차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중요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학교폭력 피해경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언어폭력·사이버폭력 등 정서적 폭력이 부각되는 추세이므로 본 계획이 갖는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하는 제4차 기본계획은 ‘모두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학교’라는 비전 아래, 5대 정책영역 14개 추진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표 VI-1-8〉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구분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기간	2010~2014	2015~2019	2020~2024
비전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환경 조성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모두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학교
정책 목표	학교폭력 안전도 제고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전략〉 - 맞춤형 예방대책 - 무관용 원칙적용 - 전문 진단 상담시스템 - 책무성 강화	〈전략〉 - 전반적 학교 문화 개선과 함께 취약요인 중점 관리 - 대상별·유형별·시기별 맞춤형 대응 강화 - 단위학교의 실효성 있는 자율적 예방활동 활성화	- 존중과 배려가 가득한 학교문화 - 적극적 보호와 교육으로 신뢰받는 학교 - 민주시민의 성장을 돕는 가정과 사회
추진 과제	〈학교폭력 안전 인프라 확충〉 - 학생보호 인프라 확충 - 조기 발견 및 신고체계 강화 -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 강화〉 - 인성 함양을 통한 학교폭력 사전 예방 - 또래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 - 체험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 폭력유형 및 추세에 따른 대응 강화	〈학교공동체 역량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강화〉 - 학교·학급 단위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 내실화 - 학생 참여·체험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확대 - 학교폭력 유형·추세 대응 예방활동 강화 - 전사회적 협력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문화 조성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 - 학교급별 맞춤형 예방교육 - 전 교원의 대응역량 강화 - 학교폭력 추세에 맞춘 선제대응 - 가정의 예방기능 강화	〈학교폭력 대응 안전인프라 확충〉 - 학교폭력 취약요인 지속적 해소 - 학생보호인력 확충 - 학교 밖 안전관리 강화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교육적인 대응 강화〉 - 학교폭력 조기 감지 및 대응체계 강화 - 학교의 교육적 해결역량 제고 - 사안처리의 공정성·전문성 확보
	〈단위학교의 대응능력 및 책무성 제고〉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활성화 - 학교상담망 확충 - 자치위원회 심의·조정 역량 강화 - 정보공시 상세화 등 단위학교 책무성 제고	〈공정한 사안처리 및 학교 역량 강화〉 - 학교폭력 조기 감지·신고 체계 강화 - 사안처리의 공정성 확보 -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시스템 강화〉 - 피해학생 맞춤형 보호·지원체계 강화 - 사후지원 강화 및 학교 안팎 협력 체계 구축
	〈가해자 선도·피해자 치유 시스템 질 제고〉 - 전문 진단·상담 시스템 구축 - 고위험 가해학생 통합적 위기관리 - 피해학생 보호·지원체계 구축 - 선도·치유 기관 확충과 특성화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 -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 내실화 - 가해학생 맞춤형 교육 및 선도 강화 -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 - 가해학생 교육·선도 내실화 -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대처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 조성〉 - 규칙과 질서 존중 학교 시스템 구축 - 배려와 나눔의 인성교육 강화 - 언어폭력 없는 학교문화 조성 - 또래상담 기능 강화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 - 가정의 역할 및 교육기능 강화 - 지역사회 역할 및 책무성 강화 - 대국민 인식제고 및 전 사회적 대응 체계 구축	〈전 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 구축〉 - 가정의 교육적 역할 강화 - 지역사회의 역할 및 책무성 강화 - 전사회적 대응체계 강화 및 대국민 인식제고

구분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안전망 구축〉 - 지역단위 대응역량 강화 - 범사회적 폭력근절 문화 조성 -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자료: 1)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0. 1. 3.). 학교폭력! 유·초등학교 단계부터 조기예방 강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10~2014) 발표-. p. 7.

2) 관계부처합동(2014).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요약). p. 3.

3) 교육부(2020).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안)(’20~’24). p. 10.

나. 한국아동패널 아동 관련 정책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아동 성장, 발달과 부모의 자녀 양육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부의 육아정책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패널 아동의 연령에 따라 1) 임신·출산기, 2) 영유아기, 3) 학령기로 구분하였으며, 각 발달 시기별 패널 아동 가구가 경험한 중앙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표 VI-1-9〉 한국아동패널 2008~2020 시기의 육아정책 흐름

구분	2008 (1차)	2009 (2차)	2010 (3차)	2011 (4차)	2012 (5차)	2013 (6차)	2014 (7차)	2015 ~2017 (8~10차)	2018 ~2020 (11~13차)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9세 (초1~3)	10~12세 (초4~6)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보육료	○ (차등)	○ (차등)	○ (차등)	○ (차등)	○ (차등)	○	○		
누리과정						○ (만 4세)	○ (만 5세)		
양육수당			○ (차등)	○ (차등)	○ (차등)	○	○	○	
아이돌봄	○	○ (전국 확대)	○	○	○ (대상 확대)	○	○	○	○
초등돌봄 교실								○	
교육비지원								○ (차등)	○ 차등)
아동특별 돌봄지원금									○ (2020)

1) 임신·출산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은 저출산 대응책으로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 내에서 시작되었다. 본 제도는 임신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진료비 일부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것으로, 2018년 12월에 도입되었다(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2022).

지원 금액은 도입 당시인 2008년 20만 원이었으나, 현재(2022년)는 60만 원으로, 이용 기관, 일일 이용 금액, 지원 금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또 대상에 따라 금액을 차등화 하여 다태아(2012. 7)이거나 분만 취약지(2016. 7)에 거주하는 경우 70만 원(다태아 90만 원)을 차등 지원하였다(이소영, 2017). 2022년 현재, 임신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며(다태아 140만원) 분만취약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2022).

패널 아동의 경우 2008년 4월~7월에 출생하였으므로, 2008년 12월부터 시작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정책의 직접적 수혜자는 아니다.

〈표 VI-1-10〉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구분	지원금액
2008. 12. 2	20만원
2010. 4.	30만원
2011. 4.	40만원
2012. 4.	50만원
2012. 7.	다태아의 경우 70만원
2016. 7.	분만취약지(37곳)에 거주하는 경우 단태아 70만 원, 다태아 90만 원
2022. 현재	임신 1회당 100만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지원(다태아 임신부는 140만원, 분만취약지점 20만원 추가지원)

자료: 1) 이소영(2017). 임신·출산 지원 보건 의료 정책의 현황과 추진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49, p. 38.

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13, (2022. 3. 15. 인출)

2) 영유아기

가) 영유아보육료 지원

정부는 2012년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가구소득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2012년까지 연령별 차등 기준이 매년 조금씩 조정되다가 2013년부터는 보육료 전 계층 지원이 실현되었다.

패널 아동의 보육 연령 기준으로 살펴보면, 보육 연령이 만 0세인 2009년은 상반기 법정/차상위, 하반기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에 보육료 100% 지원되었으며, 보육 연령 만1세인 2010년에는 2009년 하반기와 동일하게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에 보육료 100%를 지원하였다. 보육 연령 만 2세인 2011년에는 가구소득 하위 70% 이하로 대상이 확대되었고, 보육 연령 만 4세인 2013년에 전 계층으로 확대되었다.

〈표 VI-1-11〉 연령별 보육료 지원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2008	- 법정/차상위 (100% 지원) -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50% 수준 (80% 지원) -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70% 수준 (60% 지원) -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00% 수준 (30% 지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수준 이하
2009	〈상반기〉 - 법정/차상위(100% 지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50% 수준 (80% 지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70% 수준 (60% 지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 수준 (30% 지원)					
	〈하반기〉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 이하 (100% 지원)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60% 이하 (60% 지원)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30% 지원)					
2010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 이하 (100% 지원)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 초과~60% 이하 (60% 지원)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60% 초과~70% 이하 (30% 지원)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2011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2012	전계층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전계층
2013	전계층					

주: 패널보고서의 아동 연령(표 1)과 본 표의 보육 연령(표 3)이 상이함. 본문은 보육 연령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보건복지부(2008-2013). 각년도 보육사업안내.

차등보육료 외, 장애아, 두 자녀 이상, 방과후, 시간연장형, 시간제보육,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에 대한 내용은 〈표 VI-1-12〉와 〈표 VI-1-13〉에 정리되었다.

〈표 VI-1-12〉 차등보육료 외 보육료 지원-1

구분	장애아 보육료	두자녀이상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2008	만 0세~12세 취학전 장애아 무상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수준 (20% 지원) 월평균소득 70% 수준 (40% 지원) 월평균소득 100% 수준 (50% 지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50% 범 위에서 지원
2009	상동	정률지원 (50%까지, 연령별·소득계층별)	상동
2010	상동	정부지원단가의 40%~70% 지원	상동
2011	상동	-	정부지원단가 (만 5세아 보육 료)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2012	상동	-	- 일반아동: 만 4세아 정부지원 단가의 50% - 장애아동: 장애아 무상보육료 50%
2013	상동	-	- 일반아동: 월10만원 -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의 50%
2014	상동	-	상동

자료: 보건복지부(2008~2014). 각년도 보육사업안내.

〈표 VI-1-13〉 차등보육료 외 보육료 지원-2

구분	시간연장형 보육료	시간제 보육료	맞벌이가구 보육료
2008	시간당 2,300원 장애아동 3,300원	법적 저소득층 아동 2600원 장애아동 3,500원	-
2009	시간당 2,400원 장애아동 3,400원	상동	-
2010	상동	상동	소득 감액 후 책정된 차등보육료 또는 만 5세아 보육료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지원 비율에 따른 지원 단가를 지원
2011	시간당 2,700원 장애아동 3,700원	법정저소득층 아동 3,000원 장애아동 3,900원	소득 감액 후 책정된 만 0~4세 보육 료 또는 만 5세아 보육료 지원 자격에 따라 연령별 정부 지원 단가 100%를 지원
2012	상동	상동	소득 감액 후 책정된 만 3~4세 보육 료 지원 자격에 따라 연령별 정부지원 단가 100%를 지원
2013	상동	상동	-
2014	상동	상동	-

자료: 보건복지부(2008~2014). 각년도 보육사업안내.

나)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 양육

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지원되는 보육료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2009년 7월부터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22). 2011년부터 지원 연령을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은 월 10만원에서 월 10~2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2012년에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도입하여 어린이집을 미이용하는 등록 장애아동은 취학 전까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였다. 이후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 전 아동에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22).

2008년 4월~7월에 출생한 패널 아동의 경우, 2011년까지(생후 36개월까지) 차상위 소득 가구에 양육수당 월 10만원 지원되었으며, 2013년 3월 소득에 상관없이 전 계층 지원으로 확대되면서, 2015년까지(생후 83개월까지)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양육수당 10만원이 지원되었다.

〈표 VI-1-14〉 양육수당 지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단가
2009. 7.~2010	0~23개월 차상위	10만원
2011~2012	0~35개월 차상위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24~35개월: 10만원
2013~2018	0~83개월 전계층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24~83개월: 10만원
2019	0~85개월 전계층 *취학년도 1~2월 지원 추가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24~85개월: 1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2008~2019). 각년도 보육사업안내.

다) 누리과정

누리과정은 우리나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 3~5세 유아들이 기관의 유형에 상관없이 공통 교육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생애 초기 출발점 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이다(김은영 외, 2019).

2011년 9월 「5세 누리과정」이 제정되었고, 2012년 3월부터 만 5세 유아를 대

상으로 누리과정이 시행되었다. 이어서, 2012년 7월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제정되고, 2013년 3월부터 만 3~4세까지 누리과정이 확대 시행되었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유아를 위한 유아학비, 보육료 등의 행·재정적 제도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동 교육·보육과정을 포함하는 정책으로서, 2012년까지 만 3~4세 유아에 대해서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에 일부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2013년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게 되었다(김은영 외, 2019).

패널 아동의 경우, 보육연령 만 4~5세인 2013년과 2014년에 유치원과 어린이 집에서 누리과정을 경험하였다.

라)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2009년 전국으로 확대 도입된 사업이다(여성가족부, 2022: 9).

2012년 8월 「아이돌봄지원법」이 제정 되면서, 현재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였던 지원대상이, 모든 취업 부모로 확대되었다.

패널 아동의 경우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초기부터 12세가 된 2020년까지 서비스 이용대상에 속하는 연령대였기 때문에 일부 가구에 제한적으로 이용 경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VI-1-15〉 아이돌봄사업 추진 경과

구분	내용
2007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및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사업 신규 실시
2008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확대(65개소)
2009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전국 확대, 장애아 양육지원 사업 분리 운영
2010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사업 신규 실시(0세아)
2011	영아종일제 최소 이용시간을 160시간 → 120시간으로 변경
2012	영아종일제 돌봄 지원대상 확대, 아이돌봄 지원법 제정('12. 8. 시행),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 - 지원대상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 모든 취업부모 대상으로 확대

구분	내용
2013	시간제 돌봄 지원예산 확대 및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근거 신설 - 취약계층 자녀 등에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근거 조항 신설('13.11.)
2014	영아종일제 돌봄 지원연령 확대(만 12개월 → 만 24개월)
2015	영아종일제 대기관리시스템 운영, 아이돌보미 휴일 및 야간활동수당지급
2016	이용가정 소득유형 판정기준 변경(전국가구 평균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17	영아종일제 돌봄 지원연령 확대(만 24개월 → 만 36개월)
2018	정부지원 확대(가형~다형) - 영아종일제·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율 상향(5%p) -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확대(연 480시간 → 600시간)
2019	정부지원 확대(중위소득 120% → 150%로 상향) - 영아종일제·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율 (기존지원) 각 5%p 증, (신규지원) 15~20% -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확대(연 600시간 → 720시간) -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 주휴 등 법정수당 지급
2020	정부지원 확대 -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 시간 특례(연 720시간 → 960시간)
2021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확대(연 720시간 → 840시간)

자료: 여성가족부(2022). 202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 8.

3) 학령기

가) 초등돌봄교실

해가축화 심화, 여성경제활동 인구 증가 등 양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점차 증가하였으며, 영유아 보육 지원보다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방과후·방학 중 돌봄 사각지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유기적 협력과 연계를 통해 촘촘한 돌봄 서비스 제공 필요에 의해 초등돌봄교실 운영이 추진되었다(교육부, 17개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2022: 13).

초등돌봄교실은 2004년에 '방과후 교실'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었으며, 초등저학년을 대상으로 19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2학년 저학년 중심으로 17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 초등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하고 학부모 수요 및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한다(교육부, 17개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2022).

패널 아동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시기는 2015년, 2016년, 2017년인데, 패널 가구 중 돌봄교실 대상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학교 연계 기관 돌봄 서비스를 이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표 VI-1-16〉 초등돌봄교실의 추진 경과

구분	내용
2004	초등 저학년 '방과후 교실' 도입 정책 발표 및 시범운영(28개교) - (운영 시간) 학기중 12:00~19:00, 방학중 08:00~19:00
2009	'종일돌봄교실'(초등보육교실을 야간까지 운영) 시범운영(300개교)
2010	'초등돌봄교실'로 명칭 변경 및 확대(6,200실)
2011~ 2013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시범운영 - 아침돌봄(06:30~09:00), 오후돌봄(방과후~17:00), 저녁돌봄(17:00~22:00)
2013	초등 방과후 돌봄 강화 모델학교 시범운영(78개교) 방과후 돌봄서비스 범정부 통합 지원 시범운영(6개 지역)
2014	초등학교 1~2학년 희망학생 대상 돌봄교실 운영(10,966실)
2014	초등돌봄교실 추가 설치 및 운영 내실화 추진(4월)
2015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학생 대상 만족도 높은 돌봄교실 운영 - 1~2학년 중심 돌봄교실 운영, 3학년 이상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2016	학년 특성을 반영한 돌봄교실 운영으로 전학년 돌봄 완성(3월) 저학년 학생을 위한 돌봄교실 놀이 프로그램 표준 모델 개발·보급(9월)
2017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확정(7월) -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점차 확대하고 내실화 방안 병행 추진
2018	온종일 돌봄정책 발표(4월) - 초등돌봄교실을 2022년까지 총 3,500실 확대
2020	코로나19 관련 긴급돌봄 운영(3월)

자료: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2022).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pp. 13-15.

나) 교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정책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4대 교육비(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교육부, 2021). 2022년 현재 중학생인 패널 아동들은 본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파악된다.

〈표 VI-1-17〉 교육비 지원 개요(2021)

구분	내용
지침적용범위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시·도교육청별, 교육비별로 지원 범위 상이

구분	내용
교육비	- 고교 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 급식비 : 학기 중 평일 중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 (교재비 포함) - 교육정보화 지원 :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유해 차단 서비스 월 1,650원 이내 ※ 지원액 등은 시·도교육청별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교육부(2021). 2021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pp. 2-4.

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중된 돌봄 부담과 비대면 학습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0년 9월, 미취학아동 약 252만명과 초등학생 아동 약 28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0. 9. 29). 2020년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패널 아동들은 이 시기에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을 수혜 대상이었다.

라) 이외 정책

위에서 정리한 정책 외에도 2019년 시기에 한국아동패널 아동이 받을 수 있는 교육 지원으로 가족체험학습, 진로탐색교육/진로체험 프로그램, 학교폭력예방정책 교육, 학교급식 및 안전관리 교육, 장애학생 지원제도, 인성, 체육, 예술 교육 등이 있다.

〈표 VI-1-18〉 초등학생 지원 정책

구분	내용
가족체험학습	학부모가 명예교사가 되어 가족동반으로 학교 외의 장소에서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학부모 책임 하에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함.
진로탐색교육/진로체험프로그램	진로체험은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견학 및 체험을 하거나, 직업인과 대화를 나누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 진로특강과 같이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의미함. 예) 현장직업체험, 직업실무체험, 현장견학, 강연 및 대화, 학과체험, 진로캠프
학교폭력예방정책 교육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피해학생 치료, 전문상담교사 배치, 유관기관 협력 등의 학교 폭력에 관한 지원 사항 및 예방교육을 말함. 예) Wee 프로젝트(Wee 클래스, Wee 센터, Wee 스킵)
학교급식 및 안전관리 교육	학교단위에서 영양(교)사가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조리종사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임. 예) 올바른 손 씻기 교육 등 개인위생관리 교육, 배식방법 교육, 위생수칙 교육 등

구분	내용
장애학생 지원제도	특수학교(급) 신설 및 증설 확대 제도 및 병원 학교 설치 및 원격 수업 지원 등 장애 학생을 위한 지원을 말함.
인성, 체육, 예술 교육	인성교육 우수 학교 및 시범학교, 일부 일반 학교에서 이뤄지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함.

자료: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https://panel.kicce.re.kr/pskc/module/rawDataManage/index.do?menu_idx=56
원시자료 중 12차년도 설문지(보호자용, p. 27) (2022. 3. 15. 인출)

2. 한국아동패널 육아정책 영향 분석

한국아동패널 자료로 정책 추진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일부 제도를 선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 영향 분석을 실행하였다. 본 절에서 살펴본 육아정책은 영유아 무상보육, 초등돌봄교실, 학교지원프로그램 중 가족체험학습, 학교폭력에 방교육이다.

가.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 영향

2008년 출생 패널 아동들이 처음 경험하게 된 무상보육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무상보육의 성과지표에 해당하는 변인 값을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 무상보육 도입 이전(5차)과 무상보육 도입 이후(6차, 7차)의 어머니 일·가정 양립, 가계 보육비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1) 무상보육과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

무상교육 도입 전후에서 어머니 일·가정 양립의 비율이 변화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무상보육을 처음 도입한 시기인 2013년도(6차) 전후인 2012년(5차)에서 2014년(7차)까지의 어머니 일·가정 양립의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VI-2-1>과 같이, 어머니 일·가정 양립의 비율이 서서히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I-2-1〉 무상교육 도입 전후의 어머니 일·가정 양립의 비율 변화

단위: %(명)

시기	일·가정 양립 중		미취업		전체	
5차(2012년)	43.0	(723)	57.0	(960)	100.0	(1,683)
6차(2013년)	44.0	(720)	56.0	(918)	100.0	(1,638)
7차(2014년)	46.4	(736)	53.6	(851)	100.0	(1,587)

2) 무상보육과 가계 보육비

무상교육 도입 전후에서 가계 보육비가 절감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무상보육을 처음 도입한 시기인 2013년도(6차) 전후인 2012년(5차)에서 2014년(7차)까지의 가계 보육비의 평균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13년(6차)에 2012년(5차)에 비해 가계보육비 총액이 크게 감소하였다가 2014년(7차)에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VI-2-2〉 무상교육 도입 전후의 월 평균 가계 보육비 변화

단위: 천원

시기	<i>N</i>	<i>M</i>	<i>SD</i>
5차(2012년)	1,645	25.25	20.23
6차(2013년)	1,654	18.35	17.68
7차(2014년)	1,617	31.62	28.71

〈표 VI-2-3〉 가계 보육비의 시기별 차이 검증

분산원	<i>SS</i>	<i>df</i>	<i>MS</i>	<i>F</i>
가계 보육비(A)	132,663.545	2	66,331.772	298.013***
피험자(B)	660,171.788	2966	222.580	
A×B	1,356,533.992	1483	914.723	
전체	2,149,369.325	4451		

*** $p \leq .001$.

나. 초등돌봄교실 영향

초등학교에 입학한 패널 아동의 정책 수혜와 관련한 분석으로 초등돌봄교실의 영향을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초등돌봄교실 이용 경험이 있는 아동/가구와 이

용 경험이 없는 아동/가구 집단 간 다양한 배경변인, 관련 요인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1) 초등돌봄교실 이용 관련 기술통계 분석

가) 초등돌봄교실 이용 가구수와 비율 추이

초등학교 1학년(8차, 2015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13차, 2020년)까지 6년 동안 초등돌봄교실 이용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표 VI-2-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인 1학년과 2학년 때의 이용자 수가 202명, 119명으로 3학년 부터 6학년 시기와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이용자 수가 높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수는 급격히 줄어드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I-2-4>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수 추이

단위: 명, (%)

시기	미이용자 수		이용자 수		응답자 수	
8차 (초등1)	1,396	(87.4)	202	(12.6)	1,598	(100.0)
9차 (초등2)	1,406	(92.2)	119	(7.8)	1,525	(100.0)
10차 (초등3)	1,453	(97.9)	31	(2.1)	1,484	(100.0)
11차 (초등4)	1,420	(99.0)	14	(1.0)	1,434	(100.0)
12차 (초등5)	1,400	(99.2)	12	(.8)	1,412	(100.0)
13차 (초등6)	1,384	(99.1)	13	(.9)	1,397	(100.0)

나) 초등돌봄교실 주당 이용일수 추이

패널아동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년 동안의 초등돌봄교실 주당 이용 일수 추이를 분석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주당 이용 일수는 평균 4.81~4.82일로 나타났고, 이후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1~3학년 때보다 주당 이용 일수가 소폭 줄어들어 초등 5학년 시기에 4.00일로 최저일수를 보고 하였다.

〈표 VI-2-5〉 초등돌봄교실 주당 이용일수 추이

단위: 일

시기	<i>N</i>	<i>M</i>	<i>SD</i>
8차 (초등1)	202	4.81	0.74
9차 (초등2)	119	4.82	0.58
10차 (초등3)	31	4.81	0.87
11차 (초등4)	14	4.57	0.85
12차 (초등5)	12	4.00	1.65
13차 (초등6)	13	4.46	1.20

다) 초등돌봄교실 하루 평균 이용시간 추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패널 아동의 초등돌봄교실 하루 평균 이용시간 추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VI-2-6〉과 같다. 초등학교 1학년 때에는 평균 하루 이용시간이 약 3시간인데 반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시간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VI-2-6〉 초등돌봄교실 하루 평균 이용시간 추이

단위: 시간

시기	<i>N</i>	<i>M</i>	<i>SD</i>
8차 (초등1)	202	2.96	1.45
9차 (초등2)	119	2.68	0.95
10차 (초등3)	31	2.39	1.56
11차 (초등4)	14	2.36	1.01
12차 (초등5)	12	2.33	0.89
13차 (초등6)	13	2.54	1.81

라) 초등돌봄교실 이용만족도 추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초등돌봄교실의 이용만족도 추이를 분석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초등돌봄교실 서비스 이용만족도가 5점 만점에 4점대로 유지되었지만,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만족도는 3점대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표 VI-2-7〉 초등돌봄교실 이용자의 이용만족도 추이

단위: 점

시기	N	M	SD
8차 (초등1)	202	4.02	0.79
9차 (초등2)	119	4.02	0.74
10차 (초등3)	31	4.23	0.72
11차 (초등4)	14	4.21	0.58
12차 (초등5)	12	4.17	0.72
13차 (초등6)	13	3.92	0.64

주: 5점 만점 척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2) 초등돌봄교실 이용 집단과 미이용 집단 차이 분석

가) 배경변수에 따른 초등돌봄교실 참여 비교

가구 월 평균 소득, 모 최종학력, 부 최종학력, 부모의 취업상태(맞벌이, 외벌이, 미취업자), 거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에 따라 초등돌봄교실의 이용 경험 유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VI-2-8〉과 〈표 VI-2-9〉에서와 같이, 초등 1학년과 초등 2학년에는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에 비해 초등돌봄교실 이용 경험이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배경변수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VI-2-8〉 초등1학년 초등돌봄교실 이용 여부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독립변수		B	S.E.	Wald	Exp(B)
월 평균소득		0.000	0.000	0.034	1.000
모 최종학력		-0.134	0.116	1.337	0.874
부 최종학력		-0.194	0.106	3.348	0.823
부모의 취업상태 ^b	맞벌이	1.737	0.436	15.831***	5.679
	외벌이	0.123	0.448	0.075	1.130
거주 지역 ^c	대도시	-0.388	0.220	3.101	0.679
	중·소도시	-0.377	0.222	2.884	0.686
상수항		-0.883	0.627	1.984	0.413

주: 참조집단 a=미이용자
b=미취업자
c=읍·면지역

*** $p \leq .001$.

〈표 VI-2-9〉 초등2학년 초등돌봄교실 이용 여부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독립변수		B	S.E.	Wald	Exp(B)
월 평균소득		-0.001	0.001	1.429	0.999
모 최종학력		0.025	0.139	0.032	1.025
부 최종학력		-0.169	0.128	1.745	0.845
부모의 취업상태 ^b	맞벌이	1.854	0.603	9.468**	6.385
	외벌이	0.447	0.614	0.531	1.564
거주 지역 ^c	대도시	-0.187	0.262	0.513	0.829
	중·소도시	-0.665	0.285	5.428	0.514
상수항		-2.244	0.838	7.170**	0.106

주: 참조집단 a=미이용자

b=미취업자

c=읍·면지역

** $p \leq .01$.

나) 초등돌봄교실 이용 효과 검증

앞서 초등돌봄교실 이용 추이를 통해 대부분의 이용자가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시기에 집중되어 있음을 근거로, 초등돌봄교실 이용 효과 검증을 위해 이 두 시기(8차, 9차)에 초점을 두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초등돌봄교실의 이용 여부에 따른 학교이용만족도, 사교육 이용시간, 월 평균 사교육 서비스 비용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초등학교 1학년 시기와 초등학교 2학년 시기별로 독립표본 t검정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두 시기 모두 일관되게 초등돌봄교실의 이용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사교육 이용시간과 월 평균 사교육 서비스 비용이 더 낮았다. 이는 초등돌봄교실이 사교육 감축에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학교 이용만족도에 대한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VI-2-10〉 초등1학년, 초등2학년 초등돌봄교실 이용 여부에 따른 평균 비교

시기	종속변수	초등돌봄교실	N	M	SD	t
8차 (초등1)	학교이용만족도 (범위: 1~5)	미이용	1,393	0.62	0.02	0.775
		이용	202	0.65	0.05	
	일주일 간 사교육 이용시간 (단위: 시간)	미이용	1,090	3.93	0.12	4.111**
		이용	146	2.64	0.22	
	월 평균 사교육 서비스 비용 (단위: 만원)	미이용	1,091	15.12	0.46	4.574**
		이용	146	10.05	0.83	

시기	종속변수	초등돌봄교실	N	M	SD	t
9차 (초등2)	학교이용만족도 (범위: 1~5)	미이용	1406	3.95	0.56	0.394
		이용	119	3.92	0.71	
	일주일 간 사교육 이용시간 (단위: 시간)	미이용	1155	8.06	4.42	2.200*
		이용	76	6.92	3.45	
	월 평균 사교육 서비스 비용 (단위: 만원)	미이용	1155	25.45	17.42	1.980*
		이용	76	21.42	13.29	

* $p \leq .05$, ** $p \leq .01$.

가구 월 평균 소득, 모 최종학력, 부 최종학력, 부모의 취업상태(맞벌이, 외벌이, 미취업자), 거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초등돌봄교실의 이용이 학교이용만족도, 사교육 이용시간, 월 평균 사교육 서비스 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초등학교 1학년 시기(8차)와 초등학교 2학년 시기(9차)별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 중 유의미한 결과만 제시하였다. 시기와 상관없이 초등돌봄교실의 이용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사교육 이용시간과 월 평균 사교육 서비스 비용이 더 낮았다. 이는 가구 월 평균 소득, 모 최종학력, 부 최종학력, 부모의 취업상태(맞벌이, 외벌이, 미취업자), 거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등을 통제하더라도 초등돌봄교실이 사교육 감축에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학교이용만족도에 대한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VI-2-11〉 초등1학년 사교육 이용시간에 대한 초등돌봄교실의 영향

독립변수		B	S.E.	β	t
상수		5.939	0.799		7.433***
월 평균소득		0.003	0.001	0.150	4.921***
모 최종학력		-0.110	0.153	-0.027	-0.719
부 최종학력		0.071	0.141	0.018	0.502
부모의 취업상태 ^a	맞벌이	0.175	0.475	0.022	0.369
	외벌이	-0.356	0.459	-0.046	-0.774
거주 지역 ^b	대도시	0.254	0.327	0.033	0.776
	중·소도시	0.209	0.328	0.027	0.637
초등돌봄교실 ^c		-1.573	0.350	-0.131	-4.495***

주: 참조집단 a=미취업자
b=읍·면지역
c=미이용자

*** $p \leq .001$.

〈표 VI-2-12〉 초등1학년 월 평균 사교육 서비스 비용에 대한 초등돌봄교실의 영향

독립변수		B	S.E.	β	t
상수		-0.451	2.891	.	-0.156
월 평균소득		0.023	0.002	0.318	11.064***
모 최종학력		0.837	0.555	0.052	1.510
부 최종학력		1.098	0.510	0.074	2.155*
부모의 취업상태 ^a	맞벌이	-2.032	1.718	-0.068	-1.183
	외벌이	-0.061	1.662	-0.002	-0.037
거주 지역 ^b	대도시	3.572	1.184	0.120	3.018**
	중·소도시	1.419	1.185	0.048	1.198
초등돌봄교실 ^c		-5.062	1.266	-0.110	-3.999***

주: 참조집단 a=미취업자

b=읍·면지역

c=미이용자

* $p \leq .05$, ** $p \leq .01$, *** $p \leq .001$.

〈표 VI-2-13〉 초등2학년 사교육 이용시간에 대한 초등돌봄교실의 영향

독립변수		B	S.E.	β	t
상수		6.084	0.927	.	6.564***
월 평균소득		0.004	0.001	0.179	5.877***
모 최종학력		0.164	0.174	0.034	0.942
부 최종학력		-0.316	0.161	-0.072	-1.971*
부모의 취업상태 ^a	맞벌이	0.740	0.504	0.082	1.468
	외벌이	0.457	0.484	0.052	0.944
거주 지역 ^b	대도시	0.643	0.377	0.073	1.704
	중·소도시	0.600	0.378	0.068	1.585
초등돌봄교실 ^c		-1.429	0.533	-0.078	-2.684**

주: 참조집단 a=미취업자

b=읍·면지역

c=미이용자

* $p \leq .05$, ** $p \leq .01$, *** $p \leq .001$.

〈표 VI-2-14〉 초등2학년 월 평균 사교육 서비스 비용에 대한 초등돌봄교실의 영향

독립변수		B	S.E.	β	t
상수		-3.506	3.432	.	-1.022
월 평균소득		0.025	0.002	0.324	11.344***
모 최종학력		1.683	0.644	0.089	2.614**
부 최종학력		1.002	0.595	0.057	1.685

독립변수		B	S.E.	β	t
부모의 취업상태 ^a	맞벌이	-3.418	1.867	-0.096	-1.831
	외벌이	-1.747	1.791	-0.050	-0.975
거주 지역 ^b	대도시	4.904	1.397	0.140	3.510***
	중·소도시	5.082	1.400	0.146	3.629***
초등돌봄교실 ^c		-3.921	1.972	-0.054	-1.989*

주: 참조집단 a=미취업자

b=읍·면지역

c=미이용자

* $p \leq .05$, ** $p \leq .01$, *** $p \leq .001$.

3)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초등돌봄교실 정책의 영향 분석

가) 배경변수에 따른 초등돌봄교실 이용의 개인별 변화 양상 비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년 동안 가구 월 평균 소득, 모 최종학력, 부모의 취업상태(맞벌이, 외벌이, 미취업자), 거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에 따라 초등돌봄교실의 이용률의 개인별 변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범주형 종속변수가 포함된 잠재성장모형(Growth Model with Categorical Outcomes)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초기값(β_{00})의 분산은 유의미하였고, 기울기(β_{10})의 평균은 음수로써 유의미하였고 기울기의 분산도 모두 유의미하였다. 여기서 초기값의 평균은 time이 0일 때 로짓(로그오즈)의 기댓값으로써 0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추정이 이루어진다. 기울기는 time이 1단위 증가할 때 기대되는 로짓의 변화량으로써 기울기가 음수이면 ‘시간 흐름에 따라 로짓이 작아진다’는 것이고, 이는 ‘시간 흐름에 따라 초등돌봄교실 이용률(p)이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대도시와 중·소도시보다 읍·면지역에서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초등돌봄교실 이용률은 더 높았다. 그리고 미취업자 가구 집단에 비해 맞벌이 가구 집단에서 초기값, 즉,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초등돌봄교실 이용률이 더 높았고, 기울기, 즉, 매년 이용률 증가폭도 더 높았다. 그러나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VI-2-15〉 초등돌봄교실 이용°의 개인별 변화 양상과 영향 요인 분석

독립변수		무조건모형		조건모형	
		B	SE	B	SE
고정효과					
	초기값, β_{00}	0.000	0.000	0.000	0.000
	기울기, β_{10}	-0.903***	0.224	0.240***	0.593
	월 평균소득, β_{01}			0.000	0.001
	모 최종학력, β_{02}			-0.470*	0.238
취업 상태 ^m	맞벌이, β_{03}			3.468***	1.021
	외벌이, β_{04}			0.336	0.989
거주 지역 ⁿ	대도시, β_{05}			-1.246*	0.548
	중·소도시, β_{06}			-1.168*	0.561
	기울기×월 평균소득, β_{11}			0.000	0.001
	기울기×모 최종학력, β_{12}			-0.043	0.113
취업 상태 ^m	기울기×맞벌이, β_{13}			-1.052**	0.365
	기울기×외벌이, β_{14}			-0.337	0.354
거주 지역 ⁿ	기울기×대도시, β_{15}			-0.007	0.225
	기울기×중·소도시, β_{16}			-0.364	0.271
무선효과					
	초기값 분산, τ_{00}	11.588***	3.071	8.616***	2.366
	기울기 분산, τ_{11}	0.915***	0.252	0.666**	0.213
	초기값과 기울기 공분산, τ_{01}	-2.346**	0.807	-1.700**	0.645
	AIC	1169.8		1073.1	
	BIC	1192.8		1150.8	
	Adjusted BIC	1177.0		1096.8	

주: 참조집단 c=미이용자
m=미취업자
n=읍·면지역

* $p \leq .05$, ** $p \leq .01$, *** $p \leq .001$.

나)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초등돌봄교실 참여의 효과 검증

초등돌봄교실의 이용이 학교이용만족도, 전반적 행복감, 시간사용만족도, 친구 지지와 즐거운 반분위기, 교사의 지지와 자유로운 의사소통, 엄격한 규칙과 지시적

분위기의 개인별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였다. 이때 초등돌봄교실의 이용은 초등학교 1학년 시기(8차)의 이용 여부(1='이용', 0='미이용')와 초등학교 2학년 시기(9차)의 이용 여부(1='이용', 0='미이용')를 합한 값을 활용하였고, 학교이용만족도의 개인별 변화는 초등학교 1학년(8차)에서 초등학교 6학년(13차)까지 6년 동안의, 그리고, 전반적 행복감, 시간사용만족도, 친구지지와 즐거운 반분위기, 교사의 지지와 자유로운 의사소통, 엄격한 규칙과 지시적분위기의 개인별 변화는 초등학교 3학년(10차)부터 6학년(13차)까지 4년 동안의 측정 자료를 활용하였다.

〈표 VI-2-16〉은 초등돌봄교실 참여가 6개의 결과 요인의 개인별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것이다. 분석결과, 초등돌봄교실 이용이 6개의 결과 요인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미치는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초등돌봄교실 참여가 학교이용만족도, 전반적 행복감, 시간사용만족도, 친구지지와 즐거운 반분위기, 교사의 지지와 자유로운 의사소통, 엄격한 규칙과 지시적분위기의 개인별 성장에는 기여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표 VI-2-16〉 잠재성정모형을 활용한 초등돌봄교실 이용^a의 효과 분석

독립변수	학교이용만족도 (Y_1)			전반적 행복감 (Y_2)			시간사용만족도 (Y_3)			친구지지와 즐거운 반분위기 (Y_4)			교사의 지지와 자유로운 의사소통(Y_5)			엄격한 규칙과 지시적분위기 (Y_6)		
	B	SE		B	SE		B	SE		B	SE		B	SE		B	SE	
고정효과																		
초기값, β_{00}	3.995 ^{***}	0.021		3.379 ^{***}	0.018		2.296 ^{***}	0.015		3.811 ^{***}	0.031		3.456 ^{***}	0.025		2.479 ^{***}	0.025	
기울기, β_{10}	-0.01	0.006		-0.108 ^{***}	0.008		-0.118 ^{***}	0.006		-0.19 ^{***}	0.013		0.119 ^{***}	0.012		-0.081 ^{***}	0.012	
(Y_1, Y_2, Y_3), β_{01}	-0.042	0.036		0.012	0.030		-0.01	0.024		-0.008	0.048		0.004	0.038		0.058	0.043	
$\beta_{10} \times (Y_1, Y_2, Y_3)$, β_{11}	0.017	0.010		-0.009	0.013		0.004	0.010		0.015	0.020		-0.002	0.020		-0.002	0.021	
무선효과																		
초기값 분산, τ_{00}	0.12 ^{***}	0.015		0.112 ^{***}	0.011		0.057 ^{***}	0.008		0.146 ^{***}	0.032		0.097 ^{***}	0.025		0.071 ^{**}	0.027	
기울기 분산, τ_{11}	0.006 ^{***}	0.001		0.008 ^{***}	0.002		0.005 ^{***}	0.001		-0.003	0.008		0.017 [*]	0.007		0.008	0.007	
Cov(τ_{00}, τ_{11}), τ_{01}	-0.013 ^{***}	0.004		-0.011 ^{**}	0.004		-0.013 ^{***}	0.003		-0.01	0.013		-0.01	0.011		0.005	0.011	
$\chi^2(df)$	47.451(20) ^{***}			151.812(7) ^{***}			226.791(7) ^{***}			482.548(7) ^{***}			234.145(7) ^{***}			16.734(7) [*]		

주: 참조집단 a=미이용

* $p \leq .05$, ** $p \leq .01$, *** $p \leq .001$.

다. 학교지원프로그램의 영향

초등학교에서 제공하는 학교지원프로그램 중 상대적으로 다수의 이용 경험이 있는 가족체험학습과 학교폭력예방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이용 경험이 있는 집단과 이용 경험이 없는 집단 간 배경 변인, 관련 요인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더불어 여러 결과 변인에 이러한 이용 경험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1) 가족체험학습

가) 가족체험학습 이용 추이

초등학교 3학년(10차)에서 초등학교 6학년(13차)까지 4년간 가족체험학습 이용자 수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해가 지날수록 가족체험학습 이용자 수의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VI-2-17〉 가족체험학습 이용자 수 추이

단위: 명, (%)

시기	미이용자 수		이용자 수		응답자 수	
10차 (초등3)	802	(54.0)	682	(46.0)	1,484	(100.0)
11차 (초등4)	760	(54.8)	626	(45.2)	1,386	(100.0)
12차 (초등5)	790	(58.3)	564	(41.7)	1,354	(100.0)
13차 (초등6)	1,118	(82.9)	231	(17.1)	1,349	(100.0)

나) 가족체험학습 이용 집단과 미이용 집단 간 차이 분석

(1) 배경변수에 따른 가족체험학습 이용 비교

가구 월 평균 소득, 모 최종학력, 부 최종학력, 부모의 취업상태(맞벌이, 외벌이, 미취업자), 거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에 따라 가족체험학습의 이용 경험 유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4년간 월 평균소득, 모 최종학력, 부 최종학력, 부모의 취업상태, 거주 지역에 따라서 가족체험학습 이용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2) 가족체험학습 이용의 효과 검증

가족체험학습의 이용 여부에 따른 학교이용만족도, 시간사용만족도, 전반적 만

족감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초등학교 3학년 시기(10차)부터 초등학교 6학년 시기(13차)에 대해 각기 독립표본 t검정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 5학년 시기에는 가족체험학습의 이용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학교이용만족도, 시간사용만족도, 전반적 행복감이 더 높았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는 가족체험학습의 이용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시간사용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그 외 다른 시기에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가족체험학습이 고학년 시기 아동의 학교이용만족도, 시간사용만족도, 전반적 행복감에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VI-2-18〉 초등3학년~초등6학년 시기의 가족체험학습 이용 집단과 미이용 집단 간 차이 분석

시기	종속변수	가족체험학습	N	M	SD	t
10차 (초등3)	학교이용만족도 (범위: 1~4)	미이용	795	2.99	0.89	-1.088
		이용	681	3.04	0.86	
	시간사용만족도 (범위: 1~3)	미이용	795	2.25	0.37	-1.288
		이용	681	2.27	0.38	
	전반적 행복감 (범위: 1~4)	미이용	795	3.30	0.46	-1.32
		이용	681	3.33	0.45	
11차 (초등4)	학교이용만족도 (범위: 1~4)	미이용	755	2.95	0.86	0.251
		이용	623	2.94	0.87	
	시간사용만족도 (범위: 1~3)	미이용	756	2.33	0.38	-1.305
		이용	623	2.36	0.39	
	전반적 행복감 (범위: 1~4)	미이용	756	3.31	0.46	-0.028
		이용	623	3.31	0.46	
12차 (초등5)	학교이용만족도 (범위: 1~4)	미이용	778	3.59	0.72	-2.090*
		이용	558	3.68	0.68	
	시간사용만족도 (범위: 1~3)	미이용	778	1.99	0.25	-2.112*
		이용	558	2.02	0.28	
	전반적 행복감 (범위: 1~4)	미이용	778	3.22	0.44	-2.573*
		이용	558	3.28	0.45	
13차 (초등6)	학교이용만족도 (범위: 1~4)	미이용	1,081	2.52	0.88	-1.182
		이용	228	2.60	0.86	
	시간사용만족도 (범위: 1~3)	미이용	1,081	1.95	0.25	-2.126*
		이용	228	1.98	0.27	
	전반적 행복감 (범위: 1~4)	미이용	1,081	2.96	0.49	-1.170
		이용	228	3.00	0.45	

* $p \leq .05$.

가구 월 평균 소득, 모 최종학력, 부 최종학력, 부모의 취업상태(맞벌이, 외벌이, 미취업자), 거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족체험학습의 이용이 학교이용만족도, 시간사용만족도, 전반적 만족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초등학교 3학년 시기부터 초등학교 6학년 시기까지 연도별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 시기에 가족체험학습의 이용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학교이용만족도, 시간사용만족도, 전반적 행복감이 더 높았다. 이는 초등학교 5학년 시기의 경우 가구 월 평균 소득, 모 최종학력, 부 최종학력, 부모의 취업상태(맞벌이, 외벌이, 미취업자), 거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등을 통제하더라도 학교이용만족도, 시간사용만족도, 전반적 행복감에 대해 가족체험학습의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연도에서는 그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VI-2-19〉 초등5학년 학교이용만족도에 대한 가족체험학습의 영향

독립변수	B	S.E.	β	t
상수	3.621	0.171		21.202***
월 평균소득	0.000	0.000	0.010	0.322
모 최종학력	0.029	0.028	0.038	1.032
부 최종학력	-0.043	0.025	-0.063	-1.727
부모의 취업상태 ^a				
맞벌이	-0.069	0.102	-0.050	-0.679
외벌이	-0.080	0.102	-0.057	-0.777
거주 지역 ^b				
대도시	0.129	0.092	0.091	1.399
중·소도시	0.099	0.091	0.071	1.088
가족체험학습 ^c	0.092	0.041	0.065	2.223*

주: 참조집단 a=미취업자

b=읍·면지역

c=미이용자

* $p \leq .05$, *** $p \leq .001$.

〈표 VI-2-20〉 초등5학년 시간사용만족도에 대한 가족체험학습의 영향

독립변수	B	S.E.	β	t
상수	2.006	0.064		31.138***
월 평균소득	0.000	0.000	-0.031	-1.021
모 최종학력	0.007	0.010	0.026	0.701
부 최종학력	-0.006	0.009	-0.022	-0.592

독립변수		B	S.E.	β	t
부모의	맞벌이	-0.015	0.038	-0.028	-0.387
취업상태 ^a	외벌이	-0.028	0.039	-0.052	-0.718
거주 지역 ^b	대도시	0.001	0.035	0.002	0.034
	중·소도시	0.010	0.034	0.019	0.297
가족체험학습 ^c		0.035	0.016	0.065	2.214*

주: 참조집단 a=미취업자

b=읍·면지역

c=미이용자

* $p \leq .05$, *** $p \leq .001$.

〈표 VI-2-21〉 초등5학년 전반적 행복감에 대한 가족체험학습의 영향

독립변수		B	S.E.	β	t
상수		2.878	0.107		26.816***
월 평균소득		0.000	0.000	-0.010	-0.339
모 최종학력		0.013	0.017	0.027	0.752
부 최종학력		0.035	0.016	0.080	2.211*
부모의	맞벌이	0.029	0.064	0.033	0.458
취업상태 ^a	외벌이	0.044	0.064	0.049	0.678
거주 지역 ^b	대도시	0.085	0.058	0.094	1.454
	중·소도시	0.065	0.057	0.074	1.141
가족체험학습 ^c		0.057	0.026	0.064	2.186*

주: 참조집단 a=미취업자

b=읍·면지역

c=미이용자

* $p \leq .05$, *** $p \leq .001$.

다)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가족체험학습 정책의 효과

(1) 배경변수에 따른 가족체험학습 참여의 개인별 변화 양상 비교

초등학교 3학년(10차)부터 6학년(13차)까지 4년 동안 가구 월 평균 소득, 모 최종학력, 부모의 취업상태(맞벌이, 외벌이, 미취업자), 거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에 따라 가족체험학습의 이용률의 개인별 변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범주형 종속변수가 포함된 잠재성장모형(Growth Model with Categorical Outcomes)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초기값(β_{00})의 분산은 유의미하였고, 기울기(β_{10})의 평균은 음수으로써 유의미하였고 기울기의 분산도 모두 유의미하였다. 여기서 초기값의 평균은 time이

0일 때 로짓(로그오즈)의 기댓값으로써 0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추정이 이루어진다. 기울기는 time이 1단위 증가할 때 기대되는 로짓의 변화량으로써 기울기가 음수이면 ‘시간 흐름에 따라 로짓이 작아진다’는 것이고, 이는 ‘시간 흐름에 따라 가족체험활동의 이용률(p)이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구 월 평균 소득, 모 최종학력, 부모의 취업상태, 거주 지역에 따라 해가 지남에 따른 가족체험학습 이용률의 증감은 나타나지 않았다.

〈표 VI-2-22〉 가족체험학습 이용의 개인별 변화 양상과 영향 요인 분석

독립변수	무조건모형		조건모형	
	B	SE	B	SE
고정효과				
초기값, β_{00}	0.000	0.000	0.000	0.000
기울기, β_{10}	-0.419***	0.048	-0.026	0.364
월 평균소득, β_{01}			0.000	0.000
모 최종학력, β_{02}			0.225	0.121
취업 상태 ^m	맞벌이, β_{03}		0.074	0.427
	외벌이, β_{04}		0.253	0.415
거주 지역 ⁿ	대도시, β_{05}		0.473	0.470
	중·소도시, β_{06}		0.491	0.463
기울기×월 평균소득, β_{11}			0.000	0.000
기울기×모 최종학력, β_{12}			-0.028	0.054
취업 상태 ^m	기울기×맞벌이, β_{13}		-0.082	0.191
	기울기×외벌이, β_{14}		-0.021	0.185
거주 지역 ⁿ	기울기×대도시, β_{15}		-0.235	0.209
	기울기×중·소도시, β_{16}		-0.121	0.205
무선효과				
초기값 분산, τ_{00}	2.869***	0.663	3.300**	0.772
기울기 분산, τ_{11}	0.196*	0.093	0.252*	0.108
초기값과 기울기 공분산, τ_{01}	-0.744**	0.242	-0.911***	0.283
AIC	3360.2		2905.2	
BIC	3383.2		2980.4	
Adjusted BIC	3367.3		2926.4	

주: 참조집단 m=미취업

n=읍·면지역

* $p \leq .05$, ** $p \leq .01$, *** $p \leq .001$.

(2)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가족체험학습 참여의 효과 검증

가족체험학습의 이용이 학교이용만족도, 전반적 행복감, 시간사용만족도, 친구 지지와 즐거운 반분위기, 교사의 지지와 자유로운 의사소통, 엄격한 규칙과 지시적 분위기의 개인별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였다. 이때 가족체험학습의 이용은 초등학교 3학년 시기(10차)의 이용 여부(1='이용', 0='미이용')와 초등학교 4학년 시기(11차)의 이용 여부(1='이용', 0='미이용')를 합한 값을 활용하였고, 학교이용만족도, 전반적 행복감, 시간사용만족도, 친구 지지와 즐거운 반분위기, 교사의 지지와 자유로운 의사소통, 엄격한 규칙과 지시적 분위기의 개인별 변화는 초등학교 3학년 시기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4년 간 측정 자료를 활용하였다.

〈표 VI-2-23〉은 가족체험학습 참여가 6개의 결과 요인의 개인별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것이다. 분석결과, 가족체험학습 참여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친구지지와 즐거운 반분위기의 초기값이 더 높았다. 그러나 가족체험학습 참여가 나머지 결과 요인에 대한 개인별 성장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2-23〉 가족체험학습 이용^a의 개인별 변화 양상의 효과 분석 결과

독립변수	학교이용만족도 (Y_1)			전반적 행복감 (Y_2)			시간사용만족도 (Y_3)			친구지지와 즐거움 반분위기 (Y_4)			교사의 지지와 자유로운 의사소통 (Y_5)			엄격한 규칙과 지시적 분위기 (Y_6)		
	B	SE		B	SE		B	SE		B	SE		B	SE		B	SE	
고정효과																		
초기값, β_{00}	3.993 ^{***}	0.032		3.358 ^{***}	0.025		2.291 ^{***}	0.020		3.745 ^{***}	0.041		3.433 ^{***}	0.032		2.508 ^{***}		
기울기, β_{10}	-0.024	0.014		-0.114 ^{***}	0.011		-0.119 ^{***}	0.008		-0.18 ^{***}	0.017		0.098 ^{***}	0.017		-0.097 ^{***}		
(Y_1, Y_2, Y_3), β_{01}	0.048	0.027		0.027	0.021		0.005	0.017		0.066 [*]	0.033		0.026	0.026		-0.021		
$\beta_{10} \times (Y_1, Y_2, Y_3)$, β_{11}	-0.015	0.012		0.004	0.009		0.001	0.007		-0.005	0.013		0.021	0.013		0.019		
무선효과																		
초기값 분산, τ_{00}	0.131 ^{***}	0.021		0.111 ^{***}	0.011		0.058 ^{***}	0.008		0.141 ^{***}	0.031		0.096 ^{***}	0.025		0.074 ^{**}		
기울기 분산, τ_{11}	0.008	0.004		0.008 ^{***}	0.002		0.005 ^{***}	0.001		-0.004	0.008		0.016 [*]	0.007		0.008		
Cov(τ_{00}, τ_{11}), τ_{01}	-0.012	0.008		-0.011 ^{**}	0.004		-0.014 ^{***}	0.003		-0.009	0.013		-0.01	0.011		0.005		
$\chi^2(df)$	12.4(7)			154.536(7) ^{***}			230.858(7) ^{***}			483.138(7) ^{***}			238.145(7) ^{***}			13.234(7)		

주: 참조집단 a=미이용

* $p \leq .05$, ** $p \leq .01$, *** $p \leq .001$.

2) 학교폭력예방교육

가) 학교폭력예방교육 이수자 수 추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4년 동안 학교폭력예방교육 이수자 수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이수자의 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I-2-24〉 학교폭력예방교육 이수자 수 추이

단위: 명, (%)						
시기	미이용자 수		이용자 수		응답자 수	
10차 (초등3)	625	(42.1)	859	(57.9)	1,484	(100.0)
11차 (초등4)	434	(31.6)	940	(68.4)	1,374	(100.0)
12차 (초등5)	429	(32.5)	892	(67.5)	1,321	(100.0)
13차 (초등6)	833	(64.3)	462	(35.7)	1,295	(100.0)

나) 학교폭력예방교육 이수 집단과 미이수 집단 차이 분석

(1) 배경변수에 따른 학교폭력예방교육 참여 비교

거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학교환경, 학교교육시설만족도 등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이용 경험 유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 3학년 시기에는 대도시와 중·소도시보다 읍·면지역에서 학교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참여가 더 높았고, 6학년 때는 대도시보다 읍·면지역에서 학교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참여가 더 높았다. 그 이외의 시기에는 거주 지역, 학교환경, 학교교육시설만족도에 따라서 학교폭력예방교육 이수 정도가 달라지지 않았다.

〈표 VI-2-25〉 초등3학년 학교폭력예방교육 이용 여부^a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독립변수		B	S.E.	Wald	Exp(B)
거주 지역 ^c	대도시	-1.242	0.417	8.878**	0.289
	중·소도시	-1.025	0.411	6.215*	0.359
학교환경		-0.069	0.107	0.421	0.933
상수항		1.622	0.573	8.025**	5.063

주: 참조집단 a=미이수자

c=읍·면지역

* $p \leq .05$, ** $p \leq .01$.

〈표 VI-2-26〉 초등6학년 학교폭력예방교육 이용 여부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독립변수	B	S.E.	Wald	Exp(B)
거주 지역 ^c				
대도시	-1.003	0.360	7.764**	0.367
중·소도시	-0.656	0.351	3.484	0.519
학교환경	-0.226	0.118	3.667	0.798
상수항	1.149	0.545	4.439*	3.156

주: 참조집단 a=미이용자

c=읍·면지역

* $p \leq .05$, ** $p \leq .01$.

(2) 학교폭력예방교육 참여의 효과 검증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이용 여부에 따른 친구지지와 즐거운 반분위기, 교사의 지지와 자유로운 의사소통, 엄격한 규칙과 지시적분위기, 사이버폭력, 아동안전의식 및 대처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연도별로 독립표본 t검정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이용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엄격한 규칙과 지시적분위기의 평균이 더 낮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에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이용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친구지지와 즐거운 반분위기, 교사의 지지와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평균이 더 높았다. 그러나 이외의 변수에서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이용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의 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표 VI-2-27〉 초등3학년~초등6학년 시기의 학교폭력예방교육 이수 집단과 미이용 집단 간 차이 분석

시기	종속변수	학교폭력 예방교육	N	M	SD	t
10차 (초등3)	친구지지와 즐거운 반분위기	미이용	622	3.94	0.84	0.034
		이용	854	3.94	0.82	
	교사의 지지와 자유로운 의사소통	미이용	622	3.37	0.58	0.457
		이용	854	3.35	0.54	
	엄격한 규칙과 지시적분위기	미이용	622	2.52	0.76	0.026
		이용	854	2.52	0.72	
11차 (초등4)	친구지지와 즐거운 반분위기	미이용	428	3.42	0.63	0.541
		이용	940	3.40	0.60	
	교사의 지지와 자유로운 의사소통	미이용	428	3.88	0.78	-0.821
		이용	940	3.92	0.77	
	엄격한 규칙과 지시적분위기	미이용	428	2.39	0.72	2.334*
		이용	940	2.30	0.68	

시기	종속변수	학교폭력 예방교육	N	M	SD	t
12차 (초등5)	사이버폭력	미이용	422	1.12	0.52	0.904
		이용	880	1.09	0.41	
	친구지지와 즐거운 반분위기	미이용	422	3.88	0.78	-1.975*
		이용	880	3.97	0.75	
	교사의 지지와 자유로운 의사소통	미이용	422	3.80	0.78	-2.118*
		이용	880	3.89	0.73	
13차 (초등6)	엄격한 규칙과 지시적분위기	미이용	422	2.43	0.75	1.863
		이용	880	2.35	0.68	
	아동안전의식 및 대처	미이용	796	4.06	0.66	-0.949
		이용	459	4.10	0.59	
	사이버폭력	미이용	796	1.18	0.48	0.848
		이용	459	1.16	0.46	
	친구지지와 즐거운 반분위기	미이용	796	3.20	0.60	-0.108
		이용	459	3.20	0.53	
	교사의 지지와 자유로운 의사소통	미이용	796	3.67	0.73	-1.194
		이용	459	3.72	0.66	
	엄격한 규칙과 지시적분위기	미이용	796	2.27	0.71	0.455
		이용	459	2.25	0.67	

* $p \leq .05$.

가구 월 평균 소득, 모 최종학력, 부 최종학력, 부모의 취업상태(맞벌이, 외벌이, 미취업), 거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학교환경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이용이 친구지지와 즐거운 반분위기, 교사의 지지와 자유로운 의사소통, 엄격한 규칙과 지시적분위기, 사이버폭력, 아동안전의식 및 대처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 5학년 시기에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이용한 집단일수록 사이버폭력이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머지 변수에 대한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VI-2-28〉 초등5학년 사이버폭력에 대한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영향

독립변수		B	S.E.	β	t
상수		1.385	0.222		6.237***
월 평균소득		-0.000	0.000	-0.007	-0.146
모 최종학력		0.007	0.030	0.013	0.235
부 최종학력		0.038	0.026	0.084	1.446
부모의	맞벌이	-0.319	0.141	-0.333	-2.263*
취업상태 ^a	외벌이	-0.294	0.142	-0.306	-2.076*

독립변수		B	S.E.	β	t
거주 지역 ^b	대도시	-0.071	0.098	-0.074	-0.725
	중·소도시	0.007	0.098	0.007	0.071
학교환경		-0.031	0.027	-0.053	-1.163
학교폭력예방교육 ^c		-0.094	0.047	-0.089	-1.989*

주: 참조집단 a=미취업자
b=읍·면지역
c=미이수자

* $p \leq .05$, *** $p \leq .001$.

다)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학교폭력예방교육 정책의 효과

(1) 배경변수에 따른 학교폭력예방교육 참여의 개인별 변화 양상 비교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4년 동안 거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과 학교환경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이용률의 개인별 변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범주형 종속변수가 포함된 잠재성장모형(Growth Model with Categorical Outcomes)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초기값(β_{00})의 분산은 유의미하였고, 기울기(β_{10})의 평균은 음수으로써 유의미하였고 기울기의 분산도 모두 유의미하였다. 여기서 초기값의 평균은 time이 0일 때 로짓(로그오즈)의 기댓값으로써 0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추정이 이루어진다. 기울기는 time이 1단위 증가할 때 기대되는 로짓의 변화량으로써 기울기가 음수이면 ‘시간 흐름에 따라 로짓이 작아진다’는 것이고, 이는 ‘시간 흐름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이용률(p)이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거주 지역과 학교환경에 따라 해가 지남에 따른 학교폭력예방교육 이용률의 증감은 나타나지 않았다.

〈표 VI-2-29〉 학교폭력예방교육 참여의 개인별 변화 양상과 영향 요인 분석

독립변수	무조건모형		조건모형	
	B	SE	B	SE
고정효과				
초기값, β_{00}	0.000	0.000	0.000	0.000
기울기, β_{10}	-0.406***	0.051	-0.429	0.483

독립변수		무조건모형		조건모형	
		B	SE	B	SE
거주 지역 ⁿ	대도시, β_{01}			-1.661*	0.802
	중·소도시, β_{02}			-0.969	0.783
	학교환경, β_{03}			-0.037	0.246
거주 지역 ⁿ	기울기×대도시, β_{11}			0.338	0.322
	기울기×중·소도시, β_{12}			0.245	0.314
	기울기×학교환경, β_{13}			-0.055	0.098
무선효과					
	초기값 분산, τ_{00}	4.303***	0.905	4.219**	1.391
	기울기 분산, τ_{11}	0.225*	0.097	0.178	0.134
	초기값과 기울기 공분산, τ_{01}	-0.980***	0.300	-0.865	0.453
	AIC	3374.1		1411.5	
	BIC	3397.1		1452.1	
	Adjusted BIC	3381.2		1417.2	

주: 참조집단 n=읍·면지역

* $p \leq .05$, ** $p \leq .01$, *** $p \leq .001$.

(2)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학교폭력예방교육 참여의 효과 검증

학교폭력예방교육 참여가 학교이용만족도, 전반적 행복감, 시간사용만족도, 친구지지와 즐거운 반분위기, 교사의 지지와 자유로운 의사소통, 엄격한 규칙과 지시적분위기의 개인별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였다. 이때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이용은 초등학교 3학년 시기의 이용 여부(1='이용', 0='미이용')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용 여부(1='이용', 0='미이용')를 합한 값을 활용하였고, 학교이용만족도, 전반적 행복감, 시간사용만족도, 친구지지와 즐거운 반분위기, 교사의 지지와 자유로운 의사소통, 엄격한 규칙과 지시적분위기의 개인별 변화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4년 동안의 측정 자료를 활용하였다.

〈표 VI-2-30〉은 학교폭력예방교육 참여가 6개의 결과 요인의 개인별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것이다. 분석 결과, 학교폭력예방교육 참여가 6개의 결과 요인의 개인별 성장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2-30〉 학교폭력예방교육 참여*의 개인별 변화 양상의 효과 분석 결과

독립변수	학교이용만족도 (Y_1)			전반적 행복감 (Y_2)			시간이용만족도 (Y_3)			친구지지와 즐거운 반분위기 (Y_4)			교사의 지지와 자유로운 의사소통(Y_5)			엄격한 규칙과 지시적분위기 (Y_6)		
	B	SE		B	SE		B	SE		B	SE		B	SE		B	SE	
고정효과																		
초기값, β_{00}	4.016***	0.039		3.345***	0.031		2.311***	0.024		3.456***	0.025		3.472***	0.039		2.483***		
기울기, β_{10}	-0.028	0.017		-0.106***	0.013		-0.128***	0.010		0.119***	0.012		0.086***	0.020		-0.06**		
(Y_1, Y_2, Y_3), β_{01}	0.016	0.027		0.032	0.021		-0.014	0.017		0.004	0.038		-0.012	0.026		0.002		
$\beta_{10} \times (Y_1, Y_2, Y_3)$, β_{11}	-0.008	0.012		-0.003	0.009		0.008	0.007		-0.002	0.020		0.025	0.013		-0.015		
무선효과																		
초기값 분산, τ_{00}	0.134***	0.021		0.111***	0.011		0.057***	0.008		0.097***	0.025		0.096***	0.025		0.075**		
기울기 분산, τ_{11}	0.008	0.004		0.008***	0.002		0.005***	0.001		0.017*	0.007		0.016*	0.007		0.008		
$\text{Cov}(\tau_{00}, \tau_{11})$, τ_{01}	-0.013	0.008		-0.011**	0.004		-0.013***	0.003		-0.01	0.011		-0.01	0.011		0.005		
$\chi^2(df)$	7.004(7)			154.808(7)***			235.282(7)***			234.145(7)***			236.307(7)***			16.988(7)*		

주: 참조집단 a=미참여
* $p \leq .05$, ** $p \leq .01$, *** $p \leq .001$.

3. 소결

6장에서는 2008년 출생 패널 아동의 발달 시기별로 추진되었던 다양한 기본계획과 실행 제도를 정리하고 이 중 한국아동패널 자료로 정책 추진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일부 제도를 선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 영향 분석을 실행하였다. 본 장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본 육아정책은 영유아 무상보육, 초등돌봄교실, 학교지원프로그램 중 가족체험학습, 학교폭력예방교육이다.

2008년 출생한 패널 아동들은 2013년(6차) 시기부터 어린이집 무상보육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무상보육 정책을 통해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가계 교육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졌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어머니의 취업 비율이 무상보육 시행 전보다 시행 후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어머니 취업률 증가가 아동 연령의 증가로 인한 다양한 요인의 영향일 수 있어 무상보육 효과라고 단순히 해석하기는 어려웠다. 무상보육 시행 전과 시행 후의 가계 교육비 변화는 극명히 드러났는데, 무상보육 시행 후 가계 교육비가 이전보다 2/3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데에 성과가 있었다.

다음으로 정책 영향을 분석한 제도는 ‘초등돌봄교실’이었다. 초등돌봄교실은 전 학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나, 한국아동패널 아동이 초등학교 시기였을 때에는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시기(8차, 9차)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추이 분석에서 초등돌봄교실의 이용 비율이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12.6%가 모든 학년 중 가장 높다는 점을 볼 때 초등돌봄교실이 보편적 돌봄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패널 아동의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시기에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한 가구와 이용하지 않은 가구의 특성을 비교해보면, 제도의 취지에 맞게 맞벌이 가구의 아동들이 초등돌봄교실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돌봄교실 이용 경험이 있는 가구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사교육 이용 시간이 적고 사교육 서비스 비용이 더 낮다는 점에서 초등돌봄교실의 긍정적 영향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초등돌봄교실 이용이 개인의 다양한 측면의 변화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초등돌봄교실 참여가 아동의 학교이용만족도, 전반적 행복감, 시간사용만족도, 친구지지와 즐거운 반 분위기, 교사의 지지와 자유로운 의사소통, 엄격한 규칙과 지시적 분위기의 개인별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패널 아동이 초등학교 3학년(10차)부터 초등학교 6학년(13차)까지 조사되었기 때문에 4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가족체험학습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 시기까지 이용률이 40%대로 비슷하였으나, 초등학교 6학년 때에 가족체험학습 이용 경험이 있는 패널 가구 비율이 17.1%로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 중학교 입학 앞두고 가족체험학습을 가기보다는 학교생활에 더 집중하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가족체험학습 이용 경험이 있는 집단과 미이용 집단을 비교한 결과,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족체험학습 이용 경험이 있는 집단이 학교이용만족도, 시간사용만족도, 전반적 행복감이 높게 보고되어 가족체험학습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학교폭력예방교육 역시 가족체험학습과 비슷하게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까지의 이수 비율이 60% 전후로 비슷하게 유지되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수 비율이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 시기에 대도시보다 읍면지역에서 학교폭력예방교육 참여가 더 높게 보고되었다.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 간의 차이는 패널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달리 나타났는데,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에서 엄격한 규칙과 지시적 분위기 수준이 더 높았다. 유사한 방향으로 초등학교 5학년 시기에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받은 집단에서 친구지지와 즐거운 반 분위기, 교사의 지지와 자유로운 의사소통 수준이 높았다. 그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5학년 시기에 학교폭력예방교육 이수한 아이들의 사이버폭력 경험이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아이들보다 더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이 사이버폭력을 줄이고 또래관계에서의 긍정적 분위기 조성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정책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가 드문 상황에서 본 연구가 영유아 무상보육, 초등돌봄교실, 가족체험학습, 학교폭력예방교육의 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아동의 변화가 시간의 흐름, 연령 증가에 따라 일어나는 것인지, 혜택 받은 정책의 영향으로 변화된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어떠한 정책을 수혜 받은 집단과 수혜 받지

많은 집단으로 구분되는 경우 다양한 배경변인을 통제한 가운데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전 연령과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부 정책(예: 영유아 무상보육)은 비교 집단이 없어서 효과를 뚜렷하게 검증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한국아동패널의 데이터를 통해 유의미한 정책적 효과를 검증하고 아동의 긍정적 발달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밝히는 것은 자료의 특성으로 인해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VII

결론 및 시사점

01 결론

02 시사점

Ⅶ. 결론 및 시사점

7장에서는 본 연구의 전체적 흐름과 주목해야 할 결론을 집약하고, 앞으로의 육아정책 지원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1. 결론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3년의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와 분석법을 통해 패널 아동의 성장발달 변화를 전반적으로 살피고, 관련된 육아정책의 영향을 알아보면서 앞으로의 육아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표본 유지와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패널 이탈 분석을 실시하였다(2장). 이후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을 근거로 아동(3장), 부모(4장), 가구(5장), 정책(6장) 환경을 구분하여 다양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과 관련된 주제는 초등 시기에 미디어 이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하고자 아동의 ‘미디어와 사회성 발달’에 초점을 두었다(3장). 부모와 관련된 주제는 ‘부부 갈등과 아동 발달’(4장), 가구 위험요인과 관련되어서는 ‘어머니 우울과 아동의 신체·정신건강’(5장)으로 선정하였다. 정책 부문(6장)은 패널 데이터로 정책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정책으로 범주를 좁혀서 영유아 시기에는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해 탐색해보았으며, 학령기에는 초등돌봄교실, 학교지원프로그램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미디어와 사회성 발달, 부부갈등과 아동 발달, 어머니 우울과 아동의 신체·정신건강 분석은 공통적으로 잠재성장혼합모형을 통해 ‘대상-중심 접근’을 시도하여 종단연구의 특성을 살리고자 하였다(3, 4, 5장). 6장 정책 부분에서도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여 패널 아동의 삶에 정책 수혜가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력을 살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023년에 공개 예정인 13차 자료를 포함하여 심층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추후 한

국아동패널의 초등학교 시기 전반을 포함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전 심층 연구들과는 달리 초등학교 시기 6년을 아우르고자 노력한 점, 영유아기의 누적된 경험이 학령기에 미치는 발달적 영향을 총체적으로 보는 연구모형의 적용 등은 앞으로의 한국아동패널 관련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새로이 제시하였다 볼 수 있다. 또한 아동발달과 관계된 다양한 발달영역을 결과변인으로 이용하여 미래세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다각도로 살펴본 점에도 강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육아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의 영향력을 패널 데이터로 살펴보고자 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표 VII-1-1〉 각 장별 주요 결과 정리

범주	주제	주요 결과
표본이탈 (2장)	한국아동패널 표본이탈 분석	• 어머니의 특성이 아버지 특성보다 패널이탈에 더 많은 영향 미침. • 영아기 이탈집단: 가구소득 낮고, 어머니 우울 높고, 고졸 이하 비중 높음. • 유아기 이탈집단: 부부갈등 점수가 높고, 이사 경험 많음. • 아동기 이탈집단: 양육스트레스, 일상스트레스, 문제행동 높음. • 각 이탈집단 특성별 이탈 방지 계획 수립 필요
아동 (3장)	미디어와 사회성 발달	• 여학생일수록, 가정의 지각된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잘 알고 있고, 관련 활동을 명확히 지도하는 부모 감독이 높을수록 ‘고-유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적아짐. •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고-유지’ 집단에 속할 가능성 증가 • 미디어 이용 집단 유형에 따른 아동 정서사회성 차이: ‘고-유지’ 집단 또래소외,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 비속어 사용, 부모 미디어 중독 높음. ‘중간-증가’ 집단은 교우관계, 교사관계, 공동체 의식 높음.
부모 (4장)	부모 양육과 아동 발달	•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이 월평균 가구소득과 학력수준이 가장 높음. • 대체로 ‘최하수준 부부갈등 유지’ 집단이 학업수행능력, 자아존중감, 삶의만족도, 학교적응 면에서 우수하고, 학업스트레스가 낮음.
가구 (5장)	가구 내 위험 요인과 신체·정신건강	• 영아기, 유아기 모두 어머니 우울 ‘저수준 유지’ 집단이 고소득이고, 부부갈등이 낮고, 주관적 건강상태 좋게 보고함. • 신체건강: 영아기 어머니 우울 ‘고수준 유지’ 집단이 알레르기 발병률 높음. • 정신건강: 유아기 어머니 우울 ‘저수준 유지’ 집단과 ‘저수준 증가’ 집단이 ‘고수준 유지’ 집단보다 행복감 높음.
정책 (6장)	한국아동패널과 육아정책	•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 영향: 어머니 취업비용 증가, 가계 교육비 절감 • 초등돌봄교실: 맞벌이 가구 이용 높음. 초등돌봄교실 유경험 가구 사교육 이용 시간 짧고 비용 낮음. • 가족체험학습: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족체험학습 유경험 집단이 학교

범주	주제	주요 결과
		이용만족도, 시간사용 만족도 전반적 행복감 높음. • 학교폭력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이수 집단이 엄격한 규칙, 지시적 분위기 수준 낮고(초등4), 친구지지, 즐거운 반 분위기, 교사의 지지와 자유로운 의사소통 수준 높고, 사이버폭력 경험 낮음(초등5).

2. 시사점

본 절에서는 2장부터 6장까지의 심층분석을 통해 공통적으로 제기된 이슈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한국아동패널과 육아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가. 패널 관리 및 정책 관련 시사점

1) 영아기 어머니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필요

본 심층연구에서는 영아기 어머니의 정신건강이 패널 유지와 아동의 발달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우선, 2장 패널 이탈 분석을 통해 어머니 우울이 높을수록 패널에서 조기 이탈할 확률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3장에서 학령기의 미디어 중독이 어머니 정신건강과도 연관이 되어 있었는데, 아동이 미디어 고위험 집단에 속할수록 어머니가 정서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셋째, 5장에서는 영유아기 어머니 우울이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아동 신체·정신건강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출산 후 산후우울증을 시작으로 지속될 수 있는 어머니의 우울에 조기 개입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패널 초기 우울 수준이 높은 어머니를 대상으로 서비스 연계나 지원을 시행하는 것이 패널 유지 관리를 위한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지지한다.

자녀 출생신고를 할 때 산후우울증에 대한 정보를 가정에 전달하고(영상, 브로슈어 등), 주변 가족들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자기 진단할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 해당사항이 몇 개 이상인 경우 산후우울증 위험성이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등 예방과 진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2) 부부관계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필요

본 연구의 심층분석을 통해 패널 가구의 부부관계가 패널 유지와 아동 발달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2장 패널 이탈 분석에서는 유아기에 패널에서 이탈한 집단의 부부갈등 점수가 다른 시기의 이탈집단이나 유지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4장에서는 영유아기 부부갈등 수준이 아동의 초등학교 시기의 학업수행능력, 학업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학교적응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기의 부모의 부부갈등이 자녀 발달과정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패널 유지를 위해서 부부갈등이 높은 가정을 대상으로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개별적인 지원을 고려해볼 만하다. 또한 집단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조심스러운 경우 패널 가구 대상 부모교육 안에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자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던 부부 사이에 대화가 줄어들고 결국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상기시키며, 의식적으로 서로에게 격려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작은 실천을 촉구하는 영상을 제공하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우울과 부부갈등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를 총체적인 시스템 안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즉, 어머니, 아버지 개인의 변화와 관계적인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전체 가정의 분위기가 변화하고, 이에 따라 긍정적인 아동 발달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3) 미디어 중독 예방 교육 필요

미래세대의 생애과제 중 주목받고 있는 주제로 아동의 미디어 이용이 꼽힌다. 패널 아동 초등학교 3학년 시기부터 미디어 중독과 관련된 설문이 추가되었는데, 그 이후에 미디어가 아동의 집행기능, 학교적응, 또래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본 보고서 3장에서는 미디어 이용 고위험 집단이 학교 내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과 비속어 사용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6장 정책 영향을 검토한 부분에서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집단이 비이수 집단에 비해 친구지지와 즐거운 반 분위기, 교사의 지지와 자유로운 의사소통 수준이 높고 사이버폭력을 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가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학교폭력예방교육처럼 미디어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구축하고 사이버폭력 노출 위험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미디어 중독을 아동 개인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아동을 둘러싼 전체 체계를 고려하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아동이 왜 미디어에 몰입하게 되었는지, 환경적으로 아이들이 미디어를 통해 여가를 즐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점검해보아야 한다.

패널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미디어 중독 예방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패널 유지를 위한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더 넓은 범위로 교육부 또는 교육청 차원에서 ‘미디어 건강하게 이용하기’ 등과 같은 아동 연령 맞춤 교육 프로그램과 영상을 만들고 각 학교와 유치원에 보급하여 아동의 미디어 이용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도 가능하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미디어를 더 많이 이용할수록 자녀가 미디어 중독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본 심층분석 연구의 내용을 근거로 온 가정의 미디어 중독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 전반의 인식개선과 아동을 둘러싼 환경의 협력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나.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신규패널)을 위한 제안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21년부터 새롭게 실시하고 있는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과 관련하여 본 심층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패널 유지 관리와 정책 효과성 관련 설문 고안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의 출산을 시작으로 가정에서 수혜 받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관련된 정책 성과지표를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변인을 조사에 포함하는 것을 제안한다. 본 심층연구에서 정책 효과성 분석을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정책의 성과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는 것이었다. 기존의 한국아동패널의 경우 정책을 수혜 받은 경험은 있지만 물었고, 관련된 성과지표가 정책 수혜 전과 후에 설문으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설문의 구조가 마련되어있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녔다. 따라서 새로운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은 관련된 정책과 해당

지표의 성과지표를 반영하는 설문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둘째, 교육·보육의 비용지원뿐만 아니라, 이에 관련된 부모 지원 프로그램, 아동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면의 정책적인 요소들을 종단적으로 연구에 포함하길 제안한다. 본 심층분석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 여부에 따른 차이를 검토하였는데, 프로그램 이수집단과 비이수 집단 간의 차이를 종단적으로 보면서 더 강화해야 할 프로그램과 보완해야 할 프로그램들을 구분할 수 있었다. 본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진로탐색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분석이 있는데, 진로탐색프로그램 이수는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일부 프로그램들은 아동의 실질적 발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 내용이나 방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추후에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을 통해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토하는 일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미있을 것이다.

셋째,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의 보고서에 대해 이전해와 달라진 정책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부분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한다. 본 심층분석 연구에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패널 아동과 관련된 정책들을 정리하면서 제도의 내용이 해마다 꾸준히 변화됐음을 확인하였다. 아동의 성장발달에 정책이 긴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러한 정보가 함께 제공된다면 추후 신규 패널 데이터가 일반에 공개되는 시기에 정책과 관련된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국 아동 패널에서 다루었던 중요한 변인들을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에 일관되게 포함하여 2008년 출생아와 2022년 출생아 간의 특성을 비교해보는 것을 제안한다. 한국아동패널과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이 시대를 대표하는 아동패널 자료인 만큼 2000년대와 2020년대의 아동은 어떠한 점이 유사하고 상이한지 비교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본 연구와 같은 심층분석 연구를 만들어 본 제안점을 반영하는 분석을 해보는 것을 제안한다.

다섯째, 어머니 우울이 높은 집단이 패널 이탈이 높았던 한국아동패널 심층분석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에 어머니 우울이 높은 가구에 대해 선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추천한다. 산전에 우울이 높은 어머니는 산후우울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패널 유지를 위해서도 이들 집단에 대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임신기 우울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나누어 각기 가구의 특성, 아동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맞춤 지원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혹은 이들 집단의 이탈을 막고 조사의 표본을 유지하기 위해 우울 수준이 높은 어머니 집단에 대해 과대표집을 시도하는 것도 방법이다.



참고문헌

- 강민철, 김동민, 김수임(2012). 산후우울증 유병률 및 관련요인에 대한 메타연구: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1), 149-168.
- 강은진(2021). 아동권리측면에서 바라본 유아 미디어 이용과 교육.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제69호, 15-22.
- 강하라(2021).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 갈등이 자녀의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에서 모-자녀 상호작용과 자녀 미디어 기기 중독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5), 177-196.
- 고홍석(2017). 디지털 격차와 삶의 대한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세대별, 사회경제적 지위, 도시-농촌 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5), 633-641.
- 공성인, 심미경(2020).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및 어머니의 양육민감성이 학령초기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령전 문제행동 및 학교준비도의 이중매개효과. 인지발달장애학회지, 11(4), 71-88.
- 공영숙, 임지영(2021).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그릿, 집행기능 곤란 및 미디어기기 과의존 간의 구조적 관계.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9(3), 387-40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 관계부처합동(2009).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 보완판, 함께가는 가족 2010.
- 관계부처합동(2010).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 기본계획 2008~2012.
- 관계부처합동(2011).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11~2015) 「2015 가족행복 더하기」.
- 관계부처합동(201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 관계부처합동(2014).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요약).
- 관계부처합동(2015). 제1차('15~'19) 아동정책 기본계획.
- 관계부처합동(2018a).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보완) -2016~2020-.

- 관계부처합동(2018b).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 관계부처합동(2020). 제2차('20~'24) 아동정책 기본계획.
- 교육과학기술부(2013).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
- 교육부(2018).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 -공공성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 혁신 방안-.
- 교육부(2020).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안)('20~'24).
- 교육부(2021). 2021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 교육부, 17개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2022).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 기쁘다(2018). 부모의 가족 상호작용과 양육효능감, 아동 문제 행동과 행복 간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열린부모교육연구, 10(1), 67-94.
- 길혜지, 황정원(2017).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취학 전 아동의 문제행동 차이 분석. 육아정책연구, 11(1), 127-154.
- 김경민(2021).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 기기 중독을 매개로. 육아정책연구, 15(2), 75-96.
- 김미숙, 전진아, 하태정, 김효진, 오미애, 정은희, 최은진, 이봉주, 김선숙.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선희(2017). 저소득층 가정 유아의 행동문제에 대한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종단적 영향. 유아교육연구, 37(5), 57-78.
- 김세리, 이강이(2016).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환경자극 및 유아의 행동문제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보육지원 학회지, 12(6), 41-58.
- 김수정, 구은미(2019). 양육 실제, 아동의 미디어 중독, 언어 발달의 구조 관계. 아동과 권리, 23(4), 663-682.
- 김숙령, 김미정, 조수경(2014). 어머니심리특성과 부부관계특성이 영아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부부관계특성을 매개효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19(4), 105-124.
- 김연하(2021). 유아기 기질 유형과 만 9세 미디어 사용의 종단적 관계. 육아정책연구, 15(3), 81-100.
- 김영미, 박윤조(2020). 학령초기 교사-아동관계, 또래애착, 학업수행능력, 미디어

- 중독 간 구조적 관계: 아동의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2), 283-303.
- 김유선, 박종실, 김영희(2018). 부모의 부부갈등, 우울,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5(1), 135-155.
- 김은미, 정화음(2006).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격차에 관한 탐색, 언론정보연구, 43(2), 125-161.
- 김은설(2018).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연구. 발달지원연구, 7(1), 19-34.
- 김은설(2020).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 사이버비행 감수성, 조기 대처가 답. 육아정책Brief 통권 제83호.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 도남희, 송요현, 왕영희, 이예진, 정영혜(2012). 한국아동패널 2012 심층 분석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 배윤진, 김근진, 조혜주, 김혜진(2020).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0(한국아동패널Ⅱ).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 최정원, 장혜원, 조혜주, 김희수(2019).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9(한국아동패널Ⅱ).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영, 임부연, 강은진, 고영미, 김진숙, 문무경, 이경화, 이미화, 이완정, 이정옥, 정선아(2019). 누리과정 개정 정책 연구. 교육부·충청남도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
- 김은향(2020).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아동 스마트미디어기기 의존, 집행기능 곤란, 화용언어능력의 구조적 관계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7), 1037-1059.
- 김은혜, 장경은(2021). 부부갈등이 유아기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의 조절효과.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6-212.
- 김종민, 최은아(2019).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또래애착, 미디어 이용시간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미디어중독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18(4), 197-225.
- 김종훈, 이지영, 성지현(2013).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및 양육 관련 변인이 2 세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양육방식의 매개적 역할. 아동학회지, 34(6), 77-96.

- 김지현(2022). 한국아동, 코로나19 전후의 여가시간 사용 및 생활습관의 변화. 육아정책Brief 통권 제91호. 육아정책연구소.
- 김지현, 김동훈, 조미라, 배윤진, 김혜진, 박은영(2021). 한국아동 성장발달 중단 연구 2021(한국아동패널Ⅱ). 육아정책연구소.
- 김진경, 서주현, 배희분(2016). 어머니의 출산 전·후 우울과 양육스트레스가 영아 발달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0(4), 591-611.
- 김춘경, 조민규(2017).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어머니의 우울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중단적 관계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06, 33-56.
- 김현옥(201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육아지원서비스의 조절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89, 171-195.
- 김현옥(2015).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스트레스가 빈곤가족과 비빈곤가족 영아의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비교. 아동교육, 24(1), 119-139.
- 김환남, 이선애, 이은경, 천재현, 김성희(2014). 스마트미디어 노출 환경이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4(4), 127-153.
- 노성향(2015). 가정환경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2(4), 21-35.
- 노지운, 신나나(2020) 부부갈등이 아동의 실행기능, 정서조절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수면의 매개적 역할. 아동학회지, 41(6), 51-66.
- 대한민국정부(2010). 2006-2010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보완판).
- 대한민국정부(2011). 2011-2015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대한민국정부(2016). 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도남희, 이정원, 김지현, 조혜주, 박은영, 김희수(2018). 한국아동 성장발달 중단 연구 2018(한국아동패널Ⅱ). 육아정책연구소.
- 민미희(2018).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 긍정적 양육,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성별간 다집단 분석. 육아지원연구, 13(4), 101-126.
- 민미희, 김정민, 김지현(2016). 부부관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긍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2(6), 103-121.

- 민병수(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영, 심보민, 김윤서, 강민주(2021). 학령 초기 아동의 미디어 이용시간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9(2), 233-243.
- 박주연, 최영희, 황리라, 박남심(2019). 어머니의 우울과 유아의 사회성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놀이치료연구-한국놀이치료학회*, 22(1), 1-19.
- 박진희, 손수연(2016). 보호요인으로서의 교사-유아 상호작용: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유아의 문제행동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 *유아교육연구*, 36(2), 169-191.
- 박찬화, 이윤선(2015). 어머니의 산후 우울감과 만 2 세 영아의 의사소통능력 간의 관계.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5), 113-134.
- 박천진, 정혜원(2019). 부모-자녀 상호작용 및 교사-아동 관계와 미디어기기 중독과의 관계: 아동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24(5), 69-86.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2019).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 배소영, 정연구(2015). 미디어 이용은 영유아 언어발달을 촉진하는가?: 텔레비전, 스마트폰, 책 읽어 주기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9(6), 67-93.
- 보건복지가족부(2009). 아이사랑플랜(2009~2012).
- 보건복지부(2008-2019). 각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3).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 보건복지부(2017).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 서고운(2017). 부모의 결혼만족도가 아동의 또래 놀이 행동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와 어머니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8(6), 79-91.
- 서고운(2018). 아버지와 어머니의 우울과 음주 행동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가족 기능의 매개 효과와 아동 성별의 조절 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3(2), 3-28.
- 서석원, 우수경(2016).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심리적 특성의 매개효과. *유아교육학논집*, 20(2), 519-539.

- 서영주, 김영근(2020). 부부갈등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종단적 관계에서 놀이성을 통한 또래 놀이방해 행동의 조절된 매개효과. 정서·행동장애 연구, 36(3), 251-269.
- 서재화, 김현경(2018). 아동의 초등학교적응 및 집행기능의 종단적 발달경로: 어머니의 활동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기술의 역할. 유아교육연구, 38(5), 107-130.
- 신광우, 김동일, 정여주, 이주영, 이윤희, 김명찬, 강은비, 금창민, 남지은(2011). 스마트폰중독 진단척도 개발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 심현숙, 박경빈(2021).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미디어기기 의존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 이점과 갈등을 매개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5), 559-572.
- 안수빈, 강보람, 이강이(2017). 아동의 미디어 이용시간, 문제행동,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아동학회지, 38(2), 191-204.
- 안혜진(2018).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우울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종단적 관계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0), 931-951.
- 여성가족부(2006). 새싹플랜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2006~2010)-.
- 여성가족부(2022). 202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안내.
- 연은모, 윤해옥, 최효식(2016). 부모의 우울, 지각된 가족기능, 양육태도,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6(2), 243-269.
- 연은모, 최효식(2019).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 양육효능감, 자녀의 집행기능곤란, 학교적응 간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6), 261-285.
- 연은모, 최효식(2020a). 아버지 양육참여 변화 유형에 따른 자녀의 문제행동 및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차이 비교: 잠재계층성장모형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1(1), 468-476.
- 연은모, 최효식(2020b). 아버지 우울 변화 양상에 따른 양육행동 및 자녀의 문제행동, 학교적응 차이 비교.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1(4), 337-345.
- 오새니, 권수진, 이상희(2016). 아버지 특성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구조모형 분석. 아동교육, 25(1), 161-177.

- 우수정(2016).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또래 상호작용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2(2), 41-55.
- 윤해옥, 최효식(2016). 부모의 부부갈등, 결혼만족도, 유아 발달 간 관계에 대한 중단연구: APIM 모형의 적용. 유아교육연구, 36(3), 357-378.
- 이선남, 이경옥(2015). 유아의 초기 발달수준과 또래상호작용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35(4), 381-396.
- 이설아, 윤희진, 김혜영(2021).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업수행능력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유아기 또래놀이행동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2(3), 371-381.
- 이소영(2017). 임신·출산 지원 보건의료 정책의 현황과 추진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49, 34-44.
- 이소은, 김미나(2021). 아동의 미디어 이용시간의 변화가 미디어중독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육비평, (47), 212-235.
- 이소현(2018).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8(2), 117-127.
- 이어리, 이강이(2012). 부모요인, 친구요인, 심리적 요인이 초등학생의 중독적인 휴대전화 사용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1(2), 27-39.
- 이은해, 김명순, 전해정, 이정림, 이윤선, 김주혜, 조수영, 정주희(2008).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 서비스에 대한 종단적 효과 연구. 미발간.
- 이재림, 옥선화(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족생활사건, 사회적 지원, 자녀의 지원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5), 49-63.
- 이정림, 이정원, 김진경, 송신영, 왕영희, 이예진, 이숙, 박혜원, 나종혜(2010). 한국아동패널 제1차 심층조사 보고서.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림, 최지은, 이민경, 강은진, 이예진, 송신영, 김진미, 김길숙, 송요현, 김소아, 김신경, 김영호, 권지원, 홍수중(2015). 한국아동패널 2008-2014 자료 심층 분석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이주리(2011). 출산 의도 및 부·모 양육참여와 영아 발달 간 관계. 인간발달연구, 18(2), 43-57.
- 이형민(2015). 부부갈등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인지발달장애학회지, 6(2), 119-136.

- 이형실(2016).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부갈등, 우울, 양육스트레스와 양육 행동의 관계. *놀이치료연구*, 20(3), 17-28.
- 이혜진, 이소연(2021). 부모의 공동양육과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 *초등교육연구*, 34(1), 221-243.
- 이희정(2012). 어머니 우울이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1(2), 230-258.
- 임선아(2019).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또래상호작용의 종단적 매개효과 검증. *유아교육연구*, 39(1), 5-22.
- 임양미(2020).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양립 갈등, 강압적 양육행동, 초등학교 자녀의 미디어기기 의존 및 집행기능 곤란 간의 구조적 관계. *학부모연구*, 7(4), 77-97.
- 임현주(2014). 유아의 기질 및 가정환경과 또래 상호작용이 만 3세 유아의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1(4), 183-201.
- 임현주(2016). 유아의 기질, 부모의 양육변인 군집에 따른 유아의 문제행동 차이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36(1), 37-55.
- 장영은(2014).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양육행동 및 가정환경과 유아의 어린이집 또래관계 부적응. *육아정책연구*, 8(2), 45-64.
- 장영은, 성미영(2015). 유아의 가정환경과 또래유능성의 관계에서 언어발달의 역할.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6), 1-18.
- 장원호(2020). 취학 전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모-자녀 상호작용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 25-51.
- 장원호, 김민진, 이지영, 권정아(2018).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교사효능감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38(4), 379-398.
- 장희선(2022). 초등학생 집행기능곤란의 변화궤적 및 특성과 예측요인: 성격유형, 미디어기기 중독 차이분석과 부모요인 예측요인. *교육학연구*, 60(1), 321-349.
- 전홍주, 최유경, 최향준(2013).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영아의 사회성 발달 간의 관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7(3), 365-384.

- 정현숙(2004). “결혼전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91-101.
- 조병은, 서동인, 신화용, 정현숙(1998). 편모가족의 어머니와 자녀의 긍정적 변화에 미치는 자원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1), 13-21.
- 조용래(2007). 정서조절곤란의 평가: 한국판 척도의 심리측정적 속성. 한국심리학회: 임상, 26(4), 1015-1038.
- 조운주, 김은영(2014). 유아의 기질 및 부모 양육방식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8(2), 155-174.
- 조재숙, 박재학(2017).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Stress on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 The Moderating Effects of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Global Creative Leader, 7(2), 1-20.
- 지성애, 정대현(2006). 초등학교 일학년용 학교적응 척도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7(1), 1-15.
- 최선녀(2015).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영아기질, 양육행동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6(8), 5160-5171.
- 최유석, 임지영, 권유정(2022). 초등학교의 미디어기기 과다사용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학업수행능력과 시간사용만족도의 다중매개효과. 아동교육, 31(2), 239-252.
- 최윤경, 강상진, 홍세희, 임준범, 이예진, 김소아, 김진영, 우석진, 권지원, 홍수중, 김신경, 송신영, 배윤진, 이진화, 민정원, 박진아(2014). 한국아동패널 2014 심층분석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최혜선, 한세영(2021). 부모의 성취압력이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업스트레스와 그릿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8), 499-510.
- 최효식, 윤해옥, 연은모(2015). 어머니-아버지 간 아버지 양육참여 지각 차이와 유아의 상호작용적 또래놀이 간의 관계: 부부갈등, 우울, 긍정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35(1), 153-174.
- 최효식, 윤해옥, 연은모(2016).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긍정적 양육태도,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 관계에 대한 단기 종단연구: 자기-상대방

- 상호의존모형 (APIM)의 적용. 유아교육학논집, 20(2), 495-517.
- 하민경(2020).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유아 내재화 문제행동, 아버지 양육참여와 유아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7), 905-925.
- 한국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2017). 2017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 한국아동청소년패널(2010). 초4 패널(1차) 삶의 만족도.
-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대응센터(iapc.or.kr). 'K-척도(인터넷중독 진단척도) 청소년 관찰자용.
- 한국정보화진흥원(2014). 정보문화실태조사.
- 한은수(2020).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미디어기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인문사회 21, 13(2), 2605-2618.
- 한인숙, 양혜정(2015). 부부갈등 및 부모 양육행동과 유아기 자녀 문제행동의 종단적 관계.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6(3), 287-317.
- 허묘연(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2(2), 170-189.
- 황성운(2014). 어머니 결혼 특성, 심리적 특성, 양육스타일이 유아기 자녀의 포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4(3), 355-378.
- Akaike, H. (1974). "A New Look at the Statistical Model Identification." *IEEE Transactions on Automatic Control*, 19(6), 716-723.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Asparouhov, T., & Muthén, B. (2014).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s using M 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1(3), 329-341.
- Berlin, K. S., Williams, N. A., & Parra, G. R. (2014). An introduction to latent variable mixture modeling (part 1): Overview and cross-sectional latent class and latent profile analyse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39(2), 174-187.

- Blair, C. (2010). Stress and the development of self-regulation in context.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4(3), 181-188.
- Braithwaite, S. R., Steele, E., Spjut, K., Dowdle, K. K., & Harper, J. (2015). Parent-child connectedness mediates the association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internalizing/externalizing outcome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4(12), 3690-3699.
- Bronfenbrenner, U. (1995). The bioecological model from a life course perspective: Reflections of a participant observer. In P. Moen, G. H. Elder Jr., & K. Lüscher (Eds.), *Examining lives in context: Perspectives on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pp. 599-61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acioppo, J. T., Berntson, G. G., Malarkey, W. B., KIECOLT-GLASER, J. K., Sheridan, J. F., Poehlmann, K. M., ... & Glaser, R. (1998). Autonomic, neuroendocrine, and immune responses to psychological stress: the reactivity hypothesis.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840(1), 664-673.
- Clark, S. L., & Muthén, B. (2009). Relating latent class analysis results to variables not included in the analysis.
- Clark, S.L. (2010). Mixture Modeling with Behavioral Data.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CA.
- Coln, K., Jordan, S., & Mercer, S. (2013). A unified model exploring parenting practices as mediators of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44(3), 419-429.
- Cox, M.J., Paley, B. (2003). Understanding families as system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2(5), 193-196. <http://doi.org/10.1111/1467-8721.01259>.
- Craft, A. L., Perry-Jenkins, M., & Newkirk, K. (2021). The Implications of Early Marital Conflict for Children's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30(1), 292-310.
- Davie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 Bulletin*, 116(3), 387-411.
- Erath, S. A., Bierman, K. L., & Conduct Problems Prevention Research Group. (2006). Aggressive marital conflict, maternal harsh punishment, and child aggressive-disruptive behavior: Evidence for direct and mediated relation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0(2), 217-226.
- Erel, O., & Burman, B. (1995). Interrelatedness of marital relations and parent-child relation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8(1), 108-132.
- Frison, E., & Eggermont, S. (2020). Toward an integrated and differential approach to the relationships between loneliness, different types of Facebook use, and adolescents' depressed mood. *Communication Research*, 47(5), 701-728.
- Giordano, C., Coco, G. L., Salerno, L., & Di Blasi, M. (2021). The role of emotion dysregulation in adolescents' problematic smartphone use: A study on adolescent/parents triad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15, 106632.
- Graham-Bermann, S. A., & Seng, J. (2005). Violence exposure and traumatic stress symptoms as additional predictors of health problems in high-risk children. *Journal of pediatrics*, 146(3), 349-354.
- Hanington, L., Heron, J., Stein, A., & Ramchandani, P. (2012). Parental depression and child outcomes-is marital conflict the missing link?.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8(4), 520-529.
- Hill, K. G., White, H. R., Chung, I. J., Hawkins, J. D., & Catalano, R. F. (2000). Early adult outcomes of adolescent binge drinking: person-and variable-centered analyses of binge drinking trajectori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6), 892-901.
- Hodel, A. S. (2018). Rapid infant prefrontal cortex development and sensitivity to early environmental experience. *Developmental Review*, 48, 113-144.

- Hosokawa, R., & Katsura, T. (2017). Marital relationship, parenting practices, and social skills development in preschool children.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and Mental Health*, 11(1), 1-8.
- Jung, T., & Wickrama, K. A. S.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302-317.
- Kessler, R. C., Andrews, G., Colpe, L. J., Hiripi, E., Mroczek, D. K., Normand, S. L., ... & Zaslavsky, A. M. (2002).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es and trends in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32(6), 959-976.
- Kim-Cohen, J., Moffitt, T. E., Taylor, A., Pawlby, S. J., & Caspi, A. (2005). Maternal depression and children's antisocial behavior: Nature and nurture effec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2(2), 173-181.
- Lange, N. E., Bunyavanich, S., Silberg, J. L., Canino, G., Rosner, B. A., & Celedón, J. C. (2011). Parental psychosocial stress and asthma morbidity in Puerto Rican twins. *Journal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127(3), 734-740.
- Laursen, B., & Hoff, E. (2006). Person-centered and variable-centered approaches to longitudinal data. *Merrill-Palmer Quarterly*, 52(3), 377-389.
- Li, C., Jiang, S., Fan, X., & Zhang, Q. (2020). Exploring the impact of marital relationship on the mental health of children: Does parent-child relationship matter?.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5(10-11), 1669-1680.
- Li, X., & Liu, Q. (2020). Parent-grandparent coparenting relationship, marital conflic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in Chinese parent-grandparent coparenting famili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09, 104733.
- Markman, H., Stanley, S., & Blumberg, S. (1994). Fighting for your marriage.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 Markman, H., Stanley, S., & Blumberg, S. (2001). Fighting for your marriage: Positive steps for preventing divorce and preserving a lasting love, New & Revis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 McCoy, K. P., George, M. R., Cummings, E. M., & Davies, P. T. (2013). Constructive and destructive marital conflict, parenting, and children's school and social adjustment. *Social Development*, 22(4), 641-662.
- McCullagh, P. (1980). Regression models for ordinal data.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B (Methodological)*, 42(2), 109-127.
- MCS (2008). MCS Child Paper Self Completion Questionnaire. <http://www.cls.ioe.ac.uk/page.aspx?&sitesectionid=957&sitesectiontitle=Surveys+and+documentation>.
- MCS (2012). MCS Child Paper Self Completion Questionnaire. https://cls.ucl.ac.uk/wp-content/uploads/2017/07/MCS5_MS_Child-Self-Completion-Questionnaire_CORE_ESNI_FINAL_PRINT.pdf 예서 2021년 7월20일 최종 인출
- Monk, C., Spicer, J., & Champagne, F. A. (2012). Linking prenatal maternal adversity to developmental outcomes in infants: The role of epigenetic pathway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4(4), 1361-1376.
- Muthén, L. K. & Muthén, B. O. (2010). Mplus User's Guide(6th ed.). Los Angeles, CA: Muthén & Muthén.
- Nooner, K. B., Litrownik, A. J., Thompson, R., Margolis, B., English, D. J., Knight, E. D., ... & Roesch, S. (2010). Youth self-report of physical and sexual abuse: A latent class analysis. *Child Abuse & Neglect*, 34(3), 146-154.
- Nord, M., & Hopwood, H. (2007). Recent advances provide improved tools for measuring children's food security. *Journal of Nutrition*, 137(3), 533-536.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én, B. O. (2007). Deciding on

-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4), 535-569.
- Pape, K., Cowell, W., Sejbaek, C. S., Andersson, N. W., Svanes, C., Kolstad, H. A., ... & Schlünssen, V. (2021).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asthma: trajectories in a national cohort. *Thorax*, 76(6), 547-553.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warz, G. (1978). Estimating the dimension of a model. *Annals of Statistics* 6(2), 461-464.
- Sclove, S. L. (1987). Application of model-selection criteria to some problems in multivariate analysis. *Psychometrika*, 52(3), 333-343.
- Stevic, A., & Matthes, J. (2021). A vicious circle between children's non-communicative smartphone use and loneliness: Parents cannot do much about it. *Telematics and Informatics*, 64, 101677.
- Suglia, S. F., Duarte, C. S., Sandel, M. T., & Wright, R. J. (2010). Social and environmental stressors in the home and childhood asthma.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64(7), 636-642. <https://doi.org/10.1136/jech.2008.082842>
- Volling, B. L., Gonzalez, R., Oh, W., Song, J-H., Yu, T., Rosenberg, L., Kuo, P. X. Thomason, E., Beyers-Carlson, E., Safyer, P., & Stevenson, M. M. (2017).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children's adjustment across the transition to siblinghood: Pre-birth predictors and sibling outcomes at one year.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82(3), 1-215.
- Warmuth, K.A., Cummings, E.M., & Davies, P.T. (2018). Child behavioral dysregulation as a mediator between destructive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symptoms of psychopathology.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7(6), 2004-2013.
- Wright, R. J., Cohen, R. T., & Cohen, S. (2005). The impact of stress

on the development and expression of atopy. *Current opinion in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5(1), 23-29.

Yang, X., Zhu, L., Chen, Q., Song, P., & Wang, Z. (2016). Parent marital conflict and internet addiction among Chinese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role of father-child, mother-child, and peer attachment. *Computers in Human Behavior*, 59, 221-229.

Zemp, M., Johnson, M. D., & Bodenmann, G. (2019). Out of balance? Positivity-negativity ratios in couples' interaction impact child 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55(1), 135-147.

【홈페이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13, (2022. 3. 15. 인출)

워드클라우드 <http://wordcloud.kr/>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5&tblId=DT_405001_I182&vw_cd=MT_ZTITLE&list_id=N1_34_001_002_002_003&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9364&pageFlag=&sitePage=1-2-1> (2022. 3. 15. 인출)

한국청소년패널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초4패널(2004-2008), 중2패널(2003-2008).

e-나라지표. (n.d.). 기준 중위소득 추이. https://www.index.go.kr/unity/potenti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2 (2022. 10. 13. 인출)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원시자료(12차년도_보호자용 설문지)
https://panel.kicce.re.kr/pskc/module/rawDataManage/index.do?menu_idx=56 (2022. 3. 15. 인출)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도구프로파일(부모_미디어중독)

https://panel.kicce.re.kr/pskc/board/view.do?menu_idx=42&board_idx=46412&manage_idx=161&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search_type=title&search_text=%EB%AF%B8%EB%94%94%EC%96%B4&rowCount=10&viewPage=1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도구프로파일(부모_부모감독)

https://panel.kicce.re.kr/pskc/board/view.do?menu_idx=42&board_idx=44639&manage_idx=161&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search_type=title&search_text=%EA%B0%90%EB%8F%85&rowCount=10&viewPage=1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도구프로파일(부모_부부갈등)

https://panel.kicce.re.kr/pskc/board/view.do?menu_idx=42&board_idx=44519&manage_idx=161&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search_type=title&search_text=%EB%B6%80%EB%B6%80%EA%B0%88%EB%93%B1&rowCount=10&viewPage=1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도구프로파일(부모_사회적 지원 정도)

https://panel.kicce.re.kr/pskc/board/view.do?menu_idx=42&board_idx=44520&manage_idx=161&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search_type=title&search_text=%EC%82%AC%ED%9A%8C%EC%A0%81&rowCount=10&viewPage=1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도구프로파일(부모_우울)

https://panel.kicce.re.kr/pskc/board/view.do?menu_idx=42&board_idx=44526&manage_idx=161&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search_type=title&search_text=%EC%9A%B0%EC%9A%B8&rowCount=10&viewPage=1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도구프로파일(부모_정서조절)

https://panel.kicce.re.kr/pskc/board/view.do?menu_idx=42&board_idx=46414&manage_idx=161&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search_type=title&search_text=%EC%A0%95%EC%84%9C%EC%A1%B0%EC%A0%88&rowCount=10&viewPage=1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도구프로파일(아동_공동체의식)

https://panel.kicce.re.kr/pskc/board/view.do?menu_idx=42&board_idx=44577&manage_idx=161&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search_type=title&search_text=%EA%B3%B5%EB%8F%99%EC%B2%B4&rowCount=10&viewPage=1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도구프로파일(아동_또래애착)

https://panel.kicce.re.kr/pskc/board/view.do?menu_idx=42&board_idx=44570&manage_idx=161&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search_type=title&search_text=%EB%98%90%EB%9E%98%EC%95%A0%EC%B0%A9&rowCount=10&viewPage=1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도구프로파일(아동_미디어기기 중독_부모진단)

https://panel.kicce.re.kr/pskc/board/view.do?menu_idx=42&board_idx=44571&manage_idx=161&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search_type=title&search_text=%EC%A4%91%EB%8F%85&rowCount=10&viewPage=1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도구프로파일(아동_사이버 비행)

https://panel.kicce.re.kr/pskc/board/view.do?menu_idx=42&board_idx=44578&manage_idx=161&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search_type=title&search_text=%EC%82%AC%EC%9D%B4%EB%B2%84&rowCount=10&viewPage=1

wPage=1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도구프로파일(아동_사이버폭력)

https://panel.kicce.re.kr/pskc/board/view.do?menu_idx=42&board_idx=44591&manage_idx=161&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search_type=title&search_text=%EC%82%AC%EC%9D%B4%EB%B2%84&rowCount=10&viewPage=1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도구프로파일(아동_삶의 만족도)

https://panel.kicce.re.kr/pskc/board/view.do?menu_idx=42&board_idx=44579&manage_idx=161&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search_type=title&search_text=%EB%A7%8C%EC%A1%B1%EB%8F%84&rowCount=10&viewPage=1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도구프로파일(아동_자아존중감_초등)

https://panel.kicce.re.kr/pskc/board/view.do?menu_idx=42&board_idx=44562&manage_idx=161&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search_type=title&search_text=%EC%9E%90%EC%95%84%EC%A1%B4%EC%A4%91%EA%B0%90&rowCount=10&viewPage=1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도구프로파일(아동_전반적 행복감)

https://panel.kicce.re.kr/pskc/board/view.do?menu_idx=42&board_idx=44848&manage_idx=161&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search_type=title&search_text=%ED%96%89%EB%B3%B5%EA%B0%90&rowCount=10&viewPage=1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도구프로파일(아동_학교적응_초1-4)

https://panel.kicce.re.kr/pskc/board/view.do?menu_idx=42&board_idx=44721&manage_idx=161&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

x=0&group_ord=0&viewMode=NORMAL&search_type=title&search_text=%EC%A0%81%EC%9D%91&rowCount=10&viewPage=1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도구프로파일(아동_학교적응_초5-6)

https://panel.kicce.re.kr/pskc/board/view.do?menu_idx=42&board_idx=44596&manage_idx=161&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search_type=title&search_text=%EC%A0%81%EC%9D%91&rowCount=10&viewPage=1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도구프로파일(아동_학업수행능력_초등)

https://panel.kicce.re.kr/pskc/board/view.do?menu_idx=42&board_idx=44564&manage_idx=161&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search_type=title&search_text=%ED%95%99%EC%97%85&rowCount=10&viewPage=1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도구프로파일(아동_학업스트레스)

https://panel.kicce.re.kr/pskc/board/view.do?menu_idx=42&board_idx=44582&manage_idx=161&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search_type=title&search_text=%EC%8A%A4%ED%8A%B8%EB%A0%88%EC%8A%A4&rowCount=10&viewPage=1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https://panel.kicce.re.kr/pskc/html.do?menu_idx=28 (2022. 5. 11. 인출)

【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0. 1. 3). 학교폭력! 유·초등학교 단계부터 조기에 방 강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10~2014)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2020. 9. 29).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추석 전 지급 완료.



Abstract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2008~2020)

Sook In Cho · Ji Hyun Kim · Sangin Lee · Keng-Hie Song
Hyosik Choi · Ju-Hyun Song · Jae-chul Kim · Hee Sue Kim

The purpose of this report was to examine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panel participant children for 13 years, an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future generations based on multiple analyses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data. The present study focused on five different areas: (1) Sample attrition in the panel data, (2) Child: children's media use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3) Parent: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4) Family: family risk factors and children's physical/mental health, and (5) Policy: the effect of policies regard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verall, PSKC data (Wave 1 through 13) were analyzed using the Growth Mixture Model to apply a person-centered approach (for chapters 3-6).

The first analysis (Chapter 2) examined the sample attrition in the PSKC data. We found that mothers had a greater influence on the sample attrition than fathers. The group who left the panel in infancy tended to have a lower income and education level, and a higher level of maternal depression. The group who left the panel during early childhood tended to report a relatively higher level of marital conflicts and have more relocating experiences. The group who left the panel at a school age was likely to report a higher level of parenting stress, daily stress and child problem behavior.

The second part of the study (Chapter 3) investigated the longitudinal

trajectories of children's media use and differences in socio-emotional development between latent groups. Growth Mixture Modeling analyses revealed two distinctive trajectories of children's media use: (1) High-stable, and (2) Middle-increasing groups. 'High-stable' group was more likely to be isolated from peers, exposed to cyber bullying, use slang, and have parents who are addicted to media. However, 'Middle-increasing' group reported higher levels of peer relationship quality, teacher-child relationship quality, and sense of community.

The third part of the study (Chapter 4) explored the longitudinal trajectories of marital conflict of both mothers and fathers, and differences in various aspects of child development among latent groups. Growth Mixture Modeling analyses revealed five distinctive trajectories of mothers' marital conflict: (1) Low-stable, (2) Lowest-stable, (3) High-stable, (4) Middle-increasing, and (5) Middle-decreasing groups. Latent groups of fathers' marital conflict were (1) Middle, (2) Lowest, and (3) Low groups. In general, 'Lowest-stable' group demonstrated higher levels of academic performance,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and school adjustment.

The fourth analysis (Chapter 5) was conducted to explain the longitudinal trajectories of maternal depression in infancy and preschool age and differences in children's physical and mental health among latent groups. Growth Mixture Modeling analyses revealed four distinctive trajectories of mothers' depression in both infancy and preschool age, respectively: (1) Low-stable, (2) High-decreasing, (3) High-stable, and (4) Low-increasing groups. Children of 'High-stable' group in infancy reported the highest levels of allergic symptoms in middle childhood. In terms of mental health, 'High-stable' group in preschool age demonstrated the lowest level of happiness in middle childhood.

The fifth part of the study (Chapter 6) explored the effectiveness of

four different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ies. Through the free child care policy, the maternal employment rate was increased and household child care expenses were reduced. Children in dual-income families were more likely to use the after-school childcare service in elementary schools, and children who used the service were more likely to spend less time and money on private education. Children who participated in the family experiential learning program showed higher levels of overall happiness and satisfaction with school/time use in the 5th grade. Children who completed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s reported lower levels of strict rules and more supportive atmosphere in the 4th grade, higher levels of friend support, fun class atmosphere, teacher support and free communication, and lower levels of cyber bullying in the 5th grade.

The results of the study emphasized the need for mental health support services for infant mothers, support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marital relationships in panel families, and media addiction prevention programs for both children and parents. Finally, several suggestions were made for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and the Korean ECEC Panel Study.

Keyword: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Sample attrition, Media use, Marital conflict, Child development, Maternal depression, Physical/mental health,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policies, Growth Mixture Model

한국아동패널 2008~2020
심층분석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